

第六篇 日帝強占期



朝陽會館

- 第1章 日帝植民支配와 大邱地域의 行政
- 第2章 大邱地域의 産業과 經濟
- 第3章 大邱地域의 獨立運動
- 第4章 大邱地域의 教育
- 第5章 大邱地域의 文化

第六篇 日帝强占期

第1章 日帝植民支配와 大邱地域의 行政

第1節 日帝 植民支配의 展開

I. 日帝의 政治的 侵略과 植民地化

大韓帝國을 가운데 놓고 가장 날카로운 대립을 하고 있던 나라는 러시아와 일본이었다. 러시아는 만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에 대하여도 강력한 침투를 해 오게 되었다. 러시아 세력의 침투에 가장 불안을 느낀 것은 일본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러시아와 실력으로 대항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타협적인 길을 통해서 경제적인 침투를 꾀하였고, 러시아도 만주 경영에 바빴기 때문에 일시적인 타협을 원하였다. 그리하여 노일 간에는 수차례 걸친 협상이 행해졌다. 그 결과 1898년 양국은 모두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鍊兵教官과 財政顧問의 파견은 서로 사전에 협의하며,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상업 및 공업상의 침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게 되었다. 이렇 즈음 1900년 청에서 義和團事件이 일어났다.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열국은 공동으로 출병하였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만주에 대군을 파견한 러시아는 만주를 영구히 점령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하여 일본은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1902년 英日同盟을 맺어 청에서의 영국의 이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조선에서의 일본의 권익을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러시아는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南進策을 계속해서 1903년에는 압록강 하류의 龍岩浦를 점령하고 그곳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더니 드디어 정식으로 조차를 요구하여 왔다. 이에 불안을 느낀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만주에서의 군대철수와 한국에서의 일본의 이권에 대해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만주에서의 철군을 거부하고 일본이 한국을 軍略上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에서의 정치적·경제적 우월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과 북위 39도 이북의 한반도를 러·일 간의 중립지역으로 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요구는 수차례의 협상을 거치면서도 타결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일본은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결정하고 1904년 2월 旅順에 대한 기습 공격을 단행함으로써 러시아와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¹⁾

대한제국정부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자 1904년 1월 局外中立을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서울로 침입하여 각종 건물을 점유하고 兵威를 떨쳤다. 그리고는 병력의 위협으로 韓日議定書를 1904년 2월에 성립시켰다. 이 의정서에는 일본의 施政 개선에 관한 충고를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제3국이나 내란에 의하여 한국 황제의 안녕 보전이 위험해질 경우에 일본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 목적을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의정서는 일본의 정치·군사적 간섭을 합리화한 것이었다.²⁾ 일본은 전쟁을 위한 필요에서 京義·京釜 두 철도를 착공하고, 통신망을 강점하였고, 한국의 해안과 하천의 항행권도 획득하였다.³⁾ 뿐만 아니라 토지의 강탈을 위한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 요구는 심한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되었다.⁴⁾

황무지 개척권을 포기한 일본은 그 대신에 일본인 고문관의 초빙을 강요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내정에 속속들이 간섭하려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04년 8월 체결된 것이 韓日協定書(제 1차 韓日協約)라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이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초빙하여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그 의견에 자문한 후에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초빙하며, 외국과의 조약체결이나 그 밖의 중요한 외교 안건은 사전에 일본과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소위 顧問政治가 시행된 것이다. 한국정치의 실권이 일본인 손으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또한 일본은 1905년 7월 미국과 태프트(Taft)·카스라(桂)密約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해주는 대가로 한국에 대한 지배를 인정받았고, 곧 이어 영국과 제 2차 영일동맹을 맺어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경제·군사상의 특수이익을 보장받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러

1) 金炳來, 〈러시아의 極東進出과 露日戰爭〉《軍史》8, 1984.

2) 崔永禧, 〈韓·日議定書에 關하여〉《史學研究》20, 1968.

金炅春, 〈韓日議定書 調印經緯와 日帝의 韓國侵略〉《南都詠華甲紀念史學論叢》, 1984.

3) 鄭在貞, 〈京釜鐵道の 敷設에 나타난 日本의 韓國侵略政策의 性格〉《韓國史研究》44, 1984.

4) 尹炳夷, 〈日本人의 荒蕪地開拓權 要求에 대하여〉《歷史學報》22, 1964.

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1905년 9월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 체결된 포츠머스講和條約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보다 확고히 해 주었다. 이 조약은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정치·군사·경제상의 특권을 러시아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더불어 旅順·大連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遼東半島의 租借權을 일본에 할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경쟁세력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보호국화하는데 있어서 미국·영국·러시아 등 열강의 승인까지 획득한 셈이었다.⁵⁾

일본은 이제 아무런 거리낌없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게 되었다. 여러 나라로부터 한국에 있어서의 특수이익을 인정받은 일본은 곧 한국을 그 보호국으로 만들려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一進會라는 친일단체를 조직케 하여 보호조약의 필요를 선전케 하였으며, 보호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일본은 정치계의 원로 이토오(伊藤博文)를 파견하였다. 이토오는 日兵을 거느리고 궁궐에 들어가서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일본측의 보호조약안을 승인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면서 가장 반대가 심하던 參政(首相) 韓圭晷을 일본 헌병이 회의실에서 끌어내고 말았다. 그 뒤에 일본 군인이 外部로 가서 外部大臣印을 가져다가 조약에 날인하여 버렸다. 말하자면 불법적인 절차를 밟아 조약을 성립시킨 것이었다. 이것이 1905년 11월에 체결된 韓日協約이란 것으로 보통 乙巳條約이라고 부르고 있다.⁶⁾

을사조약의 핵심적 내용은 일본이 한국의 外交權을 완전히 박탈하는 동시에, 한국의 외교를 관장하기 위해 황제 아래에 일본인 統監을 둔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버린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06년에 統監府가 설치되고 이토오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여 소위 통감정치가 시작되었다.⁷⁾ 이리하여 독립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는 말살되 다시피 하였으며 더구나 통감은 실제로 한국의 모든 내정을 관장하고 있었으니 한국의 주권은 실질상 빼앗긴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을사조약의 체결은 온 국민의 맹렬한 분격과 반대에 부딪혔다. 이 때 언론기관은 엄격한 일본의 검열에 의하여 그 보도와 주장이 통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선봉에 나서서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켰다. 이에 상소문과 연설이 끊이지 않았고, 시위가 행해지고 철시가 행해졌다. 한편 侍從武官 閔泳煥은 국민에게 고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5) 宋麟在, 〈韓半島를 圍繞한 列強間의 交涉關係(1885~1902)〉《省谷論叢》7, 1976.

鄭東貴, 〈20世紀 初頭에 있어서의 美國의 對韓政策과 韓國의 對應〉《韓國政治學報》16, 1982.

6) 李瑄根, 〈露日戰爭以後 日帝對韓侵略의 基本方向〉《史學研究》18, 1964. 이같이 한국의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오는 결국 1909년 安重根에 의해서 암살되고 말았다.

7) 姜昌錫, 〈統監府研究(II)〉《釜山史學》8, 1984.

뒤를 이어 趙秉世·洪萬植·宋秉璿 등 많은 분사자가 나왔다. 한편 무력으로 반항을 꾀하는 義兵이 각처에서 봉기하였다. 이러한 국민적 반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1907년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萬國平和會議가 열리게 되자 고종은 李相勳·李儁·李瑋鍾 등 3인을 파견하여 한국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케 하였다. 이 해아밀사사건은 일은 비록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국제적으로 일으킨 파문은 컸다.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지배의 강화를 꾀하려 하였다. 1907년 7월 먼저 고종으로 하여금 양위케 하고 순종을 황제로 즉위케 하였다. 이어 韓日新協約(丁未七條約)이 맺어지게 되었는데, 이로써 統監은 한국의 내정을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정식으로 가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일본은 고문을 없애고 대신 각 부의 차관 이하 다수의 일본인 관리를 임명하니 소위 次官政治가 실시된 것이다. 같은해 8월에 일본은 드디어 얼마남지 않은 한국의 군대를 아주 해산하여 버렸다. 이에 방위력없는 허수아비 나라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미 오래 전에 예정되었고 단지 그 시일의 결정만이 남아 있던 일제의 한국병합 계획은 드디어 실천의 날이 왔다. 1910년 5월 일본은 육군대신 테라우치(寺內正毅)를 새 통감으로 임명하였다. 이 새 통감에게 지워진 임무가 바로 합병의 실천이었다. 그는 부임하기 전 도쿄(東京)에서 경찰권을 위양받는 조약을 맺어가지고 한국으로 왔다. 그리고는 일헌병 2,000여 명을 증원시켜 경찰 임무를 담당시켰다. 그는 부임 즉시 皇城新聞, 大韓民報, 大韓每日新報 등 언론 매체를 정간시켜 국민의 눈을 가리우도록 하였다. 그런 후에 총리 李完用과 더불어 병합안을 꾸미어 8월 22일 드디어 조약에 조인하였다. 이완용은 앞서 노한 국민들로부터 그 집이 불타고 또 李在明의 습격을 받아 상처를 입기도 하였으나, 끝내 깨우침이 없이 매국의 원흉이 되었다. 조약안을 꾸미는 데 문제된 것은 皇族과 매국분자들의 신분보장에 관한 것 뿐이었다. 조약은 체결되었으나 국민의 여론이 두려워 감히 발표를 못했다. 그들은 애국단체를 해산시키며 애국지사를 무단히 검거하는 등 발표를 위한 사전 태세를 갖추고 드디어 8월 29일 순종으로 하여금 讓國의 詔書를 내리게 하였다. 이에 몇몇 매국분자들에 의하여 민족은 일본의 가혹한 식민통치 밑에 놓이게 되었다.

일제의 침략에 의한 국권의 박탈은 한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이로써 한국민은 나라를 잃고 일제의 식민통치 속에서 온갖 고통을 겪어야 하였을 뿐 아니라, 민족사의 일시적인 단절을 초래하여 빛나는 전통문화의 발전이 저지되고 말았다. 조약의 서문에는 양국의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한국의 우방이 아니라 적국이었다. 또 일본은 한국인을 희생시키고 일본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을 병합한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한국병합은 장차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을 침략하는 기지를 제공케 하였고, 때문에 동양의 평화는 더욱 교란되었다.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자 일본은 한국에 統監府 대신 總督府를 설치하여 통치하였다. 총독은 陸海軍大將 중에서 임명되었고, 한국에서의 立法·司法·行政權 및 軍隊統帥權을 한 손에 쥐고 있었다. 총독 아래에는 행정을 담당한 政務總監과 치안을 담당한 警務總監이 있었는데, 정무총감이 제 2인자였으나 실권은 오히려 憲兵警察의 지휘자인 경무총감에게 더 많았다.

총독부의 관리는 거의 일본인으로 충당되었고, 하급기관에는 간혹 한국인이 기용되기도 하였지만 일본인과의 차별이 심하였다. 또한 총독부의 자문기관으로 한국인으로 구성된 中樞院을 두어 식민지통치에 한국인이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명분을 삼았지만, 실제로는 대한제국 때의 皇族과 高官들을 예우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였다.

중추원의 구성은 정무총감을 의장으로 하고 약간의 顧問과 參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친일 인사들이었으며, 의장의 허가없이 발언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나마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10년 동안 한차례의 회의도 소집되지 않고 있었다. 총독부의 한국지배방식은 武斷統治라고 불리워지듯이 매우 강압적인 것이었다. 초대 총독인 테라우치는 질서 유지를 내세워 憲兵警察制度를 실시하였다. 이에 전국에 2만의 헌병과, 또 무뢰한들로서 구성된 2만의 헌병보조원이 배치되었다. 이를 지휘하는 중앙의 警務總監에는 朝鮮駐劄日本 憲兵司令官을 임명하고, 그 밑의 各道警務部에는 각 도의 헌병대장을 경무부장에 임명하였으며, 다시 경무부장 아래에는 경찰서와 헌병분대를 함께 두었다.⁸⁾

이러한 헌병경찰 조직에 의하여 한민족의 민족운동은 탄압당하였으며, 각지에서 많은 민족지도자들이 색출·검거당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하찮은 언동도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1912년에는 5만명 이상, 1918년에는 14만명 이상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이 검거되었다. 또 민족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모든 신문을 폐간하여 언론기관을 봉쇄하였다. 일본은 한국인을 위압하기 위하여 일반 관리나 교원에게까지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국인의 모든 정치적 활동도 금지될 수 밖에 없었다. 정치에 관한 집회나 옥외의 다중집회를 금지하는 集會取締令을 비롯한 많은 사상 관계의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와

8) 金龍德, 〈憲兵警察制度의 成立〉《金載元華甲紀念論叢》, 1969.

李延靄, 〈日帝의 憲兵警察小考〉《李瑄根古稀紀念論文集》, 1974.

같은 탄압 때문에 많은 민족지도자들은 해외로 망명하여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의병운동도 1915년까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다가 만주·연해주 등지로 그 활동 무대를 옮겨가게 되었다.

1910년을 전후하여 조선총독부는 貨幣改革, 식민지적 財政制度 및 專賣制度 수립, 地稅令·市街地稅令, 土地調査 등 식민지 경제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그 가운데 한국 농민을 가장 어렵게 한 것은 土地調査事業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일제의 토지약탈이었다. 1910년부터 1918년에 걸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합법을 가장한 한국토지의 강탈작업이었다.⁹⁾ 1910년 토지조사국이 설치되고, 1912년 토지조사령이 발표되었다. 이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일정기간 안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소유지를 신고하면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고, 전통적인 토지경작 관례에 따라 이를 경작·관리하여 소유권이 분명치 않았으며, 또한 洞中·門中の 共有的 성격을 가진 토지가 많았으므로 이를 개인의 소유지로 신고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이 밖에 농민들에게 토지 신고의 사실이 철저하게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짧은 신고기간과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특히 일제의 시책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민족감정 등으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종래 公田이었던 驛屯土와 宮庄土 및 山林·草原·荒蕪地, 그리고 동중·문중의 공유지는 물론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농토가 國有地라는 명목으로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東洋拓殖會社를 비롯한 일본인의 토지회사나 개인에게 헐값으로 불하되었다. 이렇게 해서 1930년까지 총독부가 소유한 토지는 전국토의 40%에 해당하는 광대한 것이었으니, 결국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미명은 총독부의 토지수탈을 위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일제의 이러한 토지수탈에 따라 많은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유랑민이 되어갔으며, 이러한 유희 이동인구는 공업에 있어서 식민지적 초과이윤의 경제적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1910년 12월에는 會社令의 공포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억제되고, 민족자본의 성장은 억압당하였다.¹⁰⁾ 한국에 대한 면포·면사와 일용잡화의 수출이 강화됨으로써 한국의 시장은 위축되었으며, 급기야 한국은 일본에 의해 식량과 원료의 강탈장으로 변모되어 갔다.

9) 愼鏞廈, 《朝鮮土地調査事業研究》, 韓國研究院, 1979.

10) 孫禎睦, 〈會社令研究〉《韓國史研究》45, 1984.

II. 日帝 植民政策의 變化와 그 樣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10년대가 일제에 의한 식민지 통치의 기반이 확립된 시기였다면, 1920년대는 이를 바탕으로 한 식민지 약탈이 더욱 강화된 시기였다. 1919년 3·1운동은 일본으로 하여금 형식적이거나 그들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것은 한국 국민이 일본의 식민정책에 기꺼이 따르고 있다고 선전하던 일본의 주장이 전혀 거짓임이 밝혀졌고, 따라서 세계의 여론이 극히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은 憲兵警察政治를 버리고 소위 文化政治를 실시한다고 하여 그들의 식민정책의 일부를 수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식민지 지배정책의 기본적인 변경이 아니라 기만적인 우회전술에 불과한 것이었다.¹¹⁾ 새 총독 사이토(齋藤實)의 부임과 함께 표방된 소위 문화정치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선 지금까지 육해군대장이 임명되어 오던 총독에는 文官도 임명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헌병경찰제도 대신에 普通警察制度를 채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육을 보급시켜 일본인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언론의 통제를 완화하여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글로 된 신문의 간행을 허락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와 꼭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달리한 것뿐으로 기만에 가득찬 것이었다. 우선 일본은 1945년 한국에서 축출될 때까지 단 한명의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한 일이 없었다. 또 비록 보통경찰제도가 되었으나 반면에 경찰기관은 오히려 확대되었고, 따라서 경찰인원도 증가하였다. 1918년에는 헌병을 포함한 경찰의 수가 14,358명이었는데, 1930년에는 18,811명으로 되었다. 한편 감옥은 증설되고 사상범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선전하는 교육의 보급은 겉치레뿐이었고, 그 차별교육은 여전히 심하였다. 또 東亞日報·朝鮮日報·時代日報 등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글로 된 신문이 창간되었으나, 이것은 한국인의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검열은 엄격하였고, 삭제·압수·벌금·정간·폐간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¹²⁾ 결국 일본이 표방한 소위 문화정치란 세계의 여론에 눌러서 시행된 기만적인 표면적 완화 조치에 불과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은 경제적 수탈이었다. 즉 일제는 한국의 경제를 완전히 일본 경제에 예속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11) 姜東鎭, 〈文化主義의 基本 성격〉《韓國社會研究》2, 한길사, 1984.

韓培浩, 〈三·一運動 直後の 朝鮮 植民地政策〉《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正音社, 1985.

12) 金根洙, 〈日帝下 言論彈壓의 實態〉《韓國學》26, 中央大, 1982.

이러한 경제정책은 1920년대에 들어오면 한국으로부터 식량, 특히 쌀을 대규모로 약탈해가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 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독점자본이 급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농촌의 희생이 강요되어 쌀값이 폭등하고 쌀 소동이 일어나는 등 식량문제가 주요한 정치·사회문제로 대두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이미 개항 이후 한국을 식량공급지로 삼아왔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쌀을 약탈하기 위해서 1918년에 완료된 토지조사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소위 産米増殖計劃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예정대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1926년에는 목표가 축소 조정되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당시 전세계적으로 파급되었던 경제공황의 여파로 일본에 농업공황이 일어나자 아예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제가 본래 의도했던 쌀의 수출은 예정대로 이루어졌다. 결국 일제는 쌀을 증산한다는 명분아래 산미증식계획을 시행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의 쌀을 증산량에 관계없이 수탈하여 일본으로 가져갔던 것이다.¹³⁾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한국의 농민이었다. 그들은 쌀을 증산하고도 그 증산량 이상으로 빼앗기게 되어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일제는 한국에서의 식량 부족을 메우기 위해 만주로부터 조·수수·콩 등의 잡곡을 들여와 쌀을 대신하게 하였으니, 한국의 농민들은 쌀을 빼앗기고 잡곡을 먹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기업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이미 1910년대부터 이루어졌지만, 1920년대에 들어오면 일본의 독점자본이 한국에 본격적인 자본투자를 시작하였다. 우선 일제는 1920년 한국에 있는 일본의 영세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하였던 회사령을 폐지하였다. 이는 일본의 독점자본이 한국에 침입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회사령의 보호가 필요없었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설립이 종래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으니, 이는 전적으로 일본인에게만 유리한 것이었다. 이후 일본인 자본의 투자가 증대하였고, 특히 일본 독점재벌들의 진출이 활발하였다. 이제 한국은 일본 자본주의의 상품시장만이 아니라 자본투자시장으로 되어갔던 것이다.¹⁴⁾

일본인의 자본투자는 점차 경공업에서 중공업 분야로 옮겨졌다. 특히 1927년 興南에 朝鮮窒素肥料工場이 세워지면서부터는 중공업에의 투자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1930년대에는 일본이 만주와 중국을 침략함에 따라, 한국은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兵站基地가

13) 鄭德基, 〈日帝下の 韓國米穀收奪 研究要説〉《慶熙史學》9·10합, 1982.

河合和男, 《朝鮮における産米増殖計劃》, 未來社, 1986.

14) 安秉直, 〈植民地下의 朝鮮國際收支와 資本輸出入〉《經濟論集》6~4, 7~2, 서울대, 1967·1968.

되어 자연히 중공업투자가 훨씬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일제의 공업진흥정책은 필연적으로 지하자원의 개발과 약탈을 초래하였다. 1930년 이후에는 한국의 광업이 군수공업에 종속되면서 생산량이 격증하였는데, 그 중심을 이룬 것은 金鑛業이었다. 그러다가 1941년에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금보다는 직접 군수공업의 원료가 되는 철·석탄·중석 등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¹⁵⁾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공황의 여파로 궁지에 몰린 일본의 자본주의는 그 활로를 찾기 위해 대륙침략을 감행하였다. 즉 일제는 1931년에 滿洲事變을 일으켜 대륙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어서 1937년에는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을 개시하고, 1941년에는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여 침략전쟁을 확대시켰다.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총동원을 실시하고 일본 자체에서도 여러가지 비상조치가 취해졌지만, 식민지 한국에서 더욱 심했던 것은 물론이다. 일본은 또 이 시기에 소위 ‘內鮮一體’라는 표어를 내걸고 철저한 민족 말살정책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우선 모든 민족적인 문화활동을 금지하였다. 동아일보·조선일보 등의 한글로 발행되는 신문과 ‘文章’ 등의 한글로 된 잡지가 모두 폐간되었다. 朝鮮語學會의 간부들은 민족운동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검거되었다. 이때 문학가들은 일본어로 작품을 쓰도록 강요되었다. 심지어 학교나 가정에서도 일본어를 상용하도록 강요되었다.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사의 연구도 위협시되었다. 그리고 神社參拜가 강요되었으며, 드디어는 創氏라 하여 성명조차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되었다. 요컨대 일본은 한국민족이라는 의식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한국민족의 존재를 지구 위에서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식량·원료 및 노동력의 강제적인 동원이 실시되었다. 쌀이 강제로 공출되었고, 각종 금속기가 강제로 헌납되었다. 또 전선의 확대에 따르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인적 동원이 강요되었다. 많은 한국인들이 탄광·군수공장·일선기지로 징용되어 강제노동에 종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연행된 수만 하더라도 70만을 넘었다. 심지어 처녀들이挺身隊라는 명목으로 동원되어 일선에서 위안부 노릇을 하도록 강요되기도 하였다. 또 군대에도 동원되었다. 처음은 志願兵 제도를 실시하여 군대에 지원할 것이 강권되었고, 學兵이라 하여 대학생들이 강제로 동원되더니, 뒤에는 徵兵制度가 실시되었다.¹⁶⁾ 그 동안

15) 韓昌浩, 〈日帝下の 韓國鑛工業에 관한 研究〉《日帝의 經濟侵略史》2, 고려대, 1971.

16) 趙東杰, 《日帝下 韓國農民運動史》, 한길사, 1979.

林鍾國, 《日本軍의 朝鮮侵略史(II)》, 일월서각, 1988.

많은 희생자가 난 것은 물론이었다.

III. 農民·勞動者의 狀態

일본은 소위 土地調査事業을 한국에 있어서의 토지소유의 근대화작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의 토지약탈이었음은 물론이다. 이로 인하여 일본인 大地主가 증가하였고, 한편 지난 날의 양반 地主들도 과거의 특권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러나 경작자인 많은 농민은 零細小作農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¹⁷⁾ 그들은 이제 계약에 의한 소작인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 토지소유권으로 성장해가던 경작권을 빼앗기는 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또 自作農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적은 농토밖에 소유하지 못하는 영세농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전락한 영세농민들의 생활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농가의 반 이상은 매년 빚을 저야만 살아갈 수 있었고, 가난한 농민들은 식량이 부족하면 풀뿌리나 나무껍질을 벗겨 먹어야 했다. 일제의 식민정책 밑에서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자작농과 자작점소작농은 소작농으로 몰락하여 그 수가 부쩍 늘게 되었고, 일본인 지주는 늘어갔다.

소작농이 지주에게 내는 소작료는 생산량의 2분의 1이 평균으로 되어 있었다. 게다가 소작농들은 비료대·수리조합세·곡물운반비·지세 등을 부담하였고, 또 지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농민의 생활이 점점 곤란하여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리하여 火田民이 격증하여 갔다.¹⁸⁾ 또 만주나 일본으로 이민하는 사람의 수도 해를 따라 증가하였다.¹⁹⁾ 만주에 가서 농업을 하거나 일본에 가서 노동을 하거나간에 그들의 생활은 한결같이 비참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과의 알력으로 인하여 만주에서는 萬寶山事件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졌고, 이러한 사건은 일본의 중국침략에 악용되었다.²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농민들의 小作爭議도 점점 활발해졌다. 특히 小作人組合·農民組合·

17) 金容燮, 〈韓末·日帝下の 地主制〉《東亞文化》11, 1972, 《韓國史研究》8, 1972, 《震檀學報》42, 1976, 《韓國史研究》19, 1978.

崔在錫, 〈日帝下の 地主小作關係〉《史叢》17·18합, 1973.

홍성찬, 〈韓末·日帝下の 地主制研究〉《韓國史研究》33, 1981.

18) 姜萬吉, 《日帝時代 貧民生活史研究》, 創作과 批評社, 1987.

19) 朴永錫, 〈日帝下 滿洲移民問題〉《韓民族獨立運動史研究》, 1982.

이형찬, 〈1920~1930년대 한국인의 만주이민 연구〉《한국사연구회논문집》12, 1988.

20) 朴永錫, 《萬寶山事件研究》, 一潮閣, 1978.

農友會 등의 소작인 단체가 조직되면서 더욱 심하여졌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농민들은 가난에 시달릴 뿐 아니라, 또 지주로부터 소작권이 박탈될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항거가 소작쟁의로서 나타났다. 그리하여 1922년에는 겨우 24건이던 소작쟁의가, 1925년에는 204건, 1930년에는 726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소작쟁의의 원인으로는 소작권 이동에 대한 반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많은 것은 소작료를 낮추자는 요구였다. 이 밖에 地租 및 水利組合費 등 공과금에 대한 지주 부담 요구 등도 원인이 되었다. 일본의 농업정책이 한국 농민에게 해를 끼쳐 주고 있던 점들은 이 소작쟁의의 원인에서도 엿볼 수 있다.²¹⁾

더구나 1930년대에 들어오면 한국은 일제의 공황 타개를 위한 수탈기지와 대륙침략의 후방 병참기지로 재편성되기 시작하였다. 1931년 滿洲事變이 일어나자 한국은 일본의 공황 해결과 전쟁 수행의 이중부담을 동시에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재정적·인적·물적 자원을 조달해주는 병참기지가 되었고, 한국인은 만주로부터 조·콩·옥수수 등을 수입하여 연명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거기다가 미국의 상품화를 기한다는 미명하에 총독부는 1932년 조선곡물검사령을 제정하여 곡물검사소의 검사없이 수출 또는 수입될 수 없도록 규제하였고, 1935년에는 미국에 대한 강제 검사를 실시하기까지 하였다. 그 결과 1930년에 726건이던 소작쟁의가 1935년에는 1,975건으로 격증하였고, 항일 의식과 농민의 요구를 수렴한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²²⁾

위와 같이 확산되는 소작쟁의는 일제 총독정치에 큰 위협을 주었다. 이에 일제는 소위 農村振興運動을 일으켰다. 1933년에 시작된 이 운동은 自力更生에 의하여 춘궁을 퇴치하고 부채를 근절하여 농가의 경제를 갱신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를 위하여 농가의 식량증산과 부업이 장려되었다. 그러나 위낙 적은 농지를 소작하는 영세농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결국 농민의 반항운동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려는 일본의 정책적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곧 만주사변에 즈음하여 한국을 충실한 대륙병참기지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계획된 농촌진흥책이었던 것이다.

한편 鑛工業의 발전에 따라 노동자의 수도 해를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즉 만주사변이

21) 李如星·金世鎔, 《數字朝鮮研究》 4, 世光社, 1933.

趙東杰, 《日帝下 韓國農民運動史》, 한길사, 1979.

22) 朱奉圭, 〈日帝下 農民運動展開에 관한 研究〉 《經濟論集》 23~1, 1984.

지수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역사비평사, 1993.

일어나던 1931년에는 공장노동자와 광산노동자가 각기 11만과 4만에 못미치던 것이, 중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해인 1936년에는 각기 19만과 14만에 육박하였으며, 미일전쟁이 일어난 1942년에는 각기 52만과 22만을 넘고 있었다. 여기에 자유노동자를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에게는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었다. 장시간노동을 한다고 임금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에 불과 하였다. 일제의 산업약탈은 한국인 노동자의 혹사 위에서 실시된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 밑에서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도 만족스러울 수 없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재해와 질병으로 고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생활이 비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나마 일을 얻지 못한 실업자도 상당한 수에 달하였다.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라고 일본의 대기업들이 진출하여 광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쟁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즉 1912년에는 6건이었던 것이, 1921년에는 36건, 1926년에는 81건, 1931년에는 201건으로 격증하였다.²³⁾ 이러한 노동쟁의는 1920년에 朝鮮勞動共濟會, 1922년에 그 후신인 朝鮮勞動聯盟會가 조직되면서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²⁴⁾ 그 예로는 1921년 釜山 埠頭勞動者의 파업, 1923년 서울 고무女工들의 파업 등을 들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29년 元山 노동자의 총파업이었다.²⁵⁾ 이 파업은 결국 타협으로 매듭지어졌으나, 노동쟁의가 민족운동과 연결되는 양상을 뚜렷이 나타내 주었다. 노동쟁의는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았으나, 뒤로 가면서는 점점 단체교섭권의 부여, 8시간 노동제의 실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다.²⁶⁾ 그리고 항일민족운동의 일부로서 점점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갔다. 그런 만큼 일제는 이에 대하여 탄압정책으로 일관하였다. 1930년대에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강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하여졌다.

23) 李如星·金世鎔, 《數字朝鮮研究》 4, 世光社, 1933.

金潤煥, 〈農民運動과 勞動運動〉 《한국사》 22, 1976.

24) 愼鏞廈, 〈朝鮮勞動共濟會의 창립과 勞動運動〉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 1986.

25) 姜東鎭, 〈元山總罷業에 대한 考察〉 《學術誌》 12, 1971.

26) 金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 비평사, 1992.

第2節 大邱의 行政區域 改編과 行政機構

I. 行政區域의 改編

朝鮮後期篇에 이미 서술된 바와 같이 1895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전국이 23府로 개편됨으로써, 대구는 23부 중의 하나로 예하에 23개군을 관할하는 중심지로 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얼마 시행되지 못하고 다음해인 1896년 6월에는 다시 전국이 13도로 재편성되었다. 이때의 13도체제는 현재와 거의 흡사한데, 대구는 경상북도의 소재지로서 도의 장관인 관찰사가 留駐하는 곳이었다.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어진 41개군이었으며, 대구군은 경상북도 41군 중 2등급의 군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대구군수는 경상북도 관찰사의 관할하에 관내의 행정사무를 집행하였으며, 특히 관찰사의 부재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제도는 이후 십여년간 시행되었다.

그후 1905년 11월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성립된 직후 乙巳條約이 강압적으로 체결되자 일본의 침략정치는 점차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즉 같은 해 12월에 統監府 및 理事廳官制가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다음해인 1906년 2월부터 통감부는 경성에서 첫사무를 보게 되었고, 같은 해 8월에는 13개 주요 도시에 이사청을 두어 각 이사청으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을 관장하게 하였다.²⁷⁾ 이는 통감부를 중심으로 하여 지방 이사청과의 긴밀한 연락하에 제국주의적 정책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사청이 설치된 13개 도시는 경성·인천·부산·대구·마산·군산·목포·평양·진남포·신의주·원산·성진·청진이었다.

1910년 8월 일제의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 한일합방이 단행되자, 일제 식민통치의 권부인 朝鮮總督府가 설치되었다. 같은 해 9월 朝鮮總督府官制 및 朝鮮總督府 地方官制가 공포되어 10월부터 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식민통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지방행정제도가 일방적으로 개정되었으니, 감영제가 폐지되었고 경찰행정권이 강화되었으며 새로운 부서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침략에 항거하는 민심의 동요나 부작용을 우려한

27) 友邦協會, 《統監府時代の財政》, 1974, pp. 70~71. 당시 대구이사청의 관할구역은 경상북도 중 연해안을 제외한 지역, 충청북도 동남부 일대의 지역, 강원도 남부 일대의 지역이었다.

나머지 관청의 소재지나 종래 시행되어온 道·郡·面의 행정구역과 그 호칭은 계승되었다.²⁸⁾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은 구 경상북도 그대로의 구역으로 되었고, 도청의 소재지도 종전대로 대구에 두어졌다. 다만 경상북도 대구군은 경성·인천·군산·목포·부산·마산·평양·진남포·신의주·원산·청진 등과 함께 府로 개칭되었다. 당시 대구부의 행정구역은 종래 대구군의 관할구역과 동일하였다. 대구부는 29面 260洞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 上 面；華田洞 後洞 前洞 南一洞 射一洞 射二洞 南城洞 新洞 龍德里 七星里 新上洞 新中洞 新下洞 駕
岩洞
西 上 面；南一洞 南中洞 南下洞 刷還洞 西内洞 北内洞 南山洞 南外洞 桂山洞 東山洞 前洞 後洞 新洞 達
城洞
東 中 面；山格洞 玉山洞 新基洞 砧山洞 伏賢洞 檢丹洞
東 下 面；東邊洞 西邊洞 李谷洞 研經洞 道德洞
解西村面；上里洞 德山洞 道成洞 松亭洞 宅里 大渠洞 中里 新川洞 龍津洞 智妙洞 芝山洞 研經洞
解北村面；内洞 玉井洞 美垈洞 九岩洞 局谷洞 新基洞 武山洞 水臺洞 龍川洞 上中心洞 示谷洞 荏田洞 百安洞
木果洞 外鶴洞 内鶴洞 道藏洞 眞亭洞 良方洞 唐洞 仁山洞 龍成洞 坪里 北廣洞 南廣洞
解西部面；鳳舞洞 獨岩洞 外南洞 丹山洞 道洞 九成洞 不老洞 縣上洞 上香洞 下香洞 枝底洞 道新洞 立石洞
解東村面；七洞 上洞 臺岩洞 連川洞 屯山洞 九明洞 月川洞 釜洞 格陽洞 坪里 新德洞 芳村 檢沙洞
守 北 面；泛魚洞 小溪洞 黃青洞 支界洞 晚村洞 檢汀洞 孝睦洞
守 東 面；斗山洞 池山洞 凡勿里
守縣内面；上洞 中洞 下洞 新洞
下守南面；興德洞 退溪洞 薪田洞 杏亭洞 錢平洞 昌山洞 朴谷洞 上院洞 丹山洞 大逸洞 中村 上村 冷泉洞
大川洞
上守南面；内蛛洞 外蛛洞 下蛛洞 上白洞 下白洞 友鹿洞 鹿門洞 金洞 玉盆洞 丹陽洞
上守西面；亭垈洞 大岩洞 梅溪洞 陽梧洞 陰梧洞 龍溪洞 巴南洞 巴北洞 鳳山洞 德山洞 大明洞 檢岩洞
西 中 面；院垈洞 龍川洞 助也洞 魯谷洞 傳岩洞 外飛洞 内飛洞 坪里
達 西 面；上里 掛洞 梨峴洞 中里 新基洞 内唐洞 外唐洞 甘三洞 聖堂洞
城 西 面；巴山洞 巴湖洞 琴回洞 新塘洞 栗堤洞 梨谷洞 狐林洞 龍上洞 龍下洞 竹田洞

28) 이하 대구의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기구에 관한 서술 중 별도로 전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다음의 기준성
과를 참고하였다.

大邱府, 《大邱府史》府政編, 1943.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제2권, 1973.

河 東 面; 伊川洞 達川洞 朴谷洞 防川洞 鋤齊洞 內村 世川洞
 河 北 面; 琴川洞 縣內洞 鎌洞 武等洞 聖堂洞 豆川洞 池山洞 大坪洞 基谷洞
 河 西 面; 甘文洞 友睦洞 桐谷洞 鳳村 霞山洞 赤山洞 城谷洞 妙洞
 河 南 面; 汶山洞 汶陽洞 西部谷洞 釜谷洞 竹谷洞 江亭洞 梅谷洞
 甘勿川面; 葛山洞 望亭洞 壯洞 長基洞 甘泉洞 本里 鵲村 松峴洞
 祖 岩 面; 上洞 下洞 大泉洞
 月 背 面; 上仁洞 蔡亭洞 本里 遠德洞 桃源洞 五福洞 辰泉洞
 仁 興 面; 本里 雙鶴洞 松亭洞 大谷洞 上里
 花縣內面; 川內洞 縣內洞 新基洞 富珍洞 外村 九羅洞 桷谷洞 縣基洞 城山洞 鼠村 舌花洞
 玉 浦 面; 干京洞 本里洞 大防洞
 法 花 面; 新塘洞 橋項洞 本里 時杵洞 江林洞
 省平谷面; 晚村洞 金興洞 晚壽洞 奇世洞 元田洞 盤松洞 岐山洞 能田洞

얼마 뒤인 1911년 11월에는 東上面과 西上面이 폐지되고, 새로 大邱面이 설치되는 한편, 이 면에는 일본식 洞名이 사용되었다. 이리하여 대구부는 영역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었으나 29개 면에서 28개면을 관할하에 두게 되었다. 대구면 소재 동의 일본식 洞名으로의 개칭은 1905년 통감부 설치 이래 대구이사청과 일본인 거류민단 등에 의해 책동되어 오던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里洞名이 무시되고 通·町·丁目 따위와 같은 일본식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더구나 동명 개정에 있어서 明治町이나 大和町과 같이 그네들의 군주나 정신에서 따온 명사가 그대로 사용되는 파렴치가 자행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식민지 침략 근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다.

그후 1914년 3월에는 새로운 府制가 실시됨으로써 그 행정구역은 극도로 축소되었다. 이는 당시의 빈약한 일제의 재정으로는 광역의 도시를 지탱해가기가 힘들었으므로, 수탈의 거점인 축소된 일본인 중심의 시가지를 마련하여 여기에 집중적으로 도시 시설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대구부가 관할하게 된 지역은 대구면 즉 이전의 東上面과 西上面에 해당하는 구역에 불과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오늘날의 大邱直轄市 中區 대부분에 七星洞을 포함하는 소규모로 축소된 셈이다. 인구도 7,920호에 31,949인으로 극도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축소되기 전 구 대구부의 관할하에 있었던 28개면중 대구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설된 達城郡의 관할하에 두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대구지역의 상황은 1938년에 이르기까지 약 24년정도 지속되었다. 다만 1917년 4월에 달성군 壽城面 鳳德洞의 일부와 大明洞의 일부가 大鳳洞이 되어 대구부에 편입된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1938년 10월에 이르러 대구부의 행정구역은 크게 확장되었다. 이때 대구부의

영역이 확장하게 된 데는 다음의 몇가지 이유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해를 거둬할수록 대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가 증가하여 이들 중에는 지가가 높은 도심지를 피하여 부외지역에 정착하는 자가 많았는데, 이들을 府内 거주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농촌으로부터 대구 근교에 유입하는 한국인의 수도 격증하여 세원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兵舍·學校 등 넓은 부지를 요하는 공공시설을 부외에 건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넷째, 이무렵의 부재정이 수탈체제의 확립으로 다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다가 이즈음에 이르러 총독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도시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법령이 완성되었고, 이 법령에 합치되는 대구부의 시가지 계획이 완성됨에 따라 마침내 부 행정구역의 확장은 실현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일제에 의해 행해진 행정구역의 축소나 확장은 일본인들의 利害消長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38년에 새로 편입된 지역은 城北面의 4개동, 達西面의 10개동과 壽城面 전체 14개동으로서 구 대구부의 총면적 9,269,486㎡(2,803,176평)에다 신편입구역 106,413,010㎡(32,180,251평)을 합하면 115,682,496㎡에 달하며, 인구는 1936년말 구 대구부 인구 108,669인에 신편입구역의 인구 59,794인을 합하면 168,463인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1938년 大邱府域의 확장은 구 대구부역의 약 11배가 넘는 면적이 편입된 셈이며, 대구부는 종래 53町의 관할에서 53町 28洞을 관할하에 두게 되었다.²⁹⁾ 편입된 인접지역 3면 28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城北面; 砧山洞 山格洞 伏賢洞 檢丹洞 (이상 4개동)

達西面; 院垵洞 飛山洞 梨峴洞 上里洞 助也洞 魯谷洞 坪里洞 中里洞 内唐洞 聖堂洞 (이상 10개동)

壽城面; 中洞 下洞 新川洞 新岩洞 孝睦洞 晩村洞 泛魚洞 黃靑洞 池山洞 凡勿洞 斗山洞 上洞 鳳德洞 大明洞 (이상 14개동)

부역확장 이전 대구부의 면적은 그다지 광대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府本廳만으로 충분히 그 소관사무를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府勢 확장에 따른 지역의 확대와 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효율적인 행정기능의 수행을 위한 부출장소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새로이 편입된 지역에는 3개 출장소를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 즉 종래 수성면에 속하였던 14개동은 대구부 동부출장소, 달서면에 속하였던 10개동은 서부출장소, 그리고 성북면에

29) 1914년 3월 부제 실시 당시 대구부의 행정구역은 52정으로 확정되었으나 1917년 4월에 달성군 수성면 봉덕동과 대명동의 일부가 부역에 편입되어 1정이 증가된 53정이 되었다.

속하였던 4개동은 북부출장소의 관할하에 두도록 하였다.

II. 行政機構와 事務分掌

앞의 조선후기편에 이미 서술된 바와 같이 1895년 지방제도의 개편시 전국의 8道を 폐지하고 23府로 개편하고, 府 밑의 행정단위는 郡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지방행정체계를 간소화하였다. 그러다가 일년만인 1896년 6월에는 지방제도가 다시 개정되어 23府는 폐지되고 道制가 부활하였다. 종래의 8道에서 늘어난 당시의 13道는 濟州道를 제외한 오늘날의 행정구역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그중 慶尙北道의 관할구역은 41郡이었으며, 감영은 역시 대구에 두었다. 도에는 觀察使 1인, 參事官 1인, 警務官 1인, 主事 5인 이하, 摠巡 4인 이하를 두었다. 그리고 군에는 郡守 1인, 主事 1인을 두었으며, 면에는 面長을 두었다. 이러한 지방제도의 정비와 함께 지방관으로부터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하였다. 즉 사법권은 행정기구에서 분리 독립되었고, 종래 지방관의 군사권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경찰권도 일원화되어 군수의 행정에서 분리되었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체제와는 달리 1905년 乙巳條約이 체결되면서 統監府와 理事廳制가 공포되어, 중앙에는 통감부가 설치되는 한편 지방에 거주하는 일본인 거류자에 관한 행정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대구를 비롯한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는 이사청이 두어졌다. 이사청의 책임자인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종래 주한 일본영사에 속한 사무와 조약과 법령이 규정한 새로운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사관 아래에는 副理事官·警視·屬·警部·通譯生이 두어졌다.³⁰⁾ 이와 같은 통감부령에 의하여 대구에도 대구이사청이 설치되었는데, 그 위치는 감영 내에 있던 宣化堂이었다. 당시 지방행정기관으로는 道·府·郡·面이 있었고, 이들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로 주요 지방에는 財務監督局이 있었으며, 그 하부기관으로서 財務署가 설치되어 재무행정이 취급되었다.³¹⁾ 경찰사무는 종래 관찰사의 권한에 속하고 있었으나 통감부의 갖은 농간으로 한일합방 직전에는 관찰사의 권한에서 벗어나 각도 경찰부장(각도 일본헌병대장이 이를 맡고 있었다)이 장악하게 되었는데, 이는 다시 중앙의 警務總長의 직속하에 있었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자, 9월에 朝鮮總督府官制와 朝鮮總督府 地方官制가

30) 友邦協會, 《統監府時代の財政》, 1974, p. 71.

31) 內務部, 《地方行政區域發達史》, 1979.

공포되어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지방관제에 의거하여 종래의 관찰사를 폐하고 각도에 長官을 두되, 각 도장관은 조선총독에 예속시켰으며, 각도에는 長官·官房 및 內務部와 財務部の 2부를 두었으며, 각 府·郡에는 府尹 또는 郡守를 두었고, 面에는 面長을 두었다. 그리고 종래 재무감독국 및 재무서는 폐하여 재무감독국의 사무는 道の 財務部에, 재무서의 사무는 府·郡에 인계시켰다.³²⁾

이에 따라 통감부와 이사청은 폐지되기에 이르렀고, 경상북도 대구군은 大邱府로 개칭되고, 행정책임자로 府尹을 두게 되었다.³³⁾ 부윤은 일본인만으로 임명되었다. 대구부의 초대 부윤에는 다케사끼(竹崎六次郎)가 임명되었고, 1910년 10월부터 구 대구이사청사에서 대구부가 사무를 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모든 기관은 폐지되고, 대구부민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외국행정관리가 군림하는 제국주의적 식민통치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구부의 시무 당시에는 부윤의 하부에 府書記 10명을 두었는데, 이중 한국인은 5명, 일본인은 5명이었다. 1911년 3월 부서기의 정원은 증가되어 13명으로 되었고, 그중 한국인은 7명, 일본인은 6명이었다. 그리고 새로 雇員 9명이 배치되었다. 당시 부의 사무는 4개의 係로 나뉘어져 분담되었다. 즉 庶務係·地方係·勸業係·財務係가 그것이다. 그리고 부의 보조기관으로서 부내 29면에 면장이, 235동에 동장이 두어졌다.

한편 대구이사청이 취급하던 사무는 경상북도와 대구부에서 분장하게 되었고, 대구 재무감독국이 취급하던 사무는 경상북도 재무부에서 인수 취급하게 되었다. 그외 대구이사청에서 취급하였던 사무 중에서 선박과 선원에 관한 사무는 세관관서의 소관으로 인계되었고, 호적사무 및 화장장과 분묘, 기타 경찰 취체에 관한 사무는 도경무부의 소관으로 되었다. 종래 대구 재무국의 지휘감독을 받던 기관으로서 경상남북도에 산재하던 58개 재무서가 취급하던 사무는 경상북도 재무부의 소관으로 되었으나, 구 대구군을 관할한 대구재무서의 사무는 바로 대구부에 인계되었다.

이상의 일제총독부하 대구부의 기구는 아직 초기의 단순한 조직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식민지 정치의 초기부터 행정관청의 모든 실권은 일본인에 의해 장악되었고, 행정관청의 요직은 반드시 일본인에 맡겨졌다. 다만 말단직과 보조적 자리만이 한국인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부의 보조기관이었던 면장 또는 동장에는 일본인 또는 한국인을 둘 수

32) 金甫炫·金庸來, 《地方行政의 理論과 實際》, 法文社, 1973.

33) 당시 부로 된 곳은 대구 이외에 서울·인천·군산·목포·부산·마산·평양·진남포·의주·원산·청진 등이며, 기타는 모두 군으로 되고 군수를 두게 되었다.

있게 되었을 뿐이다.

그후 몇차례의 사소한 변화를 거친 후 1930년 12월 改正府制가 공포되고 다음해 4월에 시행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종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었던 府協議會가 의결기관인 府會로 개정되고, 부의 學校組合과 學校費가 부의 일반행정과 통합되어 삼자가 모두 부운의 통할하에 들게 되었다. 당시 대구부의 기구조직은 4課 14係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래와 같았다.

庶務課；庶務係 會計係
 內務課；內務係 農務係 衛生係 商工係 社會係 戶籍係
 財務課；賦課係 徵收係
 公營課；管理係 水道係 工務係 用地係

1940년 12월 공포 시행되고, 1942년 6월에 개정 시행된 大邱府事務分掌規程에 의거하면, 대구부의 기구조직은 다음과 같이 확대된 9課 38係로 되었다.

庶務課；秘書係 文書係 會計係 營繕係 戶籍係
 內務課；府政係 學務係 保健係 清掃係 管財係 兵事警防係 監査係
 國民總力課；情報係 總力係
 社會課；社會教化係 軍事援護係 勞務係 貯蓄係
 公營課；業務係 水道經理係 水道工務係 瓦斯係 乘合自動車係
 土木課；事務係 計劃係 工務係 區劃整理係 用地係
 農林課；農政係 農產係 食糧係
 商工課；獎勵係 調整係 市場係
 稅務課；調查係 第1徵稅係 第2徵稅係 整理係

府의 각 課에는 課長이 있었고, 과장 이하의 각 係에는 係主任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主事·技師·醫長·司書·書記·技手·醫員 등과 같은 吏員이 두어졌다. 주사·서기는 서무직에, 기사·기수는 기술직에, 의장·의원은 醫務에, 사서는 도서관 업무에 각기 종사하였다. 府吏員의 정원은 매년도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게 되어 있었다. 부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앞의 府吏員의 정원 외에 명예직 府吏員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었으며, 또 囑託員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외 대구부 雇員으로는 府雇·巡視長·職工長·監督·工手·監視員·機關手·看護婦·保健婦·保姆를 두었으며, 이들의 정원은 역시 매년 예산으로 정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傭人으로는 巡視·小使·給仕·電話事務員·現住調査員·監視人·職工·技工·木工·見習看護婦·機關夫·作業夫·水栓番·運轉手·車掌·出納手工夫·助手·車掌見習·看守人 등을 두었다. 한편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1938년 大邱府域 확장에 따라 행정 편의를 위해 설치되었던 출장소에는 소장을 두었고, 그 밑에는 庶務係·勸業係·戶籍係·財務係 등 4係가 두어져 업무를 분장하였다.

그리고 1931년부터는 행정의 말단인 町(洞)에 總代制가 실시되었다. 당시 총독부는 그 실시 목적을 인보단결하여 지역공동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총독 시책을 부민에게 널리 알려 국민의 단결을 도모하여 府政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은 부민의 일거일동을 감시하여 그들의 시책에 따르게끔 묶어놓고,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였다. 각 町(洞) 단위로, 또는 수개 町(洞)을 一區로 하거나 혹은 1개 町(洞)을 수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각 구역마다 總代·副總代·委員이 두어져 府政에 관계되는 町(洞)内 공공사무를 보조케 되었다.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이었고, 총대는 町(洞)内 거주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부윤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총대제는 일제가 기대한 바와 같은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총대는 설치 당초부터 관공서의 보조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주로 하였으므로, 대다수 한국인으로부터 협조는 고사하고 도리어 경원시되고 있었다. 이에 대구부는 町(洞) 자체의 자치활동의 구성을 본업무로 하고 공공사무의 보조를 부업무로 하는양 위장하여 민심을 얻고자, 1934년에는 町(洞)組合制의 실시를 서둘렀다. 조합의 임원으로는 組合長 1명, 副組合長 1명, 平議員 약간명, 幹事 2명을 두는 동시에 조합장에는 정(동)총대가, 부조합장에는 부총대가 각각 취임하게 되었고, 평의원은 조합원이 선출하고 간사는 평의원이 호선하도록 되었다.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이였다. 町(洞)組合의 사무로는 종래 총대제시에 취급하던 일반업무 외에 神社에 관한 사항, 정신교화·생활개선 등 사회교화에 관한 사항 등이 부가되어 강조되었다. 이에 한국인은 부행정의 말단보조기관인 정(동)조합에 의해 사생활까지 간섭을 당하였다. 즉 정(동)조합은 한국수탈의 觸手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 첨가할 것은 한국인 관리에 대한 차별대우이다. 차별대우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났는데, 먼저 지적할 것은 관직임용에 관해서이다.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1910년 당시를 보면 전국 13개도 도장관 중 6명이 구 한국정부의 관찰사 중에서 선택 임명되었으나, 나머지 7명은 일본인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일본거류민단이 조직되어 있었던 전국 12개 부의 행정책임자인 부윤에는 모두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대구부윤의 자리에는 해방될 때까지 한번도 한국인이 임명된 바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위관직의 임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부의 중간관리층인 과장에도 한 사람의 한국인이 임명되지 않았으며, 係主任의 자리에도 한국인은 임용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한국인 관리에 대한 차별대우는 급여에서도 나타났다. 일본인 관리에게는 사택료와 가봉이 주어졌으나 한국인 관리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며, 상당한 급수에 있는 한국인 관임문관이 받는 봉급액은 일본인 관리가 받는 사택료보다도 적었다. 기본적인 급여뿐만 아니라 출장시의 숙박료나 거마비도 차별을 하였다. 그러한 차별은 위와 같은 물질적 대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신원조사와 신원보증 등 한국인 관리의 임용절차는 까다롭기 이루 헤아릴 수 없었으며, 현직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비협조적이라거나 사상이 불온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파면되기 일췌였다.

III. 府協議會 및 府會

일제는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의 식민지 정책에 이용하려 하였다. 이에 1914년에는 府協議會制를, 1931년에는 府會制를 각각 설치하였다. 그러나 저들이 이 땅에서 실시한 자치제는 그들의 정치에 소극적이거나 동조하는 자들을 규합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가혹한 총독정치를 선정으로 위장선전하여 지방의 선량한 주민을 현혹시키는 데 있었다.

1914년 10월에 공포된 府制는 도시에 집중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거류민단과 외국인 거류지회제를 폐지함으로써, 이들을 한국인과 동일하게 총독부치하에 예속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아울러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돕고 있던 외국인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었다. 일제는 이 부제를 실시함으로써 식민통치상 여러가지 장애로 느껴오던 외국인 거류지제도의 치외법권적인 요소를 불식시킬 수 있었고, 또한 赤手空拳으로 이 땅에 거주하게 된 일본인들에게 한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구실아래 각종의 특권을 주어 치부할 수 있는 길을 틈워주는 행정체제를 완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부제 실시에 따라 설치된 것이 지방자치제를 가장하기 위한 부협의회였다. 부협의회가 관의 협찬기관에 지나지 않았음은 무엇보다도 그 구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부협의회는 당해지역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반수를 차지하는 부협의회원으로 구성하되, 부원이 그 의장을 맡게 되어 있었다. 협의회원은 부내거주자 중에서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얻어 도장관이 이를 임명하기로 되어 있었으니, 이러한 구성에서 한국인을 위한 지방자치는 자라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권한에 있어서도 부조례의 설정 또는 개폐,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기타 부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 사무에 관해서 부윤의 자문에 응할 권한 밖에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이 부협의회는 府政에 관한 제반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구속을 받게 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었으며, 한갓 부윤의 협찬기관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대구부협의회는 한국인 5명, 일본인 5명 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협의회원은 명예직으로서 임기는 2년이었다.

그후 3·1운동이 일어나자 강압적인 무단정치에서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한 일제는 무마책의 일환으로 1920년 7월 부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부제에 의해 부협의회는 부의 예산 및 공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부윤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었고, 협의회원의 정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12명 이상 30명 이하로 되었으며,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되었다. 협의회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그 부내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부과금 5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는 부협의회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협의회원의 임기는 종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결과적으로 부제 개정 이후의 대구 부협의회는 종래 정원 10명이던 것이 16명으로 증원되었고, 1923년에는 다시 정원이 20명으로 증원되었다는 것과 협의회원을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는 것 이외에는 개정 이전과 별로 상이한 점은 없었다.

1931년 4월 조선총독부는 종전의 부제를 폐지하고 새로이 개정된 부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종래의 부제는 집행기관인 부와 자문에 응하는 기관인 부협의회 이외에도 學校費 및 學校組合費의 운영을 맡았던 재정단체가 별개로 부윤을 집행기관으로 하여 존재하였으므로, 행정상 많은 번잡을 가져오게 되었고, 능률면에서도 재고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공포된 개정 부제는 종래 부에 있어서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었던 부협의회를 개정하여 의결기관인 부회로 하였고, 종래 같은 부역에 병치되어 있었던 부 학교조합 및 학교비령의 2개 단체를 부에 통합시켰다. 부는 학교비령에 의한 단체와 학교조합의 2개 단체를 흡수함에 있어서 이들을 부의 일반경제와 구별하여 특별경제로 하였다. 개정된 부제에 의하면 부회가 가지는 권한은 부에 관한 중요한 사건을 의결하는 것, 부의 공익에 관한 의견서를 부윤 기타 관계관청에 제출하는 것, 부의장을 선거하는 것, 회의규칙을 제정하는 것, 관청의 자문에 답신하는 것, 부의 사무에 관한 서류 및 계산서를 검열하며, 사무의 관리 의결의 집행 및 출납을 검사하는 것 등이었다.

부회의 의장은 부윤이 되었고, 새로 부의장제를 마련하여 부회의원 중에서 호선케 하였으며,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장하였다. 의원의 정수는 24인 이상으로 하여 부의 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대구부회 의원의 정원은 처음 33명으로 되었으나 1939년에는 34명으로 증가되었다.³⁴⁾ 부회의원의 선거권자는 연령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독립생계를 영위하며 1년 이상 부내에 주소를 두고, 또 1년 이상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부세를 연 5원 이상 납부하는 자에 한정하였다.

이상에서 대구부협의회와 부회에 관하여 살펴보았거니와, 특징적인 양상은 한국인에게는 형식적으로 정치에 참여시키되 실질적으로는 참정의 기회를 극히 제한하여 정치적 발언권을 주지 않으려고 한 점이다. 이는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의원의 구성에서도 잘 나타난다.

〈表 1-1〉 府協議會 議員 構成

회 기 별	기 간	총의원수	한 국 인	일 본 인
제 1기	1914~1916	10	5	5
제 2기	1916~1918	10	5	5
제 3기	1918~1920	10	5	5
제 4기	1920~1923	16	6	10
제 5기	1923~1926	20	8	12
제 6기	1926~1929	20	8	12
제 7기	1929~1931	20	7	13

〈表 1-2〉 府會 議員 構成

회 기 별	기 간	총의원수	한 국 인	일 본 인
제 1기	1931~1935	33	10	23
제 2기	1935~1939	33	12	21
제 3기	1939~1943	34	14	2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4년에서 1920년까지 6년간 부협의회회원을 보는데, 한국인과 일본인을 동수로 하여 마치 숫자상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같이 하였으나, 이는 한갓 대외적 선전 효과를 노려보자는 데 불과하였다. 이 기간은 부협의회 자체가 자문에 응하던 기관으로서 아무런 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놓여 있었고, 거기에다가 의원의 선임은 그들의 정치에 동조 내지는 협조할 수 있는 인사들을 임의로 선정 임명하게 하였으니, 협의회의 실질적 운용 내용이란 그들의 수탈정책을 합법화해 주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다음으로 1920년

34) 達捨藏, 《慶北大鑑》上, 1936, p. 303.

소위 문화정치하에서 개정된 부협의회제에 있어서는 종래의 관선임명제를 버리고 자유선거제로 의원선출 방법을 전환하였다. 일제는 이렇게 민의에 따라 자유로이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끔 선심을 쓰는 듯 하였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석수에 있어서 큰 차이를 두어 한국인의 의석수를 정책적으로 제한하였다. 협의회가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머물러 민의를 반영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무렵에도 그러했으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1931년 부회가 설치된 시기부터는 더욱 더 한국인의 부회 진출을 억제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이래 한민족을 열등민족으로 천시하는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었거니와 한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이유로도 한국인의 자치능력의 부족을 상투적으로 들고 있었다. 일제는 이와 같은 불투명한 이유를 표면에 내세워 당시로는 아주 고액이었던 부세 연간 5원 이상을 납입하는 남자에게만 선거권을 한정하였던 것이다. 일제의 이러한 처사는 한국인의 선거권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식민지치하에서 유일한 발언기관인 부협의회 또는 부회제로의 한국인의 진출을 봉쇄하여 오로지 일제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지방행정을 꾸려보려는 데 그 이유가 있었다.

더구나 1943년에 시행된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의회진출을 두려워한 나머지 후보자 추천제라는 제도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입후보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먼저 행정당국에서 그 지방의 유지를 추천하면 다음에 이들 유지들이 상의하여 입후보자들을 추천하는 것이었다. 유지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는 언제나 의원정수와 동일하여야 했으니 선거인의 투표란 단순한 형식에 그칠 뿐, 투표자의 자유선택이란 있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일단 관천에 의한 유지들의 추천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득표수에 관계없이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으니, 이 선거야말로 유치한 장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第3節 大邱府 行政의 實態

I. 財務行政

1910년 9월 한국의 재정은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제도에 의해 일본 재정의 일부분으로 예속되었다. 일제는 합병 후에도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즉 이 무렵에도 이미 통감부시절에 착수되었던 여러 제도의 개혁과 이를 통한 항일세력의 축출과

친일세력의 구축, 교통·통신 기관의 정비 및 식민지 수탈을 위한 제반 시설의 구비 등 한국지배를 위한 기초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 이리하여 총독부의 예산은 계속 증가되었다. 1911년 한국의 세출 총예산액이 약 4,878만원이었던 것이 1919년에는 약 7,756만원으로 증가되어 약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일제는 팽창해가는 재정 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세입의 증가를 도모하여 한국인에게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諸稅令을 발포하였다. 즉 1912년에는 朝鮮登錄稅令, 1914년에는 地稅令·市街地稅令·煙草稅令, 1916년에는 酒稅令·法人所得稅令, 1918년에는 戰時利得稅令, 1919년에는 砂糖消費稅令·印紙稅令을 각각 공포하였다.³⁵⁾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기본 재정정책은 제국주의적 식민지 형성을 위한 초기의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일제는 모든 제도적 기구를 그들의 한국통치의 준비작업을 위하여 재편성하는 한편 그것을 그들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였고, 재정 예산을 식민지화 작업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화 과정 중에서 비록 한말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우리 자신의 손으로 착수, 또는 완성하지 못한 諸制度의 개혁이라든지 근대 문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통·통신의 정비를 위한 철도의 건설이나 도로 및 항만 수축 또는 官業施設의 확장 등이 그들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해도, 그것들은 오직 일본인 자신의 한국지배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 행해졌던 것이므로, 시설의 확충은 곧 수탈의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은 또한 식민지 수탈을 위한 각종 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최대한으로 그 비용을 한국인에게 부담시키고자 갖은 방법으로 세원을 포착하는 한편 세율의 인상 등으로 세수 증대를 획책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면에서는 과도한 액수를 정권유지비에 탕진하여 한국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다.

1910년대 대구부의 재정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⁶⁾ 먼저 대구부의 세입규모는 1914년의 세입총액은 약 11만원이었고 이후 계속 격증하여 1917년에는 약 34만원에 달하였다. 1918년과 1919년에는 각각 약 12만 5천원, 15만원으로 격감되었는데 이는 府債收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의 부 세입의 특징은 국고보조금이 府稅의 수입보다 컸다는 점과 부의 재정수입을 중앙관청이었던 총독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부세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의 높은 비중은 합병초기에 있어서 부세가 아주 빈약하였다는 것과 세수상의 기술적 결함이 많았다는 것 등으로 부득이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그보다도 제국주의적 식민통치의 기반조성을

35) 友邦協會, 《總督府時代の財政》 1974, pp. 125~128.

36) 이하 대구부 재정의 실태에 관한 서술은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 1973, 제 2권의 재정 부분을 참고하였다.

위한 강력한 중앙권력에 의한 지방통제와 이에 따라 급격히 소요되는 지방경비의 조달상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과중한 국고보조금에 의해서도 급격히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액수에 해당하는 부채수입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예컨대 1917년의 경우 부채수입이 20만원을 넘어 총세입액의 61%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 기간 대구부의 세출면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상수도 시설을 위한 과대한 지출이었다. 즉 1914년부터 3년동안은 대구부 총세출액의 50%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상수도 시설비로 투입되었으며, 특히 1915년에는 무려 80%에 육박하는 금액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상수도를 통한 급수는 시가 중심지의 상가와 주로 일본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지와 군대가 주둔한 병영을 중심으로 하는 범위에 그쳤기 때문에 부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한국인에게는 그 혜택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1920년대에 일제는 한국을 그들의 공업생산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원료의 공급지로서, 또한 그들의 상품판매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하고, 나아가서는 일본국내에서 부족한 식량의 공급지로서 묶어두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산미증식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연초 전매와 철도사업 등 관업확장과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사법 경찰기관의 강화 등으로 인한 재정의 급격한 팽창을 면치 못하여 끊임없는 세제의 개혁과 세율의 증가로 세수의 확증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1920년도 대구부 세입총액은 약 2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3%나 팽창하였는데,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어 1921년도에는 약 36만원, 1922년도는 무려 약 83만원, 1923년에도 약 87만원으로 격증되었다. 1922년과 1923년의 격증 현상은 특이한 것으로 재산매각 수입과 부채의 증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었다. 1924년도 세입총액은 약 43만원이며 1925년도의 그것은 약 4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되었는데, 이는 재산매각 수입과 부채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1927년도 세입총액은 약 59만원, 1928년도도 약 59만원, 1929년도는 약 60만원으로 별 변동은 없었다.

부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1919년 이전엔 부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저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이 기간에 들어서는 비중을 크게 차지하게 되었고, 1922년과 1923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총세입액의 40%에 가까운 비율을 가짐으로써 府政이 안정되었고 稅收도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고보조수입의 비율이 대폭 줄게 되어 1926년과 1927년을 제외하고는 국고보조금의 총세입에 대한 비율이 모두가 25%선을 넘지 않고 있었다. 부채수입의 총세입에 대한 비율도 크게 저하하여 1923년을 제외하고는 10%선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초기 제국주의 식민통치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무리한 재정보전책을 써야 했던 비정상적 재정구조에서 탈피하여 차츰 안정 단계에 들어서게 되어 부재정수입이 세출과 적정 규모에서 균형을 찾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 기간의 부 세출면을 보면 제 세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하수도개량 공사비였다. 하수도개량 공사는 19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되었는데 1918년도의 경우 2만 4천원으로 총세출액의 19.1%를 차지한 이후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27년도에는 19만 5천원으로 총세출의 33.3%에 해당하는 거액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부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을 지출하면서도 하수도 개량 공사는 주로 중앙통을 중심으로 한 상가와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지구에 한정되어 있었을 뿐이며, 한국인 집단주거지구는 도외시하였다. 다음으로 부세의 확장에 따라 제 1차 상수도 시설의 확장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1922년도에 약 8만 3천원, 1923년도에 10만원으로 각각 총세출액의 10%와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 제 1차 상수도 확장공사는 1922년에 시작하여 1925년에 완공하였으나 이 공사의 결과로 한국인 가정에 대한 급수가 확대된 것은 아니었고, 그동안 증가한 일본인 상주인구와 군인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서문시장을 개축하기 위하여 1922년에 약 37만 2천원, 1923년에 약 1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각각 세출총액의 44.9%와 12%에 해당하였다. 이 금액은 당시로는 결코 적지 않은 액수로 일제하 대구부가 한국인만을 위하여 지출한 최대 규모였다. 이는 한국 최대의 시장인 서문시장의 유통망을 매개로 하여 일본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상품을 방방곡곡에까지 침투케 하는 한편 시장개축을 빙자하여 보다 고율의 시장세를 징수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요컨대 1920년대 대구부는 식민지 초기의 기초사업에 이어서 상수도 확장공사, 하수도 시설의 보완, 격리병원 건축, 시장 개축 등 제반 보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구거주 일본인들의 활동을 조장해 주면서 서서히 사업이 확장되어 가던 시기였다.

1929년의 세계공황은 일본과 한국에도 파급되어 일본에서는 물가의 폭락, 생산의 위축, 실업자의 격증 등 공황의 사태가 엄습하여 사회불안이 조성되었고, 한국에서는 1930년의 대풍작으로 미가가 폭락하여 중소지주 중에서는 몰락자, 소작인중에서는 이농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공황에 직면하여 일본정부에서는 긴급재정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조선총독부도 그와 같은 방침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긴급재정정책은 오래 가지 못하였으니 1931년의 일제의 만주침략으로 군사비가 확장됨으로써 적극적인 팽창정책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예산규모는 다시 팽창하게 되었다. 일제의 만주침략은 1937년 중국본토로 확대되었으며, 일본의 경제체제는 전시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한국도 이 정책의 영향으로 일제의 전시물자 동원계획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력 강화를 위한 군수자원 개발과 군수공업의 확충에 따르는 인력 동원마저 강요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의 재정은, 식민지에 대한 희생 전가로 급격히 팽창해 가는 전비를 조달하고 군사적인 생산력을 확충 강화하려는 일제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급속한 팽창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1930년대의 대구부 재정을 보면, 먼저 세입총액의 경우 1929년도에 약 60만원이었는데, 이러한 규모는 1930년도와 1931년도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가 1932년도에는 약 54만원으로 감소하였다. 1930년부터 1932년에 이르는 3년간은 불경기로 인한 세수의 부진으로 예산 총액에 있어서는 별로 증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3년간 부채수입이 전무하여 긴축재정의 전모를 나타내어 주고 있었다. 1933년부터는 세입총액이 증대하였는데, 1933년도는 약 73만원, 1934년도는 약 85만원, 1935년도는 약 91만원, 1936년도는 약 104만원으로 각각 증대되었다. 1937년도에는 약간 감소하여 약 94만원으로 되었고, 1938년도에는 다시 약 103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대체로 부채수입에 의존하는 바가 컸었다.

부세입의 재원별로 살펴보면 부채수입은 1931년도에만 약간의 감소가 있었을 뿐 꾸준히 증가하여 1929년도에서 1938년도에 이르는 동안에 약 63%라는 엄청난 증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경제공황과 전쟁준비에서 생기는 결손을 주로 한국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일제가 강행하게 한 세수증대정책의 필연적 결과였던 것이다. 한편 이와 반대로 국고보조금은 매년 격감의 추세를 보여서 1937년에는 총세입의 3.9%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는 공황과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에 의한 중앙재정의 곤란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시기 부재정은 꾸준한 세수증대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수입의 격감으로 적지 않은 차질을 갖게 되었는데, 재정의 재원을 적극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채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3년도에서 1938년도에 이르는 동안 부채수입은 부 총세입의 19%에서 32%까지 증대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대구부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을 짊어지게 되어 한국인의 생활은 더욱 비참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의 세출면을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제 2차 상수도 확장공사였다. 이 상수도 공사는 그간 끊임없는 부세의 확장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기존 시설로서는 일부 부민에 대한 급수량에도 미달되었으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30년부터 1933년에 걸친 이 공사를 위한 경비는 각기 연도별 총세출액의 약 20%내외를 차지하였다. 제 2차 상수도 확장공사가 완료된 이후도 여전히 일본인 주거지구를 비롯하여 일부 중심가와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급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공익사업부문으로는 상수도 확장공사 외에 토목사업비가 있기는 하였으나 부세출의 10%미만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산업경제비에 해당하는 비용 으로서는 시장비와 공설시장비 뿐이었는데, 양자를 합쳐도 총세출의 1%미만이였다. 상품 시장으로 한국을 묶어두는 경우에도 일제는 재래시장의 기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예산 항목은 전염병 예방비, 병원비, 도서관비, 사회 사업비, 직업소개비 등 많은 것이 나열되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극히 제한된 인원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었던 위생시설의 유지와 그들 문화의 선전 또는 주입을 위하여 쓰여졌던 비용임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행정비에서 보다 명백히 나타났다.

이 시기 일반 행정비는 부세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최저 25%에서 최고 45%에까지 이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한 일반행정비는 그 항목만 보더라도 식민지통치를 위한 행정비로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이 중에는 神社費를 위시하여 御大奉禮費, 御大禮記念事業費, 府政功勞者表彰費, 恩賜救療記念貧民救濟費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부재정을 통해 보더라도 일제는 그들의 國體를 우리에게 강제로 신봉시키기 위하여 소위 皇道精神을 이식 고취시키려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본 군벌이 現人神으로 조작해 놓은 천황의 은총에 의하여 모든 것이 성취되는 양 선전하고자 행정비의 많은 부분을 낭비하였던 것이다.

II. 土木行政

우리나라에는 종래 시가지 정리에 관한 일들은 다만 임기응변으로 관의 명령에 의하여 관아소재지 또는 관아설치 예정지 부근의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뿐, 전국적 규모로 법규에 의하여 이를 규제한 바는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시가지 정리에 관한 법규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탄한 2년 뒤인 1912년 10월 조선총독부훈령으로 발포된 것을 들 수 있겠는데, 이는 지방에 있어서 주요한 시가지의 개정 또는 확장을 행할 때에는 그 계획설명서와 도면을 첨부하여 사전에 총독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것이었다.³⁷⁾

일제는 이 법규가 발포되기 전에도 일본인 거류민단 또는 통감부가 한국정부에 압력을 넣어 저들의 필요에 따라 시가지 정리를 강행한 바 있었다. 예컨대 1908년 12월 대구 일본인 거류

37) 이하 대구부 토목행정에 관한 서술 중 별도로 전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 1973, 제 2권의 토목행정 부분을 참고하였다.

민단은 당시 大邱監察使 朴重陽으로 하여금 沿道費 중에서 공비 약 2만원을 내게 하여 구 시가를 둘러싸고 있었던 성벽을 철거하게 하는 한편 이 자리에다 연장 약 2,618m, 幅 약 5.5m의 시가를 일주하는 도로건설에 착수하게 하였는데, 이는 1909년 12월에 준공되었다. 그 후 1909년 12월 국고 보조금 약 3만 3천원을 포함하는 총공사비 약 3만 9천원을 가지고 대구부내 간선도로를 폭 약 10m의 열십자 형으로 개수케 하였다. 이 대구성벽의 철거를 계기로 일본인들은 점차 한국인들의 거주중심지역에 침입하여 대구의 상권을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1912년 총독부령으로 발포된 시가지 정리에 관한 규칙은 시가를 일본인 본위로 정리함으로써 그 노란자위를 그들이 차지하기 위함이었다.

그 후 일본으로부터 내왕하는 일본인의 수와 농촌으로부터 유입하는 한국인의 수의 격증은 한국의 전국 주요도시의 시가지 발전을 급속도화하였으므로, 단순한 도심지 탈취에서 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위한 거점의 확립을 위해서도 시가지 정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었다.³⁸⁾ 실제 합병후부터 1937년에 이르기까지 대구부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을 개관하면, 먼저 1910년 5월 공사비 약 4만원(이중 약 3만 3천원은 국고보조)을 들여 達西橋에서 東門에 이르는 연장 약 1,013m, 北門에서 南門에 이르는 연장 약 776m를 노폭 약 10m로 개수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1912년 5월에 준공하였다. 그리고 1913년 3월 공사비예산 약 5천원(이중 2천원은 국고보조)으로서 당시 慶尙北道廳(현 대구직할시 중구 중앙공원)에서 大邱府廳(현 대구시청)에 이르는 도로 중 노폭이 협소한 구역인 東門町의 연장 약 449m를 전후의 노폭에 준하여 개수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해 9월에 준공하였다. 다음으로 당시 경상북도청에서 대구 정차장에 이르는 도로연장 약 313m를 노폭 약 22m로 개수하였는데, 공사비예산 약 2만 5천원(이중 1만원은 국고보조)으로서 1913년 11월에 기공하여 1914년 3월에 준공을 보았다. 그 후 국고에서 1만 5천원의 보조금을 받아 공사비예산 약 3만원으로서 대구정차장 앞 통로에서 당시 東城町 3丁目(현 동성로 3가)간과 기타의 시가도로 개수를 하였는데, 1916년 6월에 착공하여 1917년 3월에 준공하였다.

이상과 같이 매년 긴급한 개수를 요하는 시가지를 개수하였으나 급격한 시가지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하수도의 시설과 함께 시가지의 완비를 기하려면 아직도 많은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부에서는 1923년 이후 5개년 계속사업으로서 공사비예산 70만원(이중

38) 일제는 한국내에서 발전이 비교적 신속한 주요 도시의 市區改正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1921년 대구부에서는 총독부 土木部員에게 위촉하여 대구부 도시계획을 위한 시가지 조사에 착수케 하였는데, 이것은 이듬해 1922년 8월에 ‘大邱都市計劃概要’로 발간되었다. 이것은 비록 그대로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대구부가 시행한 1921년까지의 도시계획사업의 결산인 동시에 그후의 지침으로 되었다.

35만원은 국고보조이며, 22만 5천원은 지방비보조)을 하수도 개수공사 등 시가지 정비에 투여하기로 하고, 1924년 3월 착수하여 1928년 12월에 마무리되었다. 이 때의 구체적인 실적은 시가도로 연장 약 5,145m를 노폭 약 6.4m 내지 약 22m로 개수하였으며, 側溝 연장 약 3,785m, 하수구 연장 약 10,254m 및 기타 부대공사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공사로 말미암아 시가지 중심부의 도로 및 하수도는 상당히 개량되었다. 그리고 1928년부터 1931년에 이르는 4년간에 걸친 계속 사업으로 공사비 예산 약 50만원을 책정하여 시가도로 및 하수도 개수공사를 기공하였으나 그후 국고 및 지방비 보조가 뜻대로 나오지 않아 시행연도를 1개년 연장하여 대구부 주변도로의 신설·확장과 하수도 개수공사를 시행하였다.

그후 1937년 3월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하여 대구시가지 계획구역, 가로망, 토지구획정리지구를 결정하고 같은 해 5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이듬해 大邱府域의 대대적인 확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당시 대구시가지 계획구역은 구 대구부일원, 대구부 중동·하동·신천동·신암동·효목동(일부)·만촌동(일부)·범어동(일부)·황청동(일부)·두산동·상동·봉덕동·대명동·평리동(일부)·비산동·원대동·조야동(일부)·노곡동(일부)·내당동(일부)·성당동(일부)·산격동(일부)·침산동(일부)에 걸쳐 있었다. 아울러 1939년 3월 대구부 동운정(동인동), 칠성정(칠성동), 삼립정(삼덕동) 및 대봉정(대봉동)의 각 일부 약 843,900㎡의 구역을 대구부 제1토지구획정리지로 책정하여 사업비 약 30만원을 들여 1939년도부터 3개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구역이 제1토지구획정리지구로 선택되기에 이르른 것은 도심지는 이미 인구의 포화상태가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일본인들 중에서 이 구역에 정주하는 자가 급증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공업용지 및 주택지구조성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공업용지조성지역 및 주택지구로 총당할 약 70만평을 총 공사비 340만원으로 부에서 매수, 구획정리를 실시하여 가급적 염가로 공장부지와 주택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공장을 유치하여 부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화된 산업통제로 일본에서 밀려나게 된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해 주려는 일본의 국책을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대구부근의 금호강의 치수공사를 들 수 있다. 이미 1933년에 국비를 얻어 대구부와 칠곡군계에 위치한 팔달교에서 하류를 따라 연장 약 1,500m의 제방을 축조한 바 있었으나, 그 상류부와 하류부에는 제방이 없었으므로 홍수시에 침산, 원대, 비산, 평리의 각 동에는 하수가 범람하여 피해가 막심하였다. 그리하여 수해대책 공사로 공사비 33만원을 투입하여 신천 합류점에서 하류 2,700m에 걸치는 축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공사는 1939~1940년도의 2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팔달교 상류 미완성부분 1,150m에 대해서는

공비 20만원(도비보조 10만원)으로 1940년도의 사업으로 하였다. 1941년에는 도비보조 공사예산 32만원으로 팔달교 최하류 600m 堤内地에 있는 支川인 達西川의 축제를 시행 함으로써 금호강 유역의 수해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 일제강점기 대구부의 시가지 정리사업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특징은 거의 모든 정리사업이 일본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도심지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한국인 거주지역에 대한 정리사업도 1939년에 이르러 일본인 중에서 변두리 지대에 거주하는 자가 점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었지, 결코 한국인 거주지역에 대한 환경조성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공사비 책정에 있어서도 도심지에는 남아돌 만큼의 충분한 예산이 배당된 반면에, 한국인 거주지역이었던 변두리 지역에는 실비에도 미달되는 공사비가 책정되어 결국 눈가림의 공사로 그치고 말았다. 다음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922년 8월에 발간된 ‘대구도시계획개요’와 같은 장기적 전망에 선 근대도시건설을 위한 계획을 가지면서도 그 핵심이 되는 역의 이전, 공원의 조성, 전차의 부설 등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약간의 가로의 확장, 도로의 축조 만을 서둘러 갔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었다.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대구시가 막대한 비용을 무릅쓰고 거의 전면적으로 시가지 정리를 서둘러야 했던 운명은 이미 이때부터 배태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대구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시가지 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도시로서의 면목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시민의 급수 상태는 여전히 재래식 샘에 의존하였는데, 그마저도 인구의 밀집으로 인해 수질이 차츰 불량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연용출량도 때때로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의 용수 공급도 긴요하거나와 공중위생, 화재방지 등에 대비하여 상수도 시설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1912년부터 4개년 계속 사업으로서 국고에서 보조를 얻어 공사비 예산 41만 5천원으로 1914년에 착공하여 1918년에 준공하였다. 이 때 급수예정인구는 3만명이었는데, 수원지는 新川 상류의 한 지류로서 達城郡 嘉昌面 梧洞의 서단에 取水井을 만들고 淨水場은 그 아래 신천의 右岸에 만들었다.³⁹⁾

그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 의한 대구시의 팽창에 따라서 源水의 導水量과 市街 配水管網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어 1921년 12월 이후는 수차에 걸쳐서 단수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부에서는 공사비예산 16만 5천원으로서 제 1차 상수도 확장공사에 착수하여 수원지의 확장 및 배수관의 부설공사를 시행하여 1924년 기공하여 다음해에 준공하였다. 이 때 신천의

39) 大邱府, 《大邱府勢一斑》, 1936, pp. 138~141.

상류인 달성군 가창면 냉천동의 서북단에 제 2수원지가 축조되었다. 1928년도말 현재 급수구역내 총호구는 호수 20,571호, 인구 88,609명이었는데, 그 중 급수호수는 4,710호, 인구 20,555명이었다.

이와 같은 제 1차 확장공사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로 매년 급수 호수가 증대되었으며 특히 만주사변으로 일본인 주둔병력이 증가하여 兵營·陸軍病院·기타 軍機關과 대구역 등에서의 용수가 격증하게 되어 제한 송수 또는 단수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부에서는 공사비 27만 5천원으로 1938년부터 2개년 계속사업으로 제 2차 상수도 확장공사를 시행하였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상수도 공사의 경우 1914년부터 3년동안은 대구부 총세출액의 50%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그 시설비로 투입되었으며, 특히 1915년에는 무려 80%에 육박하는 금액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제 1차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때도 총세출액의 10%를 상회하는 금액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1930년부터 1933년에 걸친 제 2차 상수도 확장공사 때는 공사비가 각기 연도별 총세출액의 약 20%내외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상수도를 통한 급수는 시가 중심지의 상가와 주로 일본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지와 군대가 주둔한 병영을 중심으로 하는 범위에 그쳤기 때문에, 부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한국인에게는 그 혜택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제 1차 상수도 확장공사의 경우도 이 공사의 결과로 한국인 가정에 대한 급수가 확대된 것은 아니었고, 그동안 증가한 일본인 상주인구와 군인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함이었다. 또한 제 2차 상수도 확장공사가 완료된 이후도 여전히 일본인 주거지구를 비롯하여 일부 중심가와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급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하수도의 시설 공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이전의 대구의 실태로서는 하수도 시설의 긴요성을 느낄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차츰 인구가 도심지에 밀집하게 되고 매년 인구가 격증하게 됨으로서 汚水 처리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도시의 위생시설로서의 하수도 시설은 필요불가결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구부는 하수도 시설에 착수하게 되었다. 1928년까지 하수도 시설에 소요된 공사비는 약 571만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비가 약 258만원이었고 지방비 보조금이 약 67만원이었다. 먼저 1917년과 1918년에 걸쳐 시급을 요하던 시내 하수구의 간선인 達西川 개수공사를 하였는데, 달서천을 開鑿하고 浚渫하며, 하류 양안에 제방을 축조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구부는 1918년도 이후 총공사비 15만원을 책정하여 계속사업으로서 시내 하수도 개량공사에 착수하여 1923년 준공하였다. 이 때 대상지역은 대락 동성로·서문로·포정동·

북성로·남성로·교동·태평로·동인동 등의 지역으로서 주로 중앙통을 중심으로 한 상가와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지구에 한정되었을 뿐이며, 한국인 집단주거지구는 도외시되었다. 그후 1923년이후 6개년 계속사업으로 시가도로 및 하수도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앞의 대구부 시가지정리에서 이미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III. 産業行政 및 保健衛生行政

대구부의 사업으로서 산업경제 부문에 투자한 것은 시장육성을 위한 공설시장의 운영뿐이었다. 1920년 9월 부는 도보조 7천원과 부비 2천원 도합 9천원으로 동문정(동문동) 소재 사유지를 차용하여 공설시장을 설치하였다. 1934년에는 개축 확장공사를 시작하여 1935년 3월에 준공했다. 공설시장의 주된 이용자는 일본인이었으므로 대구부는 그 육성에 부심하여 초기에는 이곳 시장상인(대부분이 일본인)에게 영업세 및 점포사용료와 수도료를 감면하는 등 각종 특전을 주어 시장물품을 일반시세보다 염가로 판매케 하여 일본인 소비자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었다. 그러다가 한국인의 원성이 높아지자 1925년부터 이름만의 점포사용료를 징수케 하였다. 이같이 공설시장의 설치 목적이 일본인에게 생활안정을 갖게 하는 데 있었던 만큼 대구부는 여러가지 면에서 감독 및 간섭을 많이 하였다.⁴⁰⁾

도시에 있어서 위생시설은 공중위생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래로 의료기관으로는 한방의가 있었을 따름인데, 대구가 근대적인 공중위생시설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인구가 격증하고 시가가 팽창일로에 있던 합방전후의 일이다.

1910년 9월 통감부령에 의하여 관립 大邱慈惠醫院이 동문동에 처음 공설의료기관으로 설치되었는데, 이는 1925년 4월 朝鮮道立醫院官制에 의해서 도로 이관되어 慶尙北道立 大邱醫院으로 되었으니 현 慶北大學校 病院의 전신이다. 이 자혜의원이 설립되기 이전에 1904년경부터 민간에 의한 의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들은 일본인 거류민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데 그쳤을 뿐 한국인에게 미치는 혜택이란 거의 없었다. 그 후 府勢의 확장에 따라 종래 의료기관의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여타의 위생시설도 확충되기에 이르렀다. 1914년 부제실시와 더불어 당시 남산동에 隔離病舍를 설립하게 되었고, 1920년 여름 콜레라의 발생을 경험한 이래 국비 및 지방비 보조 5만원을 받아 1922년에 내당동에 전염병원을 건립하여 신축 이전하였다. 이것이 大邱回生病院인데, 병실수와 환자수용능력은 개인병실 11실 11명,

40)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 2, 1973, pp. 127~129.

공동병실 11실 그리고 온돌병실 8실 8명에 불과하였다.

1935년 현재 부내 위생기관으로는 道立病院 1, 府立病院 1, 私立醫院 4개소가 있었으며, 개업자로서는 醫師 41인, 齒科醫師 24인, 醫生 36인, 藥劑師 13인, 產婆 37인, 看護婦 39인이 있었다. 이외에 入齒營業 2인, 鍼術 36인, 按摩 36인, 灸術 35인, 藥種商 138인, 賣藥 52인, 賣藥請負業 268인, 賣藥行商 318인이 있었다.⁴¹⁾

1927년에 대구부 오물청소규칙이 발포되어 부내 청소사업개선에 착수하여 현저한 개선을 보았고, 기타 種痘의 장려, 屠蓄場의 개축, 공동묘지의 신설 등 비록 명분은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시행한 것이 많았으나, 과연 일본인과 한국인이 균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가 하는 점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1914년 行旅病人救護所를 설치하여 행려병인의 구호와 행려사망인을 취급하였다고 하는데, 1935년의 실적에 의하면 구호 연인원 남자 3,834인, 여자 1,378인, 합계 5,212인에 달하였다.⁴²⁾

묘지를 정하는 데도 한인묘지와 일인묘지를 따로 정하였다. 한인공동묘지는 종래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1914년 대명동에 일본인 공동묘지 6,396평을 설치하였으며, 1935년에 이르러 달성군 성북면에 부지 105,812평을 매수하여 한국인묘지를 설치하였다. 가족묘지는 1935년 칠곡군 동명면 금암동에 부지 276,240평을 매수하여 묘지구역을 설정하고, 호당 사용제한을 40평에서 30평으로 하였다. 대명동에 있었던 화장장은 1935년 경비 18,000원을 들여 개축한 것으로 부지 1,182평에 火葬爐 2대를 구비하였다.

다음으로 1914년 부제실시와 더불어 부는 대구위생조합의 경영을 인수하여 請願巡查의 감독하에 인부를 두어 분뇨를 수집하고 오물처리장에 반출 매각하는 동시에 부민의 청소작업에 협조를 얻어 오던 중 1925년에 청원순사를 폐지하고 전임오물청소감독을 두었다.⁴³⁾

41) 大邱府, 《大邱府勢一斑》, 1936, p. 128~129.

42) 위의 책, pp. 132~133.

43) 위의 책, pp. 134~135.

IV. 社會福祉施設⁴⁴⁾

1. 府立 圖書館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식민지로 지배당함에 있어 폭력에 의한 강압적인 억압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교육을 통한 점진적인 회유도 받았다. 대구의 부립도서관의 설립은 후자의 경우였다. 1919년 대구인구는 韓人 약 3만, 日人 약 1만에 달했으므로 도서관의 설립은 일본인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나아가 이를 통해 그들의 사상·문화·정치를 한국인에게 선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1919년 7월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대구부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같은 해 8월 경상북도청 구내 賴慶館上層을 빌려 개관하였다. 그후 1920년 1월에는 포정동에 있던 嶺南館으로 이전하였다가 1924년에는 부청 구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다시 이전하였다. 부립도서관의 이용상황을 보면, 1924년도 열람인원이 1일 평균 19인이던 것이 1936년에는 62인에 달하였다. 장서 중에는 우리말로 된 책은 찾아 볼 수도 없었으며, 모두가 일어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국 일본인들은 일어로 된 책을 대량 비치하여 식민통치에 이용하려 하였던 것이다.

2. 公會堂

일본인들의 공사간 대소집회와 사회활동을 위한 집회장소로 1929년 府費 및 유지의 기부금으로 공회당 건설이 착공되어 1931년 준공되었다. 이 건물은 대구역전에 위치하였는데, 건축부지 480평, 정원용지 357평, 연건평 1,075평이었다. 수용인원은 대집회실 2,000인, 소집회실 180인이었다. 1935년 공회당 이용 상황은 대집회실 사용 97회, 소집회실 사용 155회 등인데, 이는 대부분 일본인들의 복리를 위한 사용이었다.

3. 公設 住宅

대구부는 중산층이하의 영세민의 생활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당시 남옥정(문화동), 동운정(동인동), 달성정(달성동)의 3개소에 부영주택 50호를 1922년에 완공하였다. 그런데 1926년

44) 사회시설에 관한 서술은 다음을 주로 참고하였다.

大邱府, 《大邱府勢一斑》, 1936, pp. 119~126.

達捨藏, 《慶北大鑑》上, 1936, pp. 328~329.

大邱府, 《大邱府史》府政編, 1943, pp. 205~227.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 제 2권, 1973, pp. 130~138.

달성정 소재 부영주택은 폐지되어 남옥정과 동운정에만 28호가 존속하였는데, 그나마도 일본인에게만 입주권을 주었고 한국인에게는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4. 公設 運動場

1931년 대구부는 당시 동운정(동인동) 소재 관유지 약 7,300평을 무상 대부받아 야구장 및 정구장을 설치하여 부민운동회장으로는 물론 일반단체의 집회장으로 이용케 하였다. 그후 1934년 운동장의 일부를 대구세무감독국청사 건축부지로 반환하게 되자, 1937년에는 대명동에 종합운동장을 완공하였다. 그 규모는 총 29,000평으로 야구장, 정구장, 육상경기장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5. 職業紹介所

1928년 5월 부림직업소개소가 부림도서관내에 설치되었다가 1935년에는 덕산동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직업소개소에서는 일반직업을 비롯하여 일용노동자의 소개, 또는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으로 말미암은 서북지방의 도로·철도 개설 및 수리에 필요한 노동자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일본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기관의 공업노동자 등을 알선하였다.

6. 公設 洗濯所

일제 침입과 더불어 시작된 시가 확장으로 샘의 수질이 오염되었고, 잇따른 시가지 정리 등으로 자연유수의 이용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 거기에다 상수도 시설은 오직 일본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으니 세탁할 곳조차 잃어버린 우리 주부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이 컸었다. 이에 대한 불평은 일제에 대한 원성으로 변해갔으니, 당황한 대구부는 그 대책으로 1920년 시장북통(시장북로) 소재 부유지 300평에다 세탁장을 설치하여 우물물과 수도물을 병용하는 공설세탁소를 마련하였다. 이어 1921년에는 덕산동에 1개소를 증설하였다가 배수 사정으로 폐지하였고, 1931년에 새로이 세탁장을 개설하였다.

7. 公設 典當舖

대구부에서는 일반 저소득층의 금전변통을 용이하게 한다는 명분하에 공설 전당포를 1929년 덕산동에 설치하였고, 1933년에는 일본인 거주 중심지인 포정동에 1개소를 증설하였다. 공설 전당포의 설치의 나날이 쪼들려가는 우리나라 서민층을 위한 것이었기 보다는 거의 빈주먹으로

도래한 일본인 부랑자가 정착하기까지의 생계를 돕기 위한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서둘러졌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좀처럼 용자를 받을 수가 없었다. 결국 공설전당포가 매년 적자를 보면서까지 저리대부를 견지한 것은 일본인 영세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함이었다.

第4節 大邱의 其他 公共機關

I. 軍事機關

대구가 조선조이래 군사 및 교통상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대구에는 러일전쟁이전부터 소수의 일본인 헌병이 주둔하여 그들의 통신시설과 철도시설을 보호하여 왔다. 그러다가 러일전쟁을 계기로 1904년 2월 일본군 1개 소대 병력이 대구에 주둔하게 되었으며, 이어 8월에는 중대 병력이 다시 주둔하게 되었다.⁴⁵⁾

이무렵 우국지사들이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완강한 항거를 시작하였다. 당시 일제가 강제로 군대를 진주시켜 국내도처에 주둔시키고 군사시설을 하며, 노략질을 하는 등 갖은 행패를 부리며 주권을 유린하는 처사를 마구 자행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大邱鎮衛隊가 해산된 직후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무력충돌이 일어나서 舊韓國軍이 日人軍警을 습격하는가 하면 도처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일인들을 괴롭혔다. 이에 일본은 군대를 증강하여 대처하려 하였고, 드디어 대구에는 1907년 일본군 제 12여단이 파견되어 사령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으며, 제 14연대와 제 10중대 본부도 역시 대구에 두게 되었다. 1909년 7월에는 제 12여단은 철수되고 臨時朝鮮派遣隊司令部로 대체되면서 병력이 증강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대구에는 임시조선파견대 보병 제 2연대본부 및 동 보병 제 3연대 3대대본부가 각각 두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군의 주둔에 맞추어 1908년 10월에는 京城衛戍病院大邱分院이 대구에 설치되었고 나중에 大邱衛戍病院으로 되었다. 1910년 6월 한일합방조약이 강제 조인되기 직전에 우리나라 경찰권이 일제에 강탈당하였고, 이에 대신하여 일본 헌병대가 국내 도처에

45) 이하 대구의 기타 공공기관에 관한 서술 중 별도로 전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다음의 기존성과를 참고하였다.

大邱府, 《大邱府史》府政編, 1943.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제 2권, 1973.

배치되었는데, 대구에는 대구헌병대 본부가 설치되었다.⁴⁶⁾

한일합방후 한국통치를 위해 무력적 강압수단에 호소하던 일제는 계속 한국내에 주둔군을 증강시켜서 1915년에는 한국에 일본군 2개 사단병력의 배치가 결정되었고, 대구에도 1916년 4월에 보병 80연대가 설치되었다.⁴⁷⁾ 兵舍는 대봉동에 신축되었는데, 지금의 美8軍(캠프헨리) 주둔지가 그곳이다. 그후 1945년 5월 연합군의 오키나와 공격으로 일본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연합군의 한반도 상륙에 대비한 燒土作戰을 수행하기 위해 80연대는 경북방위군 24부대로 개편되어 일본 항복시까지 주둔하였다.

이들 일본군대들은 우리 한민족의 구국항일투쟁을 억압 말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으니, 대구를 중심으로 영남일대에서 활동한 애국지사들이 이들에 의해 살해·체포·감금되는 등 온갖 비인도적 만행에 희생되었다. 특히 합방전후에 우리민족과 애국지사들이 대구헌병대에게 당한 만행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악랄한 것이었다.

II. 司法機關

앞의 조선후기편에 이미 서술되었듯이 1895년 지방제도의 정비와 함께 사법권은 행정 기구에서 분리 독립되었다. 즉 ‘裁判所構成法’에 의하여 재판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재판소의 기능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에는 漢城府裁判所, 지방에는 地方裁判所와 開港場裁判所가 제 1심 재판소로서 설치되었으며, 제 2심 재판소로서는 高等裁判所와 巡廻裁判所가, 왕족의 범죄 취급을 위해서는 特別裁判所가 각각 설치되었다.

그 후 1904년 경상북도 재판소는 대구에 두도록 되었고, 그 관할구역은 경상북도의 전 역이었다. 그러나 실제의 설치는 몇 년 지연되었다. 1908년에 이르러 개정된 재판소 구성법 및 시행법이 실시되어 종래의 법무조직에서 새로 채택된 3심제 4계급의 재판소가 설치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경제·군사·교통의 중심지였던 대구에는 1908년 7월에 大邱控訴院이 설치되었다. 당시 대구공소원의 관할구역은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이었고, 대구·진주·광주의 3개소에는 각 지방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기타 주요지방에는 區裁判所를 설치하였다. 1909년 11월에는 통감부에 사법청이 개설되어 전국의 사법업무를 주관하게 되었으며, 이때

46) 林鍾國, 《日本軍의 朝鮮侵略史(Ⅰ)》, 일월서각, 1988, pp. 127~131.

達捨藏, 《慶北大鑑》上, 1936, pp. 346~347.

47) 林鍾國, 위의 책, pp. 245~253.

達捨藏, 위의 책, pp. 344~346.

진주지방법재판소는 폐지되고 부산지방법재판소가 신설되었다.⁴⁸⁾

1910년 한일합방후 조선총독부가 설치됨에 따라 통감부사법청은 폐지되고, 총독부내에 사법부가 신설되어 전국의 사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관제개선을 구실로 모든 실권은 일본인이 장악하였고 한국관리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데 불과했는데, 이제 명실상부하게 그들이 실권자가 되었으니 자의로 재판기관을 이용하여 무고한 우리 애국지사들을 단죄 처벌하였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기관의 존재는 우리 민족에게 도리어 해가 되는 존재에 불과하였다.

1912년 종래의 대구공소원은 大邱覆審院으로, 대구지방법재판소는 大邱地方法院으로 각각 개칭되었으며, 區裁判所가 폐지되고 地方法院支廳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골격은 그후 거의 유지되었는데, 다만 대구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몇차례 변동이 있었고 일부 지청의 置廢가 있었을 뿐이다. 일제강점 말기의 대구복심원의 관할구역은 당시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남 북도와 전라남북도의 4도에 이르렀고, 관할구역내의 지방법원과 그 예하의 지청과 출장소는 다음과 같았다.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 상주지청 안동지청 의성지청 경주지청 영덕지청
울진출장소 군위출장소 청송출장소 영양출장소 포항출장소
영천출장소 경산출장소 청도출장소 고령출장소 성주출장소
왜관출장소 선산출장소 문경출장소 김천출장소 영주출장소
내성출장소 울릉도출장소

2.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밀양지청 통영지청 진주지청 거창지청
의령출장소 함안출장소 창녕출장소 양산출장소 동래출장소
울산출장소 김해출장소 고성출장소 거제출장소 사천출장소
남해출장소 하동출장소 산청출장소 함양출장소 함천출장소

48) 達捨藏, 앞의 책, pp. 350~352.

友邦協會, 《統監府時代の財政》, 1974, pp. 127~13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목포지청 장흥지청 제주지청

담양출장소 곡성출장소 구례출장소 광양출장소 여수출장소

고흥출장소 보성출장소 벌교출장소 화순출장소 강진출장소

해남출장소 영암출장소 나주출장소 함평출장소 영광출장소

장성출장소 완도출장소 진도출장소 서귀포출장소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정읍지청 군산지청

서천출장소 진안출장소 금산출장소 무주출장소 장수출장소

임실출장소 순창출장소 고창출장소 부안출장소 김제출장소

이리출장소

III. 警察機關

1894년 7월 ‘警務廳官制(1)’의 공포로 종래 지방관의 군사권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경찰권도 일원화되었다. 즉 서울에는 警務廳을 두어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고, 지방에는 각부 관찰사 지도하에 警務官을 두어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군수의 행정과는 분리하였다. 그 이듬해인 1895년 4월에는 ‘警務廳官制(2)’가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에는 警務署가 설치되었는데, 이 때 대구에도 경무서와 7개 지부가 설치되었다. 대구경무서의 관할구역은 경상북도 일원이었다. 그 뒤 1905년 7월에는 일본의 警察顧問部 설치에 따라 대구경무소에 警務補佐官과 補助員이 배치되었다. 같은 해 8월 대구경무서는 경상북도경무서로 개칭되었으며, 이듬 해 1월에는 경무보좌관 사무소가 警務顧問支部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08년 8월 경무부의 설치에 따라 대구경무서는 경상북도경무서로부터 분리되었다.⁴⁹⁾

그 뒤 合併直前인 1910년 6월 사법경찰사무 일체가 일본에 위임됨으로써 그들에 의해 헌병과 경찰을 통합한 憲兵警察制度가 실시되었다. 이에 의하면 통감부 직속하에 중앙에는 警務總監部를 두고 각도에 警務部를 두어 지방행정기관에서 분리 독립시키고, 朝鮮駐劄憲

49) 友邦協會, 《統監府時代の財政》, 1974, pp. 111~117.

兵司令官인 陸軍將官으로 警務總長을 겸직시켜 경무총감부의 장으로 삼아 통감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리케 하고, 警務部長은 각도의 헌병대장으로 겸직케 하고 경무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장리케 하였다. 당시 경상북도 경무부는 대구에 두어졌으며, 대구경찰서의 관할은 대구군과 청도군·자인군·경산군·칠곡군·현풍군 등이었다. 이들 헌병경찰은 경찰 및 위생 사무를 관장하는 이외에 범죄즉결, 민사소송조정, 검찰사무를 집행할 뿐만 아니라 도로수축, 산림보호 등 일반 행정에도 관여하고 있었다.⁵⁰⁾

그 후 1919년 8월 보통경찰제도가 채택되자, 총독부의 内局으로 警務局을 두었으며 각도의 경찰권은 도지사에게로 이관되었다. 경찰서의 책임자로는 署長을 두었는데, 서장은 관내의 경찰 및 위생사무를 掌理하고 부하직원을 지휘 감독하였다. 경찰서의 기구는 1932년 현재 警務係·兵事係·高等警察係·保安係·衛生係·司法係·會計係가 있었으나, 1938년에는 經濟警察係가 추가되었고 1943년에는 警備係가 추가되었다.⁵¹⁾

대구경찰서 청사는 경찰권이 우리 정부에 있을 당시에는 경상도 감영내 制勝堂을 사용하였으나 그후 경찰권이 실질적으로 일본인 수중에 넘어간 뒤에는 일본인 대구 거류민단 사무소를 일시 사용하였다. 1908년 11월에는 서문로에 청사를 신축하고 개청하였다. 그러다가 청사가 협소하여 1932년에 신청사를 건축 준공하였는데, 부지는 1,026평이었고 본관 건평은 404평 정도의 규모였다. 아울러 경찰관 파출소와 주재소의 수를 보면 1914년 당시 대구부내에는 경찰관 파출소 4개소와 달성군 내에 주재소 4개소를 두었다. 그후 계속 파출소와 주재소는 증설되어 1932년 당시 파출소가 12개소, 주재소가 15개소나 되었다. 1932년 당시 경찰서 인원은 약190명에 달하였으며, 이들은 관내의 保安·衛生·司法·治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⁵²⁾

IV. 其他 機關

1. 大邱地方專賣局

1910년 조선총독부관제로 外局으로 설치되었던 전매국은 1912년 관제개정으로 폐지되었다가 1921년 煙草가 전매품으로 되면서 다시 설치되었다. 연초·소금·인삼·아편 등의 전매사업은

50) 內務部 治安局, 《韓國警察史》.

51) 國立警察專門學校, 《韓國警察制度史》, 1955.

52) 達捨藏, 앞의 책, pp. 347~349.

담당하는 전매국은 京城·全州·大邱·平壤 등지에 전매지국을 두고 있었는데, 그뒤 지방전매국으로 개칭되었다. 전매국에는 庶務課·經理課·事業課·製造課·鹽菸課를 두었다.⁵³⁾

대구지방전매국은 1921년 조선연초전매령이 공포되자 부내 동운정(동인동)소재 구 조선총독부 度支部專賣課 대구출장소를 계승하여 사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동운정 소재 東亞煙草株式會社 대구분공장을 매수하여 이를 공장으로 하여 같은 해 7월부터 卷煙製造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이 청사 및 공장의 규모와 설비가 사업의 진전에 응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새로이 태평로에 청사 공장 및 창고를 신축하여 1923년 11월 일부 준공과 더불어 청사를 이전하였으며, 다음해 3월에는 공장이 전부 준공되었으므로 공장도 이전하는 동시에 권연제조를 개시하였다.

1924년 4월 刻煙製造가 개시되자 구 동운정 공장을 이에 충당하였으나 점차 협애하여지므로 1926년 4월 태평로 구내창고에 가설치하여 이곳에 이전하였다. 1927년 7월에서 1928년 6월에 걸쳐 신공장 및 직공휴게소를 증축하여 지국의 설비는 완료되었다. 지국개설 당시는 연초의 경작, 수납, 제조, 판매 및 取締를 관장하고 안동·부산·김천·밀양의 4출장소를 두고 경남·경북의 2도와 전라북도의 1군, 전라남도의 7군 및 강원도의 3군을 관할하였으나 그후 점차 출장소, 파출소의 폐지 및 관할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1930년 鹽輸入管理制度的 창시와 함께 염판매 및 취체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해방전에는 안동·김천·부산·진주·하동의 5출장소 및 판매소 54개소를 두고 경상남북도 및 전라남도의 일부를 관할하였다.

2. 大邱郵便局

대구에 있어서의 우편사무취급은 함방 훨씬 전에 시작되었는데 통신사무의 중요성에 비취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1904년 대구군 서상면에 郵便受取所를 설치되어 우편물 인수사무가 개시되었다. 다음해 2월에는 우편수취소는 폐지되고 부산우편국 출장소가 설치되어 우편집배사무는 물론 우편저금사무도 취급되었다.

1905년 5월 이 출장소는 대구군 대구읍 구 韓國郵便司 및 電報司의 위치에 이전되고 같은해 6월 전신사무도 개시되었으며, 10월에는 종래의 출장소는 폐지되고 대구우편국이 설치되었다. 1906년 7월 당시 대구군 동상면 칠성리에 局舍가 신축되어 이전하고 전화통화사무 및 보통전화 교환사무도 취급하게 되었으며, 1912년 4월부터는 소포통관사무도 개시되었다. 1912년 포정동에 청사가 신축되어 이전하였는데, 1934년 현재 국장 이하 용인 255명이 서무·

53) 內務部, 《韓國地方行政史》, 1966.

우편·전신 및 전화사무에 종사하였다.⁵⁴⁾

부의 발전에 따라 본국만으로는 사무취급상 부민의 요구에 응하기 곤란하게 되어 부내 수개처에 우편소가 설치되었다. 즉 元町(북성로)郵便所를 비롯하여 南龍岡町(공평동)郵便所, 德山郵便所, 市場町(동산동)郵便所, 三笠町(삼덕동)郵便所, 錦町(태평로)郵便所 등이 그것들로서 각각 우편·위체(환)·전신·전화·보험 등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3. 大邱稅關支署

통감부설치 이후인 1907년 대구에 保稅貨物 취급소가 설치되고 정부창고의 일부를 이용하여 사무취급을 하였다. 1910년 총독부관제로 稅關이 설치되었는데, 1912년 關稅令·돈(ton)稅令·保稅倉庫令·關稅定率令 등이 잇달아 개정되자 이에 관한 사무를 관장케 하기 위해 인천·부산·신의주(뒤에 나진)에 세관을 두고 그 밑에 세관지서·세관출장소를 두었다. 이에 대구에는 종래 보세화물취급소를 계승한 세관지서가 두어졌는데, 대구세관지서는 부산세관의 관할하에 경상북도 일원의 세관업무를 취급하였다.⁵⁵⁾

4. 大邱稅務監督局

대한제국 시절 우리 정부는 外官의 가렴주구가 심한 이유가 지방관헌이 행정권과 징세권을 공유한 데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징세사무를 도 또는 군으로부터 분리하고 새로이 財務監督局과 그 밑에 財務署를 두어 관장케 하였다. 그러다가 한일합방후 지방관 관제에 의해 재무감독국과 재무서는 폐지되고 재무감독국의 사무는 道財務部에서, 재무서의 사무는 府郡에 인계토록 되었다. 그 후 1934년에 稅務官署官制가 공포되어 총독부 관할하에 稅務監督局이 두어지고, 그 밑에 稅務署가 설치되어 세무의 감독과 집행을 맡게 되었다.⁵⁶⁾

이에 따라 대구세무감독국도 1934년에 설치되었는데, 그 관할구역은 경상남북도에 걸쳐 있었으며, 관내 세무서 수는 9개서였다. 세무감독국의 조직은 稅務·經理의 2부와 그외에 庶務課가 있었는데, 세무부 하에는 直稅·間稅·鑑定의 3과가 있었으며, 경리부에는 徵收·會計의 2과가 있었다. 그리고 관하 세무서에는 서무·직세·간세의 3과로 사무분담이 되어 있었다.

세무서에서 취급한 세종목은 內國稅로서 所得稅·營業稅·地稅·鑛稅·取引所稅·資本利子稅·

54) 達捨藏, 앞의 책, pp. 341~343.

55) 內務部, 《韓國地方行政史》, 1966.

56) 위의 책.

印紙稅·相續稅·登錄稅·朝鮮銀行券發行稅·取引稅·酒稅·清涼飲料稅·砂糖消費稅·臨時利得稅의 부과·징수와 官有財産 및 驛屯土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1934년 당시 대구 세무감독국의 직원은 관내세무서를 합하여 고등관 8명, 판임관 243명의 정원과 이외의 雇員 약 300명을 합하면 직원수 약 550명이 되었다.⁵⁷⁾

대구 세무감독국의 관내세무서와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았다.

대구세무서; 대구부 달성군 고령군 경산군 청도군
경주세무서; 경주군 영천군
포항세무서; 영일군 영덕군 울릉군
안동세무서; 안동군 영양군 청송군
의성세무서; 의성군 군위군
왜관세무서; 칠곡군 성주군
김천세무서; 김천군 선산군
상주세무서; 상주군 예천군 문경군
내성세무서; 봉화군 영주군

5. 大邱測候所

1907년 3월 통감부관측소의 관제가 제정되자 仁川臨時觀測所는 관측소로 되고, 대구는 관측소 支所로 되었다. 그 뒤 1908년 3월 통감부관측소 관제는 폐지되고 관측소는 한국정부의 관하로 되었으나, 1910년 합방으로 다시 총독부 통신국 관할로 되었다. 당시 관측소 수는 稅務監督局이 두어지고, 그 밑에 稅務署가 설치되어 세무의 감독과 집행을 맡게 되었다.⁵⁶⁾ 관측소 1, 측후소 8, 위탁관측장 44개소가 있었다.⁵⁸⁾ 1925년 4월 관제개정으로 종래 국고에 의해 운영되던 것이 도지방비로 이관되었다. 측후소의 사업으로는 기상관측 및 기상조사, 천기예보, 기상특보 및 폭풍경보, 상층기류관측, 일사관측, 지진관측, 무선전신, 라디오기상방송, 천기도발행, 기상순보발행 및 임시보고 등이었다.

57) 達捨藏, 앞의 책, pp. 395~397.

58) 友邦協會, 《統監府時代の財政》, 1974, p. 398.

第2章 大邱地域의 産業과 經濟

第1節 日帝 農業政策의 變化와 大邱地域

조선 후기 이래 농업생산력의 도약과 농업경영상의 변화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아래로부터의 내재적인 변혁을 추동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무력을 앞세워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이러한 자생적 움직임을 수용하지 않은 채 제국주의적 경제구조의 확립을 위해 농업부문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재편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농업부문에 대한 침탈은 해방에 이르기까지 그 근본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은 채 몇 단계의 정책적 변화양상과 맞물려 전개되었다. 본절에서는 이와 같은 시기에 따른 일제 농업정책의 단계적 변화양상을 개관하고, 그를 토대로 하여 대구지역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당시의 산업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했던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일제강점기 대구지역의 산업과 경제의 총체적인 이해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I. 1910年代 土地調査事業과 土地의 掠奪

일제는 일찌기 개항 직후부터 상인을 농촌사회에 침투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의 약탈을 진행해 왔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일본인 대자본가들이 토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화하면서 토지의 약탈은 더욱 촉진되었다. 1904년 6월에는 황무지 개척을 구실로 토지의 약탈을 강행하려 하기도 했다.¹⁾ 이는 보안회가 중심이 된 대중적 반대운동에 부딪혀 일단 철회되었지만, 일제는 1907년에 ‘國有未墾地利用法’를 제정하게 하여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일본인 자본가들은 다투어 농업회사를 설립하고 조선의 국유 미개간지는 물론 역둔토·궁장토 등까지 침탈하여 한반도 곳곳에 대규모의 농장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곧 1904년에 설립된 韓國農業株式會社를 비롯하여 韓國興業·韓國實業·山陰道產業 등 여러 농업회사가 삼남지방을 위시한 전국 각지에 많은 농장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1908년에 설립된 동양척식회사는 약 1년 6개월 사이에 3만정보

1) 尹炳夷, 〈日本人의 荒蕪地 開拓權 要求에 대하여〉《歷史學報》22, 1964.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²⁾ 이에 따라 일본 농민의 이주가 증대되었으며, 이들은 일제의 정책적 배려 덕분에 대부분 지주가 되어 토지소유를 확대시켜 나갔다. 이와 같이 일제는 이미 주권강탈 이전에 한국의 토지를 점탈하고 있었던 것이다.³⁾

이러한 일제의 토지 약탈은 1910년대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더욱 촉진되었다. 통감부 체제하인 1910년 3월에 토지조사국을 개설했던 일제는 조선총독부 설치 이후 일체 사무를 조선총독부로 이관시켜 臨時土地調査局을 설치하고 토지조사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게 하였다. 1년간 준비조사를 마친 일제는 1912년에 土地調査令·朝鮮民事令·不動産登記令을 반포하여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⁴⁾

이들 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주는 일정 기간내에 주소·성명·소유지의 소재지·지목·면적 등을 토지조사국에 신고하여 그 사유권을 인정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복잡한 시행절차와 극히 제한적인 홍보, 洞有地나 門中所有地 같은 신고가 어려운 땅의 존재 등으로 법령에 따른 신고는 극히 부진하였으며, 이렇게 미신고된 땅은 모두 총독부에 몰수당하였다. 그리고 宮庄土나 驛屯土 역시 총독부의 소유로 되었다. 게다가 1911년의 山林令과 1918년의 林野調査令에 의하여 국유산림과 소유주가 불명확한 산림도 모두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그 결과 1930년의 통계에 의하면 총독부가 소유한 전답과 임야를 합한 토지면적은 888만 정보로서 이는 전국토의 40%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총독부가 강탈한 토지의 일부는 동양척식회사나 일본 이민에게 헐값으로 불하되어 일본인 회사나 개인은 대지주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토지약탈은 대구지역에서도 예외없이 진행되었다. 이미 주권강탈 이전인 1907년 현재 대구와 그 부근 지역에도 야마다농장(山田農場)·가게야마농장(影山農場; 낙동강가의 사문진 일대)·韓國拓植會社 농장(경산군)과 같은 일본인들의 대농장이 설치되었다.⁵⁾

이러한 현상은 토지조사사업을 거치면서 더욱 촉진되었을 것이 자명하나, 대구지역의 일본인의

2) 동양척식회사의 토지약탈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安秉珪, 〈東洋拓植會社の土地收奪について〉《朝鮮社會の構造と日本帝國主義》, 1977.

趙幾瀾, 〈日本の土地侵奪과 農業移民〉《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1973.

——, 〈日人農業移民과 東洋拓植會社〉《韓國近代史論》1, 1977.

3) 통감부시기의 일제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黑瀬郁三, 〈日露戰後の朝鮮經營と東洋拓植會社〉《朝鮮史研究會論文集》12, 1975 참조.

4)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서술은 아래의 논저를 참조하였다.

慎鏞夏, 《朝鮮土地調査事業研究》, 1982.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研究》, 1991.

李在茂, 〈朝鮮における土地調査事業の實體〉《社會科學研究》7~2, 1955.

5) 姜東鎮, 《韓國 農業의 歷史》, 1982. pp. 231~232.

구체적인 토지소유실태를 전하는 자료의 미흡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점이 아쉽다.⁶⁾ 그렇지만 몇가지의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이는 쉽게 추지될 수 있다. 우선 토지조사사업이 막 추진되기 시작하였던 1913년 무렵 경북지방에서 직접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일본인의 경지소유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다.⁷⁾ 이 자료는 1913년 말 현재까지 일본인으로 조선의 토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경영하는 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농업경영자수 6,049인이 답 96,344정보, 전 63,517정보, 산림원야 197,934정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고, 경북 지방에는 747인이 농업경영에 종사하면서 답 5,327정보, 전 3,279정보, 산림원야 1,911정보 등 도합 10,556정보를 소유지로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구가 속해있는 경북지방의 통계를 고려하면 대구지역에 대한 토지약탈 정도는 넉넉히 짐작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경북의 중심지였던 대구는 이미 1903년에 일본거류민회가 발족되었고, 1906년에는 統監府令에 의해 大邱理事廳이 설치되어 집중적인 식민활동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활동은 1910년 이후 본격화되어 대구지역으로의 일본인 이주자는 계속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936년 무렵의 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부 내의 일본인 호수가 6,324호, 인구 27,638인으로 집계되고 있는데⁸⁾ 이는 대구부 인구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것이었다.⁹⁾ 이러한 일본인의 이주와 정착이란 한정된 대구지역의 경지면적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조선인 소유경지가 약탈당하고, 축소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인들에게 토지를 빼앗긴 대구지역의 조선인들은 결국 절대 빈곤에 허덕이게 되었고, 서간도·북간도·일본 등지로 유랑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II. 1920年代 産米増殖計劃의 實施와 그 實體

일제는 1910년대에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약탈에 주력하는 한편, 그들의 필요성에 따라 일련의 농업정책을 시행한 바 있었다. 쌀·면화·畜牛·양잠의 ‘개량’과 증식정책이 그것이다.¹⁰⁾ 이는 오로지 일본 자본주의의 필요에서 나온 조치로 쌀은 저임금의 유지와 식량부족

6) 당시 大邱府의 사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하는 자료로 인정되는 《大邱府勢一斑》1936年刊 및 1939年刊에서도 일본인의 토지소유상황에 대한 별도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7) 朝鮮總督府 編, 《最近朝鮮事情要覽》, 1914, pp. 199~201.

8) 達捨藏, 《慶北大鑑》, 1936; 경인문화사 영인본, 《慶北大鑑》, 1989, pp. 199~201.

9) 達捨藏, 앞의 책, p. 368.

10) 石塚峻, 〈農業獎勵方針に就て〉《朝鮮農會報》1922년 3·4월호.

해소라는 측면에서, 면화는 방직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누에고치는 생사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는 군수 식료품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고작 경종법의 개선과 우량품종의 보급으로 대표되는 일본농법의 강제이식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통적인 농업기술체계의 교란과 재래 품종의 구축에 다름 아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선농민의 강렬한 저항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는 그러한 농사개량의 방법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¹¹⁾ 거기에다 1918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쌀소동¹²⁾은 식량의 확보를 위해 식민지 조선에 대한 농업정책의 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높였다.

이에 일제는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농업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것이 193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소위 ‘産米増殖計劃’이었다.¹³⁾ 총독부는 이 산미증식계획의 목적으로 1) 조선내의 수요증가에의 대비, 2) 농가경제의 성장으로 반도경제의 향상 도모, 3) 제국(일본)의 식량문제 해결에 이바지 함에¹⁴⁾ 있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3) 제국의 식량문제 해결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30년 동안에 경종법 개선과 80만정보의 토지를 개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920년 산미증식계획 ‘제1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이 제1기 계획의 요지는 농사개량 및 수리조합의 설립, 토지개량사업의 촉진에 의해 약 900만석의 증수를 이룩하여 그중 약 460만석을 일본으로 가져간다는 것이었으나, 1925년까지 사업의 추진 결과 계획의 60%에 못미칠 만큼 실적이 부진하였고, 경종법과 시비법의 개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산미증식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1926년에 ‘제2기 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제2기 계획’의 특징은 금융지원을 비롯한 사업비의 지원 증대와 토지개량사업 대행기관의 설치, 금비의 장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35만

11) 飯沼二郎, 〈日帝下朝鮮における農業革命〉《朝鮮史叢》4·5合, 1982.

12) 吉光古典, 〈植民地朝鮮における一九一八年—米騒動と朝鮮〉《歴史評論》216, 1968.

13) ‘산미증식계획’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으나 이 글의 서술에는 주로 아래의 논고를 참조하였다. 그래서 이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註記는 생략한다.

久間建一, 《補訂朝鮮農業發達史》, 1943.

——, 《朝鮮農政の課題》, 1943.

林炳潤, 《朝鮮における商業的農業の展開》, 1970.

河合和男, 〈朝鮮産米増殖計劃植民地農業展開〉《朝鮮史叢》2, 1967.

鄭文鍾, 〈産米増殖計劃과 農業生産力 停滯에 관한 研究〉《한국근대농촌사회와 농민운동》, 1988.

李鎬哲, 〈植民地時代 農業生産力の 構造와 旱田農法〉《朝鮮近代 經濟史의 研究成果》, 1989.

14) 朝鮮總督府 編, 《朝鮮産米増殖計劃要領》1992, p. 5.

정보의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이 이루어져 약 817만석을 증수하고 그중 500만석을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제2기 계획’은 목표의 약 47%에 해당되는 16만 5천정보를 개량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일제가 추진했던 산미증식계획은 크게 보아 대략 두가지의 방향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농사개량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수리시설의 설치와 수리조합사업으로 대표되는 토지개량사업이었다. 아래에서 두 가지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농사개량사업부터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농사개량사업은 품종의 개량, 경종법의 개선, 시비법의 개량 등을 통해 미곡의 증산을 꾀하려는 사업이었다. 첫째 일제는 미곡증산을 위하여 일본에서 개발된 다수확 품종을 우량품종으로 선정하여 조선에 보급하였다. 일본품종의 보급은 이를 통해 수확의 증대를 기하고 일본인의 기호에 맞는 품종을 생산하려는 목적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¹⁵⁾ 그렇지만 조선에서도 오래전부터 기후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종이 있었다. 조선 쌀의 특성은 맛이 좋고 한발에도 발아력이 강하고 小肥로도 일정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반면에, 도열병에 약하고 다수확을 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¹⁶⁾ 이에 반해 일본 품종은 다수확인 반면 많은 시비와 규칙적인 물의 공급이 필요하였다.

일제는 일본품종의 보급을 위하여 각 지방에 권업모범장 및 각 지방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계통적인 보급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早神力·穀良都·雄町·高千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품종의 보급은 조선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되기가 어려웠고, 또 수리시설의 부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으며, 또 일본 품종의 강제 자체가 조선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일제는 농사개량의 제1요건이 곧 품종개량이라 내세우며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 실시를 기도하였다. 각 면지역에 모범답을 설치하거나 개량종을 파종하여 경작·수확·조제에 이르기까지 통제하여 그 우수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개량종 벼 재배를 원하는 일제는 국유지를 불하하여 특혜를 베풀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각종 농사단체 및 지주회를 통하여 품종의 개량을 장려하였다.¹⁷⁾ 나아가 도, 군, 면의 행정기관, 그리고 헌병대, 경찰, 각종 농사단체를 동원하여 강압적인 방식으로 품종 개량을 장려하였다. 그 결과 1925년에는 거의 논의 70%정도에 일제의

15) 田保橋潔, 《朝鮮統治史論稿》, 1972.

16) 朝鮮總督府, 〈勸業模範場〉《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 25周年紀念集》上, 1930.

17) 이는 각종 地主會에서 소작인에게 일본품종의 재배를 시행시킬 것을 결의하고, 그 내용을 소작계약서에 명문화하고 있는 사실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소위 ‘우량품종’을 재배하게 되었고,¹⁸⁾ 논농사 지대인 남부지방은 거의 80% 이상이 개량종으로 바뀌게 되었다.¹⁹⁾

이와 같이 개량종이 급속히 보급될 수 있었던 요인은 일제권력의 강권적인 재배 강제에서 주로 찾을 수 있지만, 개량품종이 가격면에서 재래종보다 우위에 있었던 점과 이로 인한 지주층의 선호, 세제상의 혜택 등으로 지주 및 자작농이 그 재배를 확대하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농사개량정책의 일환으로 경종법의 개량을 들 수 있다. 일제는 조선의 농법을 조방적, 무비료 농법으로서 유치하고 원시적인 수준이라고 혹평하면서, 농업 기술에 대한 개량을 시도하였다. 일제가 시도한 경종법 개량은 종자에 대한 철저한 선종의 장려, 새로운 못자리 설치방식의 보급, 正條式의 강행, 추경과 심경의 장려, 제초 회수의 증가, 피뽑기의 장려, 조제의 장려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위 ‘개량농법’은 일제가 明治 연간에 개발한 福岡農法을 조선에 이식한 것으로,²⁰⁾ 水田 중심의 영세 소농법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기후와 풍토 및 농업조건이 다른 조선에서 일본식 농업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웠고, 조선은 나름대로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오고 있었다.²¹⁾ 그러므로 경종법의 개량 역시 시종 강제와 철저한 감시 감독에 의해서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조식 재배를 강요하던 일제는 만약 정조식 식재를 하지 않으면 면서기를 동원하여 벼논을 밟아 뭉개고 다시 심을 것을 강요하고 있고, 피뽑기를 장려하기 위해 조선 총독이 통첩을 발하여 부, 군직원은 물론 농사 순회교사, 면, 리장으로 하여금 장려하게 하고 경찰 관헌의 협조를 얻어 못자리에 피뽑기가 용이한 短柵形 苗垆 설치를 강제하였다. 심지어는 경북 군위군의 사례처럼 보통학교의 학생들에게 매일 2백 포기씩 피를 가져오게 하였다. 미곡 건조와 조제의 강제를 위하여 ‘미곡검사령’과 ‘미곡건조조제규칙’을 제정하였고, 영천 지주회에서는 조제규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소작인으로부터 소작료 1할을 징수하고 또 소작권을 탈취함으로써 이를 강제하였으며, 예천에서는 10호당 1인의 단속위원을 두어 경무관헌과 협의하여 규칙 준수를 강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강압적인 경종법 개량 결과 조선미는 품질의 향상을 가져와 일본미와 대등할 정도로

18) 日本農林省 熱帶農業研究センタ, 《舊朝鮮におけね農業試験研究の成果》, 1975.

19) 위의 책.

20) 農法研究會, 《農法展開의 論理》, 1975.

21) 李鎬哲, 〈앞의 논문〉 참조.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²²⁾ 그러나 경종법 개량은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더욱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원인이 되었고, 조제의 강제 등은 부담의 증가로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일제하 지주제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제, 농사개량정책의 또 하나의 내용으로는 시비법의 개량을 들 수 있다. 소위 ‘개량종’은 많은 시비를 필요로 하였고, 이러한 비료의 투입이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없었다. 그래서 일제는 시비법의 개량에 힘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것은 대대적인 자급비료의 증산계획과 녹비재배의 장려 및 금비 시비의 강제로 나타났다. 곧 일제는 각 도에서 퇴비, 녹비, 인분뇨, 대두박, 과인산 석회 등의 증산 장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지도케 하는 한편 퇴비의 증산과 제조, 자운영 등의 녹비작물의 재배를 강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금비사용을 적극 장려하였다. 1918년에 발표된 金肥施用獎勵計劃²³⁾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시비법 개량정책은 자급비료에 의존하던 조선재래의 시비체계를 금비 중심의 시비체제로 바뀌게 했고, 비료대의 증가는 농가 생산비의 증대를 가져와 소작농의 경제적인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나아가 조선 농민들의 지주에 대한 예속을 강화시키고 일본 산업자본의 수탈 구조에 편입되어 산업자본-지주-조선소작농의 수탈체계를 형성케 하였다.

다음으로 수리조합사업으로 대표되는 토지개량사업에 대해 개관하기로 한다. 일제는 미국 증산을 위한 방안으로 기성답의 관개 개선, 전을 답으로 하는 지목의 전환, 개간, 간척 등의 토지개량사업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畓 154만 정보 가운데 관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121만 정보 중 1/3 가량을 개량할 계획을 세웠다.²⁴⁾ 또 밭 가운데 약 1할을 논으로 만들 것을 계획하였으며, 그외 대략 20만정보의 황무지와 간사지를 개척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한 시설 계획으로 경지확장의 기본조사, 토지개량에 대한 보조,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기관의 설치, 저리 자금의 융통·알선, 지도·감독에 종사하는 인원의 배치 등을 계획하였다.²⁵⁾

이러한 계획의 실행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한 것이 수리사업이었다.²⁶⁾ 일찌기 대대적인 수리 시설의 증축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수리사업은 ‘산미증식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무 10년 수리조합 조례가 발표되었으며, 융희 2년에는 수리조합 설립 요령

22) 이점 일본미와 조선미의 가격을 비교해 볼 때, 조선미의 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朝鮮總督府 殖産局, 《朝鮮の米》, 1923 참조).

23) 朝鮮農會 編, 《朝鮮農會報》 14~5, 1923.

24) 朝鮮總督府, 《朝鮮の農業》, 1921.

25) 朝鮮總督府, 위의 책, 1921.

26)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서의 수리사업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는 李榮薰 外, 《近代朝鮮 水利組合研究》 1993이 있다.

및 모범 규약을 정하여 수리조합 설립을 종용하였다. 그리고 수리조합의 설립을 계획하고 본격화되었다. 즉 1920년 이후부터 수리 시설의 확충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일제는 1915년에 하천답사를 완료하였고, 1917년에는 ‘조선수리조합령’을 반포하였다. 1922년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가) 재래의 보와 제언에 의한 것이 23만 8천 9백여정보, 나) 정부의 보조를 받아 수축된 것이 5만 1천 8백여정보, 다) 수리조합에 의한 것이 4만 2천 8백여정보, 라) 관의 허가를 받아 개인 경영에 의한 것이 8천 2백여정보로 나타나고 있다.²⁷⁾

그런데 이러한 수리사업은 대자본이 필요한 대규모 공사로서 대지주나 대자본가가 아니면 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리사업은 일본인 대지주를 중심으로 행해졌고 이들은 수리조합비를 징수하여 또다른 이득을 챙기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수리조합의 설립이 기존의 조선 재래의 시설을 파괴하는가 하면 일본인에 의한 수리조합 구역내 조선인의 토지를 약탈하는 구실이 되기도 했다. 어쨌든 이러한 수리사업의 결과 전국에 걸쳐 다수의 수리조합이 설치되었다. 1925년 현재의 수리조합의 현황을 表로서 정리하면 다음 <表2-1>과 같다.

<表 2-1> 1925년 수리조합의 현황²⁸⁾

도 명	조합수	관개면적	몽리면적	수리조합비산출	조합비(반당)
경기도	8	6058 정보	6879 정보	6.92 원	6.63
충 북	4	1256	1256	5.74	5.22
충 남	6	6513	6523	7.62	5.38
전 북	8	42479	42572	6.97	3.75
전 남	3	2745	3261	6.26	5.90
경 북	4	3287	3554	4.70	4.42
경 남	13	12108	13450	7.66	6.78
황 해	2	10911	11442	7.04	6.72
평 남	2	1509	1667	6.59	6.59
평 북	5	20677	20687	8.02	5.80
강 원	3	13573	12570	6.47	6.27
함 남	5	3030	4047	4.91	4.52
함 북	2	970	1109	5.14	5.14

이상과 같이 농사개량과 토지개량이라는 두가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추진된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은 외견상 미곡의 증산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곡증산의 이득은

27) 朝鮮中央經濟會, 《朝鮮産業大鑑》, 1912.

28)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942 참조.

일본인을 비롯한 지주층으로 귀결되었고, 영세소농의 입장에서서는 오히려 생산비가 대폭 증가했고, 노동력의 투입이 크게 늘어났으며, 소작료의 고율화로 더욱 궁핍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작부체계와는 다른 미곡단작화가 가속화되었고, 이는 농가경제의 불안정성을 촉진하였다. 더구나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일본으로의 미곡반출은 크게 증대된 반면, 조선인의 미곡소비량은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는 일제의 조선 농민에 대한 쌀 수탈이 그만큼 집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조선 농민은 스스로 생산한 쌀을 수탈당하는 대신 만주에서 생산된 조로 생계를 이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산미증식계획’은 일제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식민지적 농업정책의 대표적인 예로서, 조선 농업의 일제에 대한 예측이 더욱 강화되는 요인이 되었으며, 또 식민지적 지주제가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강제적으로 추진된 ‘산미증식계획’은 조선 농민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것이 1920년대와 30년대에 걸쳐 끈질기게 발생했던 소작쟁의이다. 소작쟁의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농민의 토지상실과 소작인화가 근원적인 배경으로 되어 있었지만, 산미증식계획의 강행 과정에서 파생된 소작료의 고액화, 소작권의 불안정성, 각종 공과금(수리조합비 포함) 부담의 과중, 총독부 정책 및 일본인 지주에 대한 민족적 저항심 등이 주요 요인이 되었다.²⁹⁾ 이 때문에 3·1운동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소작쟁의가 발생했고 그 발생건수도 해마다 증가했다. 조선총독부 측의 통계만으로도 1920년에 15건의 소작쟁의가 일어났고, 25년에는 204건, 30년에는 726건, 35년에는 25,834건이 일어났으며, 1937년에는 가장 많은 31,799건이 일어났다.³⁰⁾ 이러한 소작쟁의의 원인은 초기에는 소작료를 둘러싼 쟁의가 많았으나, 점차 소작권 또는 소작지 관계의 쟁의가 증가하고 있어 당시 조선 농민들이 소작지나마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도 물론 ‘산미증식계획’은 그대로 관철되었다. 농사개량과 토지개량정책이 강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구지역에도 몇 개의 수리조합이 ‘산미증식계획’ 기간 동안 설치되었다. 이를 表로서 정리하면 다음 <表 2-2>와 같다.

29) 姜萬吉, 《韓國現代史》, 1984, p. 65.

30) 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における朝鮮治安狀況》, 1938.

〈表 2-2〉 대구지역의 수리조합³¹⁾

조 합 명	소 재 지	설치시기	계획몽리 면 적	실몽리면적	총공사비	비 고
수성수리 조합	달성군 수성면	1924.5	370.0정	392.9정	167,281圓	대구부에 편입됨
동부수리 조합	상동	1928.2	136.5	134.5	88,901	상동
해안수리 조합	달성군 해안면	1931.2	490.7	490.7	369,689	상동
팔달수리 조합	달성군 달서면	1931.12	50.7	46.4	15,736	상동

이와 같은 대구지역의 수리조합 설치의 외전상 수리안전담의 증가와 미곡의 증산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러한 외형적인 성장만으로 대구지역의 농업이 발전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이다.³²⁾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일제가 자국내의 식량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식민지적 수탈정책의 일환으로써, 조선 농민의 입장에서는 미국단작화의 심화, 지주제의 강화, 소작료율의 인상, 노동 투입량의 증대 등으로 더욱 열악한 상태로 떨어져 갔으며, 스스로 생산한 쌀을 대부분 수탈당하는 대신 만주에서 생산된 조를 식량으로 삼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민지적 수탈정책으로 말미암아 궁핍화의 길을 걷게 된 대구지역의 농민들도 소작쟁의를 전개하였다. 1922년 7월 달성군 가창면의 소작농민들은 부당하게 소작권을 박탈하는 지주와 마름의 횡포에 항거하여 공동으로 소작권 이전조치를 무시하고, 원소작인이 소작지에 모내기를 강행하여 소작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³³⁾ 그리고 1923년에는 대구노동공제회 산하에 설치된 농민부가 달성군 농민대회를 개최하여 소작인이 중심이 된 농민조직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달성군 농민대회에서는 소작료를 수확의 1/2로 하고, 지세는 지주가 부담하며, 토지에 대한 잡부금 부가를 반대하는 등의 사항을 결의하여 지주에게 전달하는 한편, 사회에 호소하여 큰 파문을 던지기도 하였다.³⁴⁾

31) 達捨藏, 앞의 책, p. 15.

32) 예컨대 대구시사편찬위, 《대구시사》 제2권, pp. 215~216에서는 이를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이해하고 있다.

33) 《東亞日報》, 1922년 7월 6일자.

34) 《東亞日報》, 1923년 5월 7일자.

그리고 달성군 해안면에는 해안면소작조합이 결성되어 소작인의 권익 확보를 위해 투쟁하기도 했다.³⁵⁾

III. 1930年代 農村振興運動의 展開와 그 實體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일본의 식량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조선 농민의 궁핍화는 한층 더 심화되어 농촌의 細民戶 및 窮民戶는 급증하게 되었다. 세민호·궁민호가 1926년에는 215만명이었으나 1930년에는 434만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궁핍화의 심화는 소작쟁의와 같은 치열한 농민의 저항운동을 초래하였고, 또 세계적으로는 1929년의 세계대공황이 발생하여 그 여파가 일본에 밀려들고 있었으며, 일본은 대륙침략을 본격화하여 1931년 만주사변을 도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일제는 1932년부터 ‘春窮退治’·‘借金退治’·‘借金豫防’의 세가지 목표를 세우고, 소위 ‘農村振興運動’을 전개하였다.³⁶⁾ 이는 외견상 최대한 수탈적 요소를 감추고 농촌의 ‘자력갱생’을 통해 이른바 ‘문화와 경제의 조화’와 ‘물심양면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슬로건을 표방하였다.³⁷⁾ 1931년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宇垣一成은 이듬해에 총독부 산하에 ‘농림국’을 신설하여 ‘농촌진흥운동’을 지원하게 하는 한편, ‘조선총독부농촌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하고 정부총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촌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선에서 농산어촌의 진흥에 관한 방침을 심의하는’³⁸⁾ 중추기관으로 삼았으며, 각급 지방단위인 도·군·읍면에도 농촌진흥위원회를 설치하였다.³⁹⁾ 그리고 지방의 농촌진흥위원으로 중견관리 및 권업사무 담당

35) 慶尙北道, 《慶尙北道史》中, 1983, p. 123.

36) 이하 ‘농촌진흥운동’에 대한 서술은 아래의 논저를 참조하였다.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 1973.

朱奉圭, 〈日帝下 農村振興運動에 관한 研究〉《經濟論集》17~4, 1979.

池秀傑, 〈1932~35년간의 조선농촌진흥운동〉《韓國史研究》46, 1984.

宮田節子, 〈朝鮮における農村振興運動〉《季刊 現代史》2, 1973.

松本武祝, 〈植民地期朝鮮의 農業政策と村落〉《朝鮮史研究會論文集》29, 1991.

37)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1940, p. 668.

38)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農村振興委員會規程〉《朝鮮農村振興關係例規》, 1939.

39) 이러한 ‘농촌진흥운동’의 추진기구에 대한 검토는 青野正明,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農村再編成政策の位置付け〉《朝鮮學報》136, 1990 및 金學秀, 〈1930년대 日帝의 農村組織化와 朝鮮農民의 對應〉(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94에 자세히 다룬다.

관리·지방유식자·경찰관리·학교직원·교회단체의 장 등을 위촉하였다.⁴⁰⁾ 또 읍면 단위 자연 부락에는 ‘농촌진흥회’가 두어져 이 운동 추진의 말단 시행기구로 기능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관변조직 이외에도 전통적인 민간조직인 계와 향약을 이용하여 운동을 원활하게 추진하려 하였다. 금융조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殖産契’나 ‘新郷約’이 그것이다. 그밖에 외곽단체로 ‘청년단’과 ‘춘부인회’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운동을 추동해 나갈 소위 ‘중견인물’을 양성하기 위해⁴¹⁾ ‘농민훈련소’·‘농업보습학교’·‘강습회’를 설립 운영하였다.

농촌진흥운동은 먼저 色衣보급으로 대표되는 ‘생활개선사업’에서 시작하여 농가경제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갱생을 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조선 농민의 궁핍화가 가속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파생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자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전환이었다. 일제가 1934년에 ‘조선농지령’을 제정 반포하면서 소작인에 대한 지주층의 일정한 양보를 강요하여⁴²⁾ 조선 농민을 회유하려 하고 있었던 것도 ‘농촌진흥정책’의 실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일제는 ‘산미증식계획’ 이래의 미국중점주의를 포기하고 유축 다각경영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⁴³⁾ 그러나 1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조선 농업구조상의 미국단작이 정책변화에 의해 쉽게 바뀌기는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1935년부터 이 운동은 이른바 ‘心田開發運動’·‘皇民化政策’으로 표현되는 일종의 정신운동으로 전환되어 농민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던 중 1938년 부터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시작되면서 농촌진흥운동은 이에 흡수되기 시작하여 1940년 농촌진흥회가 폐지됨과 더불어 종말을 맞게 되었다.⁴⁴⁾

이상에서 살핀 바 처럼 ‘농촌진흥운동’은 1920년대 이래 식민지적 지배구조의 모순이 증대되면서 점차 지배체제로부터 이탈해 가고 있던 소작농을 비롯한 조선 농민을 회유, 체제내로 편입 흡수하여 농민에 대한 통제를 효율화하려 했던 관제농민운동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40) 朝鮮總督府, 《朝鮮農村振興關係例規》, pp. 3~4 및 宮田節子, 앞의 논문, p. 200 참조.

41) 朝鮮總督府, 《農山漁村における中堅人物養成施設の概要》, 1936.

42) ‘조선농지령’에는 “지주와 소작인의 協和의 정신 아래 소작농의 지위를 안정시키고 소작지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여, 지주층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제가 조선 농민을 회유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결국 지주층의 반발을 받아 전혀 효과를 얻지 못하고 말았다.

43) 富田晶子, 《準戰時下朝鮮の農村振興運動》《歴史評論》377, 1981.

그리고 이러한 有畜 多角經營으로의 전환은 米穀 單作으로 인한 경제공황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기도 하다.

44) 池秀傑, 앞의 논문, p. 132.

그러면 이러한 ‘농촌진흥운동’ 시기의 대구지역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대구는 경상북도의 중심지였으므로 1932년에 ‘경상북도농촌진흥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때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다음 <表 2-3>과 같다.

<表 2-3> 경상북도농촌진흥위원회 위원일람⁴⁵⁾

직 명	인 원	직 명	인 원
참여관	1	시학관	1
각 부장	3	소작관보	1
관방주사	1	금융조합 이사장	1
각 과장	13	어업조합 이사장	1
산업관계 주임기술관	7	대구농림학교 교장	1
사회주사	1	대구재주 도평의회원	6
산업주사	1	합 계	38명

<表 2-3>에서 보이듯이 경북농촌진흥위원회는 당시의 주요 관직자 및 각종 관변단체의 장, 그리고 교육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경북지방의 운동 추진의 중추기구가 되었다. 그리고 대구는 도시화의 진전으로 말단기구인 郡島農村振興會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달성과 경

산, 칠곡 등에는 읍면을 단위로 하는 농촌진흥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운동의 추진 초기에 소위 ‘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색의 보급을 강제하던 관헌과 조선 민중 사이에는 잦은 마찰이 발생하였던 바, 그러한 상황은 대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쨌던 ‘자력갱생’을 표방했던 ‘농촌진흥운동’에도 불구하고 조선 농민들은 그 궁핍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갔다.

IV. 1940年代 戰時收奪體制와 朝鮮增米計劃

1929년의 세계대공황과 1930년의 대풍작으로 일본에서 미가가 크게 폭락하자,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을 철회하고 앞에서 살핀 ‘농촌진흥운동’으로 그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제는 식민지 농업정책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전환시키게 된다. 사실 일본에서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얼마까지도 식량정책을 낙관하고 있었다. 일본의 연간 미국 소비량 1억석 가운데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으로 부터 약 1,400만석 내지 1,500만석에 달하는 미국반입⁴⁶⁾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8년에 이르면 전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증미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39

45) 慶尙北道, 《農村振興施設要領》 부록, 1934, p. 34.

46) 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 朝鮮支部, 《朝鮮經濟年報》, 1943, p. 65.

년에는 증미계획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조선증미계획’이라 부를 수 있다.⁴⁷⁾ 일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종법의 개선을 통한 농업경영의 집약도를 향상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경종법의 개선을 통한 미곡증산이란 조선 농민에 대한 노동력의 수탈일 뿐이었다. 일제가 제시한 경종법의 개선은 대략 모와 못자리의 개선, 본답관리의 철저, 병충해의 구제, 지력의 유지와 증진, 종자갱신의 강화, 지도망의 확충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수리시설의 확충과 같은 토지개량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증미계획이 달성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1939년에 실시되었던 증미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일제는 식량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1940년부터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미곡증산계획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1940년 1월 총독부 농림국장이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미의 조달을 목적으로 ‘조선증미계획강화’를 발표하였다. 이렇게 수립 실시된 ‘조선증미계획’은 계획 완성 연차를 1950년으로 잡고 1945년까지 463만석, 1950년까지는 583만석을 증수할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인 시책으로 경종법 개선에 치중하여 금비 시용, 종자갱신, 수도채종답 경영, 병충해 방제 등을 시달하고, 추진기구로 국민총력동맹의 최하부조직인 부락연맹과 기타 농촌 단체를 총동원하였다. 그러나 시행결과는 1940년의 경우 1939년보다 약 700만석의 증수를 보였지만, 전체 수확량에서는 오히려 예년보다 밀도는 실적이었고, 1941년에도 겨우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데 불과 하였다.

그래서 다시 1942년에는 ‘조선증미갱신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갱신계획에 의하면 완성연도를 1955년으로 잡고, 토지개량과 경종법 개선에 의해 1,130만석의 증수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토지개량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 ‘조선농지개발영단’을 설립하고, 총 8억 3,600萬圓의 예산규모로 이를 추진했지만, 노동력과 자재의 부족, 한발의 연속으로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중일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일제는 장기전의 수행을 위한 군수미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앞에서 살핀 ‘조선증미계획’은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일제는 조선 농민에 대한 전면적 수탈을 강행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온 것이 공출제도였다. 먼저 1939년 ‘조선미곡배급조정령’을 제정하고 곧 ‘임시미곡배급규칙’(1940년)을 실시하여 조선 농민으로 하여금 자가 소비용과 종자를 제외한 쌀은 모두 의무적으로 총독부에 일정한 가격으로 바치게 함으로써 쌀의 자유시장을 완전히 폐쇄시켰다. 1941년에는 조선양

47) ‘조선증미계획’에 대한 이하의 서술은 崔由利, 〈日帝末期 ‘朝鮮增米計劃’에 대한 研究〉《韓國史研究》 61·62합의 도움을 받았다.

곡중앙배급조합이라는 기구를 조직하여 총독부가 출하와 배급통제를 직접 관할하였고, 계속 다양한 양곡통제기구를 만들어 통제를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확대로 재정 및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가자 공출제도는 쌀에서 잡곡으로 확대되었고, 개별 농민에 대한 할당제, 부락 책임 공출제가 강행되었다. 그해의 공출량을 군, 면을 통해 각 농가에 미리 할당하여 공출을 강행하는 한편 할당된 공출량을 부락마다의 연대책임 아래 전액 납부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아래의 <表 2-4>에서 보듯이 1940년부터 실시된 공출제도로 전체 생산량의 40%에서 60% 이상이 강제 공출되었다.

<表 2-4> 미곡생산고와 공출량⁴⁸⁾ (단위: 천석)

년 도	생 산 고		할 당 량		공 출 량		공출비용
	쌀	보리	쌀	보리	쌀	보리	
1940	21,527	8,565	—	2,674	9,208	1,699	42.8
1941	24,886	7,305	—	2,853	11,255	1,329	45.2
1942	15,687	6,323	9,119	1,638	8,750	1,593	55.8
1943	18,719	8,142	11,956	3,221	11,957	3,067	63.9
1944	16,051	—	10,541	—	9,634	—	60.0

특히 1942년 부터 강제공출이 시작되면서 최대한도의 책임반출량을 결정하여 조선 내의 식량사정에 관계없이 일본 제일주의로⁴⁹⁾ 일본에의 미곡반출에 전력을 쏟았다. 그리고 조선 내의 식량부족은 만주로부터의 잡곡 수입으로 충당하는⁵⁰⁾ 한편 나머지 부족분은 조선 내의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 내의 식량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대부분의 조선 민중은 극심한 기아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증미계획’이 실시되고, 전시수탈체제가 전개되면서 대구지역의 사정도 전국적인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대구의 중심지역은 상공업도시로 변모되어 있었으므로, 이 계획의 직접적인 실시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변두리의 농촌지역이 그 계획의 실시과정에서 큰 괴로움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 동안 대구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이나 수탈의 실태는 자료의 한계로 밝혀내기가 어렵고, 경북지방의

48) 朴慶植, 앞의 책, p. 193.

49) 近藤一 편, 《太平洋戰下の朝鮮》 4, 1963, p. 87.

50) 近藤一 편, 위의 책, p. 19.

상황을 토대로 약간의 시사를 얻을 수 있다.

경상북도에는 1940년 ‘조선증미계획’의 구체적인 실시방침으로 ‘농업생산계획’을 수립하였다.⁵¹⁾ 이에 의하면 경북을 위치와 기후 및 토양조건에 따라 남부지대(대구 부근지역)·중부지대(의성, 선산 지역)·중부산간지대(청송,영양 등지)·북부지대(영주,봉화 등지)·연해지대(영일, 포항 등지)의 5개 지대로 나누고 농업생산물의 증산을 위한 여러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대구지역은 남부지대에 속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책은 선종·못자리 방식의 개선·병충해 방제·금비의 사용 등 영농법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별 차이가 없으나, 벼 품종의 경우 日進·豐玉·改良愛國을 우량품종으로 지정 보급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구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조선증미계획’은 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전시수탈체제 하에서 대구지역에도 미곡에 대한 공출제가 시행되어 많은 조선 민중들이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다. 일제가 공출한 대구지역의 미곡량에 대한 구체적 통계자료는 미상이나 경북지방 전체의 경우 1941년에 115만 6천석, 42년에 74만 1천석, 43년에 119만 2천석, 44년에 32만 1천석의 공출실적을 보여주고 있어,⁵²⁾ 대구지역의 상황도 미루어 짐작할만 하다.

第2節 大邱地域의 農業 侵奪

I. 大邱地域의 農業과 農村의 實態

1. 大邱地域 農業의 概觀

대구지역은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금호강과 그 지류인 신천이 가로질러 흐르는 분지지역으로 수리가 편리한 충적평야가 발달하였으며, 토질이 비옥하고 기후조건이 양호하여 농업의 적합지로 손꼽혀 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대구지역의 농업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요인으로 인해 그 전모를 제대로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51) 小野寺二郎, 〈農業生産計劃例〉《朝鮮の農業計劃書と農産擴充問題》, 1943.

52) 朝鮮銀行, 《經濟統計年鑑》, 1949.

첫째, 대구라는 공간적 범위가 빈번한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변동이 심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거주 인구수나 경지의 면적 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일정한 공간적 범위 위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한말의 대구부는 오늘날의 대구지역과 거의 대차 없는 현재의 달성군 지역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공간이었으나, 일제 강점후인 1914년에 새로운 부제가 실시되면서 대략 오늘날의 대구시 중구지역에 칠성동 정도가 포함되는 수준으로 극도로 축소되었으며, 이후의 간헐적인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다가 1938년의 대구부의 행정구역 대확장으로 그 공간적 범위가 크게 넓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일제강점기의 통계는 모두 그때그때의 대구부의 공간범위 위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현재의 市域을 기준으로 하는 농업관련 통계자료의 작성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둘째, 대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점차 상공업도시로 변화 발전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대구부에서의 농업의 비중은 점차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의 대구지역의 농업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약하였으며, 당연히 관련자료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째, 대구지역의 농업도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농업의 한 구성부분으로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제의 식민지적 농업정책의 변화에 의해 대구의 농업도 규정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 대구지역의 농업에 대한 별도의 파악을 어렵게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제약을 감안하면서 본절에서는 일제강점기 대구지역의 농업의 대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미 앞에서 자세하게 논급된 바 있듯이 일제강점기의 대구부의 행정구역상의 범위는 여러차례 변화하였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확장과 축소로 말미암아 농업과 관련하여 일제시기에 작성된 여러 통계자료는 동일한 기준의 공간적 범위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무릅쓰고 1930년대 6년간의 대구부의 총인구 변화를 정리하면 <表 2-5>와 같다.⁵³⁾

53) <表 2-5>는 1936年刊《大邱府勢一斑》및 1939年刊《大邱府勢一斑》의 戶口에 대한 통계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는 大邱府,《大邱府史》府政篇, 1943, p.71에 나와 있는 인구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表 2-5〉

1930년대 대구지역의 인구변화

구분 년도	조 선 인		일 본 인		중 국 인		기 타		합 계	
	호수	인구수	호수	인구수	호수	인구수	호수	인구	호수	인구수
1932	15,286	76,527	6,010	26,550	115	363	14	61	21,426	103,511
1933	15,732	77,689	6,224	27,638	95	412	16	58	22,067	105,797
1934	16,240	80,557	5,924	26,602	112	448	15	50	22,291	107,657
1935	15,856	79,103	5,849	26,150	97	414	9	49	21,811	105,716
1936	16,351	81,449	5,955	26,769	88	386	19	65	22,413	108,669
1937	29,439	143,497	6,231	28,037	33	135	16	52	35,719	171,717

〈표 2-5〉에 의하면 대구지역은 1936년까지 대략 10만을 약간 상회하는 인구가 유지되다가 1937년에 17만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달성군 지역의 대구부 편입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그리고 1938년의 부역 확장으로 더욱 큰 폭의 인구증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구 가운데서 농업 및 목축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935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1,171호 5,432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고,⁵⁴⁾ 1937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5,864호 29,213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⁵⁵⁾

한편 1936년에 발간된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전체 조선인 가운데 82.9%가 농림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데 대해 대구지역의 조선인은 19.4%가 농림목축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어⁵⁶⁾ 앞의 자료와 대세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대구에서의 농업인구의 비중은 1912년대에 90% 이상이 농업과 관련을 맺고 있었던 사실이나 1936년 당시의 전국적인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구가 상공업 중심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인구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소유경지의 현황이다. 1936년 당시의 자료를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⁵⁷⁾

54) 《大邱府勢一斑》, 1936, p. 7의 現住戶口職業別表 참조.

55) 《大邱府勢一斑》, 1939, p. 7 및 《大邱府史》特殊篇, pp. 212~213 참조.

56) 達拾藏, 앞의 책, pp. 369~370.

57) 達拾藏, 위의 책, p. 370.

〈表 2-6〉 농가1호당 평균 소유농지의 비교 (단위: 畝)

地域	畓	田	計
朝鮮 全 地域	58	165	225
南韓 地域	56	60	112
大邱 地域	527	176	703

고 있던 대구지역에 다른 군지역에 다수의 농지를 보유한 지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 지주들의 소유농지는 대구지역에도 존재했을 다수의 小作農 및 영세 自小作農의 실태⁵⁸⁾를 감안한다면 〈表 2-6〉의 통계보다 훨씬 컸을 것임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대구지역에는 대규모의 농지를 보유한 지주계급이 타지역 보다는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농업의 기반이 되는 대구부의 경지면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관련자료를 정리하면 아래의 〈表 2-7〉과 같다.⁵⁹⁾

〈表 2-7〉 농가1호당 평균 소유농지의 비교 (단위: 정보)

년 도	畓			田	합 계
	일모작	이모작	계		
1921	65.9	174.5	240.4	246.7	487.1
1926	65.7	144.3	210.0	188.8	398.8
1931	5.0	190.4	195.4	145.2	340.6
1936	3.5	142.2	145.8	123.3	269.1
1941	395.1	2,132.1	2,527.2	2,028.9	4,556.1

성을 가진다고 본다. 〈表 2-7〉에 의하면 1921년 이래 1936년에 이르기까지 대구부의 경지면적은 축소 일로를 걷고 있었다. 이는 대구지역의 농업이 쇠퇴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저간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1941년 통계에서 획기적인 경지면적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1938년에 있었던 대대적인 府域

위의 〈表 2-6〉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듯이 대구지역의 농가 1호당 평균 소유농지는 조선 전 지역의 통계나 남한지역의 통계치 보다 월등하게 높다. 특히 보다 생산력이 높은 畓의 경우 대략 9~10배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시화가 진행되

위의 자료는 몇번 언급했듯이 일제강점기의 대구부의 행정영역이 몇차례 개편되어 왔으므로, 반드시 동일한 공간적 범위를 토대로 작성된 통계는 아니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대체적인 경작면적의 변화상을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용

58) 당시의 전국적인 소작농의 비율은 전체 농업인구의 47.2%에 달하고 있으며, 자소작농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80.8%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達捨藏, 앞의 책, p. 370)

59) 大邱府, 《大邱府史》府政篇, pp. 141~142.

확장의 결과 달성군에 포함되어 있었던 농촌지역이 다수 편입되었기 때문에 대구 중심가의 도시화의 진행이나 상공업도시로의 변모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지면적에 대한 통계를 볼 때 일제강점기의 대구지역은 그 중심지역은 이미 농업과 거의 무관한 상태로 되어, 타군에 넓은 경지를 보유한 부채지주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으며, 시 변두리 지역만이 농업에 종사하는 일종의 농업지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의 농업 역시 전체 산업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규모 등에 있어서는 여타 농업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전술한 일제의 농업정책에 의해 규정받으면서 쌀과 보리 등의 주곡 중심 농업을 전개해 왔고, 또 환금작물로서 면화와 연초를 재배하였으며, 잡업도 역시 농가의 농업활동에 주요 부분을 이루었다. 그리고 채소와 과수 재배 등 일종의 근교농업적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구지역 농업에 대한 개관을 토대로 다음에서는 특정한 농촌지역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大邱地域 農村의 實態－1930년대 達西區 桃源洞의 경우

일제강점기 대구지역의 농업사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전체적인 소묘와 더불어 특정 농촌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미시적 고찰도 긴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후자와 같은 접근은 자료의 한계로 쉽지 않은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1940년에 간행된 印貞植의 《朝鮮의 農業地帶》에는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達城郡 月背面 桃源里(현재 대구직할시 달서구 도원동)에 대한 귀중한 보고가 실려 있다.⁶⁰⁾ 그래서 여기서는 이를 토대로 열악하기 짝이 없었던 대구지역 농촌의 실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먼저 거주자들의 계급구성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원동은 모두 57호가 거주하는 마을로서, 그 가운데 지주는 1호도 없다. 경지는 대부분 부채지주의 소유이며, 이 촌에서 10km 남짓 떨어진 대구부에 거주하는 부호가 바로 경지의 소유자이다. 이들 57호를 소유 규모에 따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의 3개 범주로 나누어 보면 자작농 7호, 자소작농 23호, 소작농 22호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혀 경지를 소작하지도 못한 피고용자가 5호 존재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 중 피고용자층은 최근 7~8년(대략 1932~33년으로 추정됨) 이래 소작농이나 자소

60) 印貞植, 《朝鮮의 農業地帶》, 1940. 이하의 서술은 이 책 pp.98~114에 의거하였다.

작농에서 전락한 부류이며, 소작권 쟁탈 경쟁에서 탈락하여 소작경지로부터 유리된 존재이다. 이들은 마침 이 촌에 산림이 많아 薪炭을 채집하여 대구에 내다 팔거나 농번기에 日雇傭살이와 사방공사나 토목공사의 日雇勞動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작농은 현재 7호이나 7~8년 전까지는 12호였으며, 최근 7~8년 사이에 5호의 농가가 경지를 상실하고 자소작농 혹은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이들 전락농가가 경지를 상실한 이유는 모두 농경비와 생계비의 현금지출 증대에 따른 고리대 부채로 말미암아 경지를 대구의 부호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소작농의 소작농으로의 이동도 최근 7~8년간 현저하게 촉진되었다. 7~8년 전에는 대략 4~5 반보를 소유한 자소작농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앞의 자작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리대 부채로 인해 소유경지를 대구의 부호에게 넘겨준 결과였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통해 우리는 1930년대 이후 농촌 촌락인 도원동은 한마디로 서서히 몰락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리대 부채 등으로 말미암아 대구에 거주하는 부호에게 점차 경지를 넘겨주고 자작농, 자소작농에서 소작농, 피고용자로 전락해가는 농민들의 실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원동의 실태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당시 경북 전체의 소작농가 비율이 농가 총호수의 48%를 점하고 있었던 사실에서 충분한 방증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도원동의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다음 <表 2-8>과 같다.

<表 2-8> 도원동 농가 1호당 평균 경지면적

		畓		田	計
		一毛作	二毛作		
自作農		1.6(反)	3.6(反)	5.3(反)	10.5(反)
自小作農	自作地	0.6	1.7	1.7	4.0
	小作地	1.4	3.6	3.1	8.1
小作農		0.3	3.2	2.4	5.9

위의 <表 2-8>에 보이듯이 자작농의 경우도 경지면적이 그리 크지 않거니와, 자소작농의 경우 대부분을 소작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주목되는 것은 소작농의 평균 경지면적이 극히 왜소하다는 점이다. 이는 전국 평균 소작

경지면적 1町 4畝와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소작농의 급격한 증가로 소작권을 둘러싼 경쟁이 너무 심하여 평균소작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자는 말하고 있다.⁶¹⁾ 이와 같은 경지면적의 실태를 통해서도 우리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61) 印貞植, 앞의 책, p. 101.

대구지역 농촌의 실상을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도원동에는 생산수단의 일부를 이루는 농기구나 소의 보유 실태도 극히 나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농가 가운데 개량 농기구로는 회전탈곡기 12대 정도가 눈에 띄고, 나머지는 모두 재래농구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役牛(소)의 보유도 총 19두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11두만이 11호 농가의 소유였고, 나머지 8두는 預託牛로서 대구의 지주의 소유였다. 저급한 수준의 농기구와 인간의 노동력에 대부분 의존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생활의 한 모습을 이로써도 규지할 수 있다.

대구의 지주와의 사이에 관행화된 소작조건도 농민들에게 극히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 먼저 밭에는 대부분 보리를 심고 콩이나 면화를 간작하는데, 소작료는 보리 수확에 대해서만 60%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간작으로 심은 콩이나 면화에 대해서는 소작료가 면제되는 대신 지세를 소작농이 부담해야 했다. 지세는 대략 간작 수확고의 60%에 해당되었으므로 결국 지주에게 모든 밭 작물 수확고의 60%를 소작료로 무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다음 논외의 경우 이모작은 생산된 벼의 60%를 소작료로 바치고, 보리는 소작농이 전부 가진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세를 소작농이 물어야 했으므로 밭의 경우와 다르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이상과 같은 소작료 외에 소작료의 운반비 및 검사료까지 소작농이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소작조건으로 말미암아 소작농은 더욱 궁핍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도원동의 개별 농가경제는 빈곤의 악순환 속에 놓이게 되었다. 벼와 보리 같은 주곡의 재배 만으로는 궁핍을 면하기 어려워 연초를 재배하는 농가도 있었지만, 그 현금수지는 적자에 가까울 정도였다. 그리하여 농가의 부채는 더욱 증가하게 되고, 결국 대구의 부호에게 남은 경지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1930년대를 거쳐 40년에 이르는 대구지역 농촌촌락인 달서구 도원동의 실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는 특정한 개별 촌락의 상황이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나머지의 농촌도 대차없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당시 대구지역의 농촌은—한반도의 어느 농촌이나 마찬가지로—궁핍화를 강요당하며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II. 主穀의 栽培 實態와 收奪

앞에서 일제강점기 대구지역의 농업을 개관하면서 보았듯이 대구분지와 그 부근 지역은

경지의 비옥도가 높고, 수리관개가 편리하여 먼 고대부터 주요한 농업지대로 발전해 왔다. 재배작물은 매우 다양하였지만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쌀과 보리의 주곡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주곡의 재배는 일제의 농업정책의 변화에 규정되었고, 또 생산물은 집요한 수탈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앞에서 검토한 일제의 농업정책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면서 대구지역에서의 주곡재배 실태와 수탈의 문제를 살피기로 하겠다. 다만 여기에서도 먼저 전체해 두고 싶은 것은 일제강점기를 통한 대구지역의 행정구역의 변화로 말미암은 일정한 통계지표의 미흡으로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그 대세만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의 대구지역 경지면적의 통계자료에서 보이듯이 대구지역의 행정구역 변화에 따라 1938년 이전까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곡생산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 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상을 보인다.

〈表 2-9〉 대구지역 논의 면적변화⁶²⁾ (단위: 정보)

	1921	1926	1931	1936	1941
일 모 작	69.5	65.7	5.0	3.5	395.1
이 모 작	174.5	144.3	190.4	142.2	2,132.1
계	240.4	210.0	195.4	145.8	2,527.2

〈表 2-9〉에서 보이듯이 대구지역의 논의 1921년 부터 193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구가 도시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모작 답이 현저하게 축소되는 특징이 보인다. 이는 일제가 추진해 온 ‘산미증식계획’ 이래의 수리조합 설치와 같은 소위 토지개량사업의 영향과 더불어 보다 생산력이 높은 2모작으로 전환하고 있었던 대구지역 농민들의 자구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1941년의 통계에서 논의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1938년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달성군, 경산군의 농촌지역이 다수 대구부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1920년부터 ‘산미증식계획’을 수립·실시하게 되는데, 그것은 경종법 개선으로 나타나는 농사개량사업과 수리조합 설치로 대표되는 토지개량사업의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었다. 이 계획의 실시기간 동안 대구지역에도 수성·동부·해안·팔달수리조합이 설립되어 수리안전답이 늘어났고, 품종의 개량, 못자리의 개선, 정조식의 장려 등의 경종법 개선이 장려되었다. 그러나

62) 大邱府, 앞의 책, pp. 141~142의 표 가운데 논의 경우만을 뽑아 재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대구지역 조선 농민의 생활이나 농가경제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 이는 일제가 자국내의 식량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식민지적 수탈정책의 일환으로써, 조선 농민의 입장에서선 미국단작화의 심화, 지주제의 강화, 소작료율의 인상, 노동 투입량의 증대, 수리조합비를 포함한 영농비 부담의 가중 등으로 더욱 열악한 상태로 떨어져 갔으며, 스스로 생산한 쌀을 대부분 수탈당하는 대신 만주에서 생산된 조를 식량으로 삼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어 갔다. 1930년대 대구지역의 주곡생산에 관한 통계를 表로서 보이면 다음 <表 2-10>과 같다.

<表 2-10> 1930년대 대구지역의 주곡생산⁶³⁾ (단위: 면적; 정, 수확고 반당수량; 석)

년 도	쌀			보 리						콩		
				논			밭					
	작부	수확	반당	작부	수확	반당	작부	수확	반당	작부	수확	반당
1933	160	2,933	1.776	165	3,460	2.097	50	582	1.154	13	112	0.76
1934	160	2,320	1.450	164	3,435	1.095	50	845	1.645	12	51	0.42
1935	156	2,448	1.569	162	3,500	2.160	49.7	822	1.649	9.5	65	0.68
1937	1,883	32272	1.716	1,999	34920	1.747	1717	19588	1.141	978	6450	0.66

위의 <表 2-10>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반당수확량이다. 쌀의 경우 반당수확량이 약 1.4석에서 1.7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935년에서 1940년에 이르는 5개년을 평균한 조선 전체의 평균 반당 수확량 1.35석에 약간 상회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보리의 경우도 쌀과 마찬가지로 전국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신빙한다면 외형상 대구지역의 주곡은 증수효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증수된 주곡이 대구지역 조선 농민의 경제적 지위향상과는 무관한 것임을 다음의 곡물소비량에 대한 통계와 대비하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63) 이 <표>는 《大邱府勢一斑》, 1936 및 《大邱府史》 특수편, p. 218의 통계를 종합한 것이다.

조선농민의 곡물소비량⁶⁴⁾

〈表 2-11〉

년 도	쌀	보리	조	콩	기타	계
1920~24 %	0.638석 32.2	0.412석 21.6	0.343석 17.3	0.177석 9.5	0.399석 20.1	1.979석 100
1925~29 %	0.512석 28.2	0.394석 21.7	0.363석 20.2	0.163석 9.3	0.376석 20.7	1.511석 100
1930~34 %	0.447석 26.2	0.411석 24.8	0.322석 19.4	0.417석 9.0	0.334석 20.1	1.657석 100

쌀의 반당 수확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앞의 〈表 2-10〉 참조), 위의 〈表 2-11〉에서 보이듯이 해가 갈수록 쌀의 연간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고, 보리의 경우도 약간의 폭은 있으나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에서 증수 목표량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일본으로의 반출량은 그 목표를 달성했던 사실과 그대로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지역의 농민들도 주곡의 재배와 생산에서 약간의 증수를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제의 수탈로 말미암아 생산된 쌀과 보리를 빼앗기고 오히려 만주에서 생산된 잡곡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일제는 이러한 대구지역에서 생산된 주곡의 수탈을 위하여 1917년에 이미 ‘대구곡물상조합’을 만들어 독점적인 미곡 거래를 행할 수 있게 하였고, 앞에서 살펴보듯이 1939년에는 ‘조선미곡배급조정령’을 발표하여 공출제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942년부터는 강제공출제도를 통해 더욱 철저한 수탈을 행했던 것이다. 경북지방 전체의 경우 1941년에 115만 6천석, 42년에 74만 1천석, 43년에 119만 2천석, 44년에 32만 1천석의 공출실적을 보여주고 있다.⁶⁵⁾ 이러한 수탈로 말미암아 대구지역의 농민들은 기아선상에 허덕이거나 연명을 위해, 만주, 일본 등지로 유랑의 길을 떠나야 했다.

III. 特殊作物의 栽培와 收奪

대구지역은 주요 농업지대의 하나였으므로 주곡 이외의 다양한 작물의 상업적 농업이 조선 후기 이래 발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작물의 재배도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지적

64) 印貞植, 《朝鮮農業經濟論》, 1949, p. 85.

65) 朝鮮銀行, 《經濟統計年鑑》, 1949.

농업구조 속에 재편되어 일정한 변형을 겪었으며, 또 수탈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에 대구 지역에서 재배된 특수작물로는 채소·면화·담배·과수·양잠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식민지적 농업의 특성이 비교적 강하게 드러나는 면화와 과수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1. 陸地棉의 栽培 强制와 收奪

고려말 문익점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면화는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농가의 상업적 농업경영에서 중요 작목의 하나가 되어 농가 경제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것은 생산·유통·소비되고 있었던 여러 종류의 직물 가운데 면포가 가장 보편적인 의료라는 점과 더불어 적어도 16세기 이래 면포 자체가 그 보편적인 사용가치를 기반으로 일종의 화폐와 같은 유통 수단으로 기능하였으며, 또 중세의 수취체계에서 쌀과 함께 수취에 중점을 둔 품목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면작의 증가와 그에서 파생된 직물수공업의 변화는 이른바 자본주의 맹아의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조선 후기 경북지방의 경우 면직과 면업이 부농층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한편으로 부농층 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⁶⁶⁾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선 후기 이래의 면화재배와 직물수공업은 개항 이후의 외래 면직물의 수입과 유통으로 순조롭게 성장하지 못하고 심한 왜곡과 좌절을 겪게 되었다. 특히 일제의 주권침탈 이후 일제는 한국을 식량 및 원료의 공급지로 재편해 갔으며, 그 과정에서 면화재배의 실태와 그 성격에 있어서도 자연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⁶⁷⁾

일제는 1880년대 이후 자국 방직산업의 발전을 위해 값싸고 품질 좋은 원면을 확보할 필요성이 계속 증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면화재배는 기후의 부적합 등으로 극히 생산량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재래면의 경우 섬유의 질 조차 나빠 기계방직에는 적합하지 못한 사정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재래면 재배의 한계로 말미암아 면사방직업의 급속한 발전에 비례하여 원면의 대외의존율도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일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한반도를 원면의 공급지로 삼기 위한 정책을 펴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로서 제시된 것이 소위 육지면의 보급 시도와 재배 강제였다.

일제는 이미 1902년부터 목포 부근 고하도를 중심으로 육지면의 시험재배를 시행하여 한국에서의 육지면 재배가 유망하리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1905년에는 면화재배협회를 창립하여

66) 이윤갑, <18·19세기 경북지방의 농업변동> 《한국사연구》 53, 1984.

67) 이하 전국적인 육지면 재배 강제에 대한 서술은 權泰億, 《韓國近代棉業史研究》, 1989를 참조하였다.

한국에서 육지면 재배를 추진하여 자신들의 방직업의 원면 공급지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 체결과 통감부 설치 이래 한반도의 육지면 재배사업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1906년 일제는 한국농업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권업모범장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기에는 면화재배에 관한 각종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육지면 재배사업은 일제의 정책사업 가운데 하나로 본격적인 추진을 보게 된 셈이다. 그리하여 1906년에는 면화재종포를 전라남도의 영암·해남·진도 등지에 설치하였고, 위탁재배 모범작포 제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육지면 재배 강제는 주권의 강탈 이후 더욱 집요하게 추진되었다. 총독부 설치 이후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일제에 의한 육지면 재배 강제정책은 그 시기와 정책기조에 따라 대체로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번째는 1912년~1918에 이르는 시기로 육지면 재배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육지면 재배 확장정책에 착수했던 단계이다. 이 시기는 주지하듯이 ‘토지조사령’·‘부동산등기령’·‘회사령’ 등을 발표하여 일제가 초기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추진해 갔던 시기이거나, 육지면 재배 강제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일제는 1912년에 기존의 면화재배협회를 해산하고 한국에서의 육지면 재배에 관한 일체 사무를 각 도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1912년에서 17년에 이르는 이른바 ‘육지면 재배 장려 6개년 계획’을 시작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명목적으로나마 민간단체를 앞세워 추진했던 육지면 재배 강제정책의 추진 주체가 도와 같은 행정기구 중심의 식민지 지배기구 차원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제는 이러한 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종자의 무상 급여, 비료의 보조, 모범작포의 설치 운영과 같은 당근을 제공하는 한편, 군청, 면사무소 직원 뿐만 아니라 헌병까지 동원하여 재래면의 재배를 규제하고 육지면 재배를 강요하였으며, 농민들을 강제로 면작조합에 가입시키는 등의 억압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우리 농민의 저항으로 파종면적이나 생산량이 계획대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두번째 단계는 1919년에서 1932년에 이르는 육지면 재배 장려를 위한 10개년 계획이 수립 추진되었던 시기이다. 그 배경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의 미국과 영국이 취한 면화통제정책의 여파로 면화가격이 등귀하고 원면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제는 소위 ‘삼백-미·면·잠사-’의 증산에 농정의 초점을 맞추면서, 면작에 대해서는 1919~1928년 10년 동안 총 재배면적 25만 정보를 확보하고, 면화 2억 5천만근을 생산한다는 장려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일제는 육지면의 품종을 개량하고 기술을 지도하는 한편, 면작지도리동을 선정하여 재배를 강제하였다. 그러나 계획 기간중 육지면의 가격이

폭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조선 농민의 저항이 완강하여 역시 계획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말았다.

세번째 단계는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인 1933년 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새로운 면화증산 계획이 수립된 시기이다. 파종면적 35만정보, 생산계획 4억 2천만근의 달성이라는 무모한 계획을 세운 일제는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강압적이고 전면적인 면화증산계획에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면작 장려를 위한 예산을 증가하고 기술지도 담당 인원수를 늘리는 한편, ‘면작지도군’을 지정하여 3년간 ‘특별히 농후한 지도·장려’를 가한 뒤 다른 군으로 그것을 옮기는 방식으로 면화 증산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리고 면작장려 전지역에 공동작포를 설치하였으며, 심지어는 ‘부인공동면작포’까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개 농가별로 ‘면작고지서’를 할당하는 강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일제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면적만큼 면화재배를 강제하기 위하여 밭수기의 보리까지 갈아엎는 만행을 자행하였다.⁶⁸⁾ 이에 대해 조선 농민의 소극적·적극적 저항이⁶⁹⁾ 뒤따르면서 계획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일제의 육지면 강제 재배 정책의 기초는 대구지역의 면화재배에 대해서도 거의 그대로 관철되고 있었다. 다만 대구지역은 서서히 농업지역이 축소되고 상공업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으므로 약간의 차별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대구지역의 면화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육지면이 재배된 것은 1905년 대구지역의 유력인사였던 서상돈의 후원 아래 한 일본인이 남산동 구 대건학교의 구릉에 富植園이라는 농원을 설립하여 화초·과수·정원수·서양종 야채류와 더불어 육지면을 시험재배한 것이라고 한다.⁷⁰⁾ 이후 일제 당국의 육지면 재배 장려와 더불어 대구지역 곳곳에서 육지면의 재배가 시작되어 1906년에는 면화시작장을 설치하였다. 한편으로는 대구에는 아직 채종포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일인 지주에게 육지면의 재배가 위탁되었다.⁷¹⁾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로 인해 대구지역에도 육지면의 재배가 본격화 되었으나, 이미 상공업도시로 서서히 발전하고 있었던 대구부의 경우 경작면적이나 수확고의

68) 《동아일보》, 1938년 5월 17일자.

69)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발견되는 대표적인 한 두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慶北 永州郡 文殊面에서는 “棉田에 잡곡과 배추를 간작했다고 지도원 4, 5명이 지주를 구타하여 난투국이 벌어졌다.”(1937. 9. 21)

② 전북 김제에서는 “면작 지도원을 각면에 출장시켜 몇달만 지나면 수확하게 될 보리를 베어버리게 하고 그곳에 면화를 심게 하니 농민들이 보리를 베어버린 땅을 두드리며 통곡하였다.”(1939. 5. 27)

70)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제2권, 1973, p. 220.

71) 《면화재배협회제2회보고서》, 1907, p. 10.

측면에서 서서히 쇠퇴일로로 걷고 있었다. 1939년 현재 대구부지역의 면화경작은 식부면적 95.7정보, 수확고 65,753근으로 집계될 정도였을 뿐이었다.⁷²⁾

다만 현재의 시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간적 범주가 일제시대와 비교하여 달성군의 대부분과 경산군의 상당부분, 칠곡군의 일부가 대구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의 육지면 재배는 앞에서 살핀 일제의 육지면 재배강제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서서히 확대되어 나갔다. 대구지역에 편입된 이들 지역의 구체적인 식부면적이나 수확고는 자료의 부족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육지면 재배가 확대되었을 것임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⁷³⁾

1912년부터 7개년간이 일제의 소위 ‘제1기 면작장려’ 시기이거니와, 이때 경북에서는 교통이 편리하고 면작이 유망한 15개군에 대하여 장래 9,980정보에 육지면을 재배케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모범작포의 설치, 종자의 자가 채종과 배부, 면작조합의 조직, 면화의 공동판매 등을 강제하여 오히려 계획보다 많은 12,696정보의 성적을 올린 바 있었다. 이 계획에서 달성군, 경산군, 칠곡군이 면화재배 유망 15개군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 이른바 ‘제2기면작장려계획(1919년에서 10개년간)’에서도 달성, 경산, 칠곡군은 육지면 재배강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간, 지목변경 등의 방법으로 면화재배 면적이 늘어났으며, 면작기술원이 파견되고, 면작조합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시기에는 1925년의 보기드문 흉작과 1926년의 면화가격의 폭락, 그 직후 2년간의 연이은 한해 등으로 계획은 실패하였고, 면화재배도 위축되었다. 이러한 면화원료공급지로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경상북도 당국은 특별히 1930년에서 3년간 기간을 설정하여 장려계획을 수립했으나, 가격의 폭락과 농민의 저항 등으로 오히려 장려정책을 중지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33년부터 경북도는 다시 총독부의 면화증산계획에 입각하여 면작장려군을 지정하는 등 ‘제4기 면화장려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이 때 달성군은 1933년에서 1935년까지, 경산군은 1936년에서 1938년까지, 칠곡군은 1939년에서 1942년까지 면작장려군으로 지정되어 상주 지도원이 파견되었고, 집약재배지도포가 설치되었으며, 면작지도면이 설치되는 등 일제의 육지면 재배강제에 시달리게 되었다. 참고로 이러한 ‘제4기 면작장려계획’의 실시를 전후한

72) 조선민보사, 《경북연감》, 1941, p. 41.

73) 이하 달성·경산·칠곡군의 면화재배에 대한 서술은 達捨藏, 《慶北大鑑》 1936; 경인문화사 영인판, 《慶北大鑑》 上, 1989, pp. 66~72 및 같은 책 下, 달성군·경산군·칠곡군조를 참조하였다.

시기의 경북지방의 면화재배실태를 표로서 정리하면 다음 <表 2-12>와 같다.⁷⁴⁾

<表 2-12> 면화재배실태와 그 변천

년 도	재배면적	수확고	반당수량	판매고	판매금액
1932	12,691.2(정)	10,042(천근)	80(근)	3,674(천근)	469,256(圓)
1933	16,828.3	14,479	86	5,415	688,105
1934	22,042.6	14,686	67	7,022	1,122,455
1941	46,891.9	21,695	46		

위의 <表 2-12>에 의하면 ‘제4기 면화장려계획’을 통해 적어도 재배면적의 확대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현재의 대구지역에 포함된 당시의 달성군, 경산군, 칠곡군의 경우도 비슷한 사정에 처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 살핀 바 처럼 일제의 육지면 재배 강제에 따른 대구지역의 면화재배는 상업도시로 변모하고 있었던 대구부의 경우 생산지로서의 기능이 퇴조한 반면, 대구부 인근의 현재의 대구지역에 해당하는 달성군, 경산군, 칠곡군의 경우는 오히려 재배면적과 그 생산량이 확대되어 나갔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것은 이러한 면화재배의 확대가 결코 조선 농민의 농가경제 향상이나 필요성과는 무관하게 식민지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전술했듯이 조선 농민들의 소극적·적극적인 다양한 저항에 직면해 왔던 것이다.

대구지역의 면화재배와 관련하여 또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대구가 면화의 집산지로 부상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제의 면화수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일제는 한국산 육지면의 수탈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거니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공동판매제도의 실시였다.⁷⁵⁾ 공동판매제도는 생산농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시장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면작조합이나 道 長官이 주체가 되어 조면업자 가운데 매수인을 지정하여 매수전담구역 내에서 독점적 매수를 보장해주는 강제적인 판매제도였다. 대구와 경북의 경우 대체로 1923년을 기점으로 지정공판제가 전면 시행되었는데,⁷⁶⁾ 1916년에 일본 고오베의 거상 鈴木商店이 칠성동에 스즈끼 대구조면공장을 설립하여 경북도내 전 지역의 지정매수인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대구는 경북에서 생산된 면화의 집산지적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74) 이 <表 2-12>는 達捨藏, 앞의 책, pp. 71~72 및 대구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221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75) 면화공동판매제도의 실시과정 및 실태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權泰億, 앞의 책, pp. 134~188 참조.

76) 朝鮮棉友會, 《棉の光》 1923년 11월호.

그러나 1927년부터는 조선방직(주)이 지정매수인이 되어 이듬해 대구공장을 설립하고⁷⁷⁾ 대구 경북지방의 면화를 수탈하는 중심 기구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해방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으며, 따라서 대구는 경북지방의 농민이 재배한 면화의 집산지이자, 가공지로서의 성격을 가졌던 것이다.

2. 果樹의 栽培와 收奪

일제하 대구지역의 농업 가운데 하나의 특징으로 사과로 대표되는 과수의 재배가 확대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오늘날 대구와 경북의 상징으로 흔히 농금을 들고 있거니와, 이와 같이 농금이 이 지역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된 데는 일제강점기 이후 이 지역에서 사과재배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대구분지 지역은 기후와 지질 면에서 사과의 재배에 매우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대구지역에는 사과재배 농가가 급격히 증가하고 생산량 역시 날로 늘어났다. 다만 후술되듯이 이러한 사과의 재배는 일본인이나 지주계층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농가경제의 향상이나 농민생활의 개선이라는 측면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늦어도 조선 후기 무렵에는 중국으로부터 사과가 전래되어 재배되었다고 한다.⁷⁸⁾ 그런데 이러한 재래종과는 구별되는 유럽개량종 사과가 대구에 처음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892년의 일이었다. 영국인 기독교 선교사 프레차가 레드베어링, 스미스사이다, 미조리 등 유럽종의 사과묘목 3종류를 영국으로 부터 가져와 남산동에 있는 자택 뜰에 심은 것이 대구에서 사과재배의 효시가 되었다고 한다.⁷⁹⁾ 그러나 본격적인 재배의 개시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이 아직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금호강변과 동촌의 하천변을 점거하고, 사과, 배, 포도 등을 심어 과수원을 경영하게 되면서부터 였다. 과수재배는 계속 확대되어 1911년 당시 일본인 과수업자 56인, 재배면적 81정 3반보, 한국인 18인, 재배면적 62정 8반보, 미국인 1인, 재배면적 3반보에 이르는 재배실적을 보이게 되었다.⁸⁰⁾

이러한 과수재배의 증가추세는 꾸준히 이어져 1920년에 이르면 사과는 배, 포도와 더불어 경상북도의 과수장려품종으로 지정되어 紅魁·祝·紅玉·倭金·國光·柳玉 등의 품종이 재배되었다. 1920년의 대구와 부근 지역의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수재배실태와 그 수확고를 경북지방

77) 日滿棉花協會, 《朝鮮의 棉花事情》, 1937, p. 124.

78) 《대구시사》 제2권, pp. 230~231.

79) 대구부, 《대구부사》 부정편, p. 147.

80) 위와 같음.

전체와 대비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 〈表 2-13〉과 같다.⁸¹⁾

〈表 2-13〉 1920년 대구지역의 과수재배실태

구 분		경북 총계		대 구		달 성		경 산	
		과수수	수확고	과수수	수확고	과수수	수확고	과수수	수확고
사 과	紅玉	60,429	110,490	5,652	14,130	20,589	37,977	3,988	11,060
	國光	50,490	112,549	4,277	12,830	23,589	55,839	3,795	9,314
	倭金	20,187	47,640	529	1,890	15,941	35,657	1,265	3,917
	祝	15,597	25,115	1,609	4,020	6,196	12,890	482	1,260
	柳玉	8,853	17,624	940	5,640	2,936	6,683	—	—
	其他	31,116	67,268	3,630	24,260	10,901	23,632	3,020	4,845
	小計	186,681	380,686	16,637	62,730	80,152	172,674	12,550	30,396
배	長十郎	27,515	52,173	1,350	6,750	3,800	10,481	1,528	2,499
	晚三吉	10,288	14,673	255	765	1,648	4,679	30	10
	明月	12,400	20,706	340	1,020	805	2,304	395	555
	今村秋	2,829	6,017	130	585	1,455	3,858	280	330
	서양배	1,252	3,246	160	1,200	354	921	190	225
	其他	16,279	21,563	770	2,541	1,748	4,291	130	315
	小計	70,554	118,378	3,005	12,861	9,844	26,534	2,553	3,934
포 도		62,869	16,098	2,290	4,500	1,371	5,588	176	681

위의 〈表 2-13〉에서 알 수 있듯이 1920년 현재 대구와 부근 지역의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수재배는 과수의 수나 수확고에서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과의 경우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대구부와 달성군, 경산군의 통계를 합치면 과수수가 119,000餘本으로 경북 전체의 64%를 상회하고 있으며, 수확고에 있어서도 265,000餘貫으로 경북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대구지역의 농업부문 전반이 쇠퇴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수재배는 대체로 일본인을 비롯한 지주계층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었다. 이후

81) 이 〈表 2-13〉은 慶尙北道, 《慶尙北道産業調査》, 1920, pp. 60~66의 통계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대구지역의 과수재배는 아래의 <表 2-14>와 같은 통계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구지역의 과수재배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1940년대의 전면적 수탈체제 하에서는 식량부족을 메우기 위해 벼와 보리 중심의 주곡의 증산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과수재배가 위축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인 과수업자들은 일제의 탄압으로 과수 대신 벼와 보리의 주곡재배로 전환하여야 했고, 1942년에는 과수묘목의 재배를 금지하여 수령이 다한 과수의 개체조차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산물은 일제의 수탈대상이 되었다. 일제는 1933년에 경상북도 과물동업조합을 구성하여 과물의 출하 통제를 전담케 하고, 가격폭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요 상황을 파악하여 출하를 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⁸²⁾ 실은 생산된 과일을 수탈하기 위한 수탈기구로서의 기능을 행사하였다. 과수농가는 이 동업조합의 검사를 거쳐야 출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탈된 대구지역의 과물은 일본인들의 기호품으로 자리를 잡게

<表 2-14> 일제강점기 대구지역 과수재배의 변화⁸²⁾

년 도	재배면적 혹은 과수수	수 확 고
1921	257정보	69,835관
1926	7,128본	67,712
1931	7,048본	88,683
1936	6,891본	83,839
1941	사과 243정보	396,578
	기타 184정보	212,922

되었다. 특히 품미가 뛰어 났던 대구 사과를 심지어 일본 천황에 대한 헌상품으로 지정되었으며, 만주 주둔 일본군의 기호품으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의 전량이 일본으로 반출되어 일본 주요 도시에 제공되었다. 곧 모지(門司)·시모노세키·고오베·쿄오토오·나고야 등지에 특정 시장을 지정하여 그 수요의 상황을 감안하여 통제위원의 알선하

에 대구의 사과를 공급하였던 것이다.⁸⁴⁾ 이와같은 과수재배에서 보여지는 한국인에 대한 탄압과 그 생산물의 수탈은 과수재배업 역시 식민지농업의 한 부분이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82) 大邱府, 《大邱府史》 부정편, p. 147.

83) 達捨藏, 앞의 책, p. 125.

84) 위와 같음.

第3節 産業의 侵奪과 民族資本

I. 公共事業 및 資源의 獨占과 大邱地域

일본은 交通·通信 등의 여러 公共事業에 있어서도 그들의 제국주의적인 독점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었다. 일본은 그들이 공공사업을 독점하는 목적을 外國資本의 침투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하였지만, 일본 역시 한국에게는 외국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電信·郵便·鐵道 등의 많은 공공사업이 통감부의 지배 하에 들어 갔다가 1910년에는 총독부로 인계되었다.

당시의 電信施設은 고종 22년(1885)에 만들어진 서울-仁川-義州 사이의 電信線, 고종 25년(1888)의 서울-釜山-일본 사이에 電信線이 있었다. 이들은 러일전쟁을 계기로 모두 일본의 수중으로 넘어가 버렸고, 통감부의 설치와 함께 그 밑의 通信官署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郵便事務는 고종 32년(1895)에 갑신정변시에 폐지되었던 郵政局을 郵遞司로 다시 설치하고 우편사무를 시작하였으나, 이 역시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에게 위임되었고, 이어 통감부를 거쳐 총독부의 통신관서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鐵道の 부설도 일본의 침략적 의도 하에서 시작되었는데, 일본은 그들의 군사적 침략을 위해 仁川-서울 간의 철도를 부설하려 하여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양해를 얻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구체화하기 전인 建陽 1년(1896) 미국에게 경인철도 부설권이 넘어가서 다음해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일본측의 항의로 완성되지 못한 채 다시 일본에게 인계되어 광무 4년(1900)에 완성되었다. 그후 한국의 幹線鐵道인 京釜線과 京義線은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상의 필요에서 일본이 급작스럽게 부설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군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부설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을사조약 이후 통감부 鐵道管理局의 관장하에 놓였고, 이어 총독부의 관하로 들어갔다.

海運에 있어서는 官民合資會社인 利運社가 몰락한 뒤, 광무년간에 이르러 비로소 순전한 民間海運業이 발족을 보게 되었다. 곧 광무 4년(1900)에는 大韓協同郵船株式會社·仁川郵船會社·仁漢輪船株式會社 등이 설립되고, 이어서 通運社가 설립되기에 이르렀지만, 이들 역시 시대의 진전에 따라 일본의 영향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다만, 電氣施設만은 광무 2년(1898)에 한국과 미국의 합자로 漢城電氣會社가 설립되어 電車·電燈 등이 가설되었기 때문에 통감부의 관리를 받지 않았지만, 국권강탈 후 이들도 모두 총독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개의 새로운 문명시설은 일본의 독점적인 사업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국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침략자 일본의 이익이 되는 것이었다. 가령,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하여 토지를 헐값으로 사들여서 가설한 철도를 한국인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주로 일본인이 이용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文明施設은 한국인들로 부터 환영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편하에서 한국의 모든 산업은 총독부의 비호 아래 일본인이 독점경영하였는데, 실제로는 총독부 자체가 큰 기업체와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곧 총독부는 철도·항만·통신·도로 등을 독점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총독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의 경제침탈로 한국의 民族産業은 위축되어 발전의 길이 막히게 되었으며, 한국은 점차 일본의 食糧供給地와 商品市場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일본의 공공사업의 지배는 식민통치가 어느 정도 정착을 보게 된 1920년 대 이후에는 더욱 심각하게 이루어졌다. 당시의 대표적인 공공사업인 철도·광업·專賣·營林 등의 사업에 있어서 그러한 현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철도나 도로사업의 경우 식민지 경제수탈의 동맥이었지만, 1920년대 이래 총독부의 건축재정으로 투자할 여력이 부족할 때는 한국인의 강제적인 부역노동에 주로 의지하기도 하였다. 또 철도의 경우 1917년 이래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위탁 경영하다가 1925년에는 총독부가 직영을 하였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수탈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였다. 전매사업은 煙草·소금·人蔘 등을 專賣한 것으로, 연초의 경우 煙草耕作稅·煙草販賣稅·煙草製造稅·煙草消費稅·葉煙草消費稅 등과 같은 각종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여 보다 많은 수탈을 강구하였다. 또 1921년에는 〈朝鮮煙草專賣令〉을 제정하여 총독부의 직영사업화하기도 하였다.⁸⁵⁾

일본의 대구지역 공공사업에 대한 지배도 여타 지역의 그것과 동일하였다. 1905년 4월 한국의 통신권을 박탈한 일본은 大邱郵便司와 電報司를 일본인 경영의 釜山郵便局 大邱出張所에 합병하는 등 각종 近代的 公共機關을 그들의 수중하에 편입시켰다. 또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제국주의적 마수를 뻗었는데, 그 대표적 예로 煙草에 대한 專賣事業을 들 수 있다. 1910년대 전후하여 대구지역에서도 近代的 工業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못했지만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연초업은 어느 정도 발전을 보았다. 이들 연초공장은 과잉생산에 허덕이는 일본인 연초경작자를 구제하는 동시에 강제적으로 한국인의 煙草自給體制를 파괴시키기 위해 우세한 일본의 자본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이들 연초공장은 일본인에 의해 과잉생산된 연초를 처리할 능력을 가져야 하였고, 또한 연초제품에 대한 넓은 시장이 개척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

85) 趙東杰, 《韓國民族主義의 발전과 獨立運動史研究》, 1993, pp. 98~103.

었으므로 처음부터 대규모 시설로 출발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본인들의 목적은 自給體制를 고수하려는 한국인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에조노(前園)工場은 자금난으로 곧 문을 닫았고, 오오이시(大石)工場도 운영난이 계속되어 日帝의 보호아래 운영되었던 東亞煙草會社에 경영권을 이양하였으나, 여전히 실적이 부진하였다. 이에 專賣局이 이를 인수하여 直營하면서 위에서 살핀 것처럼 각종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여 한국인의 자급체제를 붕괴시키는 동시에 그들 자신을 위한 보다 많은 수탈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일본 자본의 대규모적인 침투에 의해 극히 한정된 地方的 需要를 대상으로 手工業的 생산에 머물고 있었던 한국인 경영의 煙草業은 販路가 더욱 축소되어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예에서 당시 일본자본의 한국진출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자본을 기축으로 하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으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열세에 놓인 한국의 민족자본은 이에 짓눌려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⁸⁶⁾

일본은 公共事業部門 뿐만 아니라 각종 資源에 대하여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일본의 資本主義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金本位制로 전환하기 위한 金의 확보를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은 약탈적인 방법으로 한국으로부터 금을 가져갔고, 그것은 금본위제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병합 이후 총독부는 각지의 鑛物資源을 조사하여 이를 일본인 財閥들에게 넘겨 주었는데, 여기에는 전국의 金·銀·鐵·납·텅스텐·石炭 등의 資源이 모두 해당되었다. 이것과 병행하여 1915년에 〈朝鮮鑛業令〉과 그 施行細則을 공포하여 한국인의 鑛山經營을 억제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의 광업 자본가들이 대거 침투하여 한국의 광업은 일본인이 거의 독점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곧 19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인 소유의 鑛區數는 일본인의 7분의 1에 머물렀고, 鑛山額은 220분의 1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1915년 이후 한국에 있어서 일본인의 광산액이 급증한 것은 당시 제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었고, 일본이 金·은·납·텅스텐·석탄 등의 물자를 연합국측에 제공하는 데 한국 광산물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형편은 시대의 진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으니, 곧 滿洲事變 직전인 1930년에는 鑛山額이 2,465萬圓이었는데 비해, 中日戰爭 직전인 1936년에는 11,043萬圓으로 4.5배의 격증을 하였다. 더욱이, 1942년에는 44,542萬圓으로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1936년의 4배에, 1930년의 18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12년 사이에 18배로 비약했다는 것은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다.

86) 《대구시사》 제2권, 1973, pp. 238~239, 제3편 산업경제 제3장 공업.

이처럼 1930년 이후에는 한국의 광업이 일본의 군수공업에 종속되면서 생산량이 격증하였는데, 그 중심을 이룬 것은 金鑛業이었다. 곧 이 시기 10여년간의 금광생산은 총광산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금광노동자는 총광산 노동자의 60~70%에 달하였다.⁸⁷⁾ 당시 金鑛業이 일본정부의 장려를 받으면서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일본이 중국침략을 위한 전쟁에 필요로 하는 石油·鐵·工作機械 등을 미국 등 여러 나라로부터 사들이기 위한 正貨準備로서 막대한 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⁸⁸⁾

그러다가 1941년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금보다는 직접 군수공업의 원료가 되는 철·석탄·중석·黑鉛·마그네사이트 등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따라서 한국의 광업도 이에 맞추어 재편성되었다. 그것은 이들 광산물이 軍需工業에 직접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27년에서 1944년 사이에 금의 생산량은 격감한 데 비해 鐵은 6.3배, 石炭은 10배, 重石은 167배, 黑鉛은 5.8배, 그리고 마그네사이트는 1927년에 산출량이 全無였던 것이, 1940년에서 1944년 사이에는 2.1배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광업은 일본의 필요에 따라서 개발되었으며, 생산된 광산자원은 대부분 일본에 의해서 약탈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식민지하의 한국 사회는 일본의 병참기지로써 존재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⁸⁹⁾ 이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광업 수탈은 대구지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전통 사회 이래 大丘府 管内에 있다가 達城郡으로 분리되었던 嘉昌지역에 위치한 銅鑛·텅스텐鑛의 생산물의 전부가 일본 군수공업 원료로 약탈당하기도 하였다.⁹⁰⁾

한편 당시 광업 경영주의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던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곧 石炭業의 경우 일본인의 자본은 94%에 달했고, 그밖의 광업에서도 9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제하 광업의 발전은 한국인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일제의 자원약탈은 한국인 노동자의 혹사 위에서 실시된 것이었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에 불과하였고,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에 이들의 반항이 勞動爭議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같은 시기에 전개되었던 農民들의 小作爭議와 함께 대중적인 抗日運動으로 발전해갔다.

林業部門에 있어서는 森林保護를 내세워 1908년에 〈森林令〉을 공포하면서 植木을 장려하

87) 그 한 예로 1936년의 경우 金産金額은 17,490kg, 5,935萬圓으로서 그해 광산액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88) 朴基桂, 〈1930년대 朝鮮産金政策에 관한 연구〉《경제사학》12, 1988.

89) 韓昌浩, 〈日帝下の 韓國鑛工業에 관한 研究〉《日帝의 經濟侵奪史》2, 1971.

90) 최윤규, 《근현대조선경제사》, 갈무리, 1988, pp. 349~350.

였으나 그들이 植木한 것보다 훨씬 많은 森林을 채벌하였다. 곧 都市 주변의 산에 식목을 하는 대신에 깊은 산속의 울창한 큰 나무들을 採伐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삼림을 함부로 채벌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20년 이후에 더욱 심하였다. 그리고 1918년에는 林野調査事業을 실시하여 막대한 國·公有林과 所有主가 명확하지 않은 山林은 거의 日本人에게 넘김으로써 全山林의 50% 이상이 총독부와 일본인에게 占奪되었다. 그 후 林野調査事業이 실질적으로 끝난 1924년의 경우, 전국의 임야 1,630만여 정보 가운데 조선총독부의 소유는 955여만 정보, 道·郡·面의 소유 및 일본인의 소유는 300여만 정보인데 비해, 寺刹林을 포함한 한국인의 소유는 374여만 정보 뿐이었다.⁹¹⁾

漁業部門에 있어서도 일본은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 1883년에는 漁撈協定을 체결하여 한국의 沿岸에서 일본인 漁夫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 1905년 獨島를 不法으로 日本領土에 편입시킨 것도 이러한 水産資源의 侵奪과 관계된 것이었다. 1910년 합병 이후에는 일본인 어부들의 한국 이주를 적극 장려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 來住하는 일본인 漁業者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일인 어부들은 한국 어부들보다 우수한 선박과 도구를 사용하여 많은 어획고를 올렸다. 더우기 총독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의 黃金漁場을 독점하기도 하였다. 한편 총독부는 1911년에 〈朝鮮漁業令〉을 공포하여 종래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漁業權을 부인하고 漁場을 일본인 중심으로 재편성하여 일본인들의 漁業活動을 적극 지원하였다.⁹²⁾

이처럼 한국의 각종 자원들은 총독부의 주도하에 대부분이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사실 총독부 자체가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체와 같은 것으로서, 자원약탈의 주체로 존재하면서 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또 이들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인삼·소금·담배·아편 등의 각종 산물을 전매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 인해 총독부를 필두로 하는 일본인의 회사들은 유리한 조건 밑에서 많은 자원을 독점하면서도 겉으로는 한국의 경제 상태를 가리켜 “躍進하는 朝鮮”이라고 일본은 선전하였다. 그렇지만 그 약진은 한국인의 약진이 아니라 일본인의 약진이었다. 따라서 한국인의 행복을 위한 약진이 아니라, 한국인의 희생을 토대로한 일본인의 행복을 위한 약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구지역이라고 예외로 존재할 수 없었기에, 대구지역의 각종 산업에 대한 주도권이 이 지역에 진출했던 일본인들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91) 朝鮮總督府, 《朝鮮林野調査事業報告》, pp. 2~9.

강영심 〈日帝下の 朝鮮林野調査事業에 관한 研究〉 《한국학보》 33·34, 1983·1984.

92)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 上, 1973.

II. 金融의 支配와 大邱地域

金融은 일제의 침략과 지배과정에서 정치·군사적 부문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일찌기 그리고 철저하게 한국의 금융을 지배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광무 8년(1904)에 체결된 〈韓日協定書〉에 의하여 財政顧問으로 온 메가다(目賀田種太郎)에 의한 여러 가지의 획책이 이루어졌다. 그는 한국의 財政에 관한 광범한 권한을 갖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한국의 금융을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광무 9년(1905) 貨幣整理事業을 추진하였다. 당시 한국에는 葉錢이라고 불리던 常平通寶와 白銅貨가 주로 流通되고 있었는데, 이들 貨幣에 惡貨가 섞여 있다는 것을 이유로 通寶와 白銅貨가 주로 流通되고 있었는데, 이들 貨幣에 惡貨가 섞여 있다는 것을 이유로 第一銀行으로 하여금 新貨幣를 만들어 교환시켜 정리케 한 것이다.

교환에 있어서 白銅貨를 質에 따라 甲·乙·丙의 3種으로 구분하여, 甲種은 한개당 2錢 5厘, 乙種은 1錢으로 교환하되, 丙種은 이를 무효로 하여 교환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전체 화폐의 3분의 2에 달하는 丙種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하여 新貨幣로 교환해 주지 않음으로써 한국인은 화폐자산을 수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전황이 초래되고 이 과정에서 수 많은 한국 상인이 도산하였다. 곧 한국 상인들은 새 화폐를 신용하지 않아 이를 교환하지 않고 土地나 家屋 등에 투자하여 버렸으므로, 그들의 資本이 고갈하여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

그 대신 일본인들은 새 화폐의 가치가 등귀함에 따라 큰 利得을 보게 된 것이다.

결국 이 화폐의 정리는 일본 상인에게 경제적인 진출을 위한 길을 더욱 넓혀 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또 한국 상인들이 화폐경제하에서 신화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일본은 이것을 이용하여 창고회사·어음조합·農工銀行 등의 식민지 금융제도를 확충하면서 제 일은행권을 보급시켜 갔다.⁹³⁾ 그러므로 화폐정리사업은 일본의 은행이 한국의 금융업계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에 상륙한 것은 開港 직후부터 었다. 그리하여 1900년경에는 일본 자본주의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침략에 선봉을 맡았던 第一銀行을 위시해서 第十八銀行·第五十八銀行·日本興業銀行 등 여러 일본은행의 支店과 出張所가 설치되어서 이들이 한국의 용계를 좌우하고 있었다.⁹⁴⁾ 그 중에서도 제일은행의 한국지점은 광무 9년(1905) 3월 이래

93) 吳斗煥, 〈韓末 借款問題의 展開過程〉 《日帝經濟侵略과 國債報償運動》, 1993, pp. 51~52.

94) 도면희, 〈화폐유통구조의 변화와 일본금융기관의 침투〉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1991.

通貨發行權을 가져 한국의 中央銀行으로서의 구실을 담당하였고, 그 밖에도 地金銀의 買入, 정부에 대한 대부, 開港場의 關稅徵收 등의 광범한 일을 맡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 상인들의 상업 활동 자금을 보장하는 한편, 금·은 등 귀금속의 약탈적인 收買事業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한국정부의 재정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여 財政的 自主權을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제일은행은 한국의 금융계를 지배하면서 일본 자본주의를 금융의 측면에서 지탱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금융계까지도 재편성해 가면서 한국의 식민지화를 촉진시켜 갔다.⁹⁵⁾

그후 융희 3년(1909)에 한국은행이 설치됨에 이르러 제일은행의 업무는 이에 이관되었으나, 한국은행의 총재에는 제일은행 한국총지점 지배인이 취임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병합한 뒤인 1911년에 한국은행을 朝鮮銀行으로 만들어 이로 하여금 중앙은행의 구실을 담당하게 하였다. 한편 한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광무 10년(1906)에 설립된 農工銀行(殖産銀行)은 식민지가 된 뒤에 주로 일본인 상공업자나 농민을 지원하는 은행이 되었다. 그후 일제는 農工銀行을 朝鮮殖産銀行으로 개편하고(1918년) 전국에 60여개의 지점을 두어 지방에 까지 金融組織網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적지 않은 借款을 하게 되었다. 통감부는 금융 기관의 구제, 도로의 개수, 일본인 관리의 고용 등 일본인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그 자금을 정부로 하여금 지출케 하였고, 정부는 통감부 주선으로 이를 일본정부 및 일본인 은행에서 차관을 한 것이다. 제일은행은 화폐정리의 기금으로 300만원의 차관을 제공하고, 스스로 그 업무를 담당하여 막대한 이익을 내기도 하였다. 특히 통감부시대에 일본의 차관공세는 치열하여서, 1910년에는 500만원을 넘는 막대한 액수에 달하였다.

이러한 國債의 부담은 정부로 하여금 더욱 일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外債를 償還하여 일제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앞에서 살핀 것처럼 國債報償運動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1907년 大邱에서 金光濟·徐相敦 등이 중심이 되어 國債報償期成會를 조직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운동은 일본의 國債 1,300만원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갚기 위한 운동이었지만, 일제가 지도자를 구속하는 등 방해를 함으로써 결국 중지되고 말았다. 결국 국채는 우리의 손으로 갚지 못하고 일제에 병합된 뒤에 총독부가 한국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이를 상환하게 되었다.⁹⁶⁾

이와 같은 일본의 금융지배에 의해 한국의 민족자본의 성장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95) 村上勝彦, 〈제일은행 조선지점과 식민지금융〉 《日帝下韓國社會構成體論》, 청아출판사, 1983.

96) 대구문화방송·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日帝經濟侵略과 國債報償運動》, 1993.

서울의 상인들은 漢城商業會議所를 설립하여 자구책을 강구하였고, 한편에서는 일제의 금융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朝鮮銀行·大韓天一銀行·漢城銀行·韓一銀行 등 民族系 銀行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일본인의 은행과 비교가 안되는 작은 규모의 것이었고, 한국정부에 의한 중앙은행은 그나마 실현되지도 못하였다. 이는 무력을 수반한 일본의 정치적 침략을 배경으로 한국의 금융계를 일본인의 은행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화폐개혁으로 인한 금융공황도 겹치어 한국인의 민족기업은 심한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형편하에서 대구지역에서 은행의 개설은 1905년 1월 경에 大邱邑城 北門밖에 일본의 第一銀行 釜山支店の 大邱出張所가 설치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은행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화폐정리 업무를 맡기 위해 설치된 것이지만, 일본의 풍부한 자금의 원조와 정치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대구지역의 經濟權을 일본인들의 수중에 넣어 주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제일은행의 출장소가 설치된 다음해인 1906년 8월에는 통감부 압제하의 한국정부에 의해 大邱農工銀行이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그 설립 취지가 地方農工業의 개량·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工業者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달리 운영되었다. 곧 종래 漢城倉庫株式會社가 맡고 있었던 對日輸出米를 수집하는 임무를 위시하여 어음의 통제와 新貨의 보급을 담당하는 정도였다. 여기에다가 장기 부동산 담보 대부와 公共團體에 대한 무담보 대부를 하였으며, 기타 중소 자본가에게 대부하여 농촌에서의 고리대 착취와 토지·농산물·지하자원의 약탈과 화폐유통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담당하였다. 이는 처음에 各道 觀察使所在地에 本社를 설립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를 병합하여 漢城·平壤·大邱·全州·光州·元山の 6개 도시에 각 支店을 두고 그 밑에 27개소에다 支店, 出張所 등을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이 은행 역시 國策銀行의 성격을 띠고서 제일은행과 함께 한국의 경제적 수탈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후 이들 양 은행은 일제의 조선통치의 진전에 따라 많은 변천을 보았는데, 먼저 제일은행 대구지점은 1909년 韓國銀行(합방후에 朝鮮銀行으로 개칭됨)이 창립되자 이에 업무를 이양하여 명실 공히 중앙은행의 대구지점이 되었다. 대구농공은행은 1908년 8월 晉州農工銀行을 합병하여 慶尙農工銀行으로 이름을 바꿔 慶尙南北道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확대하여 주로 일본인들에게 産業資金을 공급하는 구실을 담당하였다. 그후 1918년에 朝鮮殖産銀行이 설치되어 각지의 농공은행을 흡수하자 이에 병합되어 殖産銀行 大邱支店으로 개편되었다. 이처럼 일제 강점기하에서의 이들 양 은행의 부정적인 기능은 한국인들로 부터 많은 원성을 사게 되었고, 급기야는 1927년 10월에 張鎭弘에 의한 조선은행 대구지점의 다이내마이트 폭파

의거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국은행 대구지점과 식산은행 대구지점을 통해 대구지역의 금융지배가 어느 정도 확고히 이루어지는 과정속에서 地方金融機關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곧 1912년 9월에는 日本人에 의한 鮮南商業銀行이 설립되어 다음해에 鮮南銀行으로 개칭하여 업무를 시작한 이래, 1913년 이후 한국인에 의한 여러 은행이 잇달아 설립되었다. 곧 大邱銀行의 창립(1913년 7월)·漢城銀行 대구지점 설치(1920년 2월)·慶一銀行(1920년 5월)·慶尙公立銀行(1920년 8월) 등의 설립을 들 수 있다. 또 〈都市金融組合令〉이 시행됨에 따라 1919년에 庶民金融機關으로 大邱金融組合의 창립을 위시하여 3개의 조합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금융지배하에서 대구지역에서도 한국인의 민족자본을 바탕으로 한 여러 은행이 설립되었지만, 일제의 강한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독자적인 발전을 기할 수는 없었고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게다가 일본인들은 한국인 은행들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인의 은행을 분열 대립시키는 등 여러가지의 획책을 도모하였다. 그 한 예로 표면상 한국인의 설립으로 되어 있는 慶一銀行의 경우, 실제로는 조선총독부가 대구지역의 민족자본을 분열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었다.

이상의 여러 은행들도 1927년의 금융공황으로 인한 일본 경제의 타격과 1929년 가을에 시작된 세계대공황의 영향으로 경제가 크게 불황을 겪으면서 경영면에서 점차 쇠퇴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는 한국인의 은행들이 설립 초기 부터 자본의 규모에 있어서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식민정부인 조선총독부로 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인의 은행들은 상호 통합을 시도할 수밖에 없어, 大邱銀行은 1928년 8월에 慶南銀行과 합병하여 慶尙合同銀行이 되었고, 慶尙公立銀行은 1930년에 慶一銀行에 합병되었다. 慶一銀行은 3년후에 일본인의 은행인 鮮南銀行과 합병하여 大邱商工銀行으로 재발족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産業 전반에 걸친 통제가 심해짐에 따라 다시 통합을 하지 않을 수 없어, 慶尙銀行은 漢城銀行에, 大邱商工銀行은 朝鮮商業銀行의 支店으로 흡수 통합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은행간에 이루어진 통합의 결과로 민족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대구지역의 中小企業들은 더 이상 은행으로 부터의 자금 용자를 받을 수 없어 그 경영에 극심한 곤란을 겪게 되었다.⁹⁷⁾

97) 이상의 대구지역 금융계의 변천에 대한 서술은 《대구시사》 제2권, 1973, pp. 308~320, 제3편 제6장 '금융에 크게 의지하였다'.

III. 民族資本의 受難과 大邱地域

조선총독부는 토지뿐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수탈정책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종 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1910년 12월에 〈會社令〉을 공포하였는데, 이것은 大韓帝國 말기에 이미 제정되었던 것을 다시 總督府令으로 새로이 발표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의 기업의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하였고, 그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총독이 사업금지와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총독은 會社의 設立과 閉鎖를 좌우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한국인의 企業活動이 억압되고 民族産業의 成長이 방해되었던 것이다. 또 이 법령이 노린 것은 일본 제국주의 자본을 보호하고 일본인 회사의 설립을 적극 조장하려는 데 있었다. 이로써 조선인 자본가의 성장 발전이 억제되었고, 도시의 발달과 경제성장이 저지되고 말았다.⁹⁸⁾

日本企業의 한국에 대한 直接投資는 이미 1910년대부터 이루어져 한국인의 그것을 앞지르고 있었지만 아직은 영세한 매뉴팩처의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工業生産 자체가 農業生産에 비해서 劣勢에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오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급성장한 일본의 獨占資本이 한국에 상륙하여 본격적인 資本投資를 시작하였다. 우선 일제는 1920년에 한국에 있는 일본의 零細資本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했던 〈會社令〉을 폐지하였다. 이는 일본의 독점자본이 한국에 침입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회사령〉의 보호가 필요 없었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의 設立이 종래의 許可制에서 申告만 하면 되는 届出制로 바뀌었다. 이것이 한국의 민족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성장하는 일본의 자본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의 戰爭景氣를 지나고 난 뒤 유리한 投資市長을 한국에서 발견한 때문이었다. 한국을 단순한 제품의 販賣市場이 아니라 投資市場化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곧 당시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 임금의 절반 밖에 안되는 짠 것이었다. 또 그들에게는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리한 노동조건이 풍부하고 값싼 수력전기의 개발 가능성과 아울러 일본 투자가들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아 〈회사령〉의 철폐는 전적으로 일본인에게만 유리한 것이었다. 이후 일본인 자본의 투자가 증대하였고 특히 三井・三菱・野口 등 獨占財閥들의 진출이 활발하였다. 이제 한국은 일본 자본주의의 상품시장만이 아니라 자본투자시장으로 되어갔던 것이다.

98) 孫禎睦, 〈會社令研究〉《한국사연구》45, 1984.

일본인의 자본투자는 점차 輕工業에서 重工業 分野로 옮겨졌다. 192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일본인의 경제활동은 상업이나 식료품 및 소비재생산을 위한 경공업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1926년 함경도의 赴戰江水力發電所가 완성되고, 다음 해에 그 電力을 이용한 朝鮮窒素肥料工場이 興南에 세워지면서 부터는 중공업에의 투자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특히 1930년대에는 일본이 만주와 중국을 침략함에 따라 한국은 軍需物資를 공급하는 兵站基地가 되어 자연히 중공업투자가 훨씬 증가하게 되었다.⁹⁹⁾ 이러한 일제의 工業振興政策은 필연적으로 地下資源의 開發과 掠奪을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절에서 살펴 보았다. 이렇게 투하되기 시작한 일본의 자본은 1931년에 滿洲事變을 일으켜 滿洲國을 세우고 일본이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함에 이르러 더욱 촉진되었다. 소위 國防國家의 건설이 한국이 가지는 軍需資源을 개발할 필요를 더욱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일본의 大財閥들은 다투어서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였고, 이에 따라서 한국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공업의 비중이 급속도로 커졌다. 즉, 1925년에 工産額은 총생산액의 17.7%였는데, 1931년에는 22.7%로 증가하였고, 1936년에는 31.3%로 증가하였으며, 1939년에는 또 39%로 증가하였다. 그 반면에 農産額은 1925년에 총생산액의 72.7%이던 것이, 1931년에는 63.1%로 감소하였고, 1936년에는 51.8%로 더욱 감소하였으며, 1939년에는 42%로 또 감소하였다. 그 결과 1939년에 있어서 39%의 工産額에다 6%의 鑛山額을 가산하면 鑛工業은 한국 산업의 제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首位를 차지하던 農業은 이보다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각지에 工業地帶가 건설되었다.

일제의 정치적 보호를 받아가며 각종 산업에서 일본인의 자본이 성장 발전하여 갔다. 더구나 軍需工業은 일본의 軍部와 결탁한 三井·三菱·野口 등의 大財閥에 의하여 추진된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업의 발전이 민족자본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1938년에 있어서 공장에 투입된 자본은 한국인의 것이 12.3%를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일본인의 것은 실로 87.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여기에 만일 일본인이 독점하고 있는 電氣工業을 고려하면 한국인 자본의 비중은 더욱 가벼워진다. 그리고 會社當資本을 비교해 본다면 한국인의 공장이 소규모의 것인 데 대하여, 일본인의 것은 대규모의 공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자본 중 일부는 일본자본에 예속된 것도 있었다.

한편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對外貿易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것은 일본에 의한

99) 趙璣濬, 〈1930年代 朝鮮의 工業〉《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1973.

安秉直, 〈1930年以後 朝鮮에 侵入한 日本獨占資本의 正體〉《한국근대사론》, 1977.

貿易獨占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1910년의 경우 수출의 77%, 수입의 64%가 일본과 교역한 것이었으며, 1919년에는 수출의 90%, 수입의 65%를 대일무역이 차지하였다. 1920년에는 韓日間の 關稅制度마저 철폐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량이 더욱 증가하였고, 따라서 무역의 對日依存 역시 더욱 심해졌다. 게다가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입되는 것은 完製品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령, 1912년에는 수입액의 75.6%가 완제품이었다. 그리고 그 완제품이란 것은 의료·실·술·담배·종이·기계 등의 日用品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국으로부터 일본에의 수출은 쌀을 그 중요 내용으로 하는 식료품이 그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이 원료와 원료제품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일본의 商品市場 및 原料供給地로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¹⁰⁰⁾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변화가 생겼다. 물론 일본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더 확고하여 졌지만, 수입품의 내용에서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 곧 1931년에는 수입품의 63.5%, 1935년에는 61.6%가 완제품이었다. 1921년의 75.6%에 비하여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 반면에 원료와 원료제품 수입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도 식료품, 즉 쌀의 비중이 적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이 식민지경제의 성격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직접 한국에 자본을 투자하여 상품시장 이상의 投資市場으로 개편하였기 때문이었다. 한국이 처한 일본의 식민지로서의 성격은 이러한 데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정책에 또 한번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자본 침투에 대해 대항하여 民族資本에 의한 近代의 企業活動이 활발하여진 것은 光武年間(1897~1907) 무렵이다.¹⁰¹⁾ 이 시기에는 정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民間의 企業會社들에 의하여 상공업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근대적 기업활동이 행해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開港場에서 근대적 商人團體로 성장한 客主組合은 고종 32년(1895)에 〈商務會議小規例〉가 발표되면서 商務會議所로 변하게 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광무 9년(1905)에 서울에 설치된 商務會議所가 漢城商業會議所였다.

이와 함께 일본의 자본 침투에 대항하여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愛國啓蒙運動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애국계몽운동은 민족의 역량을 經濟面에서 증가시키기 위해 民族産業을 育成하여 自立的인 經濟富強을 이룩하려는 經濟自立運動으로 나타났다.¹⁰²⁾ 비롯한 열강의 자

100) 鄭道泳, 〈日帝下の 韓國貿易〉《대동문화연구》3, 1966.

101) 여기서 말하는 民族資本은 넓은 의미에서 사용된 것으로 土着資本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梶村秀樹, 〈民族資本과 隸屬資本〉《朝鮮近代經濟史研究》, 사계절, 1983.)

102) 愼鏞廈, 〈韓末 愛國啓蒙思想과 運動〉《한국사학》1, 1980.

본주의 경제침략에 대하여 민족자본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찍부터 나타나 大都市나 開港場에는 會社가 조직되고, 운수·은행·광산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인 經營體制를 도입하였다. 특히 光武改革期에는 근대적 상공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상공업진흥정책을 추진하여 근대적 기술을 도입하고,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工場을 설립하거나 民間 製造會社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당시 근대공업에 대한 투자에 민간기업인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은 일본제품 못지 않게 좋은 제품을 생산해야 일본상인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때 근대적인 공장이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紡織工業 분야에서 공장 설립이 활발하였으니 서울의 金德昌織造工場은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밖에 窯業·精米業·담배제조업·製粉業 등의 공장도 설립되기 시작했다.

또한 1907년에 비밀조직으로 만들어진 新民會는 그 활동목표의 하나를 國民經濟의 증강에 두었다. 즉 신민회는 각종 상공업기관을 만들어 국가의 財政과 국민의 富力을 증진할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스스로 平壤에 磁器會社를 설립하고 平壤·大邱에 太極書館을 차려 운영하였다. 이러한 추세하에서 民族産業의 育成과 民族資本의 형성을 통한 經濟自立運動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企業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金性洙의 京城紡織을 들 수 있다.

1919년에 창립된 京城紡織은 湖南地方 地主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본으로 창립된 民族企業으로서, 한국인의 嗜好에 맞는 질기고 무게 있는 제품을 만들어 농촌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갔다. 경성방직은 社員도 한국인에 局限한다는 것을 밝히어 民族企業으로서의 특징을 살려 가고 있었다. 경성방직 외에 安熙濟에 의하여 嶺南地方 地主들의 資本으로 창립된 釜山の 白山商會가 貿易會社로서 유명하였다. 白山商會는 獨立運動의 資金을 공급하는 한편 獎學事業이나 協同組合運動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平壤의 메리야스工業과 고무工業도 민족자본으로서 크게 주목되는 것이었다. 메리야스공업은 1920년 이후에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주로 양말을 생산하였다. 이들 공장의 經營主들은 工信洋襪(양말)의 李薰淳이나 三共洋襪의 孫昌潤과 같이 가난한 小商人 출신이 많았다. 이들은 근검저축하여 자본을 모아 독립된 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 또 평양에서 발전한 메리야스 공업이나 고무공업의 경영자들은 근검하고 신의있고 진취적인 기업정신을 基督教로부터 받아들이고 있었음이 특색이었다. 평양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메리야스공업과 고무공업은 일본의 기업이 따르지 못하는 중요한 민족기업의 분야였다.¹⁰³⁾

103) 梶村秀樹, 〈日本帝國主義下の朝鮮資本家層の對應〉《朝鮮史研究會論文集》3·5, 1967·1969; 《朝鮮近代經濟史研究》, 사계절, 1983.

이처럼 1920년대에 商人 및 地主들이 많이 기업으로 진출하면서 여러 기업체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민족자본은 그 비중에 있어서 일본인의 그것에 대항할 수 없는 미약한 것이었고, 규모에 있어서도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 또 그것은 1920~1930년대에 어느 정도 성장을 보이다가 1930년대 후반부터 식민정책의 탄압으로 몰락했고, 일부 남은 기업은 민족자본적 성격을 잃고 예속자본화하여 갔다. 또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戰勢가 불리해지면서 일제는 國策會社를 설립하고 민간기업체를 이에 통합하는 정책을 추구하여, 민족기업의 몰락은 현저해졌다.

이러한 민족자본에 의한 산업들은 그 내부만을 보면 여러가지의 발전단계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中小企業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울러 조선 자본가층의 역량이 일본의 植民資本 이상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여 國權回復을 바라볼 수 있는 국면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 자본가층의 일정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그것은 식민지 권력의 직접적 규제와 그것이 만들어낸 경제체제 속에서 자본의 축적 기반이 협소하고 불안정하였기 때문이다.¹⁰⁴⁾

이와 같은 형편하에서 민족자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物産獎勵運動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즉 1923년에 조직된 物産獎勵會가 중심이 되어 自給自足·國產品愛用·消費節約·禁酒·禁煙 등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日本製品을 배격하려 하였다. 이 운동은 서울·평양 등의 도시로부터 시작하여 전국 각지로 번져 갔고, 青年會·婦人會·少年團 등이 호응하여 단시일에 전국적인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대구지역에서도 徐相日을 중심으로 한 大邱青年會가 중심이 되어 이에 적극 호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물산장려운동의 활발한 전개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일제는 이에 대하여 강한 탄압정책으로 일관하였고, 1930년대에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강행하면서는 더욱 탄압이 심하였다.¹⁰⁵⁾

이러한 형편하에서 대구지역에서도 1910년을 전후하여 근대적 공업이 발흥되었다. 이는 일제의 무력을 배경으로 한 일본인의 자본과 기술이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미하나마 한국인 경영의 공장이 건설되었던 까닭이다. 이 시기에 건설된 공장은 精米業과 같이 수출산업의 가공부품이거나 혹은 수입상품의 비경쟁부분인 煙草業·製瓦業·釀造業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¹⁰⁶⁾ 이들 공장의 자본금 규모는 정미업·연초업 등의 극소수 공장을

104) 梶村秀樹, 앞의 논문.

趙璣濬, 《韓國資本主義發展史》, 1991, pp. 26~27.

105) 趙璣濬, 〈朝鮮物産獎勵運動의 展開過程과 그 歷史的 性格〉《역사학보》 41, 1969.

106) 《大邱府史》부정편, 1943에 의하면 1910년 까지 15개의 工場이 있었는데, 이들은 煙草 2, 精米 3, 製瓦 6, 土器 1, 煉瓦 1, 織物 1, 鐵工所 1 個所였다.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장이었다. 또 한국인 경영은 영세한 제외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나머지는 일본의 상품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 부문에서 토착 가내수공업의 발전형태로 존재하였다.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 이후 〈會社令〉이 폐지되면서, 1920년대에는 한국에서 일정하게나마 공업발전이 진전되어 민족자본의 성격을 지닌 中小企業들이 각 지방의 도시에서 많이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미업·제사업·제면업 등이 경공업과 제철·제련 등의 중공업이 발전하였는데, 대구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곧 1921년 대구의 공장수는 100여개, 노동자수는 3,000여명, 1926년의 공장수는 200여개, 노동자수는 5,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공업이 발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朝鮮生絲·카따구라(片倉)製絲·야마쥬(山十)製絲 등의 일본인 자본에 의한 製絲工業이었다. 제사공업이 발전을 보게된 것은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북도가 한국에 있어서 대표적인 養蠶地였고, 또한 주변 농촌에는 방대한 과잉인구가 있었다는 것은 원료와 노동력을 얻는 데 편리하였기 때문이다. 또 당시 불황으로 투자할 곳을 잃은 일본의 遊休資本 및 群小資本이 이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던 결과이다.¹⁰⁷⁾ 이와 함께 이 시기에 專賣制度가 실시됨에 따라(1921) 官營工業으로 편성되었던 煙草業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대구지역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본자본의 침입에 종속되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처리하는 식민지형의 공업도시로 편성되었을 뿐이다.

1930년대에는 공업구조에서 군수공업과 관련된 부문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확대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만주침략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대구지역은 종래와 같이 농산물의 집산지 또는 그 가공지로서의 역할은 여전하였으나, 공업부문은 전반적으로 쇠퇴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이었던 生絲業이 不況期에 들어섰기 때문인데, 공장의 수는 증가하기도 하였지만 노동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구지역의 공업구성이 일본제국주의가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대륙침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¹⁰⁸⁾

이러한 공업형편 하에서 노동자들은 극히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수많은 피해를 감수하였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대구지역에서는 일본인의 경영이 압도적이고 토착자본 자체가 미미하였다.

107) 趙璣濤, 《韓國資本主義發展史》, 1991, p. 24.

108) 《大邱府史》, 1943, pp. 151~152.

김정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1992, pp. 40~43.

그 결과 일본인의 경영하에서 노동조직의 결성과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대구지역의 生絲공장에서는 감독의 구타와 학대로 여성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탈출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편하에서 노동공제회 대구지회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여타의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¹⁰⁹⁾

한편 일제강점기에 공장제 공업이 발전하고 있었지만, 대구지역에서도 여타 지역의 경우와 같이 織物산업은 여전히 家内手工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곧 개항 이래 물밀듯이 들어온 광목과 같은 제품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내수공업 생산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였으나, 民家에서는 自家需要 뿐만 아니라 市場用 商品으로도 생산하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일본독점자본이 호황을 누리던 1920년대 후반에 있어서도 이 지역에서는 무명, 삼베 및 각종 직물을 순수한 전통적 방법으로 생산하였고, 이들 직물은 자가수요에 충당되는 한편 국내 각지의 비생산지역이나 멀리 동북중국이나 일본으로 수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내직물수공업은 통제경제가 강요된 일제말기에는 더욱 번창하였다. 목화, 삼, 누에고치 등이 강제로 공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욱 번창한 까닭은 일반국민들이 입어야 할 직물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물수공업은 해방 이후에도 얼마동안 지속되다가 機械製紡織工業이 발달함에 따라 1960년대에는 거의 소멸되었다.¹¹⁰⁾

IV. 商業界의 變化

대구지역은 조선후기 이래 봉건적 지배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지방지배의 거점이었던 만큼 일찍부터 定期市場이 발달하는 한편 常設店舖도 존재하고 있었다. 문호개방이래 일본인의 來住者가 증가하고 경부선의 개통으로 인해 농산물이 集中하게 되자 점차 상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府民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지방 상인에게 일용품을 도매하는 상설 점포가 급증하여 대구의 상업조직은 큰 변화를 보게 되었다. 당시 대구지역 상설 점포의 전반적인 모습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일본인이 경영하던 미나카이(三中井), 이비시야 등을 위시하여 한국인이 경영한 茂榮堂과 같은 큰 점포와 중소 상설점포가 대구역을 중심으로 상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중 원정(北城路)지역은 일본인 사이에 대구의 긴자(銀座)라고 불리워지는 등 중심가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09) 김정일, 앞의 책, 1992, pp. 58~105.

110) 《경상북도》, 1983, pp. 148~149, 제7편 일제침략기 제3절 경제.

이들 큰 상점 중에서 대구의 변화가에 위치하고 있었던 미나카이(三中井)百貨店은 1905년경에 건립된 것으로 자본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후일 本店를 서울로 옮겨 전국 주요 도시에 支店을 두는 한편 멀리는 만주에까지 商圏을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미나카이의 이러한 발전은 기본적으로 대구지역에서 자행한 都賣, 小賣, 高利貸 등을 매개로 한 일본 상인들의 詐術과 暴力·暴利的인 商行爲의 결과인 동시에 일본제국주의의 지원과 비호의 결정체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商街의 형성은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雜貨商이 中央通(현 중앙로), 東城町(동성로), 元町(북성로), 本町(서문로)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방 소매상을 상대로 하는 일용품 도매상이 西門市場과 거리가 가까운 市場町(동산동), 本町(서문로), 園町(북성로) 일대에 밀집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인이 경영하는 상설점포는 주로 本町(서문로), 京町(종로)에 자리잡아 한국인 전용의 布木을 비롯한 雜貨를 판매하였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중앙통을 중심으로 매일 夜市가 개설되어 街路의 양측 人道の 露店에서 과일, 잡화 등을 비롯한 각종 산물의 거래가 활발하였다.

이와 같은 상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常設 店鋪에 진열된 상품의 대부분이 일본제품일 뿐만 아니라 근대적 상가의 중심이 일본인 거주지역이었고, 그 주된 이용자가 대부분이 일본인이 아니면 극소수의 한국인 특권층이었다. 이 점은 당시의 상업의 발달이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달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래자본에 의하여 강요된 형식상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대구지역에도 정착되어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시장은 전통적인 재래의 시장이었는데, 이는 대구지역에서도 한국인의 경제적 기반이 공고한 터전을 잡지 못했으며, 전통적인 경제체제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 후기 이래 大丘府 管内の 재래 시장은 大丘邑內場(2일, 7일 開場)을 本場으로 하여 無怠場(4일, 9일 개장)·百安場(5일, 10일 개장)·解顔場(현 동촌; 5일, 10일 개장)·凡於場(4일, 9일 개장)·梧桐院場(현 가창면 대일동; 4일, 9일 개장)·豐角場(현 淸道 관내; 4일, 9일 개장) 등이 있었다. 이들 중 無怠場·凡於場·梧桐院場 등은 정조 15년(1791)에 大丘新場(후일의 東門市場, 4일, 9일 개장)이 南門 밖에서 東門 밖으로 移設됨에 따라 소멸되었고, 이후 나머지의 재래 시장이 일제강점기까지 존속하고 있었다.¹¹¹⁾ 이들 재래 시장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111) 이재하, 《한국의 場市》, 1992, p. 77.

그렇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주로 邑內場 곧 西門市場과 東門市場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왔는데 이들은 각기 一個月에 6회씩 개설되었다(河井朝雄, 《大邱物語》, 1930; 《韓國地理風俗誌叢書》 58, pp. 19~20)

있었는데, 이는 대구 주변의 인구가 비교적 조밀하게 집중되어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¹¹²⁾

또 이들 재래 시장의 위치는 모두가 취락의 주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부근의 취락에 통하는 교통의 요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시장이 川邊에 설치되어 물이 없는 천변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찌기 농민들이 자기의 잉여생산물을 타인의 그것과 교환함에 있어서 비교적 말썽이 없었던 官有, 公有, 기타의 空地를 이용한 데서 비롯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그 경영 주체도 1914년 〈市場規則〉이 제정되어 시장의 公營主義가 확정되기까지는 명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 시장의 설비도 아주 소박하여 연목에다 포목 혹은 양철을 걸쳐 遮日을 하고 바닥에 가마니를 깔아 상품을 나열하는 정도였다. 이들 재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農産物, 水産物, 家畜, 雜貨가 그 주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¹¹³⁾

이와 같은 시장의 경영에 있어서는 조선왕조 말기에 이르러 특정계층들이 연고를 내세워 시장의 出市者들에게 税金을 징수하게 되었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묵인하기도 하였다. 그후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市場의 公營主義가 채택되자 대구의 모든 재래 시장도 대구부에 그 운영권이 이양되게 되었다. 대구부에 의한 시장관리의 명분은 시설의 개선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시장세 징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장세는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더욱 증가하여 이후 대구부의 중요한 재원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형편도 일제의 강점하인 1914년 9월 〈市場規則〉의 제정으로 일정한 변모를 보게 되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의 거의 유일한 상품교환의 장소인 정기시장의 유용성을 그들의 경제적 침탈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市場規則〉의 제정 발표였다. 이 규칙은 시장을 제1, 2, 3호 시장으로 확대 구분하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제3호 시장을 제외하고는 道·郡·府의 公共團體 또는 이에 준하는 者가 아니면 시장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여 시장의 개설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 여기서 제1호 시장은 “場屋을 설치하거나 또는 帳屋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畵畵된 지역에서 每日 또는 定期로 多數의 需要, 供給者 來集하여

112) 18세기에 들어서면서 大邱府城의 城内와 城附近 지역에서는 인구가 집중적으로 증가하여 타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매우 높았다고 한다(四方 博, 〈李朝時代의 都市와 農村에 關する一試論〉《朝鮮社會經濟史研究》中, 1976 所收)

113) 1909년의 大邱 西門市場에서 거래된 주요 품목은 穀物·白木·麻布·牛·魚·鹽·薪炭 등이었다고 한다(善生永助, 《朝鮮의 市場經濟》, 1929, pp. 177~185, 이재하, 앞의 책, p. 95). 또 1913년의 慶尙北道 內務部, 《慶尙北道案内》에 의하면 西門市場과 東門市場은 開市日에 顧客이 數萬名이 몰려드는 韓國 屈指의 규모였다고 하며, 거래상품은 穀類·鹽·干魚·明太魚·野菜·生牛·陶器·釜鍋·麻布·金巾·日用食料品·雜貨類 등이었다고 한다.

貨物의 賣買交換을 행하는 場所”라고 규정하였는데, 우리의 재래 시장이 이에 해당하게 되었다. 당시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구의 재래 시장으로는 西門市場, 東門市場, 南門市場 그리고 月見山 부근의 薪炭市場 등이 있었다.

西門市場은 조선 후기 이래의 大丘邑內場으로 大丘城의 서쪽 河川邊에 위치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의 지명으로는 市場町(동산동)·市場北通(市場北路)·本町(서문로1, 2가)·新町(대신동)·明治町(계산동)·壽町(인교동) 등지에 걸쳐 있었다. 이는 당시에서 대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장으로서 많은 상품이 거래된 큰 시장으로 발전하여 상설 점포들이 잇달아 건립되었다. 그 결과 서문시장은 1924년경에는 전국적인 큰 시장의 하나가 되었고, 소매상 1,000명, 중개상 80명, 도매상 20명이 出市하는 규모로 존재하였다. 東門市場은 大丘新場이라 불리우던 것으로 정조 15년(1791)에 南門 밖에서 東門 밖(현재의 한일극장에서 대구백화점 일대)으로 移設된 시장이다. 그 규모는 서문시장의 1/2 정도로서, 거래된 상품은 서문시장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이는 1917년 8월 이래 현재의 덕산동 일대로 이설되었다(현재의 염매시장).

남문시장은 대구의 인구가 증가하고 시가지가 확대됨에 따라 1937년 3월이래 南山町(남산동)에 신설된 시장이었지만, 그 규모는 동문시장보다 컸다고 한다. 그리고 月見山(午砲山이라고도 함) 부근의 薪炭市場은 연료공급을 위한 시장으로 1929년 동문시장에서 거래되던 物貨중 薪炭만을 분리시켜 독립한 시장이다. 그외 〈市場規則〉에 의거하여 공설시장, 어채시장, 미곡시장 등이 설립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¹¹⁴⁾

한편 대구의 특수한 상업의 하나였던 藥令市는 조선왕조 후기 이래 약 300년 동안 대구지역을 위시하여 당시 사회 전체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개항이후 都市圈의 확대와 藥令市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약령시는 1907년 5월경 慶尙道監營 서편 客舍부근(현재 대구 중부경찰서 북편일대)에서 남문 밖 오늘날의 ‘약전골목’(南城路일대)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였다.¹¹⁵⁾ 그러나 1910년 이래 일제는 지식층이 정기적으로 전국에서 모여드는 것을 감시하는 등 약령시의 발전에 많은 제약을 가했다.

그러다가 1914년 〈市場規則〉의 제정으로 인해 각종 재래 시장과 더불어 약령시도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이에 梁翼淳을 위시한 여러 漢藥業者들은 상호 협력하여 1923년에 藥令市振興同盟會를 조직하고 공정거래, 운임특혜, 접대시설개선 등과 같은 약령시 부흥을 위한 노력을

114) 이상 대구의 시장에 대한 서술은 《대구시사》, 1973, pp. 264~287, 제3편 제4장 상업에 크게 의지하였다.

115) 1913년의 경우 藥令市의 開市 기간 중 賣上高는 약 20여만원에 달했다고 한다(慶尙北道 內務部, 《慶尙北道案内》).

전개하였다. 이때부터 약령시는 계절적 特殊市場으로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와 외국에서 찾아드는 사람들이 늘어나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¹¹⁶⁾

第4節 交通과 運輸

I. 鐵道敷設과 大邱地域

근대문명의 형성과정에서 鐵道는 國內市場의 형성, 資本調達, 經營管理方法의 革新, 雇傭創出, 相關産業과 기술의 발전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住民의 移動, 文化전파, 근대의식의 주입을 통해 민족을 통합하고 결집시켰다. 일제 침략기의 한국철도 역시 부분적으로는 위와 같은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철도는 한국경제를 지역별·산업별로 분단시켜 일본 제국주의 경제권에 편입시키고, 한국인들의 주체적 성장을 억압하여 민족국가 건설의 기반을 파괴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先進諸國의 철도가 근대문명의 총아이자 민족국가 건설의 동맥이었다고 한다면, 일제 침략기의 한국철도는 지배와 탄압 및 수탈의 동맥이자 민족모순의 핵심 고리였다고 할 수 있다.¹¹⁷⁾

일제의 京釜·京義鐵道 敷設權 탈취는 한국의 主權을 유린하고 한국인들의 鐵道建設運動을 압살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경부·경의철도 부설은 한국인들로부터 토지와 노동력 등의 생산수단 등을 강탈함으로써 한·일간의 민족모순을 격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일제는 경부철도 부설권을 빼앗기 위해 한국정부의 高位官職者들을 회유 혹은 협박하여 1898년 9월에 〈京釜鐵道合同條約〉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지엽말단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었지만, 철도부설권과 영업권 및 철도용지를 無償으로 일본에 공여하도록 규정한 점에서 전형적인 약탈 문서였다.

列強의 鐵道利權 侵奪의 본질과 文名의 利器로서의 철도의 중요성을 자각한 韓國官民은 京義鐵道の 自力建設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朴琪淙은 大韓鐵道會社를 발기하고, 李容翊은 宮內府에 西北鐵道局을 설치하였다. 특히 李容翊은 국가자본을 동원하여 서울과 開城 사이의

116) 약령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로는 권병탁, 《大邱 藥令市 研究》, 한국연구원, 1982이 있다.

117) 이하 일제강압기의 철도 및 교통 문제에 대한 서술은 鄭在貞, 《日帝의 韓國鐵道侵略과 韓國人의 對應》,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2에 크게 의존하였다.

土工工事を 실시하는 등 일본의 침략에 맞서 철도를 자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진력하였다. 그러나 자본조달이 여의치 못하여 韓國官民의 경의철도 자력건설운동은 곧 정체에 빠졌다.

일제는 이 틈을 이용하여 1903년 9월에 大韓鐵道會社와 〈京義鐵道借款契約〉을 체결하여 철도부설권과 운수영업권을 빼앗았다. 그후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韓半島를 南北으로 縱貫하여 滿洲에 이르는 兵站路를 확보하기 위해 日本軍의 兵站總監 휘하에 臨時軍用鐵道監部를 설치하고 경의철도를 일본군용철도로서 부설해 버렸다. 이로써 한국의 철도가 민족자본에 의해 부설되지 못하게 되어 민족자본의 집적이 불가능해진 반면에 그 막대한 이득이 일본 자본주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말았다.¹¹⁸⁾

일본의 정부·경의철도 부설공사는 한·일 양국의 토건업에 상반된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정부철도 부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土木建築 請負會社가 다수 출현하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철도공사에 木石等物과 노동자를 공급하는 用達會社 내지 役夫會社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한국 회사의 중역진에는 당대의 고위 관직자 및 開明人士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半封建性和 買辦性을 띤 사람들이었다. 한국의 大韓國內鐵道用達會社·大韓運輸會社·釜山土木合資會社·大韓京釜鐵道役夫會社 등은 정부철도 주식회사와 청부계약을 맺고 永登浦~振威, 草梁~密陽 사이의 공사에 참가하여 기대 이상의 작업성과를 올렸다. 이때 정부철도주식회사가 일본 토건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국 토건회사에 정부철도의 건설공사를 청부한 것은 한국정부의 高官들을 회유하고 한국인들의 對日 적대감정을 완화시켜 철도용지와 노동력을 쉽게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부철도주식회사의 한국 토건회사 우선 방침은 소기의 목적이 어느 정도 관철되자 1년여 만에 철회되었다.

또 일본은 정부·경의철도를 부설하면서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적 침략과 수탈을 폭력적으로 자행하였다. 일본은 양 철도의 부설과정에서 2,000만 평에 달하는 철도용지를 빼앗고, 방대한 양의 철도재료인 木材·枕木·자갈 등과 牛馬·食糧·家屋을 약탈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연인원 1억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을 철도부설 노동자로 동원하여 살인적인 중노동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불과 5년여의 짧은 기간에 한반도를 南北으로 縱貫하는 1천여 킬로미터의 장대한 侵略動脈을 구축할 수 있었다.

철도를 부설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자행한 생산수단의 수탈과 가옥·분묘의 훼파는 연선주민과 노동자·농민들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철도의 수용지와 가옥·분묘에 대한

118) 姜萬吉, 〈日帝統治의 民族史的 피해〉《韓國民族運動史論》, 1985.

보상금은 한국정부가 경부철도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고, 경의철도는 臨時軍用鐵道監部가 군사비로서 지불하였다. 그러나 보상액이 時價에 비해 크게 적었고, 그것조차 수용 후 4~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買辦官僚들이 중간에서 떼어먹는 경우가 많아서, 실소유자에게 돌아간 액수는 극히 미미하였다. 그리하여 토지·가옥·분묘의 소유주와 철도에 인접한 住民들은 일본이 국권을 강탈할 때까지 항일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경부·경의철도 부설공사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과 철도연선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과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였다. 그들은 일본 토건업의 전근대적인 노동조직에 편제되어 살인적인 중노동을 강요당하였다. 철도변의 주민들 중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강제적 노력동원 때문에 농업이나 상업의 본업을 상실하고 유리하는 자가 많이 생겨났다. 또 勞動強度에 비해 임금은 無償에 가까운 정도로 저렴했기 때문에 專業的 노동자들은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본의 한국철도 정책의 핵심은 그들이 내걸었던 “國防共衛 經濟共通”이라는 슬로건에 압축되어 있었다. 이것은 한국철도의 군사·경제적 성격, 즉 일본이 철도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을 군사·경제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하게 표현한 구호였다. 실제로 일본이 1899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에 부설한 國有幹線鐵道는 모두 일본의 군사적 침략과 경제적 수탈에 가장 적합하도록 배치되었다. 예를 들면, 京釜·京義·湖南·京元·咸慶·全羅·中央·東海 등의 철도는 모두 南北縱貫形을 택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 철도는 부산·마산·여수·목포·군산·인천·진남포·신의주·만포진·원산·청진·라진·웅기·회령 등의 海港과 國境都市를 각각 縱斷驛으로 포용하고 있었다.

한국의 간선철도망이 이처럼 남북종관형과 해항기점형 및 서울집중형으로 구성된 것은 언뜻보아 한반도의 자연적(산맥·평야·자원 등의 분포)·인문적(인구·정치·경제 등의 배치) 조건으로부터 연유하는 일반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의 일반적 성격에 집착한 나머지 이들 철도가 일본의 치밀한 구상 하에 한국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일본과 만주를 시간적·공간적으로 최대한 밀착시키기 위해 특별하게 부설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간선철도는 원래부터 국내 각 지역간의 물자유통보다는 기본적으로 국외유통, 즉 일본~한국~만주 사이의 병참 및 상품수송을 목적으로 부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철도가 전국유철도연장의 80%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한국철도의 침략적 성격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철도 부설에 있어서 대구지역은 1901년 일본에서 京釜鐵道株式會社가 성립되면서

부터 주목되기도 했지만,¹¹⁹⁾ 그 직접적 영향이 대구지역에 미치기 시작한 것은 1903년 12월경 草梁-龜浦-密陽간의 工區가 준공되어 建設을 위한 列車가 운행될 무렵이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대구에 대거 진출하기 시작하였는데,¹²⁰⁾ 그것은 대구지역이 경부선이 통과하는 여러 驛 가운데 가장 큰 도시로 발전할 것을 예견한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곧 이 시기에 부산에 거주하던 일인 大池忠助·迫間房太郎·岩瀬靜·中村俊松 등과 같은 자들이 大邱驛 예정지 뿐만아니라 市街地 주변의 토지를 방대한 규모로 매입하였다. 당시 慶尙道 觀察使 李允用은 일본인의 土地買入을 금하는 한편 일본인에게 土地·家屋를 賣渡하거나 알선하는 한국인을 강력히 처벌하기도 하였으나, 일본인들의 반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¹²¹⁾

이후 경부선 철도 부설을 계기로 일본인들의 진출은 더욱 확대되는 속에서, 1904년 1월 大邱北門밖(지금의 대구역 부근)에 경부철도 南部工事建設事務所가 설치되었다. 이를 계기로 工事관계자와 土木人夫, 商人들이 대거 대구지역으로 진출하였는데, 같은 여름 무렵 大邱區間 철도공사가 본격화되자 일본인 1,500여명이 이곳에 거주하기도 하였다. 이들 중 800여명은 철도공사가 끝난 후에도 경부선을 중심으로 대구지역에서 상업활동을 전개하면서, 대구의 경제권을 대부분 장악하여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키기도 하였다.¹²²⁾

1905년 1월에 釜山-大邱間的 철도가 개통되어 汽車가 처음으로 운행되었지만,¹²³⁾ 이의 건설에는 많은 철도연변 및 정거장을 위한 부지가 필요하였다. 당시 대구지역에서는 경부선 건설에 편입된 전체부지 2,697,012坪중 150,006坪의 田畠이 편입되었다(전체의 5.56%). 그러나 그 보상가격이 時價의 1/2~1/5 정도에 지나지 않아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또 철도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인근 주민을 강제로 동원하기도 하였고, 살인적인 사역 및 일본인 노동자들의 잔악한 횡포가 심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일본인에 대한 증오심과 反鐵道意識을 심어 주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철도건설과 열차운행에 대해 여러 가지로 반발하였는데, 대구지역

119) 당시 京釜鐵道株式會社の 理事 尾崎三郎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대구지역의 產地 價格이 6원인 데 비해 이의 부산까지 運賃이 2원으로, 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역설하면서 철도의 건설 효과는 운임이 1/4인 50錢으로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鄭在貞, 앞의 논문, p. 35).

120) 河井朝雄에 의하면 이 시기에 일본인 1,000명이 몰려 들었는데, 이들은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누리며 많은 불법을 자행하였다고 한다(《大邱物魚》, 1930, p. 20).

121) 河井朝雄, 앞의 책, p. 36.

122) 대구상공회의소, 《大邱商議八十年史》, 1986, pp. 69~70.

123) 河井朝雄, 위의 책, p. 47.

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대구지역 주민들이 철도건설 및 운행에 반발했던 대표적인 예로 1904년 8월 19일 義兵 200명이 鐵道工事 請負會社를 공격한 것,¹²⁴⁾ 선로상에 돌을 쌓아 열차 통행을 방해한 것¹²⁵⁾ 등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후자의 예는 대구 및 대구부근인 慶山-晩村-新洞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II. 鐵道 運輸의 實態

한국철도는 일본의 경제적 수탈과 군사적 침략을 수행한 핵심적 교통기관이었기 때문에, 철도로 운반되는 旅客과 貨物은 침략정책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던 한국사회·경제적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다. 한국철도의 운수영업은 대체로 1930년대 중반을 경계로 하여 크게 변화였다. 즉 전기의 운수영업은 제1차 세계대전의 호황으로 여객과 화물 모두 급증하였던 시기(1915~1923년)와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로 양자 모두 대폭 감소하였던 시기(1928~1932년)를 제외하면, 대체로 담보상태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후기에는 한국에서의 공업화의 진전과 일본~한국~만주 경제블럭의 형성에 따른 여객과 화물의 폭주 때문에 운수영업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을 지속하였다.

193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철도화물의 구성도 크게 바뀌었다. 철도화물의 산업별 구성비율은 1930년대 중반 이전에는 농산품 22~32%, 광산품 17~28%, 공산품 8~17%, 임산품 7~11%이었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광산품 32~38%, 공산품 8~17%, 농산품 8~16%, 임산품 6~9% 순으로 역전되었다. 전기에는 미·속·석탄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던 반면에, 후기에는 석탄·시멘트·광석·금속·기계·군수품 등이 높은 비율을 점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대한 경제정책이 1930년대 중반을 경계로 식량수탈 제일주의로부터 자원 약탈과 군수공업화 우선주의로 전환되어, 광공업품의 수송량이 농산품의 수송량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이 철도화물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米·粟·石炭·시멘트·鐵鑛石 등의 유통경로와 수송 방향은 한국경제의 식민지적 기형성을 단적으로 말해주었다.

그 밖의 과일·종이·酒類·煙草·鰾·魚物·소금 등 각종 소비재의 수송이 식민시대의 전시기,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에 급증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의 發着이 各線의 縱斷港驛과 주요 도회지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주목할만 하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 침략하에서 한

124) 《時事新報》, 1904년 8월 20일.

125)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30일.

국내의 소비 부분이 꾸준히 확대됨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종속 또한 더욱 심화되어 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軍用品과 鐵道局用品은 한국철도의 화물구성을 특징짓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군용품의 수송은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1919년), 괴뢰 만주국 수립(1932년), 중국침략(1937년)을 계기로 급증하였다. 특히 전시하인 1940년대에 들어서서는 군용품 수송량이 전체 화물량의 10~14%를 차지하였다. 군용품의 주요 행선지는 만주였고 수송경로는 경부·경의철도였다. 이로써 한국철도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철도가 사용하는 침목·레일·사리·석탄 등은 전체 화물량의 16%(1944년)에 이를 만큼 방대하였다. 실제로 철도는 공장 다음으로 석탄을 소비하였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의 많은 부분은 레일로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철도는 그 자체가 화물을 창조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철도화물이 격증한 것은 철도망의 확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과 같이 경부·경의 철도를 비롯한 한국의 간선철도는 한국과 만주의 原料 및 穀物을 일본으로 수탈하고, 일본의 工業製品, 軍隊 그리고 移民을 한국과 만주로 침투시키는 파이프라인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의 화물수송은 일본·한국·만주의 경제적 상호관계 속에서, 한국과 만주의 대용적 저가품인 1차상품을 일본으로 반출하고, 일본의 소용량 고가품인 2차상품을 한국과 만주로 반입하는 기본적 흐름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한국철도의 객·화운수는 일본과 만주를 상대로 한 국외수송이 주축을 이루었고, 한국내 각 지역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수송은 부차적이었다. 이처럼 일제 침략기의 한국 철도는 한국인들에게는 문명의 이기였다기 보다는 침략과 지배, 수탈과 분열, 탄압과 차별의 기구로서 기능하였다.¹²⁶⁾

이러한 형편하에서 대구지역은 철도의 부설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곧 전통사회에 있어서 대구지역은 한반도 남부에서는 주요한 거점의 하나였지만, 상업적인 면에서는 도로·교통수단의 불비로 인해 수송사정이 좋지 못하여 전국적 규모로 개시되었던 약령시를 제외하고는 중요성을 띠지 못했다. 그러다가 경부철도의 부설을 계기로 대구지역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주요역으로 등장하게 되고, 각종 화물의 경제적 수송이 가능하게 되자 새로이 주목되는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개항 이래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釜山의 商業圈에서

126) 한국철도의 이러한 성격을 감안하여 橋谷 弘은 식민지하의 한국에서는 일본의 경제권에 포섭된 식민지 경제권만이 존재할 뿐 독자적인 민족경제권은 있을 수 없었다고 보았다(〈兩大戰間期の日本帝國主義と朝鮮經濟〉《朝鮮史研究會論文集》20, 1983).

벗어나 일본을 위시한 외국과 直去來를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하나의 經濟圈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후 1918년 10월에는 大邱-慶州-浦項間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을 보게 되어 상업상의 거래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어서 1925년에 포항과 西北日本間을 잇는 航路의 개설로 대구의 商圈은 동해연안의 각지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1939년 6월 永川-慶州間의 철도확장과 더불어 永川에서 京慶線과 接續됨으로써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육상교통은 더욱 발달을 보게 되었다.

한편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망의 확충과 이에 따르는 상권의 확대는 한국인의 생활을 더욱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제에 의한 교통망의 확충은 그들의 상품판매시장과 자본투자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값싼 원료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철도 시설은 한국인을 억압하여 보다 많은 재화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일본 금융자본가들이 그것을 통해 한국민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일제강점하의 대구를 중심한 교통망의 정비에 따르는 상권의 확대는 다름아닌 대구지역 무역의 對日隸屬化를 말하는 것이었으니, 그 무역은 일본경제의 盛衰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대구무역의 일반적 추이를 본다면 최고의 호황을 보인 것은 1919년에서 1922년에 이르는 4년간이었고 그 이후로 격감한 채 좀처럼 발전을 보이지 않다가 1939년에 이르러 비로소 급증의 추이를 보이게 되었다. 대구무역의 이러한 추이는 한국무역의 일반적 추이가 그러하였던 바와 같이, 대구경제의 내재적 발전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본경제의 내재적 요구를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1919년 이후의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한국의 대일수출의 진흥기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에 있어서 식량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한국이 식량기지로서의 그 보급적 지위를 확립하는 시대였다.

《대구부사》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대구지역 무역의 지역별구성을 살펴보면 1911년부터 1939년에 이르는 29년간을 평균한 對日貿易의 비율은 89.6%, 일본을 제외한 여타 外國은 10.4%로 되어 있다. 또 당시 大邱商工會議所가 작성한 통계연보에 의하면 1933년부터 1937년에 이르는 5개년간의 대일무역의 평균비율이 98.9%로 나타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구지역 무역의 대일의존도가 전국평균비율을 크게 넘어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구지역이 한반도 南部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일본과의 무역이 편리하였다는 지리적 조건과 物資集散地로서의 대구의 식민지적 성격 혹은 대일 예속관계의 비중을 설명하는 것이다.

당시 대일수출의 주요 품목은 白米·玄米·生絲·설견(屑繭) 등이었는데, 이는 경북지역의 낙동강

유역이 한국 제1의 産米地인 동시에 養蠶地였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는 대구가 갖는 입지적 조건을 적절히 이용하여 대구에다 精米工場, 製絲工場 등을 건설하는 한편 여기서 가공된 제품을 일본으로 가져가 白米는 저임금정책을 강행하는 지렛대로, 生絲는 가공을 통해 재수출하는 외화획득을 위한 원천으로 각각 이용하였던 것이다. 그 밖에 대구의 대일 주요 수출품으로는 사과가 있었는데, 이는 대구분지가 그 재배의 중심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결과로서 당시 이 지역 수출의 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처럼 대일 수출품이 농산물을 위주로 하고 있었는 데 비해 대일수입품은 잡다한 완성품을 내용으로 하여 있었다. 곧 대일수입품의 주된 품목은 織物·油·鐵物 등이었지만, 그중 직물류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구지역이 한국에서 으뜸가는 生絲生産地이고 棉花生産地인 데도 불구하고 직물류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구경제를 위시한 한국경제의 대일에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우기 직물류 중에는 상당한 부분을 人造絹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마치 식량에 있어서 白米를 빼앗기고 滿洲粟으로 연명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류에 있어서 生絲를 빼앗긴 한국인이 그 대용으로 人造絹을 사용해야 했음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 볼 때 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대구지역의 상권은 커다란 변모를 보였으나, 그것은 대구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상품판매시장, 원료공급지로서 일본제국주의에 예속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철도의 개통은 일본자본의 침입과 대구지역의 농산물·원료품의 약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았다는 것을 뜻한다.¹²⁷⁾

III. 道路 交通網의 整備

조선왕조 이래 주로 徒歩에 의하거나 낙동강의 水運에 의한 交通路 밖에 없었던 대구지역의 교통은 1907년 대한제국에 의해 大邱-慶州-迎日간의 陸路가 改修·擴張되면서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되었다. 또 일제에 의해 한반도를 종관하는 京釜鐵道가 개통되면서 면목을 일신한데 이어 大邱와 浦項을 연결하는 大邱線(東海中部線)이 개통되자 교통망은 더욱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한국을 합병한 일본제국주의는 地方奧地에 까지 정치군사적 지배망을 더욱 확고히 하는 동시에 이들 지역을 그들의 商品經濟圈에 편입하기 위하여 철도 이외에 新街道의 확충에 노력하였다. 이들 새로이 건설된 街道는 대구를 중심으로 安東·星州·玄風·慶州 등의 방향으로 방사상으로 4線으로 分岐되어 있었다.

127) 이상 대구지역의 철도와 무역 문제는 《대구시사》, 1973, pp. 292~308, 제3편 제5장 무역을 많이 참조하였다.

일제가 개축한 이들 新街道의 工事費는 한국민을 수탈하여 거두어 들인 총독부재정으로 충당되었고, 도로 부지의 확보는 〈土地收用令〉에 의한 한국 농민들의 많은 토지를 약탈한 결과였다. 또 도로 공사에 소요되는 노동력도 전적으로 한국 근로자들의 부역노동력에 의지 하였지만, 대규모 토목공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과 중장비가 없이 건설되었기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근대적 건설자재라고는 시멘트와 암석폭파용 다이나마이트가 있었을 뿐이었기에 주로 원시적 노동수단인 삽과 곡괭이만으로 이를 개설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도로는 九折羊腸의 모양을 면하지 못하였다. 어쨌든 이들 도로는 大邱驛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대구역을 위시한 인근 지역이 대구지역 교통의 심장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발전으로 自動車의 출현을 가져왔는데, 대구지역을 위시한 경북지역에서 최초로 등장한 자동차는 1912년 11월 大邱-浦項 사이에 隔日間으로 운행한 合乘自動車였다. 이어서 1919년 6월에는 大邱-安東 사이에 하루 1왕복의 營業用 貨物自動車가 등장하였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大邱-昌寧(1917년 7월), 大邱-高靈(1918년 3월), 大邱-忠州(1918년) 사이에 자동차의 정기적 운행이 개설되어 자동차의 운수를 통한 육상교통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육상교통의 발전에 반비례하여 전통사회의 교통·운수에서 크게 성행하였던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水運은 날로 쇠퇴하여 1920년대에는 거의 소멸의 단계에 이르렀다. 곧 전근대사회에서 대구지역의 가장 큰 通路의 하나로서 기능했던 낙동강의 沙門津은 1910년대 까지 米穀 1萬石을 위시한 각종 貨物의 중계지로서 그 위치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경부철도가 개통된 이후 점진적으로 각종 화물의 수송을 철도에게 빼앗겨, 이후 沙門津은 대구지역과의 긴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¹²⁸⁾

그리고 大邱府 管内에서 운행되었던 교통수단으로 大邱府營 버스가 1929년 7월부터 등장하였다. 당시 대구부는 지역내의 주요 街路에 30인승 버스 3대, 24인승 버스 20대를 운행하여 지역민의 이동에 편리를 도모하였는데, 이들은 이용자의 증가와 지역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노선이 연장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전통적 운행 수단이었던 客馬車·人力車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¹²⁹⁾

128) 新納 豊, 〈鐵道開通 전후의 洛東江 船運〉 《한국근대경제사연구의 성과》, 1989.

129) 이상 도로 교통에 대해서는 《대구시사》, 1973, pp. 348~358, 제3편 제8장 교통 및 《大邱商議八十年史》, 1986, pp. 111~113을 많이 참조하였다.

第3章 大邱地域의 獨立運動

第1節 啓蒙運動과 大邱地域

한말의 계몽운동은 크게 보면 독립협회의 언론계몽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이것이 전국적으로 고양되기 시작한 것은 을사조약 이후였다. 이 운동의 주요 흐름은 학회의 활동, 정치·사회단체의 결사운동, 그 밖에 언론·교육활동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처럼 계몽운동은 각 분야별로 전개된 것이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본 절에서는 한말 대구지역의 계몽운동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I. 全國規模 啓蒙團體와 大邱地域

개화자강론을 주장하던 신지식인들에 의해 조직된 전국규모의 단체 중에서도 대표적인 단체는 대한자강회와 신민회였다. 이러한 단체는 전국 각지에 지회를 두었을 뿐 아니라, 주도인물들이 지방에 내려가 활동함으로써 계몽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단체와 대구지역 계몽운동과의 관계를 살펴하기로 한다.

1. 大韓自強會와 大邱地域

대한자강회는 1906년 3월 31일 張志淵·尹孝定 등 5인에 의하여 발기되었다. 그 후 4월 4일 발기인 및 동지 20여 명이 園洞 윤효정의 집에서 회합하여 임시의장에 임진수를 선출하고 5명의 임시간사를 선출하여 창립총회로서의 출발을 보게 되었다. 이때 통과한 회칙을 보면 “교육의 진흥과 산업의 발달을 연구실시함으로 자국의 부강을 계획 도모하여 타일에 독립의 기초를 만들 것”이라고 하고, “이로써 국가발전의 기초작업을 완수한다는 의도하에서 교육을 진흥시키고 산업발달을 연구실시한다”는 것이었다.¹⁾ 따라서 대한자강회의 당면 목표는 실력을 양성하여 자강을 실현하는 데 있었고, 궁극의 목표는 국권회복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한자강회는 전국에 28개의 지회를 두었다. 그 중 경상도지역에는 高靈·東萊·金海 등에 3개 지회가 있었고, 淸道에는 지회설립을 위한 신청만 이루어진

1) 《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pp. 10~11.

상태였다. 경상도지역 지회설립에는 당시 대한자강회의 중심인물들인 윤효정과 장지연 등이 시찰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대구에는 지회가 직접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대한자강회의 연락기구인 광학사의 지회로서 大邱廣學會가 설립되고 있었다. 또한 대한자강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대한협회의 총무였던 윤효정이 달성친목회에 강연자로 초빙되기도 하였다.²⁾

교육운동에 있어서도 대한자강회가 대구지역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1907년 초에 대한자강회에서 의무교육 실시를 정부에 건의하자, 대구광문사에서든 국가가 온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교육을 과하는 의무교육제를 시행하여 인재양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에 낸 바 있다. 대한자강회는 처음부터 의무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의무교육 실시를 관철시키려 했다. 그러므로 대구광문사의 의무교육 실시 건의는 대한자강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대구지역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제기되었을 때,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언론지가 『대한매일신보』였는데 이 신문이 대한자강회의 기관지였다.

1907년 9월 대한자강회가 해산당하고 3개월만인 동년 11월 대한협회가 설립되었다. 대한협회의 조직은 대체로 대한자강회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일부 대한자강회 지방지회가 그대로 계승되기도 하였다. 대한협회의 지방지회 중 경상북도 지역에는 대구, 안동, 창원, 성주, 경주지회 등이 있었는데, 대구지회에서는 조병희·박기돈 등이 주도인물로 활동하였다.³⁾

이와 같이 대구지역의 계몽운동은 전국규모의 단체 가운데서도 대한자강회 및 대한협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전국 규모의 단체란 결국 국권회복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로 선도하였다. 비록 대구지역이 보수적 전통이 강한 지역이었다 하더라도 일부 신지식인들은 계몽단체를 조직하고 지회설립에 참여함으로써 전국규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2. 新民會와 大邱地域

신민회는 대한자강회와 더불어 전국규모의 계몽단체였으나 위의 단체들과는 달리 비밀결사 조직이었다. 1907년 초에 미국에서 일제의 보호국체제 아래에 있는 한국의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대한신민회를 발의하였다. 여기서 이 단체를 본국에도 조직하기 위하여 안창호를

2)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1, 1987, p. 170.

3) 金項勾, 〈大韓協會의 設立과 組織〉《龍巖車文燮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1989, pp. 459~478.

파견하였다. 안창호는 재미동지들과 함께 초안한 〈大韓新民會趣旨書〉와 〈大韓新民會通用章程〉 등을 휴대하고 귀국하여, 1907년 4월에 국내에 있던 양기탁·전덕기·이동회 등과 창립위원이 되어新民회를 창립하였다. 그 후新民회는 노백린·이승훈·안태국·이상재·윤치호·김구·신채호 등 각계 각층의 계몽세력을 망라하였다.⁴⁾

新民회는 설립목적을 “부패한 사상과 관습을 혁신하여 국민을 유신케 하며 퇴폐한 교육과 산업을 계량하며 유신한 국민이 통일연합하여 자유문명국을 성립케 함”이라 하였다.新民회는 “실력양성을 위해서는 백성을 새롭게 하여야 하며, 실력양성은 ‘新民’에 의한 민력양성이고,新民은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自新’이어야 한다” 하였다.⁵⁾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에 많은 지회를 설립하였는데 주로 경기 이북 지방에 설립되었다. 그러나新民회 조직체계에 회장·부회장·총감독아래에 道總監·郡總監 등의 직책을 두고 있었고, 각도의 책임자가 구성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경상도 대표로 金鎭浩가 올라 있었다. 그리고新民회의 주요 主導會員이었던 南亨祐가 교남교육회의 교육시찰원으로 내려 왔던 것을 감안하면,新民회와 대구 지역도 깊은 관련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新民회의 활동 중 주목할 것은 太極書館의 설립운영이다. 태극서관은新民회 산하기관으로서 각종 유인물과 서적 등을 출판 공급하기 위해서 1909년 7월에 평양에 본점, 서울, 대구에 지점으로 설립된 서점이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태극서관의 설립시기는 1908년 여름이다. 그리고 서울지점은 1910년 봄과 여름 사이에 개점되었고 그 책임자는 안태국이었다.⁶⁾

태극서관 서울지점은 경향 각지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공급 판매하였고 조선광문회등에서 발간되는 서적도 여기에서 배포하고 있었다. 태극서관은 서적을 주로 취급하였으나, 그 외 측량기구, 학용품도 판매하였고, 때로는 과수도 공급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태극서관은新民회원의 연락장소로 자주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태극서관은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에서 결국新民회는 민족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위한 후원금도 조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종래까지는 태극서관 대구지점이 평양본점, 서울지점과 함께 그 때 설치된 것으로 보아 왔으나, 최근 대구지점은 1913년 7월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였다.⁷⁾ 대구에 태극서관 지점이 설립되었다는 주장은 李光洙의 《島山 安昌浩》에 의한 안창호 회고록에 근거한 것이다.

4) 慎鎬廈, 〈新民會의 創建과 그 國權恢復運動(상)〉《韓國學報》8, 1977, pp. 35~36.

5) 慎鎬廈, 위의 논문, 1977, p. 44.

6) 尹慶老, 〈新民會 活動의 經濟的 基盤〉《韓民族獨立運動史論叢》, 論叢刊行委員會, 1992, p. 156~158.

7) 尹慶老, 위의 논문, 1992, p. 156~158.

그러나 당시 태극서관 책임자였던 이승훈이나 안태국의 진술에서 평양본점이나 서울지점과는 달리 대구지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태극서관의 대구지점 설립 문제는 좀 더 엄밀한 고증을 필요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신민회는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망라하여 조직된 비밀결사로서 다방면에 걸쳐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실력양성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학교설립과 인재양성, 각지 학교교육방침의 지도 등을 실행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신민회가 활동하던 시기에 경상도 지역에서는 교남학회가 활동하였는데, 당시 각종 지역학회가 연합하여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역학회 활동에 신민회의 역할이 주요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교남학회도 이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I. 大邱地域의 啓蒙團體

을사조약을 통한 일제의 침략을 경험하면서 한국민들은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민족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 근대 지식인들은 이러한 공감대에 부응하여 주로 지연과 인연을 중심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민족의 역량을 배양하려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구라고 해서 다를 수 없었다.

1. 大邱廣文社

대구광문사는 1906년 1월에 설립되었는데 교과서와 외국서적을 간행하고, 각지의 충효열행이 있는 사람을 모아 매월 3회씩 잡지를 발행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대구광문사는 達城廣文社로도 불리웠는데, 사장에는 金光濟, 부사장에는 徐相敦이 취임하였다. 그런데 사업 추진은 주로 김광제에 의하고, 재정적 뒷받침은 서상돈이 담당했던 것 같다. 김광제와 서상돈은 대구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몽운동가이다.

서상돈은 일찍이 독립협회 회원으로서 만민공동회 운동때 재무부문에서 간부급으로 활동한 개화자강파 인사였다. “상돈은 미국여자로 인하여 함께 거하여 鋸萬을 聚貨하였고 야소교를 익히 믿고 미국인을 교통하여 비록 왜인일지라도 그를 꺼려한다”⁸⁾ 라고 하였듯이 그는 서양인과 교제하여 큰 재산을 모았고 또 천주교인이었으므로 일본인들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40세 전후에 경상도 시찰관을 역임하고 퇴관후 실업계의 중진으로

8) 黃玪, 《梅泉野錄》 권 5, p. 407.

금융계를 이끌기도 하였다. 만년에 식산은행 전신인 대구농공은행을 창립한 선각자로서 당시 대구 굴지의 재벌로서 명망이 높았다.⁹⁾

김광제는 천주교인이면서 광문사 이외에도 민지계발과 민권부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운동으로서의 大邱府民議所를 1906년 5월경에 창립하였으며¹⁰⁾, 또 대구부에서 일종의 府立學校로 설립한 達明義塾의 부교장겸 강사로도 있었다. 그는 또한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신문발행도 추진하여 이해 6월 농공상부로부터 신문발간 허가를 얻었다. 이는 《대한매일신보》에서 “達城廣文社에서는 新學問教科書를 발간하는 餘事에 또 一新聞을 발행하기로 日作 農部に 請願하여 승인하였다더라”¹¹⁾ 라고 하였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문발행이 실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대구광문사는 《時事叢報》를 접수하여 시대에 맞도록 개화자강노선에 따라 개편한 출판사로서 면목을 일신하여 장지연·현은 등의 지도하에 정약용등 실학자의 저서를 출판하면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던 출판사였다. 이 광문사는 그 산하의 廣文社文會라는 계몽운동단체를 조직하여 주로 독서와 詩作과 교육 등의 계몽운동을 하다가 광문사문회의 명칭을 대동광문회로 개칭하였다. 斷煙에 의한 국채보상운동을 제의한 것도 이 때의 일이었다.

대구광문사 창립 당시 그 목적과 활동에 찬성하여 참여한 회원이 5,6백명이었으며 이들은 교육진흥을 위해 교육서를 간행할 인쇄기를 구입하여 교과서 종류를 간행하였고, 장년들의 교육을 위해 강연회를 실시하고 학교설립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1년여 간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과 時務를 잘 모르는 각 군의 군수 및 완고한 사람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교육진흥사업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大東光文會

대구광문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廣文社文會를 두고 있었는데, 1907년 1월 29일 문회의 명칭을 대동광문회로 개칭하고 회장에 朴海齡, 부회장에 광문사 사장인 金光濟가 취임하였다. 그리고 회원으로는 김윤란·장상철·강영주·심정섭 등 10여 명이 있었다.¹²⁾

9) 崔正福, 《天主教會史》, 大邱 大建出版社, 1952, pp. 58~60.

10) 《皇城新聞》, 1906년 6월 1일자, 雜報, 「慶北代議所」 및 《大韓每日新報》, 1906년 8월 26일, 雜報, 「慶尙北道大邱府民議所長金光濟氏의 警告文」

11) 《大韓每日新報》, 1906년 6월 2일자, 「新聞承認」

12) 趙恒來, 〈國債報償運動의 發端과 展開過程〉《日帝經濟侵略과 國債報償運動》, 大邱文化放送(株) 創社30周年紀念學術會議, 한국민족운동사 연구회, 1993, p. 65.

이와 같은 조직을 구성한 대동광문회는 일본의 東亞同文會, 중국의 光學會와 연락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교육을 확장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대동광문회는 국력배양을 위해서는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확장하고 서적을 간행해야 한다는 요지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황성신문』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광문사문회를 대동광문회로 개칭한 이유를 당시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동광문사문회 회명을 대동광문회라 개칭하고 회장은 朴海齡씨로 부회장은 사장 金光濟씨로 추천하고 일본 東亞同文會와 청국 廣學會를 연락하여 務圖親睦하고 확장교육함으로 主旨를 完定하였다.”¹³⁾ 즉 일본·청국 등의 나라들과 국제적 친목과 교류를 통하여 교육을 확장하기 위해 회명을 개칭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동아동문회는 일본의 대륙정책 추진단체 중의 하나로서 日淸貿易研究所 계통의 단체이다. 그리고 청국의 광학회는 상해에서 기독교 선교사 윌리엄슨에 의하여 글라스고오(Glasgow)의 스코틀랜드 장로회의 경제적 및 출판상의 원조를 받아 창설된 선교사 중심의 계몽단체로서 국제적인 단체였다. 따라서 동아동문회와 광학회는 청국계몽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설립한 것이며, 그 중의 광학회 사업은 대동광문사 사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서상돈은 대동광문회로의 사업 확대에서 국제간의 교류를 통하여 자주적 경제력을 키우려고 민중의식화를 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국내의 계몽운동은 구국교육에만 치중하였을 뿐 식산진흥을 위한 경제적 운동이 극히 미약했던 때, 대구에서 경제자립을 통한 자주독립을 지켜야한다는 의지에서 국채보상운동이 발의되고, 대동광문회로의 명의 변경을 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갔던 것은 대구지역사에서 뿐 아니라 민족사의 전개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이상에서 보면 대동광문회는 변법자강운동을 추진하는 청과 아시아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하는 일본과 더불어 문화적 교류에 힘쓰는 국제적 기구로서 계몽운동을 확대 추진하려는 원대한 포부로 출발한 것이다. 영남 일우 대구에서 이같은 큰 포부로 대동광문회를 발족시킨 것은 대구지역의 계몽운동가들이 “대구는 삼남의 요충지이고 또 각국 교제하는 요지”¹⁴⁾로 파악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3. 達城親睦會

달성친목회는 1908년 9월에 조직된 단체로서 그 목적은 조선인 청년의 교육·실업장려였다.

13) 《大韓每日新報》, 1907년 2월 23일자, 雜報, 「連絡廣學」

14) 《大韓每日新報》, 1906년 8월 26일자, 雜報, 「慶尙北道大邱府民議所長金光濟氏의 警告文」

당시 친목회 단체로는 달성친목회 외에도 淸道郡 東二位面의 친목회, 부산의 부산친목회, 영남출신 재경유학생들의 嶠南學生親睦會 등이 있었다. 계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국권회복운동은 비밀결사 조직과 같은 형태로의 질적변화를 가지면서 합법적인 한 형태로 친목회와 같은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대한자강회가 해산당하고 이어서 조직된 대한협회의 회장 金嘉鎭, 부회장 吳世昌, 총무 尹孝庭 등의 인물들이 일제의 한국통치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이것은 1908년 8월 26일 學部에서 기초한 私立學校令·學舍令 등¹⁵⁾과 함께 계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사립학교와 학회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수반하였다. 따라서 이후 결성되는 계몽운동단체는 학회가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친목회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추이 속에서 1908년 9월 5일 이근우·김용선 등이 달성친목회를 조직하여 대구를 중심으로 각지의 청년들을 규합하고 한국청년의 교육과 실업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망한 청년들을 단결케하여 비밀리에 배일사상을 고취시키던 단체였다. 이것은 “달성친목회는 明治 41년 9월 5일 즉 구한국시대 府內 明治町 二丁目 李根雨 및 金容璇 등의 발기에 의하여 조직되었는데 그 목적은 조선인 청년의 교육·실업장려를 표방하나 내면은 전적으로 유망한 청년들을 단결케 하여 大韓協會와 행동을 같이 하고 비밀리에 배일사상을 고취하고 있었다.”¹⁶⁾라고 한 데에서 잘 나타나 있다.

달성친목회의 활동은 교남교육회와 관련된 계몽과 교육활동에 치중하였다. 이를테면 교남교육회의 교육시찰원 南亭祐가 달성친목회 회관에서의 연설을 한 것이나, 교남교육회의 산하조직인 법률야학강습소가 달성친목회 회관에 설립되어 야학을 실시하였던 것 등의 활동이다. 또한 달성친목회는 대구협성학교내에 하기강습소를 설립하여 교남 각군의 학생 200여 명에게 역사 및 理化學을 강습하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달성친목회 내에 청년체육구락부를 설치하고 체육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 때 참여한 부원은 100여 명에 달하였다.¹⁷⁾

달성친목회는 경술의 국치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강제 해산되고 지하로 잠적하다가 1913년 하얼빈에서 귀국한 서상일이 재건하였으나 곧 다시 해산당하였다. 달성친목회는 아마 이 때부터 비밀결사단체로서 재편되어 활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달성친목회의 회원이 이

15) 《皇城新聞》, 1908년 8월 8일.

16) 《大警》第 2339號, 大正 8년 7월 24일, 「달성친목회 및 講遊園에 대한 復命書」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7, p. 296.

17) 《皇城新聞》, 隆熙 4년 8월 14일자, 「大邱의 靑年體育」

후 조선국권회복단의 주축이 되고 일부가 대동청년단이나 대한광복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⁸⁾ 따라서 달성친목회는 친목회를 표방한 독립운동단체였음을 알 수 있다.

4. 嶠南教育會

한민족은 민지를 깨우쳐 힘을 기르고 규합하려는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지역단위의 학회활동이 활발하였다. 대구부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에는 교남교육회가 활동하였다. 이는 1908년 3월 普光學校에서 발기인 朴晶東·尚灝를 비롯한 145명이 참가한 창립총회에서 창립되었다. 또한 임원 구성에서는 초대회장에 李夏榮, 부회장에 尚灝, 총무에 孫之鉉, 그리고 평의원에 朴晶東 등 30인의 임원이 임기 1년으로하여 선출되었다.¹⁹⁾

교남교육회의 설립 취지는 “유독 우리교남이 鄒魯之鄉이라 일컬고 영준한 자제가 많으므로 기반이 튼튼한 학문적 자질에 새로운 지식을 교육하여 장래를 대비해야 한다”라 하였다. 설립목적은 “교남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라 하고, 그러기 위해 경성내에 사범학교를 설립하는 것, 지회를 본 도내에 설치하여 학교를 설립케 하는 것, 회보와 기타 필요한 서적을 隨宜 발간하는 것 등을 명시하였다.²⁰⁾ 그리고 서적발간에 있어서는 계몽잡지로서 《嶠南教育會雜誌》를 발간하였는데, 이것은 교육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다.

교남교육회의 구성원은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교남에서 출생하였거나 또는 본적이나 주소가 교남인 자로 하여 그 관련인사를 망라하였다. 부서조직을 보면 회장·부회장·총무·재무부장·도서부장·교육부장 각 1인과 간사·서기 약간인, 회계·사찰 각 2인, 학무원·편술원 약간인, 평의원 30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 학무원과 편술원을 각 10명씩 두었는데, 학무원은 교육부의 제반사무를 담당하고 편술원은 도서부의 일체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²¹⁾ 임원은 임기 1년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수시로 교체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임원들이 갖는 교남지역의 지역적 보수성과 계몽운동에 대한 인식의 부족 탓이었다.

교남교육회의 지회설립은 규정에 따라 본회의 취지를 찬성하는 교남 각군의 유지인사가 10인 이상의 발기인의 연서로 청원서를 본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밖에도 본회지회규칙을 따로 제정하여 지회조직 및 설치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그리하여 면단위로 학교를 설립하는 흥학운동을 계획하고, 그 지방 인사로 인적 자원을 마련하고 그 지방의 재정 능력자를

18) 權大雄, 〈韓末 達城親睦會에 관한 研究〉,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제2회 연구발표회 발표요지.

19) 《嶠南教育會雜誌》제1호, 「總會錄」, p. 47 및 「任員錄」 p. 49.

20) 위의 책, 제3호, 「本會會則」, p. 58.

21) 위의 책, 제3호, 「本會會則」 제6조.

동원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의도를 보여 주고 있었으나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 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에 의존하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지가에 의해 후원을 받기도 하였다. 당시 회원 수는 620명 정도였다.²²⁾

교남교육회는 잡지발간을 통한 흥학운동이 중심활동이었다. 도서부를 두고 편술원을 두어 잡지를 발간하였는데 《嶠南教育會雜誌》가 그것이다. 학회 설립 1년 후에 4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듬해 5월까지 12호를 발간하고 중단되었다. 내용상은 대한자강회를 비롯한 다른 지역학회지와 비교할 때, 계몽운동의 성격이 점차 약해지고 신학문, 신문명에 대한 소개는 미흡하며 지역의 낙후성을 지적하는 정도로 빈약하였다.

교남학회는 학교설립면에서 영남지역의 낙후성을 감안하여 학교설립을 위한 지회설립을 계획하였다. 그 결과 안동군과 거제군에 지회가 설립되었다. 안동군 지회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서 川前面에 協東學校를 설립하고 豐山面의 廣明學校도 설립하였다. 또 東先面 면립학교였던 東陽學校를 폐교직전에 인수 재건하기도 하였다. 이들 학교는 학회회원들이 설립비용과 경비일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고, 재력있는 인사들이나 문중의 기부를 받아 학교재산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성과에 지회의 역할이 컸던 것은 자명하다 하겠다.²³⁾

교남교육회는 1908년 3월 15일 창립 이래 1910년 5월 21일 회의록을 남긴 때까지 2년 2개월간 2주 1회 정도의 각종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연설회도 20여 회나 개최하였는데, 매총회에서 회원 가운데서 연사를 선정하여 강연하고, 서북학회(회장 鄭雲復)나 대한협회(총무 尹孝定) 인사 등 외래인사를 초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강연과 학회활동을 통해서 지역 민들에게 신지식을 보급하고 애국사상을 고취해 갔던 것이다.

5. 其他 大邱地域 啓蒙團體

이상에서 살펴 본 계몽운동단체 이외에도 계몽단체로 보이기는 하나 그 조직이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그 성격이 다소 변질된 단체도 간혹 보인다. 대구광학회, 대구부민의회, 大邱商務所, 大邱郡愛國婦人教育會, 大邱女子教育會, 大邱興植社 등이 그것이다.

大邱廣學會는 대한자강회의 연락기관인 서울의 광학사 지회 성격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대구광학회는 대한자강회의 지회 성격도 띠고 있었다. 대한자강회는 1906년 5월 南廷哲·金濩圭 등이 발기하여 그 부속 기구로서 서울에 廣學社를 창립하였다. 이 광학사는 학교와

22) 鄭灌, 〈嶠南教育會에 대하여〉《歷史教育論集》10, 1987, pp. 109~114.

23) 《嶠南教育會雜誌》제5호, p. 59, 제 11호, p. 28, 제12호, p. 31·46.

교육을 진흥하고 학술을 전국에 광포하기 위한 단체로서 경북의 김호규·김진수와 같은 신지식인들이 李根滌(전직 경북관찰사)의 후원하에 서울 인사들과 함께 창립하였다. 그 후 1906년 8월에 대구에서도 尹弼五·金善久·김진수·김호규 등의 신지식인에 의해 그 지회로서 大邱廣學會를 결성하였다.²⁴⁾

대구광학회도 초기에는 대구지역 계몽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대구광학회의 사무실인 友弦書樓는 대구 유지 李東珍이 세우고, 그의 아들 李一雨가 운영하고 있던 도서관으로서, 외국서적 수백 종을 비치하여 대구지방 인사들에게 신지식을 보급하는 산실 역할을 하고 있었다.²⁵⁾ 대구광학회는 대구를 비롯한 경북 일원의 인물들과 당시 서울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附倭人으로서 알려진 이근호와 연결되어 있었듯이, 한말 계몽운동 상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였다.

한편 大邱府民議所는 대구광문사나 대구광학회의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는데, 김광제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계몽운동이 전개되던 시기 자치조직의 성격을 지닌 민회가 각지에 설립되었다. 대구에서는 1906년 5월 徐相敦 등에 의해 代議所의 설립 움직임이 있었고, 1906년 6월에는 人民代議所가 설립되었다.²⁶⁾ 또 1906년 8월에는 대구부민의소가 “국권의 확립을 위해 民氣를 진작하고 국정의 澄清을 위해 民智를 啓諭”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²⁷⁾ 이러한 민의소의 설립은 1906년 8월 大邱理事廳 설치, 11월 대구일본인거류민단 조직, 1907년 1월 대구일본인상업회의소 창립 등, 일본인의 정치·경제 침략에 의한 경각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서문시장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大邱商務所가 조직되었고, 여성교육을 위한 大邱郡愛國婦人教育會와 大邱女子教育會, 그리고 농업회사인 大邱興植社 등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단체들의 조직도 대구지역 계몽운동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전말은 자세하지 않다.

III. 近代教育機關과 救國教育

일제침략에 직면해서 나라의 힘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은 자연히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1905년 이후의 교육운동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서 활발하였다. 특히 이러한 교육운동은 정부에 의해서 보다는 일반 민간인의 손으로 더욱 활기차게 이루어졌다.

24) 《皇城新聞》，光武 10년 8월 20일자, 「學會講師」

25) 대륜고등학교, 《大倫六十年史》，1982.

26) 《皇城新聞》，光武 10년 6월 1일자, 「慶北代議所」

27) 《大韓每日新報》，光武 10년 8월 26일자, 「慶尙北道大邱府民議所長金光濟氏의 警告文」

1. 近代教育機關의 設立

한국의 근대교육은 개항이후 1883년에 세워진 元山學舎와 同文學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동문학은 개화정책이 추진되면서 구미 여러 나라와 교섭이 늘어나자, 이에 필요한 실무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 영어 교습기관으로 세운 것이다. 1886년에는 정부에서 育英公院을 설립하고, 미국인 교사 3명을 초빙하여 영어·수학·지리학·정치학·자연과학 등 각종 근대학문을 교수하였다. 그러나 육영공원은 신교육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1894년에 폐교되고 말았다. 갑오개혁 이후 1895년에는 〈教育入國詔書〉가 반포되고 사범학교, 소학교, 중학교, 외국어학교, 의학교, 상공학교 등 각급 관립학교가 설립되었다.

한편 선각자들에 의해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는데, 민간인에 의한 교육운동의 효시를 이룬 것은 1905년 5월 李容翊이 설립한 보성학교였다. 그러나 보다 대중적이고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된 데에는 지역학회의 활동이 컸다. 이리하여 1907년 이후 각지방에 더 많은 학교들이 세워져 불과 2,3년 사이에 전국에 2,000여개 교가 설립되었다. 지역별로는 한성부에 113개교, 평안도에 803개교, 황해도에 260개교, 함경도에 269개교, 경상도에 261개교, 경기도에 202개교, 충청도에 146개교, 전라도에 137개교, 강원도에 46개교가 설립되고 있었다.²⁸⁾

당시 대구부를 포함한 경상북도 지역에 설립된 학교 수는 150개교였다. 관공립학교로는 실업학교 1개교, 보통학교 4개교 등 모두 5개교였고 준공립보통학교가 4개교였다. 따라서 공립학교 수는 대개 9개교였던 셈이다. 반면 사립학교 수는 보통학교 4개교, 종교학교 72개교, 기타 각종 학교 65개교 등 모두 141개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경상북도 지역에 설립된 공사립학교 총 수는 150개교가 되는 셈이다. 이 수는 서북지역의 황해도 260개교, 평안남도 427개교, 평안북도 376개교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영남지역의 지역적 특성 즉, 유교적 교육의 뿌리가 깊었던 것과 관련된 것이지만, 또 한편 서북지방에서 그만큼 계몽운동이 활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慶北觀察使의 興學訓令

1906년 1월에 대구광문사가 설립되고, 8월에 대구광학회가 설립되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북관찰사의 흥학 노력이 활발하였다. 대구광문사의 교과서 및 잡지의 간행은 1906년 3월에 부임한 관찰사 申泰休와의 상의 속에서 진행되었다. 사실 신태휴는 부임과

28) 《舊韓國官報》22, 隆熙 4년 8월 13일자 자료.

동시에 대구광문사와 협의하여 경북 각 지역에 訓令하여 근대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²⁹⁾ 관찰사와 대구광문사의 이러한 노력은 대구부민의 많은 지원을 받아 사범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한편 고종의 홍학조칙에 따라 1906년 3월 20일 관찰사의 興學訓令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광문사는 총회를 개최하여 홍학조칙을 낭독하고 각지를 순회하여 관찰사와 함께 학교를 확장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관찰사 신태휴는 대구광문사 인사들과 함께 경북 각 지역을 순방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아울러 각 군 유생들에게 勸學文을 발송하여 학교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와 같이 관찰사 신태휴는 대구광문사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興學設校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배경에는 대구광문사의 회원들이 전·현직 관료이거나 부호들이었고 이들은 관찰부와 밀착하여 일제의 경제침략에 대응하면서 경제자립의 태세를 모색하려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것은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 부사장 서상돈 등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는 것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3. 大邱地域의 近代教育機關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지역의 교육운동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일어난 편이었다. 그것은 이 지역이 조선 유학의 중심지로서의 지역적 자부심이 강해서 신사상과 신문물 수용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1910년 7월 현재까지 전국의 학교 수가 2,200여 개교였는데 경북지역에 설립된 공사립학교 총 수가 150개교였고, 그 중에서 대구에 세워진 학교 수는 11개교였다. 당시 대구에 설립되었던 학교현황은 <표 3-1>³⁰⁾과 같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0년까지 대구지역에서 설립된 新制學校 수는 공립 3개교, 준공립 1개교, 사립 7개교로서 모두 11개교가 설립되고 있었던 셈이다.

대구에서 신교육기관의 효시는 1899년 7월에 설립된 達城學校이다. 이 학교는 동년 4월에 제정·공포된 학교 관제에 따라 경상북도 관찰부 영내에서 개교되었다. 이는 개화기 인재양성을 위한 유일한 신교육기관이었다. 달성학교는 개교 이래 정부로부터 매월 10원씩 보조를 받아 왔다. 그 후 1905년 통감부의 설립으로 학교운영에 방해를 받아 오다가 1905년 8월 27일자로 尋常科는 관립대구보통학교로 그 기구가 인계되었다. 그리고 高等科는 1909년 3월 8일자로 구대구향교로 옮겨져서 사립협성학교라 개칭하였다. 그 후 1916년 5월 15일자 칙령 103호로

29) 《大韓每日新報》，光武 10년 3월 2일자, 「達察新蹟」

30) 《慶尙北道史》中卷, p.228 및 각 학교 연혁지 참조.

〈表 3-1〉

대구지역 근대교육기관 현황

학 교 명	설립연도	비 고
達城學校(준관립)	1899년	公立大邱普通學校, 私立協成學校
大南男子小學校(사립)	1902년	喜道學校, 종로국민학교
信明女子小學校(사립)	1902년	喜道學校, 종로국민학교
大邱普通學校(공립)	1905년	達城學校 尋常科 후신
達西女學校(사립)	1905년	
啓聖男子中學校(사립)	1906년	啓聖學校
信明女子中學校(사립)	1907년	信明女學校
聖立學校(사립)	1908년	海聖普通學校, 曉星女學校
協成學校(사립)	1909년	達城學校高等科 후신, 大邱高等普通學校
壽昌普通學校(공립)	1910년	壽昌學校
大邱農林學校(공립)	1910년	大邱農林學校

〈朝鮮總督府 高等普通學校官制〉가 공포됨에 따라 대구고등보통학교에 인계되고 협성학교가 폐지될 때까지 대구지역 근대민족교육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대남남자소학교는 사립학교로서 1902년에 선교사 안의와(J. E. Adams)에 의해 설립된 후 일제시대 말기에 회도학교로 개명되었다가 광복 후에 종로국민학교로 되었다. 신명여자소학교 역시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후 회도학교로 개명되었다가 현재의 종로국민학교로 되었다.

관립대구보통학교는 1905년 달성학교의 심상과를 인수하여 개교하였던 것이지만, 공립보통학교로서는 경상도 지역 최초의 학교였다. 그리고 聖立學校는 1909년 3월 1일 천주교 대구본당에서 운영해 오던 書堂을 개편한 것이다. 聖立學校는 동년 9월 6일에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해성학교, 효성여학교로 개명하면서 발전하였다. 이들 학교는 대구지역의 초기 근대교육을 담당하면서 민족운동과 동시에 대구지역 인재양성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였던 셈이다.

대구에서의 사립중등교육기관으로서 설립된 것으로는 먼저 계성중학교를 들 수 있다. 선교사 안의와(J. E. Adams)는 1906년 5월 1일에 제일교회내에 瓦家 3동을 임시교사로 정하고 계성중학교를 설립 개교하였다. 유교적 봉건성이 강하던 대구지역에서 서양식 신교육기관인 중학교가 설립되어 학생을 모집했을 때, 1차로 모집된 학생 수는 27명이었다. 초창기의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교재, 학용품 일체를 무상으로 받았고 수업료는 물론 없었다. 당시의 신교육 과목은 성경·한문·물리·화학·地誌·상업·어학·수학·역사·생물·博物·경제·地文·교육·

식물·동물·도서·체육·음악·작문·習字 등이었다. 학과시간 외에는 체육활동에도 주력하여 상무정신을 기르고 일제 침략에 대항하는 심신의 단련에 크게 이바지하였다.³¹⁾

한편 신명여자중학교도 선교사 부르엔 여사에 의해 1907년 10월 남산동 동산위에 가교사가 마련되어 개교하였다. 신명학교는 대구지역 여성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많은 여성지도자를 배출하였고 선교적 공헌과 함께 민족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³²⁾ 대구공립농림학교는 1910년 3월 1일에 대구 향교의 일각을 빌려 개교하였다가 이듬해 대봉동(현 사대부속고등학교의 위치)으로 옮겼다. 개교 당시 농과, 임과, 속성과를 두었는데 수업 연한은 2년이었고 속성과만은 1년으로 하였다가 2회생까지 89명을 배출하고 폐과되었다. 특히 계성학교와 신명여학교,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은 3·1운동 당시 대구지역 독립운동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신교육기관의 구국교육운동의 한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³⁾

이와 같이 각지의 학교가 민족운동의 근거지로 되고, 교육 또한 민족운동 차원에서 전개되자, 일제는 결국 사립학교령을 제정하여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통제하는 한편, 교과용 도서 검정규정을 공포하여 애국적인 내용이 있는 교과서를 허가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억압을 가하였다. 특히 관립학교에서는 역사시간을 축소하거나 없애기까지 하였으며, 역사교과서의 편찬도 금하였다.³⁴⁾ 그러나 사립학교들은 이러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정신을 고취하는데 더욱 힘써 항일구국운동의 온상이 되었다.

第2節 1910年代의 獨立運動

I. 獨立運動團體의 組織과 活動

啓蒙運動과 義兵鬪爭은 國權을 회복하려는 韓民族의 노력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救國運動을 위한 당시의 그러한 노력들은 國權強奪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日帝의 탄압으로 종래 행해오던 활동은 적어도 國內에서는 공공연히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외로 그 기지를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에 숨어 활동을 하지 않을

31) 계성중고등학교, 《啓聖八十年史》, 1989, p. 681.

32) 신명여자고등학교, 《信明七十年史》 제3권, 1977, p. 219.

33) 계성중고등학교, 《啓聖八十年史》, 1989.

34) 《皇城新聞》, 1908년 8월 8일.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대체로 국내에서 비밀리에 海外獨立運動勢力에게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거나 국내외의 독립운동세력에게 독립운동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하였다.

당시에 설립된 무수히 많은 단체들이 국내에서 비밀리에 獨立運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大邱地域 출신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활동을 하였던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로서는 大同青年團·朝鮮國權恢復團·大韓光復會를 들 수 있다. 이들 세 단체는 人的 구성이나 활동 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녔으며, 더구나 조선국권회복단이나 대한광복회는 대동청년단의 前衛組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세 단체는 1910년대 대구지역 출신들이 조직한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들이며, 당시 국내 독립운동단체들의 활동내용과 救國方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매우 중요한 事例라고 할 수 있다.

1. 大同青年團의 組織과 活動

國權恢復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였던 義兵戰爭과 민족의 실력양성을 위한 啓蒙運動은 당시 국권회복을 위한 중요한 動因이었다. 따라서 자연히 실력양성운동으로서의 계몽운동 단체와 地方支會가 결성되면서 지방에 기반을 둔 애국계몽단체가 설립되었다. 1909년의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慶尚南·北道の 청년지사들에 의해서 조직되었던 것이 大同青年團이다.³⁵⁾ 本團은 1920년대 후반 이후부터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양상이 나타나긴 하였지만, 다른 독립운동 단체와는 달리 日帝에 노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단은 1909년 10월경 白山 安熙濟가 徐相日·李元植·南亨祐 등과 함께 조직한 비밀결사였다.³⁶⁾ 본단의 인적구성을 살펴 보면 다른 단체들과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 본단은 嶠南教育會계통의 南亨祐·安熙濟·徐相日 등에 의해서 결성되었다. 高靈출신인 남형우는 普成學校 교사로서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안희제는 경남 일원에서 근대적인 학교를

35) 대동청년단에 관한 연구로는 權大雄, 〈大同青年團研究〉《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民族獨立運動史論叢》1992; 《1910年代 慶尚道地方的 獨立運動團體研究》嶺南大博士學位論文, 1993이 유일하다. 이처럼 대동청년단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것은 대동청년단이 비밀단체로서 해방될 때 까지 일제에 노출되지 않아 관련 자료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대동청년단을 이해함에 있어서 위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본절도 대개 위의 연구를 토대로 서술하였음을 밝혀 둔다.

36) 團規와 團員에 대해서는 金洋佑, 〈釜山の 先覺者〉《釜山日報》, 1981年 10月 22日字 참조.

설립하여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독립자금 조달을 위해 白山商會를 설립 운영하였다. 서상일은 大邱를 중심으로 조직된 達成親睦會에 참가하여 경상남·북도의 동지들을 결속하였다.

이들은 상경하여 신식교육을 받아 선각자적 의식을 가지고 계몽단체에 참가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다. 본단의 회원들은 大韓自強會·新民會·嶠南教育會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계몽운동과 국권회복운동의 지방에로의 확산에 큰 공헌을 하였던 셈이다. 이러한 대동청년단의 인적구성은 이후 꾸준히 단원이 보충될 수 있는 토대였던 것이다. 新民會사건후 체포를 면한 인사로서 가입한 車秉轍·徐超·金鴻亮·崔仁煥·金三·金泰熙·林玄 등이 있고, 안희제와 서상일이 해외로 망명한 뒤 滿洲나 노령에서 가입한 인사는 崔炳贊·尹世復·李時悅 등이 있다. 그리고 서상일과 안희제가 귀국하여 朝鮮國權恢復團과 백산상회를 조직하면서 가입한 사람으로는 尹相泰·申相泰·朴永模·朴洸 등이고, 백산상회 직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尹顯振·李浩然·尹炳浩·崔浣 등이다. 己未育英會가 파견한 유학생인 李克魯·申性模 등은 1920년대에 가입하였다. 이처럼 대동청년단의 회원은 수시로 보충되고 있었던 것이다.

본단은 안희제를 중심으로한 백산상회의 상업조직과 서상일을 중심으로한 조선국권회복단의 비밀결사조직으로 구성되어졌다. 백산상회가 인재양성과 독립자금모집을 위한 기구였다고 한다면, 조선국권회복단은 국내·외를 연결하는 연락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본단이 지향한 인재양성은 계몽운동의 핵심과제인 동시에 독립운동을 효과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金東三의 協東學校, 안희제의 宜新·南·龜明學校, 윤상태의 日新學校는 丁未七條約 체결 후 설립된 것이다. 1907년에 설립된 可山書堂을 개수하여 이용한 협동학교는 안동군의 東 7面이 힘을 합쳐 ‘青年教育의 基礎를 삼는다’는 기치하에 설립되었다. 宜寧의 宜新學校(1907)와 南學校(1908), 東萊의 龜明學校(1909), 安東의 協東學校(1907), 大邱의 嶠南學校(1921) 설립은 안희제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매우 컸다.

이들 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국권회복을 위한 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들은 표면상으로는 국권회복을 위한 교육구국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의병전쟁을 계승한 무력항쟁과 계몽운동의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처럼 본단에 의해서 설립된 사립학교는 1910년대 항일독립운동의 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본단의 교육구국운동은 1919년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활동방향이 전환되기 시

작하였다. 1919년 11월 안회제를 비롯한 백산상회의 관계자, 그리고 嶺南의 부호·거상들이 유망한 청소년을 선발하여 해외 유학을 시켜 장차 국권회복의 동량을 양성할 목적으로 기미육영회를 조직하였다. 이는 교육을 통하여 민중을 계몽함으로써 국권을 회복하려는 것으로서, 계몽운동의 일환인 실력양성론의 핵심이었다.

인재양성과 더불어 본단의 주요 활동목표는 독립운동자금의 조달이었다. 이는 상업조직을 통하여 진행되었는데, 상업조직은 인재양성과 독립운동 자금조달을 위한 경제적 토대인 동시에 국내외의 정보를 상호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안회제는 백산상회를 설립한 뒤 대구·서울·원산·봉천 등지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것이다. 대구연락사무소는 太弓商店을 경영하는 서상일이 맡았고, 서울연락소는 미곡상 李遂榮, 그리고 봉천연락사무소는 海天商會를 경영하는 李海天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백산상회는 상업조직을 통해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각 유지들이 기탁하는 자금을 송달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다.

그 이외에도 왜관에 설립된 윤상태의 香山商會, 통영에 있는 서상호의 米穀商(정미소), 원산의 元興商會, 마산의 元東商會·丸五商會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도 대구의 태궁상점은 조선국권회복단의 활동거점으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점에서 본단이 조선국권회복단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음이 잘 나타난다. 따라서 본단은 백산상회를 중심으로 경상도 일원과 서울·원산 등 전국에 걸친 상업조직을 이용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주의 안동·봉천 등 해외의 상업조직까지 연결하여 운영되었던 것이다.

본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1919년 이전의 在滿獨立運動團體의 지원, 3·1獨立萬歲運動과 그 이후 臨時政府 및 義烈團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1919년 재만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본단의 핵심인물인 안회제와 서상일이 1911년 渡滿하였다가 1913년경 귀국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주로 만주나 노령 등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지원으로, 군대양성과 무기구입을 위한 군자금조달이었다. 조선국권회복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1914년 李始榮의 만주망명, 1916년 9월 소위 ‘大邱拳銃事件’ 등도 본단의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다.

3·1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자 본단은 우선 만세운동을 지방에까지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卞相泰가 주도한 三鎭義舉는 그 대표적인 만세운동으로서, 창원의 鎭東·鎭北·鎭田

面民이 함께 참여한 매우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³⁷⁾ 조선국권회복단의 단원이면서 본단의 모험부장인 변상태가 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에서 조선국권회복단은 대동청년단의 전위조직이었음이 잘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본단의 전위조직인 조선국권회복단은 3월 尹相泰·徐相日을 중심으로 安廓·김기성·南亨祐·卞相泰·申相泰·金應燮·金在烈·裴重世·李舜相等이 모여 우선 상해 大韓民國臨時政府와 연락을 취하여 남쪽지방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본단은 상해 임시정부와도 활발히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본단의 단원이 1919년 2월 중순경 상해에서 잠입한 高漢과 접촉하여 상해에서의 독립운동상황과 파리강화회의에 朝鮮獨立請願書 제출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3·1독립만세운동 이후 본단의 임시정부와의 접촉은 더욱 활발하여 독립운동자금의 조달과 임시정부의 소식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단은 조선국권회복단과 더불어 임시정부의 국내조직으로서의 기능과 聯統制의 경상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셈이다.

본단은 1919년 11월에 조직된 義烈團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의열단은 주로 무장투쟁을 전개한 반면에 본단은 주로 국내연락을 수행하였다. 密陽 및 進營事件이나 의열단폭탄암살음모사건은 그러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怡隆洋行의 존재나 의열단폭탄암살사건에 본단의 단원인 張建相과 金思容이 연루되거나 1925년 11월 대구에서 발각된 의열단의 대음모사건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처럼 본단은 조선국권회복단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상업조직을 이용하여 국내외 독립운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독립운동세력에게 군자금을 조달하는 등 당해 시기 독립운동의 핵심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2. 朝鮮國權恢復團 中央總部事件

조선국권회복단은 1915년 1월 15일(陰) 慶北 達成郡 壽城面 安逸庵에서 대구지역의 청년지사인 尹相泰·徐相日·李始榮·朴永模·洪宙一·李永局·徐丙龍·金圭·黃炳基 등에 의해서 조직된 비밀결사의 독립운동단체였다.³⁸⁾ 본단은 대동청년단과 大韓光復會의 조직력에 의해서

37) 卞志燮, 《慶南獨立運動小史》, 1966, p. 5에서는 三鎮義舉를 水原·宣川·遂安義舉와 더불어 3·1독립만세운동의 4대事件이라고 하였다.

38) 본단에 대한 연구는 權大雄, 〈朝鮮國權恢復團〉《民族文化論叢》9, 1988, 강영심, 〈朝鮮國權 恢復團의 結成과 活動〉《한국독립운동사연구》, 《慶尙北道史》中卷, 1983, pp. 287~289가 있다. 본질의 서술과정에서 많이 참고하였다.

엄폐되다가 1919년 6월경에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부사건에 의해서 노출되었다.

본단의 조직은 중앙총부내의 統領을 중심으로 外交·交通·機密·文書·勸誘·遊說·決死部隊長과 그 役員, 그리고 마산지부장과 그 역원으로 구성되었다. 각부의 부장과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이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朴尚鎭·徐丙龍·徐相日·尹相泰·李始榮·李永局·鄭舜泳·鄭雲駟·洪宙一 등이다. 따라서 본단은 대구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던 부호·중산층·계몽주의적 인물·神學이수자 등을 망라하여 조직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본단은 대구지역의 인물들이 중심이 되고, 그후 조직이 점차 정비·확산되면서 경남북의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1915년 7월 15일 단원인 박상진·정운일 등이 풍기광복단과 연결하여 대한광복회를 결성하면서 그 활동영역을 더욱 넓혀 나갔다.

본단은 檀君太皇祖를 봉사하고 신명을 걸고 국권회복운동에 목숨 바칠 것을 서약한 모임이었다. 檀君太皇祖를 봉사한 것은 본단이 大倭敎의 교지인 檀君奉禮를 표방한 것으로 혁신유림의 사상적 경향이 대종교적 국권회복운동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권회복운동을 하던 모든 비밀결사단체의 최상목표가 그렇듯이 군인양성을 통한 무력에 의한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군인을 양성할 수 있는 軍資金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최대의 과제였다. 그래서 본단에서는 애국지사들의 헌금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 국내 자산가들에게 일정액을 각출하여 경비를 조달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하에 본단의 회원인 정운일·崔丙圭·崔俊明 등이 주동이 되어 대구를 중심으로 1차 군자금 모금을 시도하였다. 1915년 4월경에 徐昌圭에게 자금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고 6월경에 다시 군자금을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함으로써 실패하였다. 그후 동년 10~11월 사이에 2차 모금을 위해 鄭在學·李章雨·徐佑淳 등의 부호들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독립운동자금 모금에 참여하도록 강력히 촉구했으나, 역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1916년 8월 하순에는 비상수단으로 서우순의 금고를 털기로 모의하고, 9월 3일에 실행에 옮겼으나 실패하였다. 이것이 발미가 되어 9명의 동지가 연행되어 재판에 회부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다.³⁹⁾ 1917년 6월 18일 大邱覆審法院에서 金鎭禹 징역 12년, 金鎭萬·정운일·최병규 징역 10년, 權國弼·林俊 징역 2년, 김재렬 징역 6개월, 홍주일 징역 5개월, 이시영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후 위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 조직과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으나 3·1독립운동이

39) 朴尚鎭이 본단과 대한광복회 소속의 金在烈·李始榮·鄭舜泳·鄭雲駟·洪宙一 등과 대구의 金鎭萬·金鎭禹·崔丙圭·崔俊明 등에게 명령하여 일어난 군자금모집사건이다.(慶北警察部, 《高等警察要史》1934, p. 180 참조)

발발하자 이에 용기를 얻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던 중 단원 변상태에게 지령하여 昌原에서 郡民 천수백 명을 동원, 同郡 鎭東憲兵駐在所를 습격하여 헌병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盧伯麟이 군사 삼만 명을 교련한다고 선전하면서 이를 위해 자금후원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 裴相淵이 5천원, 徐相權·徐相灝가 해당액 6만원 중 1만원을 내고, 慶州의 崔浚이 또한 출자하였다. 이렇게 모금된 자금은 서상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활동비로 전달되었던 것이다.

또한 본단은 이때 郭鍾錫·張錫英 등 嶺南儒林이 중심이 된 巴里講和會議에 대한 獨立請願運動과도 연락이 있었다. 1919년 4월 상순경에 단원 曹競燮이 기초한 독립진정서초안은 그가 크게 명망이 없다 하여 曠宗석·장석영 등이 기획한 파리기강화회의에 제출할 청원서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래서 윤상태는 단원 禹夏教를 장석영에게 파견하였던 것이다. 金應燮은 청원서에 영문번역문을 붙이고, 남형우와 같이 윤상태·서상일에게서 운동자금 5천원을 받아 파리로 출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구지역 출신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본단은 1919년 鄭震泳의 밀고로 연루된 28명 중 13명이 피검되었다. 制令違反罪로 1920년 京城覆審法院에서 審理되었는데, 이 사건은 흔히 國權恢復團 中央總部事件 또는 大邱 二十八人事件이라고 불려진다. 이로 말미암아 본단의 활동은 급격히 약화되고 본단의 단원들이 1920년대에 朝鮮勞動共濟會 등에 가입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주의 운동과 제휴 내지는 사회주의로 전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3. 大韓光復會事件

대한광복회는 1913년 豐基光復團과 1915년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을 토대로 하여 조직되었다.⁴⁰⁾ 풍기광복단은 蔡基仲·庾昌淳·柳章烈·韓焄·張斗煥·金炳烈·鄭萬教·金相五·鄭雲洪·鄭鎭華·黃相圭·李覺 등 寓居者들이 豐基에서 조국광복운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밀결사였다. 그후 1915년에 조선국권회복단의 朴尚鎭·禹在龍·權寧萬·梁濟安·金敬泰·金漢鍾·嚴正燮 등이 가입하면서 光復會라 개칭하고 조직을 확대하였다. 1916년에는 盧伯麟·金佐鎭·申鉉大·申斗

40) 大韓光復會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趙東杰, 〈大韓光復會의 結成과 그 先行組織〉《韓國學論叢》5, 國民大學校, 1982.

——, 〈大韓光復會 研究〉《韓國史研究》42, 1983.

朴永錫, 〈大韓光復會研究〉《韓國民族運動史研究》1, 1986.

《慶尙北道史》中卷, 1983, pp. 289~292.

鉉·尹洪重 등이 가담하여 다시 光復團이라 개칭하였다.⁴¹⁾

실제로 광복회의 목적·조직·행동강령을 확립한 것은 1915년 7월 15일 大邱 達城公園에서 비밀결사명을 大韓光復會라 개칭하고 단결을 맹서한 후부터였다. 이날 광복회원은 “吾人是大韓獨立光復을 위하여 오인의 생명을 희생에 供함은 물론 오인이 일생의 목적을 달성치 못할 時는 子子孫孫이 계승하여 讐敵日本을 완전 驅逐하고 國權을 光復하기까지 절대 不變하고 一心戮力할 것을 天地神明에게 誓告함”이란 결의를 하고 혈맹하였다. 또한 이때 행동강령도 채택되었다. ① 무력준비로 일반부호의 의견과 일본이 불법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군자금으로 활용한다. ② 군인양성은 의병, 해산당한 구한국 군인, 중국에 이민 온 사람을 채용하여 훈련시킨다. ③ 南滿洲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인재를 배양하여 사관으로 채용한다. ④ 무기구입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뢰한다. ⑤ 만주·북경·상해에 광복회기관을 설치하되 대구의 尚德泰商會에 본점을 두고 각지의 지점과 여관과의 연계를 맺어 광복회의 군사활동에 필요한 집회·왕래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⑥ 行刑部는 일본인 고급관리와 한국인 반역분자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납치하거나 암살한다. ⑦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달성한다.

이는 만주지방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의병·해산군인 및 만주이주민 등 애국청년을 훈련하여 군대를 편성한 후 무력으로 국권을 회복하려 하였던 것이다. 1915년에 본회가 조직된 것은 日帝의 21個條 요구와 袁世凱의 賣國의 承認으로 말미암아 중국 국민들의 對日開戰說이 고조되고 있었고, 만약 중일전쟁과 같은 것이 발발하여 일제가 전쟁에 빠져 들면 독립군의 참전이 있어야 한다는 당시의 여론에 대한 인식의 결과였던 것이다. 이를 위한 군자금은 국내 부호로부터의 기부금과 각처에 잡화상을 경영하여 얻은 이익금, 그리고 해외에서의 일본화폐 위조 등의 방법으로 조달기로 하였다. 이 운동을 국내외로 넓히기 위하여 노백린은 동지 10여 인과 상해로 출발하고 김좌진·朴性泰는 만주로 향하였다. 이와 같이 본단의 단원들은 그 조직을 해외로까지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조직편성은 중앙에는 總司令(박상진)·副司令(李奭大 후에 김좌진)·指揮長(권영만)과 財務部·宣傳部の 부서를 두고 각도에는 支部長과 만주지방에는 副會長을 두었다. 광복회의 조직이 완성된 후 총사령 박상진은 무기구입을 담당하고 채기중은 경상북도를, 김한중은 충청도 일원의 제반업무를, 우재룡은 만주 등지의 동지와 연락 및 通告文의 발송을 책임졌다.

41) 權大雄, 앞의 논문, 1993, pp. 45~66.

慶北警察部, 앞의 책, 1934, pp. 179~183.

이러한 조직의 주축은 경북출신의 박상진과 영주에 우거하던 채기중·우재룡이었고 그 조직의 본부 및 결사도 대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그 특징으로 드러난다.

특히 총사령관인 박상진의 활동은 눈부신 바가 있었다. 박상진은 의병대장 許薦의 제자이며, 養正義塾에서 법률·경제학을 배워 판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1917년 6월 채기중과 협력하고 부호에게 군자금모금을 위한 통고문을 발송하여 자금을 모금하는 일과 稷山金鑛을 습격하고 渡中하여 통화를 위조하여서 正貨로 바꾼 다음 東三省에서 韓人 장정을 훈련시켜 군대를 편성하려고 하였다. 또한 국내의 중요한 지역 일개소에 一萬圓의 자본으로 100개의 잡화상을 개업하여 그 이익금으로 무기구입과 독립운동자금을 삼아 일본이 장차 외국과 국교를 단절하여 고립에 빠질 경우 거사항쟁할 준비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러한 그의 구상은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군자금모집·군대양성·무력항쟁으로 이어지는 목표를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급선무가 군자금의 모집으로 판단하고 그 일에 열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 그는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지낸 李相龍의 친족인 李庭禧와 함께 상덕태상회를 설립하여 그 이익금을 군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한편으로는 1913·14년에는 商務를 핑계로 孫文의 중국혁명 진행상황을 시찰하고는 귀로에 권총 10정을 마련하여 비밀히 가지고 왔다. 이로 인하여 그는 총기불법소지의 죄명으로 대구형무소에서 6개월의 감옥생활을 하였지만, 대부분의 권총은 국내의 비밀결사단체와 동지들에게 전달되었다. 1915년에 박상진은 우재룡·권영만을 시켜 慶州 光明里의 노상에서 대구로 수송중이던 慶州·迎日·盈德 등 3개 郡의 세금 8천 7백원을 압수하여 군자금에 충당하고 무기도 구입했다. 군자금모집의 방법으로는 주로 남한의 부호를 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에 비례하여 기부배당액을 정하고 1917년 10월 1일부터 익년 1월에 걸쳐 滿洲 安東懸 五龍背·新義州·北下·南市·安州·定州·平壤·京城·金泉·尚州·大田·慶州 등지에서 광복회 명의의 국권회복운동 자금제공의 통고문을 발송하였다.

이러한 통고문은 1917년 10월 14일 평안북도 정주읍 내에서 경상북도 大邱府 京町二丁目の 자산가 徐昌奎에게 우송 전달됨으로써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도 경찰부장에게 엄중 수사명령이 내려졌고 그 결과 10월 중에 경남에서도 통고문이 발견되었고, 1918년 1월까지 경북에서 20여 통, 충청남도에서 40여 통, 경성부내에서 4통이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광복회 회원이 직접 자산가에게 통고문을 수교하고 독립운동자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1917년 12월 13일 聞慶郡 籠岩面 池洞里 자산가 曹始榮에게서 광복회원 2명이 군자금 70원을 징수하였고,

同月 20일에는 安東郡 臥龍面 佳邱洞의 자산가 安承國으로 부터는 100원을 징수하였다.

그러나 통고문 발송에 의한 군자금모집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친일부호들의 비협조적 태도와 일제 경찰의 감시가 심하여 난관에 부딪치게 되어 큰 성과를 올릴 수 없었다. 따라서 군자금의 모금을 위한 비상수단이 강구되지 않을 수 없었고, 친일부호들에게 민족적 자각심을 높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당시 경상도관찰사를 지낸 張承遠과 악질관리 朴容夏를 암살기로 하였다. 前 慶尚道觀察使 장승원은 漆谷郡의 부호로서 그의 직위는 유사시에 항일운동자금을 제공한다는 암약으로 의병장 허위의 도움에 의해 얻은 것이다. 그러나 취임 후 그의 태도는 표면하였고 허위 사후 그의 실형이 의병 재모집을 위한 군자금을 요구하자 그는 관에 이러한 사실을 밀고하였다.

박상진은 장승원의 이와 같은 처사에 대해 그를 암살하기로 모의하고는 허위의 선봉장이던 權百草에게 살해 명령을 내렸다. 얼마 후 박상진은 총기불법소지죄로 징역 6개월을 받게 되어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권백초는 이러한 명령을 계속 추진하여 金鎮禹·鄭雲駟·崔丙圭·崔俊明 등에게 禹在龍(字 利見·義見)이 소유하고 있던 권총 4정을 이들에게 주어 1916년 陰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에 걸쳐 장승원을 살해코저 하였으나 이행치 못하였다. 그후 박상진은 6개월 복역을 마치고 출감하여 다시 채기중에게 그 일을 실행토록 명령했다. 1917년 11월 26일 채기중은 유창순·姜順必·林鳳柱 등과 함께 장승원을 살해하고 “日維光復 天人是符 聲此大罪 戒我同胞 聲戒人 光復會”란 격문을 남겨 놓았다.

다음으로 충청도 일원의 제반업무를 담당했던 金漢鍾과 張斗煥은 金敬태·임봉주에게 친 일적인 忠南 牙山郡 道高面長 朴容夏를 사살토록 명령하여, 1918년 1월 24일 오후 7시 양인은 박용하를 방문하고 “朴容夏 今回指令違反 故死刑處 惟吾胞戒之 光復會指令員”이란 사형선고문을 제시하여 읽게 하고는 권총으로 사살하였다. 이 사건으로 결국 임봉주·김경태는 일주일만에 체포되었고, 이 사건 이전 동년 11월에는 權寧默이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다가 영주 헌병분견소에서 체포당하여 광복회조직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후 대부분의 인사가 체포·연행되었는데 이때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 등 실형을 선고 받은 인사는 20여 명이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본회는 1913년에 결성된 풍기광복단과 1915년에 조직된 조선국 권회복단의 몇몇 인사가 의병적 의지를 토대로 1915년 7월 대구에서 조직한 혁명적 독립운동단체였다. 본회를 주도한 인물들은 革新儒林이거나 常民出身으로 共和政治를 목표로 하였던 近代理念의 소유자들로서, 衛正斥邪思想을 극복하고 大倭敎의 民族主義를 표방하였다.

따라서 본회는 이 시기에 벌써 지역성이나 단기성을 극복하고 민족적 조직으로서 장기적인 활동상을 보여 주었던 점에 큰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식민권력에 안주하면서 독립운동을 외면한 지주들의 비협조로 군자금의 조달이 어렵게 되자 친일 부호들을 처단하는 의협투쟁의 방략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는 新興學校를 비롯한 新民會가 건설한 독립운동기지와 合流하고 있는 점에서 韓末 義兵運動과 啓蒙運動을 극복한 內實的 발전의 토대 위에서 국내외의 독립운동세력을 하나의 범주로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 성장을 이룩한 단체였던 것이다. 이처럼 본회는 대동청년단·국권회복단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1910년대 국내의 독립운동을 주도해 갔던 것이다.

II. 3.1 獨立萬歲運動의 展開

國權을 강탈한 日帝는 이후 土地調査事業·林野調査事業·會社令 등을 제정하여 경제적인 약탈에 따른 韓民族의 반발을 憲兵警察制度의 強化를 통한 武斷專制的인 방법으로 통제하였다. 이러한 日帝의 植民統治 속에서 축적된 韓民族의 항일의식과 독립운동의 잠재적 역량은 국내외의 자극에 의하여 3·1독립만세운동으로 표출될 수 있었다. 이러한 한민족의 잠재적 역량은 일제의 無斷의 彈壓에 대항하는 自主獨立의 정신과 힘의 축적이었다. 때마침 유포된 高宗의 毒殺說과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에 따른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창한 民族自決主義가 결합하여 상승 작용된 분위기가 자극적 요인이었다.

3·1운동이 전 민족적 독립운동이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民族解放運動이라는 통일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운동의 양상이 시기적·지역적인 면에서 분산되어 있었고, 참가한 각 사회계층이 자기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 인식시각을 설정하여 3·1독립만세운동을 이해할 경우 지역적인 사례분석의 토대 위에서 종합적인 해명이 시도될 때 3·1운동의 역사적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부각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⁴²⁾ 따라서 大邱지역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3·1운동의 大衆的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를 줄 것이다.⁴³⁾

42) 趙東杰, 〈3·1運動의 地方史的 性格〉《歷史學報》47, 1970.

43)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論》10(大韓民國臨時政府), 1981.

趙東杰, 〈大韓民國臨時政府〉《한국사》21, 국사편찬위원회, 1984.

1. 제1차 大邱學生萬歲示威

대구지역에서 처음 시위의 계기를 만든 것은 基督教系 人士와 學生層이었지만, 시위를 실제적으로 주도한 것은 학생들이었다.⁴⁴⁾ 처음 대구에서 일어나 3월 중·하순에 접어들면서는 시위의 조건이 가장 성숙되어 있던 경북 각 郡內의 面·洞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처럼 대구지역은 경북지역에서 전개된 3·1운동을 촉진시켜간 始發地인 동시에 中心地 역할을 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정보가 대구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2월 24일 李甲成이 美國 北長老派 南城町教會 牧師 李萬集을 내방하여 대구대표가 될 것을 권유하면서 였다. 2월 26일에는 다시 이갑성이 파견한 세브란스醫傳 학생 金大珍의 권유를 다시 받았다. 그러다가 3월 1일에 京城·平壤 등지에서 독립운동이 개시되고, 3월 4일에 세브란스의전 학생 李容祥 편으로 獨立宣言書 2백매가 도착되면서 시위를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이만집은 북장로과 목사 金兌鍊과 상의하여 자신은 시위의 권유를 맡고 金兌鍊은 선언서 등 기타 준비를 담당토록 하였다. 그리고 거사일은 西門外 장날인 3월 8일로 결정한 그는 장로과 소속 啓聖學校 교사 白南琛·崔相元·金永瑞·鄭在淳·鄭光淳·權義允·崔敬學과 같은 장로과 소속 信明女學校 교사 李在寅을 참가시켜 학생동원을 맡도록 하였다. 이에 同校生인 沈文泰·金三道·鄭元祚·朴泰鉉·李陞旭·孫石鳳·崔永學·金在範·李永植·李聖容·朴在坤 등을 시켜 전교생 규합을 시작하였고, 신명여학교는 李在寅·李鳳善과 학생 李善愛가 주도하였다.

그리고 하루 전인 7일에는 平壤崇實學校 학생 金武生이 대구에 와서 거사계획에 찬동하고 崔相元和 밀의한 후 大邱高等普通學校 학생 申鉉旭(4年 級長)·許範(김무생이 숙박한 大南旅館 주인의 아들) 등에게 서울·평양의 상황을 알린 후 대구고보 학생의 참가를 권유하였다. 특히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장로과 주최로 개최되고 있던 大邱 聖經學院에 道內 각지에서 참가하는 강습자 50명중 14·5명의 동조자를 포섭하였다. 金兌鍊은 3월 7일 밤에 자택에서 독립선언서 200매(판결문에는 100매)를 등사하고 태극기 大小 40本을 준비함으로써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시위를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중 慶北道 第三部(警察)는 경북지역의 시위 발생을 대비한 사찰을 실시하여 3월 4일 天道教 教區長 洪宙一 외 2명을 예비 검속하였고, 7일에는 운동계획을 탐지하여 白南琛 등 혐의자 일부를 체포하는 등 삼엄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44) 대구지역의 3·1독립만세시위운동에 대해서는 慶北警察部, 앞의 책, 1934, pp. 23~25와 《慶尚北道史》中卷, pp. 294~298 참조.

계획된 3월 8일의 시위는 전개되었다. 당일 오후 3시경에 이만집·김태련 등은 이미 시장에 숨어 들어와 학생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계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척 하다가 삼삼오오 西門市場으로 몰려 들면서 모인 시위인원은 기독교인이나 일반인들과 합쳐 8백명 정도가 되었다. 시위는 김태련의 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되었으나, 日警이 몰려 들면서 선언문 낭독은 중단하고 이만집의 선창으로 독립만세를 외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만세를 외치고 太極旗를 흔들면서 西門通 우편국 앞을 지나 東山派出所를 돌아 西門通 一·二丁目을 지나 행진하였고, 신명여학교 학생 약 50여명은 南城町 방향에서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여 이들과 합류하였다.

일제경찰이 이들의 행진을 저지하자 일대 충돌이 일어났으나 오후 3시 30분경 대구경찰서 앞에 이른 시위군중 일부는 경찰서로 돌입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군중들은 다시 南門通을 돌아 東城町을 지나 達城郡廳 앞 삼각지에 다달았으나 5·6대의 기관총을 앞세운 大邱駐屯軍歩兵 第 80聯隊와의 충돌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다. 일본경찰은 군중을 무차별 구타하면서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위군중은 10일 東門市場에서 재봉기하기로 하고 일단 해산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귀가하지 않고 오후 8시경 다시 대구경찰서에 모여 “우리의 교우가 구금되었다. 우리들도 같이 독립운동에 가담하였으니 구속하라!”고 요구하였다. 여기에 군중이 다시 가담하자 일본경찰은 消防組까지 동원하여 이들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이날 체포된 사람이 157명에 달하였는데, 鄭光淳 외에는 모두 6개월 내지 3년형을 선고받았다.

2. 제2차 大邱學生萬歲示威

大邱地域의 3·1獨立萬歲運動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⁴⁵⁾ 3월 9일 오후 3시 啓聖學校 학생 30여 명이 다시 達城公園에서 시위를 계획하였으나 日本 軍警에 탐지되어 좌절되었다. 그리고 10일에는 大邱高等普通學校 학생 朴南俊·金在炤와 계성학교의 朴泰鉉·朴聖容(또는 成容) 등이 시민 金在柄·李德周·金致雲·金潤德·徐相喆 등과 손잡고 3월 10일 南門外 시장에서 “大韓獨立萬歲”라고 대서특필한 太極旗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高唱하자 수백 명(판결문에는 1백 명, 道長官 報告에는 2백 명)의 군중이 일제히 여기에 호응하여 독립만세의 함성은 이곳 시장을 진동하였다. 그러나 위낙 경계하는 日本軍警의 수가 많아 시위 행진은 하지 못한 채 이들 주동인물들만 현장에서 검거되고 말았다. 이 때 검거된 주동

45) 《慶尙北道史》中卷, 1983, pp. 294~328 참조.

인물과 군중은 65명에 달하였는데, 이 가운데 주동인물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朴南俊·金在炤·朴泰鉉·朴聖容·金在炳·李德周·金致雲·金潤德·徐相喆·李齡鎬 등 9명이었다. 그 중 박태현은 징역 8개월을, 그 외에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3월 30일에도 남문시장에서 3,000여 명(判決文에는 2,000명)이 모여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이 운동은 佛教中央學校 학생 尹學祚가 서울에서 3·1독립운동에 참가한 후 고향인 達城郡 公山面에 와 있다가, 3월 23일 公山面 道鶴洞에 있는 桐華寺 소속 地方學林 학생 權淸學·金文玉 등과 계획하여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공산면 百安市場에서 의거할 계획이었으나 대구로 옮겨 대대적인 민중 독립운동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그 규모가 크고 기세가 높아 일본군경은 총검으로 진압하고 地方學林 학생 전원을 검거하였다. 검거된 학생은 李成根·金文玉·李普湜·金鍾萬·朴昌鎬·金潤燮·許善一·李起胤·權淸學으로 전원이 징역 10개월을 언도받았다.

대구의 독립시위운동이 계속되자 일제의 감시는 더욱 엄중해졌고 大邱高普·啓聖學校·信明女學校는 휴교조치 되었다. 이후 학생 독립운동은 지하에서 전개되면서 지방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들 학생 가운데 가장 눈부신 활약을 한 사람은 계성학교 학생 金壽吉을 비롯한 權聖佑·李鍾植·李永植·李榮玉·李命健·崔載華·許聖徒·李基明·朴齊元·李鍾憲·李德生 등이었다.

학생이 중심이 된 의거에 자극이 되어 大明洞에 사는 姜潤玉·張龍岩은 4월 15일 50여명의 군중이 모여 있던 대구 부속 공동묘지 북쪽 도로상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마침 이곳 군중들의 동태를 시찰중이던 조선인 형사 吳鎭台에 의해 강운옥이 검거되고, 장용암은 달아났다가 뒤에 검거되었다. 이들은 재판 결과 강운옥은 大邱地方法院으로부터 8개월형을, 장용암은 4개월형을 언도받았다. 장용암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이들은 大邱刑務所에서 옥살이를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大邱地域은 慶北地方에서 전개된 3·1독립운동의 始發地이자 中心地였다. 시기적으로는 서울이나 平壤보다 좀 늦게 시작되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하였던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이는 대구지역이 경북지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文化的 都市인 동시에 教育的 都市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III. 儒林團의 獨立請願運動

儒林의 獨立請願運動은 일명 ‘巴里長書事件’이라고도 한다.⁴⁶⁾ 3·1독립만세운동 직후 嶺南과 湖西(忠南) 儒林의 대표적 인물인 俛宇 郭鍾錫과 志山 金福漢을 위시한 137명의 유림대표가 파리 講和會議에 長書를 보내어 독립을 청원한 운동이다. 유림의 독립청원운동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전개되었지만,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영남의 유림, 특히 大邱를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의 유림에 의해서였다. 이 운동의 실질적 추진인물이 慶北 星州의 心山 金昌淑이었다는 점에서나 137명의 長書連署人 가운데 반 정도인 60여 명이 바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종래 兩班層은 사상적으로는 斥邪衛正으로 일관했고, 대외적으로는 鎖國으로 帝國主義의 침략에 대항했다. 또한 日帝의 침략에 대항하여 이들은 즉시 비장한 上訴를 통하여 그들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혹은 殉死로써, 혹은 義兵活動을 통하여 일제의 침략에 적극적인 항쟁을 전개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또는 현세로부터의 은둔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양반들은 근본적으로 君王의 원수를 갚고 나라를 되찾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사상이었다. 따라서 基督教·天道教 등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이나 그들의 새로운 사회건설과는 대립적인 성격이 나타날 가능성은 常存하였다.

1910년후 植民地의 諸矛盾의 격화는 급기야 高宗의 因山을 계기로 基督教·佛教·天道教의 세력이 중심이 되어 거족적인 3·1獨立運動을 계획케 했다. 따라서 萬海 韓龍雲이 儒林과 사전에 교섭을 하였으며, 또 심산 김창숙을 통한 교섭이 있었지만 유림이 모의에 직접 참가하거나 민족의 대표로서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림은 천도교·기독교·불교 세력에 의해서 계기가 만들어진 3·1 독립만세운동에는 적극 호응하였다. 특히 영남의 3·1 독립만세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볼 때 각지 유림의 영향권 속에서 독자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전개되었다. 대구지역을 비롯한 영남에서의 만세의거는 물론 학생과 基督教人에 의해서 전개되었지만, 많은 지역이 儒林, 즉 兩班의 주도하에서 전개되었던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 현상으로 지적될 수 있다.⁴⁷⁾

46) 南富熙, 《儒林의 獨立運動史 研究》, 범조사, 1994, 《慶尙北道史》中卷, pp. 328~337 참조.

47) 上海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國務領이던 李相龍의 동생 李相東의 安東邑에서의 단독 만세시위를 비롯하여 禮安面 시위에 가담하였던 西部洞·土溪洞 등지의 退溪 후손, 그리고 臨東面 鞭巷市場義學의 주동 인물이 定齋 柳致明의 孫인 柳淵成 등이었던 것이나, 權·南·朴·白·李 등 5개 성씨가 적극 가담한 寧海義學, 冲齋 權堧의 후예가 주동이 된 奉化 乃城義學, 파리장서에 적극 가담하여 國內通告文을 작성한 恭山 宋俊弼과 그의 門中에 의해서 주도된 星州에서의 만세의거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기독교인과 학생 등이 중심이 되어 발발하게 된 3·1독립만세운동을 계기로 하여 경북지역 유림의 독자적인 만세의거의 전개와 더불어 완전히 유림이 중심이 된 독립운동이 高宗의 因山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유림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계획되었다. 뿐만 아니라 親日勢力과 一部 親日的 京中儒林이 야합하여 合邦絶對支持 韓日不離請願書를 작성하여 日本 國王에게 제출하려던 음모가 폭로됨에 따라 유림의 독립운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⁴⁸⁾ 이 음모사건이 폭로되자 京鄕의 유림들이 一部 京中儒林의 친일·매국적 행위를 규탄함과 동시에 京中の 애국 유림을 규합하여 마침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萬國平和會議에 獨立歎願書를 보내자는 의견과 이러한 일의 대표로서 郭鍾錫을 추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3월 1일 수많은 군중의 감격적인 만세시위를 목격한 심산은 全民族的인 거사에는 민족대표로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反民族的인 책동인 소위 ‘韓日不離請願書’에 유림의 대표가 들어 있음을 통탄하였다. 이로 인해 심산이 통분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海史 金丁鎬가 찾아와 유림의 치욕을 씻을 방도로 마침 파리에서 개최 중인 萬國平和會議에 독립을 희망하는 청원서를 유림의 이름으로 제출하여 독립운동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전개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제의에 심산은 크게 깨닫고 成태영·김정호와 협의하여 義庵 孫秉熙와 손잡고 국내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리강화회의에 유림대표를 파견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러던 중 3월 2일에 金梔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金梔·郭淵·金鍵·尹夏忠 등과 회합하여 獨立歎願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동시에 경향의 유림과도 연락을 취하면서 앞으로의 운동방침과 계획을 상의하여 ① 거사가 중대하니 유림계의 중망 높은 영남의 俛宇 郭鍾錫과 호남의 艮齋 田愚를 유림의 대표로 전 유림이 결속하여 독립탄원서를 작성하여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것, ② 독립탄원서의 기초작성을 俛宇에게 일임하고, ③ 連署人의 규합과 發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겸행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3월 3일에 우선 고종의 因山으로 서울에 와 있던 영남의 二江 柳萬植과 起岩 李中業을 만나 거사계획을 상의하였다. 韓日合併과 더불어 단식순국한 李晚燾의 아들인 李中業은 즉석에서 찬성하였으나 二江은 거부하였다. 이들은 다음 날 전국의 유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자금조달을 전개하기로 하여 柳濬根은 田艮齋를, 이중업은 忠北과 江原道 방면을, 心山은 慶尙北道를 각각 분담하였다. 그리고 金梔와 郭淵을 급히 俛宇에게로 파견하여 이들의 계획을 설명하고 지지를 받기로 하였다. 그렇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3월 20일 경에 서울에 재차 모여 매듭짓기로 하였다.

48) 儒林團의 獨立請願運動의 進行過程에 대해서는 《心山遺稿》권 5, 雜記, 覽翁 73年 回想記 上編 참조.

성주로 되돌아 온 김창숙은 月恒面 岩浦洞의 장석영으로부터 파리에 보낼 長書草稿를 받았으나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재차 면우를 찾아갔다. 면우는 晦堂의 초고 대신 김황으로 하여금 작성케 한 초고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長書原文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김황의 ‘記巴里 書事’에 의하면 파리장서는 곽종석이 쓰고, 總督府에 보낸 글은 장석영이 쓰고 國內通告文은 송준필이 썼다는 것이다. 이 국내통고문은 당시에 대량으로 인쇄되어 전국 유림에게 배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그 당시에 사용된 木版이 半破된 채 남아 있다.

면우는 확정된 장서를 김창숙에게 주면서 장서를 해외로 가져 갈 대표의 적격자로 김창숙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여행중 만일의 경우를 염려하여 장서의 全文을 외우게 하고, 다시 原文을 노트로 꼬아 집신을 만들어 주는 한편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李東寧·李始榮·朴殷植 등과 협력할 것과 또 中國 國民黨의 李文治를 찾아갈 것 등 세밀한 계획으로 그의 壯途를 격려하였다.

면우를 결별한 김창숙은 성주 초전의 송준필을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宋晦根과 呂輔會로부터 많은 노자를 받았다. 다음날 金泉의 친족 金治安의 주막에 당도하였으나, 日警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여 千辛萬苦 끝에 겨우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각지로 파견되었던 동지들이 아무도 오지않아 7·8일간 더 지체하자 李中業·成泰英·俞鎮泰 등이 돌아왔다. 그리고 金丁鎬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 피살당하였다는 소식과 기대하였던 艮齋 田愚가 이 계획에 협력함을 거부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다.

艮齋의 거부는 전 유림의 결속하에서 거사를 도모하려고 하였던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김창숙은 여기에 실망하지 않고 金昌澤·尹中洙 등 서울의 동지와 상의하고, 또 俞鎮泰·李德委·趙重憲 등 서울 유림과도 연락하여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갔다. 그들은 李相尙·李會榮·始榮 兄弟·曹成煥 등 海外同志에게 심산을 소개하는 書翰을 준비하는 한편, 中國領事館의 張冠軍에게 교섭하여 강화회의에 제출할 장서원문 및 그 발송에 필요한 다액의 노자를 직접 휴대하는 위험을 면하게 하였을 뿐더러, 中國物情과 언어에 능통한 朴敦緒를 帶同하도록 주선하여 주었다. 이리하여 날로 더하는 위험속에서 조중헌의 집에 숨어 오직 각지의 連書人 명단만 완전히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유진태의 소개로 이덕위의 집에서 당시 湖西 유림의 영수였던 志山 金福漢(仙源 金尚容의 후손)의 제자인 林敬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지산은 이미 金德鎭·安炳贊·金鳳濟·任翰周·田穰鎭·崔中式 등 여러 선비와 더불어 上記 嶺南儒林의 경우와 거의 같은 동기 및 목적에서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려고 장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였다. 임경호는 이 장서의 발송을 同門 黃伯性·李永珪·田溶學 등을 통하여 전달받고 이를 파리강화회의에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리하여 우선 양측의 文面부터 검토하여 嶺南本을 이의없이 채택하고, 嶺·湖人을 가릴 것 없이 차례로 列記하여 유림대표 137인을 최후에 확정하였으며, 파리로 행하는 발송대표도 임경호의 자발적 제의에 의해 심산 혼자서 맡기로 하였다.⁴⁹⁾ 이는 儒林의 獨立請願書事件이 김창숙 등 경북지역의 인물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창숙은 동지와 상의하여 박돈서만을 대동하여 3월말 경에 용산역을 출발하였다. 그는 奉天驛에 도착하여 張冠軍의 편으로 보낸 長書와 資金을 찾아 滿洲와 沿海州 일대의 독립군 활동지역을 거쳐서 上海에 도착하였다. 이곳에는 때마침 大韓民國臨時政府수립을 위해 많은 독립운동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으므로 김창숙은 李東寧·李始榮·曹成煥·申奎植·趙琬九 등을 순방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그들에게 부탁하여 파리로 가는 길을 트고, 자신을 안내할 동행자를 물색하기에 힘썼다.

그러는 동안에 고향 경북으로부터 金應燮이 國權恢復團의 대표로 역시 그가 가져온 장서와 동일한 내용의 장서를 갖고 찾아와 서로 협력하게 되었다. 하지만 파리행의 주선이 여러 날을 두고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던 중 이동녕의 충고로 그의 파리행을 중지하고 대신 장서를 이미 파리에 도착하여 代表部를 개설하고 있는 金奎植에게 우송하여 처음 목적한 대로 講和會議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長書原文은 급히 尹顯振에게 위촉하여 英譯케 하고 아울러 국·한문 혼용으로도 번역하여 한문본 및 영문본을 각 3,000부 정도 인쇄한 다음, 巴里平和會議의 議長과 各國 代表는 물론 中國을 비롯한 여러 외국의 중요기관 및 언론계, 그리고 본국 鄉校에 빠짐없이 우송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내외에 널리 퍼진 長書事件은 김창숙이 중국으로 떠난 10여 일 뒤에 星州에서 日警에 의해 탐지되었다. 즉, 장서에 연서하고 國內通告文을 작성한 恭山 宋浚弼의 子弟 宋晦根 등이 4월 2일 星州市場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3·1독립운동 만세의거의 사실 이외에도 독립청원운동의 사실이 일경에게 탐지되었던 것이다. 4월 13일에는 居昌의 郭鍾錫 마저 체포되어 21일 大邱刑務所에 수감되었다. 이들은 5월 15일 公判에서 曠宗석·장석영은 2년, 송준필은 1년 6개월, 成大湜은 1년의 징역을 각각 언도받았다. 그러나 이때에 아직 김창숙에 의해 장서가 국내로 우송되기 전이었으므로 일경은 이들 4인의 군은 의지에 가로막혀 김창숙 이외의 연서인은 밝혀낼

49) 《倭宇先生年譜》와 慶北警察部, 앞의 책, 1934, pp. 248~251, 《慶尚北道史》中卷, pp. 335~336 참조.

수 없었다.

그러나 未久에 中國서 우송되어 온 장서가 전국의 각 鄉校에 빠짐없이 도착함으로써 그 전모가 밝혀졌다. 이리하여 連署人을 비롯한 많은 인사가 연루자로서 체포되었는데, 湖西 地方의 連署人도 모두 大邱監獄에 수감되었다. 이후 日帝가 이른바 회유책을 시도함으로써 면우를 제외하고 앞서 실행이 선고된 3인까지도 집행유예 정도로 사건의 종말을 고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김창숙은 상해에 계속 체류하면서 독립운동 지도자와 더불어 항일독립운동을 계속 추진하였다. (이하 儒林團軍資金募集事件에 대해서는 1983 《慶尙北道史》 中卷, pp. 368 ~370 참조)

第3節 1920年代의 獨立運動

I. 獨立運動團體의 組織과 活動

1.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活動

上海는 國際都市로서 英·佛 등의 租界가 있던 특수한 지역이었다. 이곳은 세계적 貿易港일 뿐만 아니라 國際政治의 外交場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韓人獨立運動家들은 일찍부터 이곳에 모여 국제정치의 推移를 민감하게 관망하면서 日警의 權한이 잘 미치지 못하는 이 租界地域을 이용하여 國內外 각지와 상호 연락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3·1독립만세운동 이전부터 臨時政府樹立의 필요성이 독립운동세력 사이에서 제고되고 있었지만, 3·1독립만세운동을 계기로 이를 발전시켜 독립운동세력을 組織化하고 통합하는 일 뿐만 아니라 파리기강화회의에서 주도적 의사를 표시할 民族 最高機關 수립의 필요성이 더욱 더 절실해지고 있었다.⁵⁰⁾

이미 申圭植이 독립운동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同濟社를 조직하여 中國側 有力人士와 긴밀히 交誼를 다지고 있었고, 1919년 2월과 3월에 걸쳐 呂運亨·金澈·金奎植·徐丙浩·鮮于赫·韓鎮教·張德秀·趙東祐·玄植·崔昌植 등이 이곳에 모여 獨立臨時事務所를 근거로 활동하고 있었다. 3월 하순에 이르자 露領으로 부터 李東寧·李始榮·趙琬九·曹成煥 金東三·趙英鎮·趙鏞殷·孫貞道·

50)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論—大韓民國 臨時政府—》, 1981.

趙東杰, 〈大韓民國 臨時政府〉《韓國史論》, 國史편찬위원회, 1984.

李炫熙, 〈III.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性〉《光復前後史의 再認識(I)》, 범우사, 1991.

金大地·申采浩·南亨祐 등 30여 명이 上海에 도착함으로써 이곳은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1919년 4월 10일 오후 10시부터 프랑스租界 金神父路에서 臨時政府의 樹立을 위한 會議가 열려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계속되었다. 참석의원은 李東寧·金東三 등 29명이었고, 名稱은 臨時議政院으로, 國號는 大韓民國으로, 官制는 統理制로 하였다. 大邱를 중심으로 한 慶北地域의 人士로는 金昌淑·裴天澤·玄昇健·李貞浩·李相定·辛公濟 등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수립은 3·1운동의 정리작업인 동시에 새로운 국면에 대처하는 민족운동으로서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나타난 독립운동의 발전이었다.

임시정부의 활동방향은 1920년에 발표된 ‘大韓民國臨時政府施政方針’에 잘 나타나 있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서 제반 활동이 국내외의 항일독립운동에 초점이 맞추어 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내외 동포사회를 통할하여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聯通府와 交通局을 설치하였고, 통할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研究院·特派院·宣傳院을 파견하여 民心을 임시정부로 집중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대구지역에는 聯通府가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대구지역에서 결성된 大同青年團·朝鮮國權恢復團·大韓光復會 등이 임시정부 連通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셈이다.

임시정부는 각 처에 外交委員部를 두고 있었다. 필라델피아에 徐載弼를 중심한 韓國通信部, 파리에 金奎植을 중심한 파리委員部, 워싱턴에 李承晩을 중심한 歐美委員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중심인물에 의하여 설치된 것을 1920년 9월 2일 敎令으로 法制化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外務部에서도 각지에 駐在外交委員을 파견하고 있었다. 그리고 1934년에는 외무부에 外務委員會를 설치하여 워싱턴에 駐美外務行署를 두었으며, 重慶시절에는 駐美外交委員部를 설치하였다.

軍事的인 활동은 임시정부의 매우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였다. 초기의 독립전쟁은 西路軍政署·北路軍政署·大韓光復軍總營·參議府 같은 여러 獨立軍團體가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독립군단체가 할 수 없었던 정규 士官養成 등의 軍事教育이나 軍士法規를 정비하였다. 군사법규는 陸軍臨時軍制·陸軍臨時軍區制·臨時陸軍武官學校條例·軍事警衛勤務條例·警衛勤務細則·軍務部臨時編輯委員部規定·大本營의 規定 등이었다. 초기에 실현을 본 것은 臨時陸軍武官學校條例로서 당시의 사정에 따라 약간 변화되기는 하였으나 초기 獨立戰爭에 소수의 초급장교를 공급하였다. 당시 제반여건의 不備로 인하여 군사교육은 南京政府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中國軍事委員會 幹部訓練班 第6隊나 第2總隊 第4大隊 第17隊로 특설된 韓人班을 들 수 있다.

그후 군사교육이 된 것은 중경에서 1940년 9월 17일 光復軍總司令部가 설치된 뒤 부터였다. 이 날을 전후하여 光復軍 조직의 布告文 기타 선전 전단이 배포되었고 臨時議政院에서는 관계법규를 정비하였다. 광복군의 활동으로 주목되는 것은 印度와 버마 등 東南亞戰線에 출전하는 등 北中國에서 印度에 이르는 對日戰線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韓美合同作戰으로 국내 進擊作戰을 전개하려고 준비하던 중 解放을 맞이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시정부는 3·1독립만세운동의 영향으로 국민적 여망에 기초하여 주체적 의지에 따라 수립되었으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항일독립운동 세력간의 救國方略과 路線差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의 양상을 노출하였다. 따라서 이후 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립 당시에 지녔던 임시정부의 위상은 회복되지 못하여 해방 당시에는 다른 항일독립운동단체와 비슷한 정도의 규모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 후 國民의 政府로서 還國하지를 못하였다. 따라서 해방 후의 韓民族은 일정 기간 동안 美軍政의 통치를 받아야 했으며, 大韓民國 政府가 수립되어 臨時政府의 法統을 이어 가려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독립운동의 상징적 존재로서의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2. 秘密結社의 組織과 活動

3·1獨立萬歲運動은 上海臨時政府의 수립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抗日獨立運動의 방향성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가져온 계기였다. 日帝의 식민통치방식이 文化政治라는 미명으로 포장되면서 이 시기 항일독립운동의 한 특징으로 규정될 수 있는 秘密結社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이 시기에 大邱地域에서도 많은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활동을 하였다.

첫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일명 崔載華事件으로 撤市와 官吏辭退強要運動이었다.⁵¹⁾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던 啓聖學校 학생 金壽吉은 3월 6일 金泉으로 가서, 3월 9일 김천 黃金教會의 집사 金忠漢을 찾아가 대구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을 상세히 전하고 11일 김천 장날에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정보누설로 실패하자 그의 고향인 金陵郡 開寧面으로 가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대구로 돌아온 그는 3·1독립만세 시위 이후 大新洞의 하숙집에서 피신하고 있던 李永植·許聖德·李基明·李鍾植 등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맹세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대구시내의 한국상인에게 閉店撤市를 단행하여 일인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1차 목표를 설정한 후 4월 2일 南山洞 朴俊伊 방에서 ‘同情表示警告’

51) 慶北警察部, 앞의 책, 1934, pp. 186~188과 《慶尙北道史》中卷, pp. 347~349 참조.

1호를 작성하여 300매를 인쇄한 후 시내 여러 곳에 배포를 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西門市場에서는 80여 개의 상점이 문을 닫았다. 3일에 李永植과 任用은 金壽吉의 하숙집인 金石鎭의 집에 모여 어제의 경고문을 받고도 문을 닫지 않은 대구의 巨商들에게는 별도의 통지문을 보내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강력한 경고문의 내용을 적어 서문시장의 포목상 김응수와 중앙통의 비단상점 김경천에게 보냈다.

5일에 김수길은 대구 독립만세를 주도하였고, 善山郡 海平面의 농민 50여 명을 지휘하여 야간에 海平警察署·駐在所를 습격했던 崔載華를 만났다. 그는 崔載華에게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지도를 부탁하였다. 다음날인 6일 오후에 金壽吉의 하숙방에 모인 崔載華·李永植·李鍾植·許聖德·李鍾憲 등은 대구경찰서장 伯井義三郎에게 “너는 왜 3월 8일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무고한 동포를 검거하였는가? 너희들과 같은 자는 암살당할 때가 있을 것이니 각오하라”는 경고장을 익명으로 우송하였다. 반면에 그들은 南山洞 李鍾植의 방에서 경북 일원의 공무원들에게 민족의 배신자가 되지 말고 사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고문 2호를 작성 4백매를 인쇄하여 李永植·許聖德 등으로 하여금 시내 여러 곳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7일에는 任用의 방에 모여 閉店撤市 경고문 3호를 만들어 3백매를 인쇄·배포하였다.

그 후에 李命鍵·李榮玉·李壽鍵·韓世東 등이 참가하여 그들의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띌 수 있었다. 많은 경고문이 배포됨에 따라 日警은 친일파 거두인 中樞院 參議 朴重陽과 당시 구장이던 白應勳을 중심으로 自制會를 조직토록 하여 이들의 항일운동을 분열시키고 선무하는 작업에 나서도록 하였다. 이에 그들은 朴重陽과 白應勳에게도 경고장을 보냈다.

그 후 이들은 항일독립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鳳山洞의 韓世東의 집에 모여 慧星團을 조직하였다. 혜성단은 인쇄에 崔載華·金壽吉, 배달에 許聖德·李德生·李鍾植·李鍾憲·李永植·李基明, 출판에 李壽鍵, 만주출장에 李榮玉, 연락에 李命鍵으로 조직되었다. 비밀결사조직으로서 혜성단은 4월 18일 밤에 내당동 方明圓 장로의 집에서 ‘謹告同胞’라는 경고문을 300여 통을 만들어 야간에 시내 곳곳에 배포하거나 벽에 붙였다. 또 4월 27일과 5월 7일에 方明圓의 집에서 “警告我同胞”·“警告官公吏同胞”라는 격문을 만들어 동포들의 자주독립 의식의 고취와 韓人 관리들에게 사직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던 중에 金壽吉이 체포당하여 그 조직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때 체포당하여 재판에 회부된 단원으로 金壽吉은 징역 4年, 李鍾植·李榮玉·李命鍵은 징역 3年, 李永植은 징역 1年, 권성우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崔載華는 대구를 탈출하여 체포를 면하였다.

두번째로는 暗殺陰謀團事件으로서, 일명 文相直事件을 들 수 있다.⁵²⁾ 文相直(白 또는 相眞)은 高靈郡 高靈面 中化洞에서 出生한 후 20세 경에 약 1년간 京城에서 修學後 渡滿하여 滿洲 通化縣 新興學校 4學年에 修學하였다. 그후 南京·滿洲의 安東 등에 거주하면서 農商 등을 경영하였고, 1919년 3월에는 滿洲 安東에서 朴洸(高靈)이 경영하는 곡물무역상인 信東商會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때 平山醫院 事務員이며 上海 大韓民國臨時政府의 通信員인 黃大關으로 부터 南韓地方에 반포할 宣布文과 臨時政府綱領 등 각종 인쇄물 50매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는 이러한 각종 서류를 과자상자 속에 숨겨 同年 4月 13日 安東縣을 출발하여 인력거를 이용하여 신의주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다시 열차를 타고 京城에서 내려 金思容(尙州)을 방문하고 그에게 宣布文과 臨時政府綱領 40매를 인계하였다. 이튿날 文相直은 大邱에 도착하여 朝鮮國權恢復團의 外交部長인 徐相日(大邱)에게 나머지 文書 10매를 은밀하게 전달하고 반포토록 하였다. 同年 7月에는 黃大關으로부터 다시 告論文·獨立新聞·客員改造書 등 합계 300매를 전달받아 宋載基에게 전달하여 宋載基가 전국 각지에 운반 반포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文相直은 국내외를 연결하는 연락인으로서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다가 1919年 8月 상순에 學友團에 加盟하였다. 학우단은 만주에 있는 新興學校 軍事科 졸업생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李健浩가 단장이었다. 학우단에 가입한 그는 金魯元·金用萬·李淳元 등과 함께 新興學校 제 3호 교실에서 밀회하여 독립운동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조선내 중요한 관공서와 韓人 관리 및 日人 고위관리들을 폭탄으로 습격하여 국내 혼란을 야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金用萬은 폭탄제조를, 金東山·金魯元·李淳元은 자금조달 및 동지규합을 맡고, 문상직은 국내사정의 정찰과 자금조달 임무를 각각 맡았다. 이러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文相直은 다시 국내로 잠입하였다. 同年 9월 11일 만주를 출발하여 대구에 와서 徐榮均(達城)의 집에 잠복해 있으면서 徐榮均·宋貞得(達城)·金根(安東)·洪于濟 등을 설득하여 이번 거사에 참여토록 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어서 1920년 1월 26일에 문상직은 김용만 집에서 폭탄을 가져오도록 홍우제를 먼저 만주로 출발시키고, 자신도 만주로 돌아가 거사실행에 착수하려다가 경북경찰부에 검거되어 同年 7월 12일 大邱地方法院에서 大正 8年 制令 제 7호와 銃砲火藥類取締施行規則違反罪로 징역 5년의 형을 받았다. 그 후 大正 3年 勅令 제 10호에 의하여 징역 4년 14일만에 감형·출옥하였다.

52) 앞의 책, pp. 266~267과 앞의 책, p. 350 참조.

세번째로는 일명 徐相漢 사건으로 불리는 王世子婚禮時投彈暗殺破壞企圖事件이다.⁵³⁾ 대구출신 서상한은 東京 中央郵便局 支配人으로서 朝鮮苦學生同友會를 조직하였다. 그는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항일운동을 계획하던 중 1920년 4월 28일 王世子 李垕이 梨本宮王女와 婚姻을 거행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만약 혼인이 그대로 거행된다면 조선의 독립에 일대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여 그 식장이 될만한 邸內 혹은 參內의 乘車에 폭탄을 던지기로 결심하였다.

또한 齋藤 朝鮮總督도 암살하고 內務省·外務省·警視廳 등도 아울러 폭탄으로 파괴함으로써 일반 朝鮮人의 독립의식을 고양시키고 大韓獨立의 기세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각종 화약품으로 폭탄을 제조하여 실제로 2회에 걸쳐 시험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徐相漢이 1920년 4월 14일 체포당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公訴審에서 禁錮 4년을 받았으며, 관련혐의를 받은 사람으로는 梁柱英·尹在豐·趙東湜·李文瓚·姜勳·金秉鶴·金允培·徐今德·夷廷求·洪承魯·金呂秀·康巨福·金在學·金著秀·金聖範 등이 있다.

네번째로는 武官學校生徒募集事件이다.⁵⁴⁾ 이 사건은 1919년 6월경 崔載華가 주동이 되어 慶北 일원의 애국청년들을 모집하여 滿洲에 있는 西路軍政署 소속 新興武官學校로 보낸 사건이다. 그는 慧星團義舉에 의해 한때 고향에 잠복해 있다가 孔東秀·孔主事·崔東哲·崔東秀·崔德奎·崔一 등 6가지의 변성명을 사용하면서 다시 大邱로 잠입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는 독립운동에 있어서 그 방법상으로 萬歲示威나 警告文을 발송하는 정도로서는 독립을 쟁취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즉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武力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韓民族이 軍隊를 양성하고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國內 뿐만 아니라 滿洲 및 中國大陸에서 활약하고 있는 獨立軍과 긴밀한 연락과 협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滿洲 奉天省 柳河縣에 있는 西路軍政署 소속 新興武官學校에 서신을 띄워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신흥무관학교는 애국청년들에게 소정의 군사교육을 시켜 독립운동가로 만드는 滿洲方面 독립운동의 핵심으로서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의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1919년 6월 하순에 서로군정서에서 파견한 밀사는 達城公園에서 최재화를 만나 서로군정서의 密書를 전달하였다. 이 밀서는 국내의 애국청년들을 포섭하여 신흥무관학교로 보내라는 지령이었다. 이렇게 하여 최재화는 국내 독립군 모집책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 新義州에서 여관업을 경영하며 애국지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당시 예수교회

53) 앞의 책, pp.196~197과 앞의 책, p.352 참조.

54) 위의 책, pp.200~202와 위의 책, pp.353~355 참조.

領袖이며 중간모집책인 金永哲(平北 義州)을 7월 초순경 서울 장춘단공원에서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의논하였다. 그 결과 그가 선정한 사람을 김영철에게 보내면, 김영철은 滿洲 安東縣에 사는 趙强濟에게 밀항시키고, 조강제는 다시 신흥무관학교에 보내어 그곳에서 軍事教育을 시켜 다시 국내로 잠입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은 상당히 엄밀히 추진되어야 했기 때문에 손바닥에 X字를 기입해 암호로 사용하였다.

이에 그는 먼저 尚州의 裴昇煥, 安東의 金斗七, 水原의 康壽男(당시 서울 서대문 형무소 간수)을 동지로 포섭하여 애국청년 모집의 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이리하여 이들 동지가 극비리에 애국청년 모집에 나선 결과 그는 尚州의 趙誠淳·柳佑國을, 배승환은 醴川의 權元河·李宰榮과 尚州의 趙台衍, 安東의 權在壽를 포섭하였다. 또 이들은 당시 東亞日報의 사무원 金鍾燁과 千歲恒을 권유·포섭하였다. 이렇게 모집된 8명은 그의 주선으로 각자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신의주로 개별 출발하여 김영철에게 도착하였다. 다시 김영철은 독립군의 鵬綠江渡江案內를 전문적으로 하는 李道成에게 인계하였다. 무사히 압록강을 건넌 이들은 다시 조강제에게 인계되었다. 이들의 연락조직체계는 조직적으로 분담되어 있었고, 신속하여 日警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였다.

이들 중 권원하와 김종엽은 1919년 8월 신흥무관학교 8기생으로 입교하여 1920년 하순에 졸업하였다. 천세항은 吉林省의 軍政署員 金世淵에게 보내져 朝鮮獨立戰爭에 참가할 준비로서 군사교육을 받았다. 이들 3명은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국내로 잠입하였는데 권원하와 김종엽은 1920년 2월에, 천세항은 1920년 7월에 다시 국내로 잠입하였다. 이중 권원하는 군자금모집 국내 총책이었던 金炳斗로부터 당시 大同團 總裁였던 金嘉鎭이 발행한 독립운동자금모집의 수령증을 받아 가지고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倭館에서 투숙 중 慶北道 警察部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를 제 2의 崔載華事件이라고도 한다. (첫번째의 崔載華事件 참조)

그는 그후 勞動共濟會를 발족, 그 발기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다가 체포되었다. 이 의거로 재판에 회부된 인사는 17명(미체포로 권석재판자 포함)이었다. 그후 그는 유치장을 탈출, 만주로 망명하여 義血團에 가입함으로써 독립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다섯번째로 爆彈暗殺陰謀事件이다.⁵⁵⁾ 이 사건은 1920년 7월 24일 경상북도 출신의 梁漢緯·吳麒洙·權泰鎰 등이 上海 大韓民國臨時政府 운동자금모집에 종사하던 중 보다 적극적인 무력투쟁의 전개를 위하여 조선인 관리에 대한 爆彈襲擊을 모의하였으나 制令違反 및 銃

55) 앞의 책, pp.269~271과 앞의 책, pp.355~356 참조.

砲火藥類取締令違反으로 검거되어 송치된 사건이다. 양한위는 권태익과 공모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하여 투쟁하기로 하였다. 그는 1919년 9월(陰)경 永川驛前에서 폭탄암살을 계획하고 京城에서 모집한 獨立新聞 및 獨立警告文 등 수십 매를 許秉律과 趙善奎 등에게 분송하고 나머지를 大邱市内로 보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 보도록 하였다.

한편 1920년 1월 이후부터 그는 오기수·권태익 등과 함께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자금모집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먼저 허병률로 하여금 그가 소지한 자금 8천원을 가지고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渡航시키고 이어 권태익이 모금한 180원을 보냈다. 또 金永佑·吳進又 두 사람으로 하여금 조선규를 설복시켜 독립운동에 가담시키고 자금 740원을 헌납케 하였다. 양한위는 趙氣虹과 공모하여 同年 6월 하순에는 대구시내에 잠입하고 또 관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야간을 통해 수차에 걸쳐 南門市場에서 밀회하고 조선의 독립을 촉구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여기서 조선인 관리를 폭탄으로 습격 살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비밀리에 폭탄의 입수 혹은 제조를 위한 계획을 모의하던 중 발각되어 검거되었다. 이 사건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慶北出身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관련자는 모두 이 지역출신이었다.

여섯번째로는 慶南 甲斐巡查銃殺事件이다.⁵⁶⁾ 이 사건은 宋斗煥(大邱出身)의 지령에 의해 金鍾喆(慶州)·金鳳奎(慶州)가 1920년 12월 8일 慶南 宜寧에서 군자금모집 중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日人巡查 甲斐를 사살하고 도주한 사건이다. 송두환은 1914년 普成中學校 재학 당시부터 日本軍國主義에 대한 철저한 반항심을 품고 韓國의 독립을 계획하여 뜻이 통하는 학생들과 新倍達會를 조직하여 회장직을 맡았다. 신배달회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에 반항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래서 경제자립을 통한 民族自立運動의 일환으로 1인당 10원씩을 각출하여 우선 3만원을 모았다. 이 같은 자금모집을 계속하여 자본금 20만원이 모이면 대규모의 紡織工場을 세울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朝鮮總督府의 명령으로 신배달회는 해산되었다.

1919년 여름 그는 그와 뜻을 같이 하던 崔海奎·金鍾喆을 동지로 규합하고 이들을 통해서 각자 동지의 모집에 나섰다. 또 동지 집합의 연락장소를 두기 위해 그는 私財 7백원을 내어 대구에 가옥을 매입하고 최해규로 하여금 거주케 하여 동지들과의 조종과 연락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만주지방으로부터 武器 구입 및 각종 문서를 입수할 방침으로 신의주에 연락기관을 설치하기로 협의하고 자금 약 6백원을 각출하여 新義州 老松亭에 가옥을

56) 앞의 책, pp. 223~227과 앞의 책, pp. 356~357 참조.

매입하여 자기의 조카 宋垓郁으로 하여금 거주토록 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商業을 영위 하도록 하고 이면으로는 연락의 임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1921년 2월까지 적극적인 동지 규합에 나서서 鄭東錫(達城)·安英中(慶南 咸陽)·金命濟(平安道 以下不祥)·鄭斗禧(慶南 陝川)·鄭駉榮(慶州)·鄭斗奎(慶南 陝川)·盧圓容(慶南 陝川)을 포섭하였다.

먼저 武器 구입에 착수하여 1919년 9월에 그는 최해규와 함께 자금 약 4백원을 마련한 후 최해규를 만주지방에 파견하여 권총 2정, 실탄 약 100발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직접 중국에 있어서의 韓人獨立運動 상황을 시찰하고 1919년 12월 중순경 귀국하던 중 奉天에서 김종철·김명제와 회합하고 권총 3정, 실탄 300발을 구입하였다. 또 預警令(警告文) 40매, 義勇團委任狀 수매, 愛國金收金委員辭令書, 軍事籌備團團制의 인쇄물, 死刑執行木札 등을 입수하여 김종철이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와 같이 비밀리에 무기 구입을 마친 그들은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군자금 모집에 나섰다. 먼저 그의 조종으로 1920년 12월 6일 김종철·김봉규는 권총 1정과 예경령 1매를 휴대하고 慶南 陝川郡 上栢面 平助里 鄭達洛의 집에 들어가서 군자금으로 一金萬圓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으나 所持金이 없다는 이유로 15일간의 유예를 주고 현금 40원을 받았다. 또 이튿날인 8일 오전에 다시 慶南 宜寧郡 柳谷面 漆谷里 南廷九의 집에 가서 大韓獨立軍資金 募集員이라 칭하고 一金萬圓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돈을 구하여 오겠다고 나갔던 남정구의 신고로 宜寧警察署 日本人 巡查 甲斐와 朝鮮人 巡查 孫騏秀에게 연행을 당하던 중 金鍾喆이 甲斐를 사살하고 교묘히 도주하여 대구에 잠복하였다. 그래서 일제경찰은 年인원 500명을 동원하고, 수사비 20만원을 소비하면서 100 일동안 수사를 계속하였으나 영원히 미제의 사건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후 그는 1921년 3월 馬山에서 朴淙植과 함께 군자금모집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2개월만에 풀려났다. 또 同年 5월 出獄과 동시에 中國으로 가던 중 金鍾喆·宋相郁과 함께 武器不法所持罪로 다시 체포되었다. 그후 9월에 풀려 났으나,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김종철을 蘇聯으로 亡命시키기로 했다. 1922년 1월 그는 新義州事件이 발생하자 대구에서 다시 被檢되어 신의주로 압송되었고, 新義州法院에서 2년의 刑을 선고 받았다.

그 뒤 1923년 11월 3일 그는 普成中學시절부터 민족독립운동을 함께 하던 崔胤東(大邱)·李遂榮·盧企容과 더불어 慶北 軍威에서 군자금모집운동을 하던 중 체포되었다. 그런데 이들 중 노기용이 甲斐巡查銃殺事件을 실토함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1924년 그는 甲斐巡查銃殺事件의 주모자로 밝혀졌으나, 신의주 법정의 판결이 2년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一事不再理의 원칙에 의해 결국 징역 10월을 받았을 뿐이었다.

일곱번째로는 吉林省 軍政署 附屬 興業團의 資金募集事件을 들 수 있다.⁵⁷⁾ 이 사건은 本 團長 金虎가 團員 李萬俊을 國內로 파견하여 慶尙南北道 地域의 密陽·東萊·梁山·淸道·達城·永川·奉化 등지에 거주하는 資産家를 방문하여 興業團의 資金을 모집하던 중 慶北警察部에 탐지되어 軍威에서 체포됨으로써 軍자금모집 및 國庫활동을 꾀던 興業團의 國內 조직 전모가 드러난 사건이다.

興業團員 이만준(별명, 李圭亨·李萬福·李成七·李尚鎭·李相友)은 全羅南道 태생으로 19세 때 상해로 건너가서 만주지방을 전전하다가 1919년 길림성 군정서 부속 興業團에 들어가 同團의 赤十字社 會計書記로 근무하였다. 그 후 1919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興業團長 김호의 명령을 받고 대구출신 李始榮·成造 등과 함께 滿洲 安東縣에서 조선에서 渡滿하는 청년 약 4·5백명을 모집하여 김호가 경영하는 白山學校(武官學校)에 보내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1920년 11월경 興業團장 김호와 본단의 外交部長인 金星奎의 명령으로 본단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國內로 잠입하였다. 이때 國內에서 약 20만원의 資金을 모금하기 위해 김호의 書面을 소지하고 본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韓僑會 會長 孫庚憲을 방문하였다. 여기에서 송경헌 밑에서 활동하고 있던 慶尙·忠淸道의 지리에 밝은 金仁齊(淸道)·崔聖奎(崔鳳奎)·黃文益 등 3명과 함께 권총 5정, 실탄 90여발을 휴대하고 同年末 國內로 잠입하였다.

이들 4명은 國內로 잠입하여 大邱·密陽·梁山 등지를 거점으로 동지를 규합한 결과 1922년 2월까지 孫基聖(密陽)·權忠洛(論山)·李再述(迎日)·金璉煥(安東)·崔明海(慶州)·安 某(梁山)·沈相旭(梁山)·朴士淑(梁山)·孫載憲(密陽) 등을 권유하여 同志로 맞아 들였다. 또한 새로 영입된 동지를 통해 孫綜憲(密陽)·禹洪基(密陽)·朴守義(女: 達城)·權政洛(大邱)·洪鍾洛(軍威)·金鍾萬(軍威)·朴在華(義城)·梁漢緯(沃川) 등을 포섭했다. 동지를 규합한 후 軍자금 모집에 나선 이들은 경상도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모금기로 하였다. 대구지역에서 양한위·권충낙·홍종낙·우흥기 등 4명이 1922년 1월 하순에 양한위 집에 모여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부호로부터 모금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다음날 그들 4명은 권총 2정과 약간의 탄환을 휴대하고 達城郡 嘉昌面 友廉洞에 모이기로 하였는데 안내 임무를 담당했던 우흥기가 오지 않아 실행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권충낙·김종만·홍종낙·박재화는 권총 2정과 약간의 실탄을

57) 앞의 책, pp. 272~276과 앞의 책, pp. 358~359 참조.

휴대하고 永川郡 新寧面 權周慶의 집을 방문했으나 하인으로부터 주인이 집에 없다는 전갈을 받고 행동을 중지하고 대구로 돌아왔다. 권충낙·홍종낙은 1922년 1월 하순에 달성군의 富豪인 崔在教에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군자금모집을 위하여 권총으로 위협하며 3만원을 기부토록 하였으나 지참금 240원만 받았다. 그리고 동년 4월 하순에 홍종낙·이재술은 서울에 거주하는 이만준의 명령을 받아 奉化郡에서 독립군자금을 모집하려고 朴守義에게서 권총 2정, 실탄 17발을 받고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홍종낙이 사고로 인해 출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홍종낙 대신에 李在述·金佑昌을 보내기로 하였다. 同年 5월 27일 이들은 대구에서 자동차로 奉化방면으로 가는 도중 정보를 탐지한 경북경찰부가 각 관할경찰서에 이러한 사실을 연락하여 검거토록 함으로써 결국 이들 두 사람은 軍威郡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2년 동안 비밀리에 군자금 모집 및 구국활동을 펴던 興業團의 국내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여덟번째로는 獨立公債募集 및 華府(워싱턴)會議 獨立請願事件이다.⁵⁸⁾ 臨時政府 수립 초기의 당면과제는 政府의 組織과 構成 및 外交活動, 그리고 財政問題였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차대한 것이 財源確保였으나 당시의 임시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원의 확보는 상당히 어려웠다. 물론 임시정부는 애국국민이 헌납하는 義捐金의 수납과 人口稅 등을 재정의 기본으로 삼았으나 지리상의 문제와 그 수납 직무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었고, 재정의 기본적 세원이 되어야 할 인구세가 너무 소액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확보책을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임시정부로서는 새롭게 國債와 獨立公債를 발매하기 위해 大韓民國臨時政府 要員을 각지에 파견하여 활동케 하였다. 이와 같은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중에 達城郡 출신인 李賢壽가 있었다. 그는 평소 祖國光復에 뜻을 두고 있다가 1917년 9월 上海에 가서 香港·廣東·廈門·汕頭 등지를 다니면서 독립투사들과 交友하였다. 1919년 3월에는 母親의 喪으로 귀국하였는데 마침 당시 국내에서 3·1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얼마후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상해에 간 그는 臨時政府 財務次長 尹顥振의 주선에 의하여 財務部 書記로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는 장래에 반드시 武力에 의해 조국독립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武官學校에 입교하기를 원하였다. 1920년 1월에 武官學校 教官 都寅權의 소개로 무관학교에 입학하여 同年 7월에 졸업하였다. 그후 그는 임시정부 交通次長 金澈, 財務總長 李始榮, 同次長 尹顥振, 都寅權으로부터 귀국하여 국내연락기관의 설치와 인쇄물을 반포하여 인심을 동요시키고

58) 앞의 책, pp. 212~217과 앞의 책, pp. 361~363 참조.

독립공채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가까운 시일에 한국시찰을 올 美國議員團에 대한 한국인의 독립심을 알리는 등의 다른 임무도 부여받았다. 이에 재무총장 이시영, 동차장 윤현진으로부터 額面 千圓券의 獨立公債證券 30매, 同 五百圓券 20매 및 달성·경주·성주 등 3개군의 공채모집위원 사령장을 받고, 교통차장 김철로부터는 慶北交通事務 特派員 사령장을 접수하였다.

그는 暗號文과 國內의 壯丁들 중 징모할 만한 자를 조사하여 비밀군단을 조직하기로 계획했던 籌備團의 團制와 警告文·自由申報·物品不購買告知書·納稅拒絶文·布告文·論告文 등 다수의 유인물을 구두밀창과 가방밀창에 숨겨 가지고 1920년 8월 10일경에 達城郡 花園面 榆谷洞 고향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그는 우선 徐章煥으로부터 謄寫版을 빌려 同年 8월 중순경부터 마을 앞산에 들어가 중국에서 가지고 온 각종 문서와 獨立公債募集에 관한 認定書 등을 인쇄하였다. 이렇게 인쇄된 유인물을 丁八鎭(達城)과 함께 慶尙北道 내의 韓國人 郡守·面長 기타 각 관청관리 및 부호, 그리고 慶南 陝川郡의 郡守·面長 등에게 우송하는 한편, 深夜에 대구 시내 한국인이 경영하는 상점 및 시내거리에 살포하여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을 알리고 이에 동조토록 하였다. 또한 林元祚(達城)를 永川郡 交通事務支局長에, 李相徹(達城)을 達城郡 交通事務支局長에, 朴奇石(安東)을 安東郡 交通事務特派員에 임명하였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안동·영천·대구·경주지방에서 변화가에 유인물을 살포하였고, 혹은 공채모집과 임시정부의 선전을 하였다.

한편 美國議員團 일행이 조선의 실정을 시찰하기 위해 온다는 것과 워싱턴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워싱턴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내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基督教 인사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평소 기독교 신앙이 두터운 이상철·정팔진 등을 통해서 기독교 인사를 대거 영입시켰다. 기독교의 인사로서 임시정부의 공채모집운동과 워싱턴회의 독립청원 운동에 동조 참여한 인사는 李哲洛·金世民·李璫鎬(이상 永川)·李敬萬·宋元在·金聖魯·柳廷洛(이상 慶山)·金奉道·鄭光淳·白君言(이상 大邱)·李希壽(達城)·金福出(迎日)·崔永敦(高靈)·金泰淵(金泉)·盧炳坤(盈德) 등이었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는 취지서를 《自由誌》에 싣고 英文으로 인쇄물을 만들어 大邱·平壤·全州의 외국인 宣教師 및 釜山에 살고 있는 외국인 醫師 아린 등에게 보냈다. 또 《自由誌》를 東亞日報·朝鮮日報 및 국내 각지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1923년 1월 9일에 도피생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경북경찰부에 자수하자 나머지 인사들도 속속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 41명인데 이중 26명이 기소되었다.

아홉번째로는 多勿團의 활동을 들 수 있다.⁵⁹⁾ 本團은 1925년 4월 14일 國民黨員으로 조직된 獨立運動 團體로서 國內에 까지 그 조직을 확산하고 있었다. 1925년 6월 國民黨원으로 국내에 軍資金募集을 위해 밀파된 徐東日(별명 天球 또는 春波)이 慶山·淸道 등지의 자산가들로부터 군자금 모집하던 중 관할 慶山署에 탐지되어 制令違反으로 체포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서동일은 大邱府 南龍岡町에서 출생하여 31살 때인 1923년 1월경 中國으로 건너가 北京에 체류하였다. 그는 同年 6월 國民代表會議에 참가하여 裴天澤(大邱)·南亨祐(서울) 등이 發起·創立한 國民黨에 입당하고 同黨 財務部長에 선임되었다. 1924년 1월에는 國民黨의 主義와 綱領을 실현코자 남형우·배천택과 협의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군자금의 모집을 수행키로 결정하였다. 그는 同黨 理事長 남형우로부터 軍資金募集特派員의 信任狀과 軍資金募集趣旨書 및 남형우의 사진 10여 장을 은닉 휴대하여 국내로 잠입하였다.

먼저 慶北 慶山郡 河陽에 거주하는 李鍾昊를 방문하고 그의 주선으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朴敬七 외 1명으로부터 45원을 조달받았다. 하양에서 다시 同郡 茲仁面 北四洞의 富豪 石濟元和 南山面 慶洞里 富豪 金相珪로부터 10원을 기부받았다. 同年 1월 12일 淸道郡 雲門面 孔岩洞 前郡守 尹英燮를 방문하여 군자금모집에 대한 주선을 의뢰하여 그의 別莊 居然亭에서 尹炳來·尹炳駟를 團員으로 포섭하였다. 또한 그곳에서 李心同(女)으로부터 1천원, 같은 面의 尹炳權·崔洪台·崔洪烈·朴淳炳·金駟俊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모집총액 1,400여 원을 가지고 同年 2월 상순 북경으로 돌아갔다.

1925년 1월 다시 군자금모집의 밀명을 받고 特派員信任狀과 多額出金者表彰記念徽章 2개를 가지고 국내로 잠입한 徐東日은 淸道郡으로 갔다. 여기서 윤영섭·윤병래·윤병일 등을 만나 계속적인 군자금 조달을 모의하였다. 이때 이심동의 집에 食客으로 출입하고 있던 崔聖熙를 동지로 끌어 들이면서 가지고 온 表彰徽章 1개를 주었으며 이심동에게 군자금 30원을 받아 북경으로 들어갔다.

1925년 4월 14일 國民黨원들이 조직한 多勿團의 宣言書와 特派員信任狀 각 1매를 휴대하고 다시 國內로 잠입하여 5월 淸道 慶山의 자산가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25년 6월경 慶山警察署는 이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관계자를 심문한 결과 多勿團의 정체가 백일하에 들어났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인사는 徐東日(大邱)·裴天澤(일명 炳鉉, 大邱)·李鍾昊(大邱)·尹英燮·尹炳來·尹炳駟·崔聖熙(이상 淸道) 등이었다.

59) 앞의 책, pp. 231~234와 앞의 책, pp. 366~367 참조.

열변제로는 眞友聯盟事件을 들 수 있다.⁶⁰⁾ 본 연맹은 暗殺破壞團으로서 徐東星이 同志 8명을 규합하여 修養을 표방하고 조직한 秘密結社團體로서 團員 方漢相·申宰模가 東京의 동지와 연락하여 파괴 및 암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의하던 중 1926년 7월 중순 관할 대구경찰서에 탐지되어 관련자 15명이 검거된 사건이다. 3·1獨立運動 이후 抗日獨立運動은 憂國志士가 해외로 망명하거나 지하로 잠적함에 따라 지도자의 확보가 힘들었고, 더구나 日警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대구의 열혈 청년들이 국권회복을 위해 과감한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申宰模·方漢相·李相和(이상 大邱)·河鍾璉(咸陽)·鄭命俊(漆谷) 등은 大邱青年會와 正午會에서 활동하면서 夜學을 개최하고 文盲勞動者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이들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구노동계와 공제회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노동계와 공제회는 1924년에 大邱驛 貨物勞動者 전원이 참여한 大邱勞動者親睦會로 발족하였으며 그 당시 회원수도 2천여 명이나 되었다. 또한 鐵聲團과 勇進團이란 방계 비밀단체를 두어 여기에 속한 노동자들을 일제의 착취로부터 보호, 대항토록 하였는데, 徐學伊·金召成(大邱)·安達德으로 하여금 운영책임을 맡도록 하였다.

한편 신재모·방한상 등은 大邱少年革進團을 조직하여 大邱高普 재학생 河鍾璉·崔海淸·李寅基·禹海龍(大邱)·馬明(大邱) 등으로 하여금 日人教師를 배척하는 등 同盟休學을 주도하게 하였다. 뒤이어 신재모 등은 대구역 화물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만주 등지로 운반되는 일제의 군수물자 수송을 방지하기 위해 1주일간 總罷業을 단행케하여 크나큰 성과를 올렸다. 이와 같이 대구지역의 청년들은 동맹휴학, 노동자 총파업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던 중 無政府主義者 徐東星(大邱)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는 日本에서 朴烈이 운영했던 ‘不逞社’란 잡지사 기자로 근무하다가 朴烈 부처의 투쟁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925년 9월 대구에서 친목, 교양을 표방하면서 眞友聯盟을 조직하였다.

同年 10월에는 聯盟員 방한상이 동경으로 가서 약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朴烈이 평소 주도했던 黑友會의 재건을 시도하고 있던 金正根 등과 앞으로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밀약하였다. 또 그 당시 日本國內의 無政府主義者인 本運雄·栗原一男 등과도 기맥을 통하였다. 1926년 4월에 朴烈이 死刑되자 屍體引取에 필요한 委任狀과 朴烈의 妻 金子文子の 入籍에 관한 용무를 핑계로 朴烈의 兄 朴廷植을 면회코자 대구에 왔던 栗原一男을 眞友聯盟員 신재모·서학이·마명·우해룡·정명준 등이 회견케 되었다. 이 栗原一男과의 회견을 통해서 일본국

60) 위의 책, pp. 239~243과 위의 책, pp. 371~373 참조.

내에서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東京黑色青年聯盟의 활동상황 등을 보고 들은 眞友聯盟會에서는 이들과 협조기로 합의하였다.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들의 독립운동의 활동방법을 개선키 위하여 강력한 破壞團을 조직할 필요를 인식하고 1926년 4월 12일 신재모 妻의 집에서 서동성·신재모·방한상·서학이·정명준·하종진·김소성 등 창립연맹원과 마명·우해룡·안달덕 등 창립 후 가맹한 자가 1차 회합을 하였다. 다음날 이들은 신재모 집에서 강력한 파괴단을 조직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행동목표를 우선 富豪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2년 이내에 대구 시내의 道廳·警察署·郵便局·地方 및 覆審法院을 위시한 중요한 官署와 日本人 경영의 商店을 파괴하기로 하였다. 또 知事·警察部長, 기타 주요 관리의 암살을 감행코자 계획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파괴단을 조직한 후 宣言綱領을 기초하고 각자 서명한 뒤 押印을 찍어 서명하였다. 여기에 사용할 폭탄 등 무기구입은 상해에 체류 중인 慶南 咸安出身의 民衆社 高白性(별명 高賢三)에게 의뢰할 계획까지 수립하였다. 이에 앞서 고백성은 방한상에게 통신문을 보내와 無政府主義團體를 증설할 것을 선동하고 또 상해에서 계획중이던 遠東無政府主義者總聯盟을 성립시킨 후에는 이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거사의 계획을 철저히 보안하기 위하여 공공연한 회합을 피하고 동지간의 연락도 문서 등에 의하지 않고 口頭로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진우연맹은 그 계획을 추진하던 중 1926년 5월 26일 회원중 한 사람이 阿片斷續法에 걸려 대구경찰서에 연행됨으로써 거사계획이 발각되어 관련자가 체포당하였다.

이들은 감방생활에서 무서운 고문에도 불구하고 비밀누설을 막았고, 倭警의 야간구타와 형편없는 식사에 대하여 단식투쟁으로 맞서기도 하였다. 1927년 7월 7일 재판을 받아 형량이 정해졌는데, 申宰模·方漢相·徐學伊·金正根은 5년, 徐東星·馬明·禹海龍·栗原一男·本運雄은 3년, 鄭命俊·河鍾璉·金召成·金東碩(善山)은 2년, 高白性은 기소유예를 각각 언도 받았다. 특히 김정근은 1심이 확정된 후 고문의 후유증으로 獄死하였다.

열한번째로는 ㄱ黨事件을 들 수 있다.⁶¹⁾ 이 사건은 1928년 5월 20일 抗日獨立運動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단체 ㄱ黨의 團員 盧且用이 本黨의 활동자금을 모집하던 중 체포되어 본당의 전모가 노출된 사건이다. 盧且用·張澤遠·鄭太鳳·文相直 등은 1928년 4월 하순경부터 대구시에 있는 문상직의 하숙방에 모여 현재 朝鮮에 있어서 民族運動이 부진함을 개탄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거대한 횃불을 올릴 것을 협의하고 있던 중 5월 초순에는 동지 李康熙·

61) 앞의 책, pp. 244~246과 앞의 책, pp. 374~375 참조.

柳尚默 등이 대구로 와서 이 협의에 합세함으로써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同年 5월 18일 達城郡 城北面 山格洞 河源에서 비밀결사의 조직을 결성하려고 하였으나 이강희·문상직이 사고로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決行되지 못하였다.

그후 同年 5월 20일 오후 2시경에 達城公園의 숲속에 모여 비밀결사단체의 명칭을 ㄱ黨이라고 하고 설립목적 및 강령, 그리고 부서와 임원선정 등을 결정하였다. 이후 재무부를 담당한 노차용과 장택원은 서로 협의한 후 당장 사용될 활동자금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고는 자금모집에 나섰다. 그래서 노차용은 동지 郭東英과 함께 同年 6월 11일 오후 9시 達城郡 解顔面의 富豪인 金教式을 방문하고 표면상으로는 雜誌發行的 자금이라 칭하고 처음에는 5천원을 차용해 주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노차용은 그러면 생명과 물질을 교환하겠다는 의사로 안다면서 권총을 꺼낼 기세를 취하니 金교식이 크게 놀라 그 자리에서 2천원권 2매, 천원권 3매의 약속어음을 기입하였다.

그러나 金교식의 印鑑을 叔父가 휴대하고 대구로 여행을 했기 때문에 2·3일 중으로 날인하여 지참 또는 등기로 우송하라고 명령하고 그곳에서 一泊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권총을 金교식의 면전에 겨누고 약속의 이행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대구로 돌아왔다. 노차용과 장택원이 金교식의 집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그곳 주민들의 화제에 올라 이 소식을 접한 日警에서는 金교식을 대구경찰부로 연행하여 취조하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얼마후 노차용은 체포당하여 治安維持法 違反 등으로 1928년 7월 24일에 기소되었다.

마지막으로는 Z團事件을 들 수 있다.⁶²⁾ 向井昇·坂本正行·山口芳夫·天津一枝·山本繁이 주축이 되어 1920년 9월 10일에 日本에서 Z團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共產主義理論 및 實踐에 공명하고 자신들이 이러한 조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일부단원이 朝鮮에 건너가 朝鮮의 獨立運動에 참가하여 거사토록 하고 또한 러시아의 과격파와 결합하여 日本에서의 共和政體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조직을 조선으로 확대하고 동지를 구하였는데 조선에서는 大邱출신의 陳塔燮이 가담하였다. 진용섭을 포함한 이들 단원들은 團의 조직을 日本·朝鮮·上海에 각각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獨立團과 연결하고 러시아의 過激派 및 中國의 馬賊團과 제휴하여 同團의 세력 확장 및 日本政界의 大官暗殺을 기도하던 중 진용섭이 慶北道 제 3부에서 검거됨으로써 內亂罪 및 制令違反 등에 의하여 同年 10월 26일 송치되었다.

62) 앞의 책, pp. 202~204와 앞의 책, pp. 379~380 참조.

II. 6·10萬歲運動의 展開

1926년 6월 10일 純宗의 因山日을 계기로 抗日學生運動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⁶³⁾ 이 운동은 朝鮮共產黨 계열의 일반인과 학생들에 의하여 계획되었으나 일반인들의 계획이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학생들만이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는 3·1독립만세운동에서 前衛的 역할을 수행하였던 학생들의 항일투쟁의 역량이 보다 심화된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다.

1926년 4월 26일 大韓帝國의 최후 황제인 純宗이 53세의 일기로 승하하였다. 전국민의 애도 속에서 因山일은 6월 10일로 정해졌다. 日警은 3·1독립만세운동과 같은 항일운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삼엄한 경계를 펴는 한편 유언비어와 반일적 행동을 감시하였지만 각 학교에서는 애도로 인한 투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제반 여건들이 성숙되고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愛國志士 宋學先이 金虎門事件을 일으켜 日警을 놀라게 하였다. 이에 日帝는 京城을 비롯하여 평양·함흥·원산 등지에 주둔하고 있던 육해군 등 모두 7천명을 집결시켰으며, 부산 및 인천항에는 제 2함대를 대기시켜 놓고 인산일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한국 민중들의 항일독립운동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인산일을 기하여 대대적인 만세시위가 계획되었다. 즉 權五崙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계열의 준비공작과 李先鎬·李炳立·朴斗鍾 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社稷洞系와 李東煥·金載文을 중심으로 한 通洞系가 주축이 되어 준비를 하였다. 이 가운데 권오설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계열은 만세시위를 위한 제반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사전에 日警에 탐지되어 주동자는 모두 체포되고 격문도 압수됨으로써 공산주의계열의 만세운동을 위한 노력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일경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학생들의 만세시위를 위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을 맞아 인산을 애도하는 40만 민중들이 온 장안을 가득 메운 가운데 敦化洞에서 洪陵까지 도열한 학생수는 약 2만 4천명에 달했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가두시위가 전개되었다. 거리의 곳곳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시위를 전개하였으나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일경에 의하여 제지되고 210여 명의 학생들이 체포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시위에 민중들도 호응하게 되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일경은 총탄을 난사하면서 진압에 나섰던 것이다. 따라서 이 만세시위운동은 일제의 식민정책에 대한 잠재적 항일의식이 표출된 것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민중들에게

63) 金鎬逸, <2. 學生運動>《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84, pp. 230~301와 《慶尙北道史》中卷, pp. 380~385 참조.

다시 한번 심어주게 되었다.

체포된 210명 가운데 106명이 取調의 대상이 되었으며, 集會 및 出版法違反으로 起訴되고 나머지는 放免되었다. 6월 24일 정식으로 기소된 학생은 李炳立(延專)·朴河均(延專)·李天鎭(京大豫)·李先鎬(中央)·柳冕熙(中央)·朴斗鍾(YMCA)·朴龍圭(中央)·李東煥(中央)·金載文(中東)·黃廷煥(中東)·郭載炯(中東) 등 11명이었다. 이들은 1924년 4월 1일 제 2심공판에서 형을 받았는데 10명은 1년 징역에 5개월 복역하였고, 1명(류면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 밖에 제2의 6·10만세라고 불리는 皮魚善聖經學院事件이 있었다. 이 사건은 本學院 기숙사에서 培材高普·協成學校·聖經學院 학생들이 은밀히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다시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경찰에 밀고되어 실패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6·10학생만세운동은 지방으로 확대되어 高敞·元山·開城·全州·洪城·信川·平壤·江景·大邱 등지의 학생항일운동을 자극하였다.

대구지역에서는 6·10학생만세운동을 계기로 학생들에 의한 盟休가 더욱 격렬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이에 대해서는 學生運動 참조) 당시의 맹휴는 확실히 조직적이고 그들이 표방한 슬로건은 구체적이었으며 지향한 목적의식은 뚜렷하였다. 이후의 학생운동은 6·10만세운동의 토대 위에서 점차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되면서 좌경화의 경향으로 발전되고 있었던 점이 그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6·10만세시위운동은 학생들에 의하여 추진된 항일운동이었으며, 학생항일운동의 발전에 일대 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침체된 민족운동에 활기를 불어 넣은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III. 新幹會 大邱支會

新幹會는 1927년 1월 民族單一黨, 民族協同戰線이라는 표어 아래 조직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 2월 15일에 창립되었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民族主義者들과 社會主義者들의 共同戰線인 동시에 合法的 結社運動으로 비타협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던 민족운동의 대표적 단체였다.⁶⁴⁾ 自治論과 같은 타협적 민족주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종래와 같은 독자적 세력만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국내 특수사정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확산되었던 점에서 기

64) 스칼라피노·李庭植 외, 《新幹會研究》, 동녘, 1983.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코민테른에서 식민지·종속국에서의 反帝統一戰線問題가 제기되고 중국에서 國民黨과 共產黨의 合作問題가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러한 民族統一戰線 결성의 필연성은 1925년 4월 ‘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 1925년 1월 在日 思想團體인 日月會·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 등의 단체가 ‘派閥撲滅宣言’을 하거나 1926년 1월 30일에 개최된 火曜會·北風會 등 ‘在京思想團體 新年懇談會’, 朝鮮民興會의 결성, 正友會宣言 등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편 일제가 신간회를 합법적인 결사로 인정한 것도 식민통치의 측면에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結社의 자유를 허용하는 듯이 가장한 문화정치의 회유책이며, 둘째로는 이질적인 정치세력, 즉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합작에서 빚어질 분열과 내분을 조장하여 한국인들로 하여금 항일독립운동세력에 대한 염증을 느끼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째는 抗日秘密結社를 양성화시킴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규제를 쉽게 하려는 전술적인 술책에 의한 것이었다. 이처럼 일제의 교활한 책략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國內外 정세는 抗日獨立運動勢力들에게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민족통일전선의 형성이 요구되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27년 1월 2일에 신간회는 창립발기인을 선출하고 宣言書와 行動綱領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신간회는 공산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의 民族統一戰線이었다. 自治를 주장하던 崔麟 등 新派와 결별한 權東鎭 등 天道敎舊派, 東亞日報가 주창한 자치에 참가하였다가 결별한 朝鮮日報의 申錫雨系, 社會·共產主義의 火曜·北風·서울系가 그 토대였다. 이후 朝鮮民興會와의 합동이 진행되어 확대·강화된 신간회의 창립대회가 同年 2월 15일 하오 7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3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날의 회의는 李商在를 회장, 權東鎭을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선언서와 강령을 채택한 후 간사 35명을 선출하여 간사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한 다음에 만세삼창으로 끝났다.

본회의 목적과 방략은 강령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민족적 역량을 집결하여 항일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기주의와 안일을 탈피하여 사회정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이 강령은 일제식민지 통치하에서도 결코 이 민족의 생명력은 말살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독립의 대전제인 민족의 주체성의 정립을 동포에게 호소한 자각의 표현이라 하겠다. 서울에 본부가 설립되면서 지방에 지회가 결성되고 일본에 까지 지회가 조직되면서 가장 활동이 활발하였던 1931년에는 전국지회가 141개소, 지회설립 준비지 6개소, 도지회연합회 2개소, 회원총수 39,410명이었다.

道別 支會數는 南部의 慶尙南北道·全羅南道와 東北部의 咸鏡南北道에 支會가 많고 中北部

및 西北部에서는 적었다. 會員의 직업별 구성에서 농민·노동자·상인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3·1독립운동 당시와는 항일운동의 주체가 크게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간회 지방지회의 활동은 눈부시게 전개되었으나 서울의 본부는 창립 이후 한번도 전체회의를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방지회에서는 중앙본부의 활동을 비난하고 항의를 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는 본회가 급속히 확대되어 활동범위가 넓어지자 일제가 定期大會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제가 항일독립운동세력을 노출시켜 이들을 와해하거나 동아일보가 주창한 自治運動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농민운동·노동운동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일제가 탄압을 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회의 大邱支會는 1927년 9월 3일 宋斗煥·李慶熙·張仁煥·徐萬達·李康沃·李旺魯·柳淵述·李昆熙·李淳熙·金光鎮·蔡忠植·李善長·具滋德·柳懷東·徐丁洙 등 200여 명의 우국인사들이 모여 朝陽會館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⁶⁵⁾ 초대 지회장에는 이경희가 선임되었는데 이경희는 1923년 3월 義烈團爆彈暗殺陰謀事件에 연루되어 징역 1년을 복역한 사람이었다. 이해 12월 26일 新幹會 大邱支會는 총회를 열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방법을 토의하였다. 그 토의 안건 중에는 첫째 한국인 착취기관의 철폐와 이민정책 반대운동촉진, 둘째는 타협적 정치운동 배격, 셋째는 1919년 制令 및 조선인에 대한 特秀取締法規철폐, 넷째는 郡農會 폐지운동, 다섯째는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 실시촉구, 여섯째는 학생의 과학사상의 양양과 연구의 자유권 획득, 일곱째는 보통학교의 교수용어로 조선어사용의 허용, 여덟째는 제국주의의 식민지교육정책 반대 등이다. 이들 제 안건은 사전에 日警에 누설되어 그 압력으로 철회되고 말았지만, 본회의 항일투쟁 방향은 민족의식의 각성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간회의 활동은 농민운동·노동운동·학생운동에 대하여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이 되도록 투쟁목표를 구체화시키는데 있었던 것이다.

1928년 6월 1일 鄭太鳳·文相直·張泰遠·柳尚默·盧且用이 체포된 ㄱ黨事件(일명 정태봉사건)은 신간회 대구지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이들은 신간회 회원으로서 1928년 5월 중순경에 문상직과 노차용의 숙소였던 大邱府 京町 許位成의 집과 정태봉이 거주하고 있던 신간회 대구지회내에서 모여 조선의 현상을 논하고 현재의 신간회와 權友會 같은 막연한 표면운동만으로는 도저히 조선의 독립을 이룩할 수 없으니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秘密結社 ㄱ黨을 조직하였던 것이다.(비밀결사 ㄱ당사건 참조)

여기에서 이들은 우선 일반인의 각성을 촉구하여 민족실력양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그

65) 新幹會 大邱支會에 대해서는 《慶尙北道史》中卷, pp.385~392 참조.

실행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 자금으로 만주에서 농경지를 매수하여 농민을 이주시키고 이곳을 근거지로 내외의 연락을 취하면서 활동을 하는 한편으로는 적당한 사람을 선발하여 中國廣東軍官學校에 입학시키는 등 실력의 양성을 계획하였다. 同年 6월 11일 慶北 達城郡 解顔面 屯出洞 金教式을 찾아가 雜誌發行資金이라 칭하고 5천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권총으로 위협하였다. 그래서 약속어음을 부쳐 받기로 약속하고 돌아온 후 이 사실을 탐지한 일경에 의해 6월 17일 체포되었던 것이다.(비밀결사 文相直 事件과 一黨事件 참조) 이 사건에 연루되어 대구지회 총무인 정태봉과 상무간사인 장태원은 징역 3년, 부산지국 간사인 이강희, 조선일보 간사인 류상묵은 징역 2년을 언도받았다.

이들은 모두 신간회 및 청년회에 가입하여 민족주의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28년 8월 16일 신간회 대구지회는 총회를 열고 집행위원장에 송두환을 임명하고 활동영역을 넓히려 했다. 그러나 일제의 간섭과 감시로 말미암아 그 목적인 바 뜻을 제대로 실현할 수가 없었다. 당시 조선일보 기자로서 신간회운동에 참여했던 이선장에 따르면 조선일보 대구지국장 장인환은 서울에 자주 드나들면서 신간회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대구지회가 결성되자 총무직을 맡았다고 한다. 그때 대구의 유력한 인사들이 신간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므로 일제관헌들의 감시와 탄압이 전국에서 가장 심하였고 본부와의 연락이나 왕래, 서신 거래가 통제되었다. 일제는 이들을 要視察人物로 지목하고 豫備檢束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니 대구 시내에서만도 요시찰 인물이 200여 명에 달했던 것이다.

신간회 대구지회에서 사용되던 경비는 주로 白南採와 李萬榮이 맡았다. 또 蔡忠植 같은 사람은 칠곡에서 교원으로 있다가 교원직을 그만 두고 신간회일에 몰두할 정도로 회원들의 조국광복을 위한 열의는 대단했다. 1928년 11월 大邱高普·大邱農林學校·大邱商業學校生을 중심으로 한 赤友同盟·眞友同盟 사건과 동년 李鍾學·金仁倍 등 수명의 학생에 의하여 조직된 제 1차 學生前衛同盟事件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사건은 신간회 학생부를 매개체로 조직화된 비밀결사가 민족운동으로 승화된 것이었다.(이에 대해서는 大邱學生秘密結社事件 참조)

1929년 光州學生運動의 여파로 대구에서도 항일학생운동의 열기가 고조되었다. 이때 대구고보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諺文研究會와 白望會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1929년 11월 2일 대구고보생 韓鎔·金仁達·姜仁晚·李鍾河·崔在형 등이 日警에 끌려가 문초를 받게 되었다. 이때 신간회 대구지회장 장인환과 송기찬·郭振榮 등 기자출신의 신간회원들이 앞장서서 그 부당성을 당국에 항의하고 사건의 경위를 신랄히 보도·비판하였다. 그러나 1930년 8월 31일 대구 시내에 격문을 살포한 신간회 대구지회 간부 李康沃·柳懷東·徐丁洙 등 3명이 피검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李旺魯 같은 회원은 이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31년 5월 신간회가 자진 해산될 때까지 大邱支會를 운영하였던 것이다.

IV. 義烈團의 武力抗日運動

義烈團은 武力抗日結社運動 중에서 가장 눈부신 활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 출신의 인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항일 무력단체였다.⁶⁶⁾ 3·1독립만세운동으로부터 8개월이 지난 1919년 11월 9일 밤 滿洲 吉林省 把虎門 밖 중국인 潘某의 집에 모인 독립지사들은 밤을 세워가면서 獨立秘密結社를 숙의한 결과 이튿날인 11월 10일 아침에 의열단의 성립을 보게 된 것이다. 본단이 처음 조직될 때 단원들은 각지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들의 활동이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여 혁신적인 독립운동을 지향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의열단의 명칭이 그 조직공약 제1조에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천하의 정의의 事를 맹렬히 실행시킬 것”이라는 목적이 전제되고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신명을 희생시킬 것”을 천명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본단의 단원들은 일정한 주소를 가지지 않고 상호간에도 점조직으로 연결되어 비밀을 엄수하며 폭력을 유일한 수단으로 삼아 활동을 하였다. 무력항쟁을 통하여 일제 조선총독부의 통치기능 마비와 군자금모집을 위한 활동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등 국외까지 활동 범위로 하여 총독부요인·관리·군경 및 친일파를 암살하고, 나아가 일제의 침략기관을 파괴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일제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었으며 막대한 군경의 투입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다 주었다.

당초 본단을 조직한 단원은 金元鳳·尹世胄·李成宇·郭在驥·姜世宇·李鍾岩(일명 梁健浩) 등 13명이었다. 본단은 창립 후 곧 그 근거지를 北京으로 옮기면서 북경과 上海방면의 우국지사들을 포섭함으로써 1925년경에는 약 70명의 결사적 단원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국내외의 동지를 규합함과 동시에 암살대상자와 폭파대상을 정하여 폭탄제조법과 그 외 폭파법을 수련하였다.

단장은 창립 이래 계속 김원봉이 맡았으며, 金大地가 배후에서 김원봉의 고문역할을 하였고 丹齋 申采浩가 정신적 지주로 활동하였다. 후기에는 상황이 달라지지만, 적어도 초기에는 金九·金奎植·金昌淑을 고문으로 하여 중국 蔣介石 정부의 후원을 받으면서 臨時政府의 別動隊

66) 염인호, 《김원봉연구-의열단, 민족혁명당 40년사》, 창작과비평사, 1992.

역할을 하였다. 본단의 활동내용으로는 1920년 3월 密陽 및 進永에서 일어났던 爆彈密搬入事件을 필두로 釜山警察署 爆彈事件, 密陽警察署 爆彈事件, 朝鮮總督府 爆彈事件, 黃鉦警部事件, 鐘路警察署 爆彈事件, 東京二重橋 投彈事件, 東拓 爆彈事件과 그 외의 資金募集事件 등을 들 수 있다.

대구지역과 관련되는 의열단의 대표적인 항일 무력운동은 大邱 朝鮮銀行支店 投彈事件이다. 이 사건은 의열단원인 張鎭弘이 1927년 10월 8일 조선은행 대구지점 등 9개소를 폭파하려다가 실패한 의거이다.⁶⁷⁾ 장진홍은 漆谷郡 仁同面 출신으로 仁明學校의 학생때부터 당시 교사였던 애국지사 張志必의 애국사상에 심취하였다. 그는 1914년 19세 때 조선 보병학교에 입대하였고, 제대한 후에는 고향동지 李乃成과 함께 光復團에 가입하였으며, 1918년 7월 만주로 건너가 善山郡 출신의 金正默·이국필 등과 함께 러시아의 하바로브스크로 갔다. 여기에서 그는 교민 청년 1백명을 모아 군사교육을 실시했으나 러시아의 국내정세 불안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때 국내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발발하자 그는 곧 귀국, 약장사로 가장하여 각지를 돌며 포악 무도한 일제의 만행을 조사하였다. 이것을 당시 인천항에 정박중인 미국군함에 소속되어 있는 경북 출신 金相哲에게 부탁하여 미국으로 돌아가서 英文으로 인쇄하여 세계 각국에 배부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는 많은 애국지사가 親日로 전향하려는 등의 분위기가 확산되자 민족의 혼을 일깨우고 세계만방의 耳目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강경한 폭탄투척의 방법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장진홍은 죽마고우인 李乃成을 만나 주요 관공서, 은행, 친일부호의 집을 폭파하자는 의논을 거듭하였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성능이 우수한 폭탄의 구입이었다. 이때 장진홍은 이내성의 주선으로 國際共產黨特派員 日人 堀切茂三郎을 소개받아 그와 더불어 거사를 위한 협의를 하고 그로부터 다이ना마이트 뇌관 4개, 도화선 약간을 교부받고 폭탄제조법을 배운 후 자금 50원과 國際共產黨決死隊員證을 교부 받았다.

한편 永川에서 여인숙 및 약업상을 하면서 직·간접으로 독립운동가를 돕고 있던 金基用은 당시 이곳에서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던 小林峰次에게 접근하여 약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전후 2회에 걸쳐 다이나마이트 30개, 뇌관 30개, 도화선 25척을 15원에 매입하였다. 이들은 먼저 폭탄 수개를 만들어 폭음방지를 위해 칠곡과 선산의 郡界地域 산골에서 시험폭파를

67) 지중세 역편, 《조선 사상범 검거 실화집》 돌베개, 1984, pp. 125~157와 慶北警察部, 앞의 책, pp. 318~322, 《慶尙北道史》中卷, pp. 376~378, 《조선일보》, 1930년 2월 18일자 참조.

한 후, 폭파대상을 관찰사·경찰부장의 사택·도청·조선은행 및 식산은행 대구지점·법원·형무소·동척대구지점·대구경찰서·친일부호 張吉相의 집 등 9개소로 정하였다.

1927년 10월 16일 장진홍은 폭탄 5개를 자전거에 싣고 姉兄 金商翰의 집으로 가서 一泊한 뒤 이튿날 폭탄 4개를 각각 선물용 벌꿀상자에 넣어 포장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폭용 1개를 남겨 두었다. 동월 18일 오전 일찍 그는 폭탄상자를 자전거에 싣고 덕흥여관으로 가서 투숙한 후 종업원 朴魯宣에게 부상으로 4·5일간 숙박할 것이라 하면서 객실에서 4개의 폭탄에 점화한 후 감쪽같이 포장하여 경찰부장·도청·조선 및 식산은행 대구지점장 앞으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종업원 박노선은 제일 먼저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들러 선물이라며 창구에 폭탄을 들이 밀었다. 이를 받은 서무계 吉村계 주임은 뇌물인 줄 알고 위장된 선물꾸러미를 풀어보니 다이너마이트폭탄이 도화선에 불이 붙은 채 타 들어가 당장 폭발할 상황이었다. 포병장교 출신인 그는 얼른 도화선의 불을 끄고 즉시 경찰에 연락하였고, 종업원 박노선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나머지 3개의 폭탄은 재빨리 은행 밖 길가에 옮겨 놓았으나, 곧 폭발하여 일경·은행원 등 5명이 중상을 입고, 은행 유리창문 70여매가 깨어졌다.

백주에 시내 한 복판에서 요란한 폭음을 듣고 달려온 인파로 인해 일대 혼란이 일어났고, 당황하고 놀란 일경들은 긴급 비상망을 펴고 범인체포에 혈안이 되었다. 장진홍은 폭탄의 전달을 부탁한 후 미리 준비해 둔 새모자와 구두로 변장을 하고 신원이 전혀 노출되지 않은 채 善山郡으로 잠적해 버렸다. 조선은행 폭탄사건이 소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 장진홍은 다시 제 2차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는 강력한 동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1928년 11월 安東郡 西後面에서 친척관계에 있는 매약행상 張容熙를 동지로 포섭하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폭탄을 투척하여 암살·파괴의 직접 행동에 종사할 것을 상호 서약하고 安東警察署와 銀行을 폭파하도록 했으나 장용희가 도중에 병사함으로써 계획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 후 1929년 1월 평소 친교가 있던 영천읍내에 거주하며 여인숙업을 경영하고 있는 金明淑과 金基用을 최적임자로 인정하고 장진홍 자신이 大邱鮮銀 爆彈事件의 범인임을 이들에게 말하고 함께 활동할 것을 권유하여 포섭하였다. 이들은 영천경찰서 및 영천읍내의 부호 李仁錫의 집에 폭탄을 투척하려는 파괴 및 암살을 계획하고 폭탄 2개를 제조하여 김기용이 기회를 엿보던 중 체포되었다.

이 사건의 발생 후 경북경찰부는 도내 경찰 1천 6백명을 투입하였으나 해가 바뀌어도 단서조차 잡지 못하였다. 다급해진 일경은 전에 독립운동에 종사한 바 있는 李定基 외에

8명을 체포하여 악독한 고문에 의해 진범으로 꾸며 법정에 세우기도 했다. 이 때 詩 ‘청포도’로 유명한 李陸史도 재판에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범인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장진홍은 풍각장으로 가장하고 각지 장바닥을 누비며 손푼금을 유유히 타며 도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도피하는 데 위협을 느낀 나머지 1928년 2월 일본에 있는 동생 張義煥에게 잠행하였다. 이때 경북 경찰부 고등계의 악명 높은 주구 崔錫鉉은 무슨 김새를 감지했는지 동료들과 함께 동경으로 건너가 장의환의 집에 잠복해 있다가 불의에 장진홍을 습격하여 체포하였다.

그 후 그는 1·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있다가 1930년 7월 5일 밤 11시 14년 동안의 조국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청산하고 35세의 젊은 나이로 자살하고 말았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감방죄수들은 “장진홍의사 만세”·“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며 감방을 부수고 나와 장진홍의 시신 옆에 모여 대성통곡하였고, 이후 단식투쟁을 전개하면서 모든 사역을 거부하기도 하였다.⁶⁸⁾

이처럼 대구조선은행 투탄사건은 본단이 지향한 독립운동의 방략과 단원들의 활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은 민족의 독립운동정신을 자극시키는 한편 일제에 커다란 위협을 주었으며, 더구나 한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세계의 여론을 환기시켰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향토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단의 중심인물들이 경상남북도 지역의 인사로 조직되어 있었다는 점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지역이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V. 女性運動

한국의 여성운동은 3·1독립만세운동 이후, 즉 1920년대 民族實力養成運動을 중심으로 하는 文化啓蒙主義的 民族運動이 전개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여성운동은 종래 여성의 지위가 열등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해방을 목적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따라서 여성운동은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면서 女性啓蒙과 教育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당시의 여성운동은 자연히 民族解放運動과 여성운동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운동도 1920년대 초기에는 계몽주의적 성격이 강하였고, 중기부터는 社會主義的 女性運動으로 점차 전환되었으며, 말기에는 統一的 女性運動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⁶⁹⁾

68) 《조선일보》, 1930년 8월 2일자와 1930년 8월 29일자 참조.

69) 丁堯燮, 〈日帝治下에 있어서의 韓國女性에 대한 教育政策과 그 抵抗運動에 관한 研究〉《亞細亞女性研究》 9, 1970, 朴容玉, 〈1920年代初 抗日婦女團體 指導層 形成과 思想〉《歷史學報》 69, 1976 참조.

대구지역은 경북지역과 마찬가지로 유교적인 분위기가 강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⁷⁰⁾ 그러나 대구지역에서는 7개의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宗教團體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教育團體·權友會·社會主義團體 순이었다. 종교계통의 여성단체가 많은 것은 教會를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에 단체가 조직되기 용이한 반면에 일반사회에서는 여성단체조직이 그다지 용이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종교계통의 여성단체를 여성운동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그들이 순수 종교활동 이외에도 일반 여성운동의 성격을 갖는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종교적 여성운동단체는 그 대부분이 基督教系統의 여성운동단체이며, 교육단체 중에서도 기독교단체이면서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서 1920년대 대구지역의 여성운동단체는 기독교계통의 계몽주의적 여성운동단체가 가장 많았던 것이다.⁷¹⁾ 이 중에서도 1924년 4월 1일에 命道學院을 조직하여 學齡超過한 여자와 出嫁婦女를 교육하였던 大邱女子基督青年會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종교계 여성단체는 주로 선교활동, 그리고 여성계몽과 여성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포교에 주력하는 한편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강연회·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혹은 야학이나 각종 학원을 설립하여 교육에 힘썼다. 1922년 12월 9일 대구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는 南城町 禮拜堂에서 朴淑容이 “대세의 변천과 우리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孫袂禮가 “여자교육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또한 大邱耶蘇教會女子傳道會에서는 傳道講演團을 조직하여 1922년 1월 2일 宜寧郡 上井里耶蘇教會에서 李善愛가 “인생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李受恩이 “가치있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南山耶蘇教會 女傳道會나 南城町教會 女傳道會 등에서는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였는데 연사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각기 자기 주장을 하고 심판자가 승패를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1922년 5월 29일에 명예와 재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고, 1922년 2월 13일에 남성 정교회여전도회는 여자가 남자와 동등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1924년 3월 17일부터 3일간 萬鏡館에서 음악무용대회를 가졌다. 이처럼 강연회나 토론회에서는 여권문제·인생문제·여성교육문제를 중심으로 당시 여성운동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주제들이 다루어 졌던 것 같다. 따라서 대구지역의 여성운동 중에서 기독교청년회는 주로 강연회에, 여전도회는 주로 토론회에, 夜學의 경영에 대해서는 두 회가 모두 주력하였음이 드러난다.

70) 《慶尙北道史》中卷, pp. 259~264와 pp. 408~417 참조.

71) 金哲子·趙燦錫, 〈1920年代 嶺南地方의 女性運動〉《仁川教育大學論文集》14, 1979.

교육단체로는 大邱女子青年會·大邱府全基督女子青年教育會 등이 있는데 이들 단체들은 지적인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해서 여성을 계몽하고 교육시킬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도 종교적 여성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강연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는데 강연회로는 金順福의 ‘참사람’, ‘조선이 구하는 여성’, 趙成恩의 ‘나’, 俞仁卿의 ‘지혜’ 등을 들 수 있으며, 토론회로는 대구기독교여성청년교육회에서 ‘조선인의 급선무가 教育乎아 實業乎아’라는 논제로 羅貞洙·李永玉·崔淑伊가 교육부문에, 金守烈·朴守義·尚福卿이 연사로 나서고 趙永守가 심판을 하였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대구지역의 여성운동은 경상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활발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운동에서 반드시 논급되어야 할 단체는 權友會이다. 權友會大邱支會도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주로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강연회는 1928년 근우회대구지회가 朝陽會館에서 개최한 李命錫의 ‘모성에 대한 片感’, 丁七星의 ‘여성으로 본 현대사회’, 朴昊辰의 ‘조선여성운동의 당면문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여성문제 대강연이 있었고, 토론회로는 1928년 10월 18일 同회관에서 ‘가정불화의 원인은 남자? 여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夏期討論會를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28년 5월 5일 東村 錦湖江으로 春期遠足會를 실시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들 단체들은 여성계몽과 지위향상을 위한 강연회·토론회와 야학강습을 실시하였고 演藝·娛樂活動을 전개하여 여성운동을 촉진하였던 것이다.

VI. 青年運動

3·1운동 이후 일제의 武斷政治가 소위 文化政治로 전환되면서 한국의 民族運動은 문화주의적 민족운동이 그 주류를 이루게 되어 民族實力養成運動이 크게 대두하였다. 1920년대의 이러한 경향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각종 청년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조직되어 각종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청년운동도 192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단체와 민족주의 계열의 청년단체로 분립되어 갈등을 빚게 되었으나 1920년대 청년운동은 각 지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청년운동은 1923~1924년경에 이르러서는 소위 신진청년들에 의해 점차 좌경화되어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다. 대구에서는 1923년 12월경에 이미 尚微會라는 사상연구단체가 발족되고, 청년단체로는 第四青年會가 1924년 12월 16일에 최초로 창립되어 그 후 계속해서 大邱青年同盟, 我求青年同盟, 大邱無產青年會, 大邱裁縫工青年會 등이 창립

되었다.⁷²⁾ 이들 단체들은 물론 그 이전부터 있어온 기존 청년운동단체라 할지라도 이러한 시세의 흐름에 따라 사회주의적 경향으로 점차 전환되었던 것이다.

1924년 이후 사회주의적 성격을 띤 제2의 청년운동이 맹렬히 일어나면서 한편으로는 대구지방에서 청년운동의 통일을 기하고 또 지방의 특수한 여러가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慶北地方青年大會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즉 1925년 2월 10일경 大邱青年會에서 경북지방청년대회 개최를 위한 발기회를 동 2월 20일 安東에서 갖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울에 있는 朝鮮青年總同盟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을 하고 동 2월 25일에 大邱青年會館에서 그 준비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청년총동맹 주최 경북지방청년대회는 당시 경찰의 적극적인 금지로 金泉에서 대구로 장소를 옮기고 날짜도 3월 15일로 다시 변경하여 개최케 되었는데 이것마저 일경이 금지함으로 할 수 없이 朝陽旅館 樓上에서 午餐會를 열고 懇談會의 형식으로 대회를 치르고 말았다.

한편 3월 20일 대구청년회관에서 개최된 대구청년회 주최 경북지방청년대회도 역시 경찰당국의 금지와 또 조건부적 간섭 아래 茶話會 형식을 띠고 겨우 열렸다. 이처럼 경북지방청년대회 개최를 놓고 대구청년회와 조선청년총동맹간에 불화를 일으킨 것은 결과적으로 경북지방청년운동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여름을 지나고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청년운동의 조직적 통일을 도모키 위해 한편으로는 府郡內 각 청년단체를 망라하는 府郡聯盟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道聯盟을 결성하려는 새로운 운동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1927년에 들어서서는 더욱더 조직화되어 一郡一青年會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구청년동맹에서는 경상북도청년연맹 조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여 1925년 11월 10일 대구에서 발기대회를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경의 금지로 이들의 의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1928년에 이르러 1월 9일부터 2일간 金泉青年同盟會館에서 慶北記者大會가 개최되게 되었는데, 이때 도내 청년운동자들의 집합이 많음을 이용하여 대회를 마친 후 8일에는 김천청년동맹 주최로 경북청년운동자 懇親會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모임에서 오랜 숙원으로 남았던 경북청년연맹을 조직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그 자리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때 본 연맹의 강령과 규약은 조선청년총연맹 경상북도연맹이 창립을 보게 되고, 그 이하 府郡에는 府郡青年同盟, 그리고 각 面에는 同盟支會가 각각 결성되는 통일적인 조직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 당시 대구지역에서 조직된 청년단체 수는 28개로서, 다른 지역의 청년회와 마찬가지로

72) 대구지역의 청년운동에 대해서는 《慶尙北道史》中卷, pp. 255~259와 pp. 417~440 참조.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교육활동이었는데, 청소년들의 지식계발이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였기 때문에 勞動夜學·女子夜學 등 각종 夜學會, 講習所 등을 설립하거나 유치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 외에도 도서관이나 문고를 개설하고 학교기성회를 조직하여 기존의 정규학교를 후원하거나 새로운 학교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중의 교화·계몽을 위해서는 강연회와 토론회·웅변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定期·臨時·巡廻·學術講演會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려졌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생활전반에 걸친 다양한 것이었다. 특히 대구지역의 청년회는 서울에서 개최되던 全朝鮮野球大會를 대구에서 개최할 정도로 체육활동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따라서 대구지역 청년단체들의 활동도 다른지역의 청년단체들에서 행했던 활동과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했을 지라도 그 활동력은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VII. 少年運動

3·1運動을 계기로 하여 국내외의 獨立運動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즉, 3·1독립운동 이후 항일 민족운동은 國權恢復과 自主獨立을 위한 民族實力養成運動으로 분화·정비되면서 조직화되어 갔다.⁷³⁾ 소년운동도 1920년대를 맞이하여 학생운동이나 청년운동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여건과 요망 속에서 일어났다. 이전에도 子童會나 少年同志會, 大韓少年會가 조직되었으나 安邊과 倭館 등지에서 조직된 安邊少年會(1919)·水原빛모듬·會寧模範少年契와 倭館少年會는 소년운동단체의 효시가 되었다. 萌芽期의 이러한 조직들은 童話나 학습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 소년회로서 출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관헌이나 지방 공립 보통학교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 목적마저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소년운동계에 자각을 불러 일으키고 기성사회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소년회가 다수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한 것은 少年獨立運動團體인 晉州少年會였다. 본회는 1920년 8월 20일경 20세 이하의 학생들로서 조직되어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거사 계획이 탄로되어 1921년에 간부 8명이 체포되어 형을 받았다. 따라서 진주소년회의 형성과 그 활동은 한국소년운동계에 큰 자각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73) 日帝下의 少年運動에 대해서는 吳世昌, 〈日帝下 韓國少年運動史研究〉《民族文化論叢》13, 1992,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와 《慶尙北道史》中卷, pp. 440~445 참조.

그 후 서울을 비롯하여 城津·完州·醴泉·茂長·金泉 등지에서 각종 소년단체가 급격히 생겨남으로써 소년단체는 개화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1921년 5월 小波 方定煥이 조직한 天道敎少年會는 전국 소년운동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천도교소년회의 방정환은 金起田·李定鎬와 함께 ‘잘 살기 위하여’라는 연제로 전국 각지를 순회강연하였고, 특히 이정호는 ‘세계일주 동화집’, ‘사랑의 학교’ 등의 동화집을 내기도 하였다.

천도교 소년회는 창설 당시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 감시다.”라는 표어를 내걸었으며, 순회 강연시의 강연 내용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장차 잘 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이었다. 또 천도교소년회는 1922년 봄 어린이날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었으니 이것은 전국 소년회 단체들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기 1년 전의 일이었다.

한편 1921년 12월 10일 서울에서는 전국적인 소년단을 조직하기 위한 운동이 뜻있는 선각자들에 의하여 계획된 이듬해인 1922년 10월 5일 中央高等普通學校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趙喆鎬 외 여러 유지들의 발기로 朝鮮少年軍을 조직하고, 同日 오후 4시 30분경에는 중앙학교 후원에서 발대식을 가졌었다. 소년군의 조직을 위해 1921년 12월 10일 모임에서 범세계적인 순수한 소년운동과 일제하에서 소년운동의 방향을 예의 검토하면서 連日 일경의 눈을 피해 토론을 거듭하였다.

이렇게 신중한 토론을 거쳐 1922년 2월 1일 朝鮮靑年聯合會 안의 朝鮮少年團創立事務所를 설치하고 조선소년단창립취지서를 발표하였다. 이 취지서에서는 “인물 개조의 본위는 소년에 있고, 소년문제를 해결함은 조선의 운명을, 아니 세계의 운명을 개척함이라”고 하여 국가의 초석으로서 소년을 계발시키겠다는 강한 집념과 목적의식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민족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세계 공통적인 소년군의 전형을 빌어서 어디까지나 독특한 한국적인 소년군으로 육성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철호는 소년군을 조직한 후 이것을 선전하기 위하여 仁川과 水原 등지를 비롯하여 金泉·進永·金海·宜寧·晉州·泗川·三千浦·南海·麗水·河東·統營·梁山·東來·蔚山·密陽 등지를 순회하면서 그 취지와 아울러 그 사업을 공개하는 등 선전강연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처음 여덟명만으로 출발했던 소년군이 불과 1년만에 전국회원이 160여 명으로 늘어났고, 모두 여덟개의 虎隊로 그 조직이 확장되었다.

한편 조철호가 조선소년군을 창설했을 거의 비슷한 무렵에 서울 鐘路 中央基督靑年會의 간부로 있던 鄭聖采가 同靑年會內的 소년부 부원들을 중심으로 少年斥候隊를 조직한 바

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두 계통의 보이с카우트 조직이 전국적으로 생겨나서 소년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24년 3월 조철호와 정성변은 통합을 협의한 결과 朝鮮斥候隊朝鮮總聯盟 發起會를 열고 새로운 헌장을 제정하여 당시 朝鮮日報 社長 李商在를 總裁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조·정 두사람은 보이с카우트운동에 대한 방법과 지향이 서로 맞지 않아 발전에 큰 문제로 되었다. 그리하여 조철호는 同年 총연맹으로부터 분리 탈퇴하여 朝鮮少年軍總本部라 개칭하고 보이с카우트운동에 바탕을 둔 한국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소년군의 양성에 들어갔다.

그 후 이 두 단체는 서로 분리되어 보이с카우트운동을 벌였는데 1925년 10월 현재로 연맹측 단체는 전국을 통하여 12개 단체였고, 총본부측 단체는 25개 단체였다. 이와같이 분리되어 활동하였으나, 이 단체의 조직과 활동은 소년운동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조철호와 정성변 등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년군운동은 점차 고조되면서 地方虎隊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대구에서도 1924년 2월 5일 조직된 大邱少年會, 同年 2월 大邱少年勞動會, 1925년 4월 21일 大邱少年育英會를 토대로 소년군 조직을 계획하던 중 대구 조양회관에서는 1927년 6월에 대구의 여러 유지들을 모아 소년군 조직을 위한 贊助會를 조직하였다.⁷⁴⁾ 본 회는 소년군 조직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양성이 시급하다고하여 조선총연맹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강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총연맹에서는 간사장 정성변과 玄東完을 강사로 선정하여 대구로 파견하였다. 이 강사들은 7월 3일부터 3일간 15명의 강습회원을 모아 지도자 교양훈련과 야영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구소년척후대의 조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그러나 그 후 대구에서는 이 소년군의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시내 소년운동 단체 관계자들은 소년문제를 좀 더 조직적으로 선전하고 연구하고자 1923년 4월 17일 天道敎少年會에서 少年運動協會라는 일종의 연합기구를 만들었다. 곧이어 소년운동협회 주최하에 同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였는데, 이 날의 제정은 한국소년운동사상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년운동의 전진적이고 역사적인 발전은 천도교소년회와 방정환·고한승 등 9명이 동경에서 조직한 색동회가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7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색동회와 어린이社 주최하에 전국에 있는 소년운동 지도자들을 처음 한자리에 모이게 한 全朝鮮少年指導者大會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74) 대구지역의 소년운동에 대해서는 《慶尙北道史》中卷, p. 442와 p. 444 도표 참조.

전국 소년운동 지도자들의 친목과 자질향상은 물론 보다 조직적인 소년운동에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후 1925년 5월 24일에는 佛敎少年會와 半島少年會의 발기로 불교소년회·반도소년회 외에 새벗會·明進少年會·朝鮮青年會少年會·中央基督教少年會·天道敎少年會 대표자들이 모여 京城少年指導者聯合會 발기회를 가지고, 無產少年運動을 표방한 五月會를 조직하였다. 이후 소년운동은 소년운동협회와 오월회에 의하여 주도되었는데 방정환을 위원장으로 하는 朝鮮少年聯合會로 개칭될 때까지 계속되었다.⁷⁵⁾ 그러나 오월회의 조직은 소년운동계에도 좌익사상이 침투되어 순수한 소년운동의 발전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분열과 파쟁이 일어나 소년운동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26년에 접어들면서 소년운동은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그 이유는 좌익계의 침투와 소년운동단체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격심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원래 소년운동의 목적은 소년들의 개성을 신장시켜 유용한 재간을 양성하여 社會公共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는데 있었으나, 일제하에서 전개된 한국의 소년운동은 제 2세 국민에 대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는데 우선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일제는 이들의 활동을 경계하였던 것이다. 특히 조철호는 철저한 민족주의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그가 조직한 조선소년군총본부는 노골적으로 배일사상을 고취하고 있었다. 또 매년 5월 1일(그 후 5월 첫째 일요일)의 소년DAY를 기하여 각종의 선전물을 각지에 배포하고 민족의식의 환기와 조선소년군의 선전에 노력하여 일제의 신경을 자극하였던 것이다. 이에 일제는 소년운동에서 나타나는 항일정신 내지 항일 민족주의운동을 사회주의사상 내지 운동으로 몰아 부치고 탄압을 하였던 것이다.

일본·제국주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실력의 양성이었고, 미래의 독립을 이룩할 주체세력의 양성을 위한 인간개조가 가장 급선무였다. 그러므로 소년운동을 통한 민족실력양성의 합법화 내지 항일운동의 모색을 위해 조직되는 각지의 소년운동단체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증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朝鮮少年總聯盟이 無產少年運動으로 돌입하면서 일제의 탄압과 검거선풍이 대대적으로 실시되면서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합법적으로 民族實力養成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民族主義 계통의 소년운동도 점차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937년 대륙침략을 계기로 사상통제의 일환으로 소년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이 내려짐으로써 少年運動은 중지될 수 밖에 없었다.

75) 소년단체들의 좌우익 분열과 대립에 대해서는 吳世昌, 앞의 논문, pp. 177~182에 자세히 논급되어 있어 이 부분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

VIII. 衡平運動

형평운동은 일제하인 1923년부터 1930년대 말까지 행해졌던 白丁들의 신분해방운동이다. 이들은 대개 도살이나 육류판매·유기제조 등에 종사하였다. 1894년 甲午改革時에 법제적으로는 신분제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까지도 사회관습상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운동은 1923년 3월 3일 日本에서 일어난 白丁階級解放運動인 水平運動으로부터 자극을 받았고 국내적으로는 백정 자녀들의 입학거부가 직접적인 동기였다. 이러한 당시의 형평운동은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여 봉건적 신분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유일한 社會改革運動이었던 것이다.⁷⁶⁾

日本 關西地方에서 水平運動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晋州에 사는 白丁 李學贊은 일반인 姜相鎬·申鉉壽·千錫九 등의 찬동을 얻어 1923년 4월 25일 백정의 신분해방을 위한 朝鮮衡平社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社則을 결정하고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이학찬, 張志弼 등을 간부로 선정하며 사무소를 晋州에 두었다. 각지 백정들의 호응과 다액의 운동자금을 얻어 전국에 支社와 分社를 설치했는데 얼마 안가서 지사 11, 분사 67개소가 창설되면서 형평운동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간적 외침에 대하여 한국사회의 오랜 전통과 인습은 형평운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심지어는 1923년 5월 13일에 열린 형평사의 축하연에는 기생까지도 나가지 않았고 백정의 자제를 학교에 들어 놓지 않았으며 천대받기는 매일반인 노동자·빈민까지도 형평운동을 반대하였다. 1923년 5월에 晋州農民 약 2천명이 모여 衡平社解放要求運動을 전개하며 牛肉不買·부식동맹을 결성하는 등 소동이 일어났는데 1923년 중 이러한 쟁의사건은 27건이나 되었다. 이러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형평운동은 확대되어 1923년 5월 21일에 大田分社를 두기로 결의했고 同年 6월에는 忠南支社를 설립키 위한 대회가 열렸으며 同年 8월에는 金海分社가 설립되었다. 대구지역에도 1923년 5월 29일에 형평지사가 설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형평사축하식이 1923년 6월 8일에 대구에서 거행되었다.⁷⁷⁾ 더구나 1925년 8월 17일에는 醴泉事件에 지원대를 보내기도 하였다.⁷⁸⁾

76) 金潤煥, 〈衡平運動〉《한국사》22, 국사편찬위원회, 1978.

高淑和, 〈衡平社에 對한 一研究〉《史學研究》38, 1984.

——, 〈日帝下 衡平社 研究〉《史學研究》40, 1989.

77) 《조선일보》, 1923년 5월 29일과 6월 8일자 참조.

78) 醴泉事件에 대해서는 高淑和, 앞의 논문, 1984, 《慶尙北道史》中卷, pp. 264~270 참조.

그 당시 날로 확대 진전해 가던 형평운동은 1924년에는 재정난으로 운동이 어렵게 되자 그 해결책도 겸해서 동년 2월 10일 전국 49개군 300여 대표가 부산에 모여 衡平社全朝鮮臨時總會를 개최하였다. 이 총회에서 아동입학건, 사원교양의 건, 관습적 사회에 대한 건, 總督府 당국에 관한 건, 日本視察의 건, 조직변경의 건, 본사유지의 건, 지·본사유지의 건, 본사 이전의 건, 水平同志會 건(慶北 尚州에 조직된 수평동지회의 병합문제), 형평단체 미조직 지방에 관한 건 등의 의안을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백정출신이 아닌 趙佑濟·申鉉壽 등은 본사를 京城이나 大田에 이전할 것을 주장하면서 찬반 양론으로 갈렸다.

그러나 이전과는 동년 2월 13일 公州支社長 吳成煥 외 21명이 대전에 모여 衡平社革新同盟準備會를 개최하고 全羅道·忠清道·京畿道·江原道·平安道の 동인을 규합하여 형평사 혁신동맹을 조직하고 경성이나 대전으로 이전할 것을 결의했다. 다시 3월 12일 이전과 60여 명이 天安에서 형평사혁신동맹창립총회를 열었고 이에 따라 4월에 본부를 京城 都染洞 144번지에 두게 되었다. 그리고 4월 25일 전국에서 150명의 동지를 소집하여 慶雲洞 天道敎堂에서 형평운동 일주년 기념을 겸하여 衡平社革新同盟全朝鮮大會를 개최했다.

이러한 혁신파인 이전파에 맞서 보수파인 비이전파도 4월 24·25일에 형평사 전조선대회를 개최하고 시간을 두고 양파 절충하여 통일을 기하자는 타협적인 결의를 하고 진주본부도 형평사연맹총본부라는 간판으로 바꾸고 대항하였다. 이와 같이 진주와 서울의 남·북 양파는 1924년의 분열 이후 대립이 한때 심각했는데 분열의 이유는 본부의 이전, 불이전 문제가 아니라 형평운동의 방향에 관한 신·구사상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高等教育을 받은 張志弼을 선두로 하는 이전파는 일본의 수평운동의 社會主義의 노선을 본뜨려 했고 비이전파는 守舊的이어서 양파간에는 사상싸움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런데 1924년 5월 7일 백정배척을 위한 水原市場騷擾事件, 동년 7월의 충남 천안군 입장면 私立講習所의 白丁子弟事件 등이 일어났다. 여기에서 집안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 하여 형평사 사원들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양파는 1924년 7월 23일 양사통합에 관한 간담회를 대전에서 가졌고 동년 8월 15일 대전에서 형평사 통일대회를 열고 통일기관으로서 朝鮮衡平社 中央總本部를 경성에 설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6일에 조선형평사 중앙총본부임시대회를 열고 규칙제정, 조직문제 등을 토의했으며 임원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후 통합대회를 불신하는 晉州派는 同年 8월 25일 馬山에서 대회를 열고 대전대회를 신임하지 않고 양파통합을 이행하지 않았다. 京城派는 대전대회의 결의에 따라 혁신동맹

본부를 조선형평사중앙총본부로 개칭하고 동년 9월 7일에 제 1회 中央執行委員會를 개최하고 진주파에게 분규의 책임을 지워 제명할 것을 요구했던 장지필, 오성환의 퇴거를 명령했다. 그리고 10월 9일 제 2회 집행위원회에서는 마산대회에 대한 규율문란의 책임을 추구하고 만일 중앙의 결의에 복종하지 않으면 제거키로 했다.

지리적 여건, 기타 요인에 의해 진주파는 점차 경성파에 압도되어 1925년 4월 24·25일에 경성에서 열린 형평사전조선대회겸 창립 2주년 기념대회에서 진주파는 무조건 합동을 승인하고 여기에서 양파의 대립투쟁은 원만한 해결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25년 4월에 형평사는 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양파의 합작으로 형평운동은 활발해 졌으며 별동기관으로 각지에 衡平青年會, 衡平學友同盟, 衡平女性同盟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기관지 《世光》을 발행하였으나 논조가 과격하여 발행이 금지당하였다. 회원은 약 4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水平社와의 제휴운동도 벌였다. 1924년 3월에 일본의 수평사는 제휴를 제의했으나 그 당시 국내 형평운동은 분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 들이지 못했다. 그 후 양파의 합작이 끝난 1926년 일본 京都에서 개최된 水平社大會에 金慶三을 참가시켰고, 1927년에 개최된 형평사전조선대회에는 九州水平社聯合會 집행위원인 松本清이 참가하였다. 이리하여 양자는 일시 접근해지는 듯 했으나 일부의 반대의견도 있어 양자의 제휴운동은 성공하지 못했다.

1926년에는 서울과 北風派의 사회주의 세력이 가입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하는 자가 속출하고 일부회원의 사회운동과의 제휴론이 일반 회원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全鮮衡平青年會를 통일하여 사회운동진출을 꾀하는 衡平青年總聯盟이 조직되고 이러한 사상운동과의 접근을 막기 위해 正衛門이 조직되기까지 하였으며 朝鮮共產黨事件에 관련되는 자도 속출하여 형평운동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1927년 제 5회 대회에서 형평운동 본래의 운동을 하자는 결의를 하고 조선형평사 중앙총본부를 朝鮮衡平社總本部로 개칭했다.

한 때 잠잠하던 사회운동제휴론이 다시 일어나 1929년 4월의 전조선대회에서 양파의 대립은 표면화되었다. 新派는 林平山·沈相昱·李鍾律 일파를 중심으로 사회단체와의 협동전을 주장했고 舊派는 張志弼·金鍾澤·吉淳吾 등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衡平運動을 주장하여 서로 대립하였다. 회원들은 신파보다 구파를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겨우 분열을 모면하였다. 1931년 봄 衡平社를 新幹會에 흡수 해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졌고 同年 4월 24일 京城에서 개최된 衡平社

정기총회에서 신파는 장지필일과 간부들을 축출하려 했으나 대세는 구파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장지필이 집행위원장으로 당선되고 형평사해체건의안은 부결되었다.

그 후 신파의 반격으로 장지필 등 구간부들이 물러나기도 하였으나 양파의 대립은 1933년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衡平運動도 점차 수그러지고, 일부는 사회주의 운동이나 기타 운동에 흡수되어 갔던 것이다. 이처럼 형평운동은 다른 세운동에 비해 사회관념적인 측면에서의 신분해방을 위한 반봉건적인 성격이 강한 면을 지녔던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대구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형평지사가 설립되어 당시의 형평운동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IX. 學生運動

일제 식민지하에서의 항일민족운동은 3·1독립만세운동이 일제의 무력 탄압에 의해 좌절되면서 너무나 큰 희생을 당하게 되자 1920년대에 民族運動家들은 민족적 단결과 조직, 교육을 통한 각 분야에 걸친 實力養成運動으로 전환을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抗日運動도 문화계몽운동·비밀결사·동맹휴학·선전활동 등의 민족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소극적인 방법으로서의 排日同盟休學은 일제의 통치권력과 식민지교육을 거부하는 민족의식의 발로로 나타난 일종의 항일독립운동이었던 셈이다.

이 抗日同盟休學에서 표방하고 있던 강령과 행동은 무능·무자격교사의 배척, 학교시설의 충실, 일제의 축제일(紀元節·明治節)의 式典參禮忌避, 奉祝歌의 不合唱, 韓·日人 학생들의 충돌 등이었다. 이것은 3·1독립만세운동을 기점으로 밖으로 발휘되었던 저항정신이 교내로 옮겨져 反日·排日을 지향한 학생들의 항일투쟁으로 전환된 것이었고, 민족항일독립운동의 前衛隊인 학생들의 항일운동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⁷⁹⁾

3·1독립만세운동 이후 1930년에 이르는 동안 대구지역에서 항일맹휴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⁸⁰⁾ 이 맹휴투쟁은 초기에 私立學校들이 주도하였으나, 1924년부터 점차 官公立學校 쪽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였다. 맹휴는 일반적으로 日人教員에 대한 배척과 민족적 감정이 작용했으나 1924년에 접어들면서 맹휴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학생단체의 활약이 활발해지면서

79) 항일학생운동의 개요와 성격변화에 대해서는 趙東杰, 〈韓國近代學生運動組織의 性格變化〉《韓國近代民族主義運動史研究》, 一潮閣, 1988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

80) 대구지역의 抗日同盟休學에 대해서는 《慶尙北道史》 中卷, pp.445~456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 이 부분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

식민지 교육정책 내지 통치권력 전반을 향한 항일투쟁으로 전환되었다.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을 거치면서 분화된 학교단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동맹휴교라는 형태는 보다 적극적인 反帝國主義運動 내지는 反戰運動을 지향하는 學生秘密結社組織으로 전환되어 갔던 것이다.

1919년 10월 29일에 대구고보에서는 高等普通學校의 學制를 일본의 中學校와 같은 학제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맹휴에 들어갔다. 이로 말미암아 일제는 동년 12월 高等普通學校規則을 변경하였다. 1920년 10월 26일에는 日警이 戶口調査를 빙자하여 강유문의 자택에 不法家宅搜索을 행함으로써 발단된 姜裕文拘留事件으로 동맹휴학을 하였다. 1921년 11월 26일에는 2·3·4학년생이 맹휴를 모의하였다. 그후 1922년에 들어오면서 사건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한 사건들이 동년 5월 30일, 6월 1일, 11월 1일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다.

1923년 6월 27일에는 무례하고 악질적인 행동을 보이던 日人 教諭 太田健八에 대한 教員排斥盟休가 전개되었다. 그후 6월 30일 3학년 갑조, 7월 2일 2학년 을조, 7월 3일 3학년 을조, 7월 6일 2학년 을조가 맹휴에 들어가 맹휴는 7월 16일까지 계속되었다. 학생들은 날마다 鄉校 부근에 모여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다짐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던 중에 학교에서 전원 등교하라는 통고를 받고 일단 등교하였다. 이에 太田이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므로 학생들의 맹휴목적은 그들 뜻대로 관철되었다. 1924년 가을에는 3학년 尹弘基가 교내 발표대회에서 일제에 의하여 頒布가 禁止된 梁啓超의 《越南亡國史》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여 일제를 긴장시킨 큰 사건이 일어났다.

1925년 2월 및 3월에 대구고보에서 또 日人教員에 대한 배척으로 동맹휴학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맹휴학에 돌입하였다. 이에 학교당국은 大邱警察署 고등계에 연락하여 주동학생을 검거하고 동맹휴학생들에 대하여 시한부 등교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5학년과 1학년 학생은 등교를 하고, 2학년 학생들만이 맹휴를 주장하여 別動隊까지 조직함으로써 경찰이 개입할 정도였다.

대구계성학교에서도 1923년부터 맹휴가 시작되었다. 1923년 1월 29일에는 학교 승격을 요구하는 맹휴가 2월 20일까지 전개되었다. 또 1925년 11월 30일 4학년 전원이 학교측에 대하여 卒業證書를 요청하고 同年 12월 2일까지 동맹휴학을 하였으나, 학교측은 1926년 4학년 전원에게 근신처분을 내렸다. 이와 같은 일련의 동맹휴학은 표면적으로는 교원배척 내지 학교의 승격을 요구했으나, 때로는 교사간의 파벌싸움에 휩쓸린 경우도 있었다.

1926년대가 되면 항일학생운동은 3·1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전개된 국내외에 걸친 時代思潮의 발전의 영향으로 思想的 內實化를 가져오게 된다. 즉, 당시 학생단체들은 사회과학의 보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초기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반대한 교내운동에서 점차 광범위하게 일제 타도를 표방하고 나서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1926년 2월 17일 대구고보 3학년생 60여명이 1) 무자격 교원 사퇴, 2) 학생에게 행하는 압박적 교훈에 부당성 지적, 3) 조선인을 야만인이라 하여 차별적 언론을 향용하는 것 이외에 2개 조건이 포함된 진정서를 교장에게 제출하고 맹휴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담긴 진정문을 학부형들에게 발송하여 항일맹휴의 動因과 正當性을 역설하고 여론의 환기를 시도하였다. 3월 7일 학부형회에서는 조정을 결의하고 노력한 결과 3월 25일부터 맹휴생들은 학년말시험에 응하게 되어 맹휴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맹휴는 종래의 맹휴와는 달리 한층 목표의식이 뚜렷해지고 맹휴 그 자체의 조직력이 정비되어 항일맹휴의 새로운 발전에 자극제가 되었다.

이와같이 맹휴가 점차 격렬해짐과 더불어 1926년 6월 10일 항일학생운동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맹휴가 확대되었으므로 대구고보에서는 맹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사전에 위협을 하였다. 따라서 1928년 4월초 대구고보 당국은 2·3·4학년 14명에게 강제로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로 轉學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 이유는 신학기 초에 일본인 某教諭의 日本歷史 강의시간에 학생들이 교유의 李舜臣에 대한 부당한 설명에 반론을 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민족의식을 가진 학생들을 제거함으로써 집단적인 저항요인을 사전에 없애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1928년 9월 26일 대구고보 2·3학년생들은 교내외 언론의 자유 및 교장과 특정 불량교사의 경질을 요구하며 맹휴에 들어갔다. 맹휴를 주동한 학생들도 夏期放學中에 서신 등의 방법으로 항일 맹휴를 단행할 것을 연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政勢로 보아 학생들의 盟休行動이 나오기가 무섭게 학교당국은 경찰에 비상연락을 취하여 이른바 주동자 색출에 나섰기 때문에 맹휴지도학생들은 舉事前에 하숙 또는 거처를 옮겨야만 하였다. 그래서 당시 전국에서 범죄조사에는 제일이라고 자부하던 경북경찰을 한때 곤경에 빠뜨렸던 것이다. 게다가 지방학생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汽車割引券까지 얻어 두었다가 귀가하지도 않고 비밀 회합을 하며 맹휴항쟁의 확대에 노력하였고, 기숙사생들도 행장을 준비해 두었다가 맹휴가 끝날 때까지 집에 가서 기다리겠다는 말을 하고 나갔으나 실제로는 귀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2·3·4학년생들이 10월 15일 새로 맹휴선언을 함으로써 총맹휴를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들 맹휴생들은 ① 前 陳情書의 承認, ② 犧牲者의 復校, ③ 教師排斥의 添加(趙某, 越場教諭), ④ 教授時間 增加, ⑤ 校長의 失策 등을 열거한 진정서와 성명서를 2·3·4학년이 각각 학교로 우송하였다. 일제 당국은 15일 오후 경북도지사실에서 須藤知事·古橋內務課長·山地學務課長·早風大邱高普校長 등이 密議를 거듭하며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11월 7일부터 등교정지가 차츰 해제되고 11월 10일에는 訓令 제 31호가 발표되어 11월 12일 停學生의 등교정지 처분이 해제되면서 退學生은 청원하는 경우 복교를 고려하겠다는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이처럼 대구고보의 맹휴는 매우 조직적이었고 그 저항도가 매우 강하였으나 학교당국의 가혹한 조치와 경찰의 개입으로 학생운동으로서의 한계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28년 11월 19일 사립 大邱信明女子學校에서도 학생맹휴가 전개되어 ① 교장 및 교사 배척, ② 설비의 충실을 주장하였다.

大邱商業學校에서는 1929년 1월 중순에 당시 1학년 2반에 재학중인 鄭某君이 日人 同級生 H의 발길질에 의해 난로가에서 全治 3週의 치료를 요하는 火傷과 頭部破裂傷을 입었다. 럭비선수인 鄭雲均이 의분을 참지 못하여 H에게 손찌검을 한 것이 심한 상처를 주었다. 이에 日人 體育教諭 川久保는 그를 무수히 구타하여 數週의 加療를 요하는 증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격분한 1학년 학생들은 체육선생의 파면과 H를 정모군에게 사과시킬 것, 정운균의 치료비 일체를 학교측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동맹휴학에 돌입한다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학생대표 表文哲·李鍾出·石熙元 등 3人談判委員이 富永校長과 직접 면담하였으나 당국의 무성의와 교묘한 수법에 걸려 한가지도 관철된 것이 없었다. 약속한 3일이 무반응 상태에서 지나가자 1주간의 시한부 맹휴에 돌입하였다. 당초의 계획 그대로 맹휴학생들은 1週後 일제히 등교하였다. 학교 당국은 日人 學生 H의 과오와 體育教諭의 지나친 행동을 감안하고, 또 개교후 처음 맹휴한 점, 그리고 주동자 전원이 校名을 빛낸 운동선수였다가 평소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 학생도 처벌되지 않은 가운데 사태는 수습되었다.

대구에서도 光州 抗日學生運動의 여파로 술렁이기 시작하였으므로 일제 당국은 각 학교에 경계지시를 거듭하였고, 또 학생들의 동태에 비상한 주의와 경계를 하였으나 학생들의 동요는 눈에 보일 정도였다. 1929년 11월 4일 대구에서 제일 먼저 大邱農林學校가 항일 시위를 전개하였다. 일제의 감시에 의하여 전교생이 행동을 개시하지는 못하고 일부 학생들만이

愛國歌(이별의 曲)를 부르면서 시위를 하였다.

啓聖學校는 감시하는 당국과 시위를 바라는 韓民族의 기대 속에서 은밀히 움직였다. 철저한 감시의 시선을 피해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시위운동을 密議하여 제 1차 會合을 한곳이 慶北救濟會(지금 南山洞 大邱保育院자리)였다. 이 會合에서는 각 학교대표자들이 시위운동을 위한 제반사항을 熟議하고 집합장소로는 화장터 옆 들판으로 결정하였으며, 각 학교 연락책임도 분담하였다. 제 2차 각 학교 대표자 회합도 무사히 진행되어 이튿날 오전 9시에 각 학교 대표자는 소속학교 대표자를 중심으로 집합지인 達城公園까지 학생들은 동원할 것과 시위 진행의 순서와 계획을 세밀히 결정한 후 각기 숙소로 돌아갔다. 그러나 敏活한 日警들은 각 대표들을 감시하여 학교 책임자들에게 학생들의 협의내용과 동태를 알리며 사전에 처리하도록 엄중한 지시를 내림으로써 실패하였다.

한편 광주학생운동의 여파로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 항일항쟁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 오르던 중 대구고보 학생들이 諺文研究會와 白望會 등을 조직하였다. 언문연구회의 조직이 발각된 것은 1929년 11월 2일이었다. 이날 아침 경상북도 경찰부 고등계 형사들이 학생들의 가정과 하숙을 수색하여 약간의 증거품을 압수하였고, 韓鎔·金仁達·姜仁晚·李鍾河·崔在潁 등이 끌려가 문초를 받았다. 일제 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조직을 색출하고 당시 학생계를 휩쓸었던 社會主義 계통의 讀書會 조직과의 관련유무와 배후관계를 캐보려고 강압적인 위협과 회유적인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순수하고도 자발적인 의사로 諺文研究會가 조직되었다는 것이 판명됨으로써 무사히 방면되었다.

1930년 1월 3일에는 白望會(1929년 11월 7일 조직)라는 社會主義 研究會가 발각되었다. 본회가 탄로난 이유는 이 조직이 맹휴를 책동했기 때문이다. 학교당국이 경찰에 특별단속을 부탁한 학생은 2학년 5명, 3학년 6명이었다. 마침내 1월 19일에 이르러 2·3학년생 37명을 가정에 맡겨 부모로 하여금 단속하게 하였다. 그 후 2월 7일에는 2년생 姜渭達·宋泰祐·崔在潁·鄭達珠·姜仁晚·韓鎔 등과 1학년생 1명, 3학년생 1명이 맹휴를 선동하게 되자 학교 당국은 이들을 경찰에 넘겼는데 取調를 마친 뒤 다시 가정에 넘겼다. 3월 4일에는 2년 甲組 학생들이 日人 土肥教諭의 美術授業을 故意로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백망회사건의 연쇄반응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한편 1930년 1월 중순 광주학생운동의 여파로 大邱商業學校에서도 委員들이 선출되어 수시로 謀議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던 표문철은 야간의출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금조달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6인 위원은 주로 정학진과 이종출의 하숙에서 모임을 가져 2월

15일을 기하여 2·3학년 전원이 강당에 모여 맹휴를 선포하고 가두로 진출하여 大邱高普·大邱女高普·啓聖·信明을 거쳐 師範·農林學校까지 평화적인 시위행진을 한다는 내용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거사를 몇일 앞둔 어느날 아침 조회 후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표문철이 정학진에게 정보교환과 동시에 자금을 전달하는 광경을 본 3학년 某가 학교당국에 밀고하여 제 1차로 정학진·이동우·표문철 등이 경북경찰부에 연행되었고, 제 2차로 권태섭·이종출·석희원·류태룡이 연행되었다. 7명은 거사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회의 끝에 모든 모의를 순순히 자백하였다. 그러나 2주동안 모진 고문과 고초를 치루어야 했으며, 특히 표문철은 유도 업어치기에 의해 허리를 크게 다쳐 석방 후 10일간을 도립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으로 7명이 모두 무기정학 당하였으나 학년말 시험이 임박하여 1주일만에 복교되어 표문철은 杉山時治郎教諭의 집에, 이종출은 담임 多田教諭의 집에 연금되어 일거일동을 감시당하였다. 그 밖에 나머지 5명도 하숙에 감금 되다시피하여 극도로 행동의 속박을 당하였다.

또 1930년 6월초에도 동맹휴교를 결의하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발단은 3학년 1조 체육 시간에 韓人學生 P의 태도가 불순하다고 하여 日人 體操教諭 川久保가 12파운드 포환을 던져 그의 척추를 몹시 상하게 한 사건이었다. 이에 격분한 정학진·이동우·권태섭, 3학년 이종출·정운균·석희원(력비부) 등 7명은 비밀히 이종출의 하숙에 회합하여 해당 體育教諭의 파면과 韓·日學生 差別待遇 止揚을 요구하고 만약 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맹휴에 돌입한다는 조건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만족할 만한 회답이 없으면 조회후 3·4학년생 일동은 강당으로 직행하여 농성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학교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3일간 空轉되자 전체 朝會를 끝낸 운동장에서 이동우가 河福東의 어깨 위에 높이 서서 맹휴돌입의 취지와 강당농성을 역설하였다. 학교당국의 연락으로 출동한 경관 수십명과 계속 대치중 당국의 요청으로 학부형들에 의해 강제로 동반 귀가당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각 가정에서 연금상태가 된 학생들은 관대한 처리를 하겠다는 당국의 회유책에 의하여 앞으로는 맹휴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일단락지워졌다.

이듬해인 1931년 2월 중순 대구상업학교 학생들은 지금까지 맹휴를 통한 요구가 전혀 관철되지 않았고 희생자만 낸 데 대한 억울함과 그에 대한 갈등의 해결책으로 종래 맹휴에 대한 비협조자 내지 스파이들을 행동으로 경고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신학년도 개학식이 끝난 뒤에 거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학교당국에 탐지되어 이종출과 표문달이 경북경찰부에 연행되어 각각 출신지 경찰서를 통해 본가에 연금되었다. 그후 통지에 의해 4월 1일 보호자 동반 등교를 하였더니 자퇴를 강요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교장실에서

자퇴문제로 옥신각신하는 동안 격분한 학생들이 비협조자 및 스파이로 지목한 11명을 학교 앞 논바닥으로, 또는 앞산으로 끌고 가서 구타를 하는 사건을 야기하였다. 이 사건의 행동 주동자는 퇴학, 그 곳에 참여했으나 직접 손을 대지 않은 학생은 무기정학, 모의에는 참가했으나 폭행시 부재했던 학생은 처벌을 면했다.

1930년 10월 10일에는 대구농림학교에서 盟休事件이 전개되었다. 평소 한국인 학생을 경시하던 日本人 敎諭 中村省三에 대한 反感으로 맹휴를 결의하고 中村의 수업을 거부하자 그가 교무실로 연락하러 가는 틈을 타서 전교생이 맹휴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교내에서 시위 행진을 시작하여 도중에 경찰 헌병들이 동원되어 제지하였으나 中央派出所까지 행진하고 사고없이 개별적으로 귀가함으로써 끝났다.

1931년 1월 26일 대구고보학생들은 대구상업학교 학생들이 맹휴에 들어가자 同情調의 동맹휴학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의 주모자들은 1930년 11월 부터 社會科學研究會를 조직하여 활동한 학생들이었다. 또 9월 26일 4학년생의 수업거부가 있었으며, 10월 26일, 11월 2일, 11월 4일에 걸쳐 수업을 거부하였고, 11월 9일에는 농성을 벌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학교당국의 조급의 부당한 처사만 있어도 그것을 이유로 맹휴에 들어가 1931년의 경우에는 4학년 입학생 116명중 58명이 제적을 당하였던 것이다.

1933년 6월 초순에는 軍事訓練 反對謀議를 꾀한 농성이 전개되었다. 일제가 1931년 滿洲事變 이후 조선에서도 중학교 학생에게 군사훈련의 실시를 단행하게 되자 3학년생 權泰懿·李鍾悅·尹政炳·尹武炳·金仁晩·金庚伯 등을 중심으로 맹휴를 기도하고 농성에 돌입한 사건이었다. 1934년 3월 9일에는 阿附學生 毆打事件이 발생하였으며, 1935년 12월에는 4년생 李吉祥·康錫均 등 8명이 모의한 日人 敎諭 土肥排斥事件이 사전에 드러나 이들 전원에게 등교정지명령이 내려졌고, 이들은 맹휴를 결행하기로 하였으나 비밀이 누설되어 4명이 등교 정지를 당하였다. 이처럼 맹휴는 소극적 학생항일운동이기는 하였지만 점차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정도로 성장하여 학생비밀결사운동을 위한 토대로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第4節 1930年代 以後의 獨立運動

1930년대부터 解放에 이르기까지 일제는 파쇼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을 전쟁수행을 위한 兵站基地化하는 동시에 民族抹殺政策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국내에서는 학

생비밀결사 이외에 달리 활동한 독립운동세력이 존재하기 어려웠던 반면에 국외에서 민족 독립운동을 수행하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두 계열 모두의 활동은 점차 武裝鬭爭으로 귀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산해관 이남에서 주로 활동한 민족주의자들이 주로 外交論이나 自治論에 많은 관심을 기울렸던 반면에 만주의 국경지대에서 활동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무장투쟁에 보다 치중하였던 것이다. 韓民族의 解放鬭爭史라는 측면에서 보면 救國方略이나 戰術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계열의 활동은 구국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⁸¹⁾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⁸²⁾ 이들의 활동이 민족해방을 위한 항일운동의 기초로 기능하였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I. 抗日獨立運動團體의 組織과 活動

1920년대 말 世界大恐慌으로 말미암아 각국에서 軍國主義가 점차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그 여파가 미친 日帝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제의 軍國主義者들은 전쟁을 통하여 經濟恐慌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滿洲事變이나 中日戰爭, 太平洋戰爭은 당시 일제 군국주의자들의 그러한 이상과 목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그에 따라 對植民政策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30년대 이후 시행된 植民地 朝鮮의 農村振興政策이나 軍事基地化政策, 皇國臣民化政策은 일제의 파쇼통치에 따른 朝鮮 民衆의 항일투쟁을 막으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따라서 종래 민족주의자들의 항일운동은 쇠퇴하고 있던 반면에 당시 의식이 성장하고 있던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한 社會主義 내지 共產主義者들의 항일운동이 새로운 경향으로 대두하고 있었다.⁸³⁾ 新幹會의 해소는 당시의 이러한 國外的 경향이 國內의 독립운동단체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民族主義者들의 항일독립운동은 주로 山海關 以南에서 臨時政府와 光復軍, 義烈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당시의 객관적 조건은 점차 항일운동단체들의 統一團結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독립운동 세력들간의 통일운동은 지속되어 민족주의자들이 1933년 11월에 韓國對

- 81)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변화와 경향에 대해서는 강만길, <1930년대 民族運動의 변화>《韓國史 轉換期의 문제들》, 지식산업사, 1993에 잘 서술되어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 뿐만 아니라 獨立運動史의 研究史의 檢討에 대해서는 金昌洙, <韓國獨立運動史의 研究史의 檢討>《汕軫史學》6, 高麗學術文化財團, 1992 참조.
- 82) 李炫熙, <日帝强占下の 現代史認識>《光復前後史의 再認識(Ⅰ)》, 범우사, 1991, 정용욱, <남북한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의 특징>《남북한역사인식비교강의》, 일송정, 1991 참조.
- 83) 망원한국사연구실 한국근대민중운동사서술분과 지음, 《한국근대민중운동사》, 돌베개, 1989, pp. 433~506. 한국역사연구회 1930년대 연구반,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사》 한길사, 1991 참조.

日戰線統一同盟을 결성하였다. 統一同盟은 각 독립운동단체들의 협의체에 불과했으므로 각 독립운동세력들을 규합하여 각 단체들이 지닌 역량을 집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1935년에 통일동맹에 소속된 각 政黨들은 자진 해체하여 單一政黨으로서의 民族革命黨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민족혁명당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해서 산해관 이남에서의 민족독립운동 세력을 포괄적으로 결합시키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1938년 10월경 朝鮮民族解放運動者同盟·朝鮮革命者聯盟 등 群小政黨이 左翼 群小團體들과 연합하여 朝鮮民族戰線聯盟을 결성하고 朝鮮義勇隊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조선의용대 내의 共產主義者들이 華北 共產黨地域으로 이동함으로써 민족혁명당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어 버렸다.

민족혁명당의 창당으로 위기에 처했던 임시정부는 민족혁명당에서 축출된 李青天 등 보수민족주의자들과 연합하여 1937년 7월 韓國光復戰線을 결성하였다. 임정은 오래 전부터 무장부대의 건립을 시도해 오다가 重慶에 옮겨온 1940년 9월 17일 光復軍 創軍式을 가졌다. 이후 華北으로 이동하지 않은 조선의용대의 잔류병력을 합치고, 이어 탈출한 學兵出身이 참가함으로써 규모가 커지고 있던 중인 1944년 4월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참가하면서 광복군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임시정부의 군대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광복군은 1943년 8월 버마전선에 병력을 파견하였으며, 1945년 봄부터 美軍의 지원하에 國內 浸透工作訓練을 받았다.

반면에 滿洲나 間島에서 전개된 공산주의자들의 항일운동은 農民이나 勞動運動을 토대로 하는 抗日武裝鬭爭이었다. 일제의 파쇼통치에 대항하는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항일의식을 반영한 투쟁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점차 농후해지기 시작한 民族統一戰線의 路線에 따라 1936년 2월 만주 寧安현 남호두에서 遊擊隊會議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유격대 지도자들은 공작원들이 국내로 침투하기 쉬운 韓滿國境으로 부대를 옮겨 즉각 黨 재건에 착수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격대의 지도자들은 보름간에 걸친 東崗會議에 따라 1936년 5월 5일 抗日統一戰線體인 在滿韓人祖國光復會를 창설하였다. 본 祖國光復會는 오랫동안 항일투쟁이 전개되었던 長白縣 일대에 새로운 혁명 근거지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이 일대 在滿朝鮮民衆 속에 급속히 확대되어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1937년 2월 국내 공산주의자들과 연계를 맺고 국내에서 조국광복회 운동을 발전시키고 黨 창건 준비를 위한 조직활동을 위해 국내 據點組織인 韓人民族解放同盟을 결성하였다. 1937년 6월 國內進攻作戰을 전개하여 혁혁한 戰果를 올린 바도 있지만, 1937년 10월에서 1938년에 걸친 ‘혜산사건’으로 타격을 받아 이후 조국광복회 운동은 전국적 규모의 조직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中日戰爭 후 日帝의 大討伐作戰으로 抗日遊擊隊의 활동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1940년 8월 10일 동화현 소하리파령(小哈爾巴嶺)에서 개최된 유격대회의에서 小規模 部隊戰術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만주지역에서 소규모의 부대들이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나 유격대의 주력은 점차 북상하여 1941년 여름에는 蘇聯으로 갔다. 소련으로 철수했던 유격대는 1945년 8월 9일 소련의 滿洲·朝鮮進擊에 호응하여 함께 국내에 들어 왔다. 이처럼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두 계열은 해방될 때까지 나뉘대로 민족해방을 위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II. 學生抗日秘密結社의 組織과 活動

사회적 조직력을 지닌 학생단체의 등장은 191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가능하였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면에서는 그 계층이 미약하였을지라도 민족운동의 주체로서 점차 그 조직력이 성장하여 3·1독립만세운동에서 前衛的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3·1독립만세운동을 통하여 封建的 臣民意識을 극복하고 近代志向의 新知識受容의 경향을 지향한 학생운동은 1920년대에는 전국적 학생조직이 성립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후 점차 사회주의 성향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서울 중심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 이 시기의 학생항일운동은 거의 同盟休學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6·10독립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을 거치면서 학생운동은 이념이 정비되고 盟休가 조직적으로 전개되면서 학생단체는 地方中心의 小單位組織으로 발전하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지방조직으로의 확산은 학생단체가 종전보다 실천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1925년 이래 治安維持法이 강제되어 地方組織化할 수 밖에 없었던 식민지적 상황과 學校單位로 同盟休學을 전개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1930년대부터는 이전과는 달리 학교에도 社會主義 조직들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新幹會 해체 이후 사회주의 진영이 비조직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재편되어 갔던 영향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생단체들은 民族的 結束보다도 階級的 結束이 시도하여 勞農運動과 밀접한 관련을 지녔던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에 民族外的 階級革命에 대한 反省論이 제기되면서 30년대 후반에는 다시 민족주의가 부상하여 학생운동도 민족주의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었다. 40년대 이후 학생운동조직의 특징은 光復을 위한 일원으로 참여하려는 方略을 모색했던 시기였다. 이처럼 학생항일비밀결사는 30년대 이후 학생항일운동을 위한 조직으로서

일제의 식민통치정책에 적절히 대항하면서 기성 독립운동세력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전개한 항일운동이었던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⁸⁴⁾

1. 大邱學生秘密結社

학생들의 비밀결사는 1932년을 고비로 모든 민족독립운동이 지하활동으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조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학생들의 비밀결사활동은 국내에서 여타 항일운동이 표면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더욱 조직적으로 재편되어 갔다. 따라서 1928년에서 1933년까지 활발하였던 學生秘密結社는 研究會·讀書會·社會主義 계통 등 70여 건을 상회하였으며, 1933년 이후에도 비밀결사는 계속 조직되면서 학생 조직 특유의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⁸⁵⁾

1933년 이후 일제의 파쇼통치가 강화되면서 그에 대응하여 학생비밀결사도 상대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조직화되면서 민족주의적 성격으로 전환되어 갔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비밀결사는 1934년의 함남 咸興高等普通學校 讀書會, 1937년 江原道 春川高等普通學校 常綠會, 江陵高等普通學校의 無限責任者會, 1939년 普成專門學校의 효문회, 1933년 大邱農業學校 赤色突擊隊, 1940년 大邱師範學校 研究會·茶革黨·無憂園, 1942년 大邱商業高等學校의 太極團, 1945년 慶北 安東農林學校의 大韓獨立回復研究團 등이다. 이들 학생항일비밀결사운동은 1930년대 이후 국내에서 전개된 항일독립운동의 성격을 잘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특히 대구지역에서 전개된 항일학생운동은 당시 학생비밀결사조직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다.⁸⁶⁾

1928년 11월 6일 日帝 高等警察은 大邱公立高等普通學校·大邱公立商業學校·大邱公立中學校·大邱公立農林學校·私立嶠南學校를 중심으로 한 항일비밀결사가 있음을 탐지하고 관계자 40여 명을 검거하였다. 그후 수사요원 9명을 전담시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 시작한지 40일 만에 7개의 지하조직에서 모두 105명을 검거함으로써 드러난 사건이었다. 1927년 11월에 조직된 이 비밀결사는 1926년 겨울부터 1년 가까이 思想講座가 거듭되었고, 참가한 인원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으므로 조직적 훈련의 필요성을 느껴 실제 운동의 첫 걸음인 新友同盟을 조직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신우동맹의 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84) 각 학생비밀결사단체에 대해서는 趙東杰, 앞의 논문, 1988, 정리된 표 참조.

85) 趙東杰, 앞의 논문, 1988, 李炫熙, <1930, 40년대 國內獨立運動의 性格>《光復前後史의 再認識(Ⅰ)》, 범우사, 1991 참조.

86) 《慶尙北道史》中卷, pp. 458~460, 慶北警察部, 앞의 책, pp. 310~318, 《독립운동사》9, p. 67, 《慶北中高等學校六十年史》, pp. 127~131 참조.

당시 大邱靑年同盟 및 新幹會大邱支會의 간부였던 朴光世가 주재한 약 1년 동안의 비밀사상 강좌였다.

그 무렵 민족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張赤宇가 刑期를 마치고 출옥하자 그들은 장적우를 초청해서 그의 옥고를 위로한 다음 그에게 우리 학생들의 갈길을 물었다. 그는 “여러분이 씨클을 조직하는 취지는 좋으나 無定見하게 움직이지 말고 어떤 목적을 가진 비밀결사를 하나 조직해서 이 조직으로 解放運動을 해 주기 바라며 내가 토요일마다 民族主義的 理論에 따른 강의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사상강좌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抗日革命思想의 고취를 목적으로 1927년 2월 南國熙 외 7명의 대구고보·대구농림·대구중학·대구상업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이론적 방법’, ‘중국혁명과 러시아혁명의 대비’, ‘레닌 대 트로츠키 정책의 비판’, ‘헤이그 회의에서의 조선대표 이준의 격분’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혁명사상과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사상강좌는 1927년 2월부터 동년 11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해 11월 초순 장적우가 당국의 수사대상자에 올라 대구를 떠나 피신하자 강좌는 중단되었다. 그 후 太平路 1街에 있는 大同運送店 2層에 모여 사상강좌를 계속했는데 同志의 수가 더욱 늘어나 비밀결사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 사상강좌를 통해서 이론적 훈련을 받은 15명의 학생을 통하여 1927년 11월에는 新友同盟을 결성하였다. 조직 당시의 책임비서는 대구고보생 尹章赫이 맡았고, 그 아래는 中央執行委員이 선정됨으로써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그 후 신우동맹은 회원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의 機密保障을 목적으로 1927년 11월 27일에는 革友同盟으로, 1928년 2월 1일에는 赤友同盟으로 그 명칭 및 조직을 개편하였다. 거기서 세워진 운동계획은 제 1기에 대구 시내 중등급학교의 항일맹휴를 조직할 것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928년 4월 大邱高普 퇴학처분의 발표가 있자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맹휴의 구체적 방법을 협의하였으며, 또 1928년 9월 10월의 두번에 걸친 대구고보 및 信明女學校의 맹휴를 주도 하였다.

그러나 적우동맹은 그 조직이 팽창함에 따라서 간부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나타나고 재학생과 졸업생 사이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분파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加盟卒業生은 불화의 수습에 힘쓰는 한편 裏面에서 지도를 하고 表面으로는 재학생 스스로가 조직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中央委員을 개선하게 되었다. 그 결과 一友黨·빛새회(曙光會)·우리同盟·丘火會 등의 개별결사가 등장하였고, 이들은 9월까지 조직을 끝내고 각기 실제운동에 들어가 암호 등을 만들었다.

1928년 11월 6일 대구고보 맹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우동맹이라는 배후 비밀결사가 드러나게 되어 관련학생 105명이 검거되었다. 즉, 이 때 맹휴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大邱警察署 高等系에서 평소 주목하고 있던 학생들을 검거하고 가택을 수색한 결과 학생의 일기장에 나타난 “비밀결사에 참석했다”는 사실과 “우리 학생과 조선민족의 살길은 일제와의 투쟁으로 해방하는 데 있다”는 구절이 단서가 되어 일제히 검거가 되었다. 검거된 105명 가운데서 孫益基·朴敬植·黃甫善·尹章赫 등 26명의 학생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들은 전원이 治安維持法 및 保安法違反으로 예심에 회부되었는데 이 적우동맹사건은 그 조직의 출발에서부터 기성인들의 좌익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이 사건이 예심을 거쳐 공판에 回附되자 在邱韓人辯護士들이 無料辯論을 했으며 서울에 있던 金炳魯·李仁 두 변호사도 무료변론하였다. 더구나 김병로는 장장 4시간에 걸쳐 변론하면서 치안유지법의 重大 矛盾을 들고나서 재판장과 맞서 쟁론한 바 있었다. 재판결과 尹章赫·尚戊祥·金承漢·趙銀石이 각각 징역 3년, 李大德 2년, 白大潤 1년6개월, 金善基 1년 그리고 日人 柴田健介도 이 운동에 가침하여 1년6개월을 받았고, 그 밖의 20여 명의 학생이 모두 징역과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

2. 大邱師範學校 敎諭 및 生徒들의 抗日學生獨立運動

일제하 사범학교는 경제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일제의 皇民化 교육에 동화된 것은 아니고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그들이었기에 일제의 식민지 교육을 간파하고 민족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항일정신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구사범은 가난한 농촌의 수재들이 많이 모여 항일정신에 특히 투철하여 해마다 抗日地下運動을 벌였던 것이다.⁸⁷⁾

당시 일제의 식민지 교육은 중일전쟁과 더불어 민족문화의 말살정책을 더욱 강화시켰고 교내에서는 한국학생에 대한 억압, 멸시, 차별대우가 노골화되어 학생들의 동맹휴교사태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더우기 이와 같은 맹휴사건에 학생들이 사회과학에로의 취향이 독서회 등의 명칭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토록 하는 데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대구사범의 항일지하운동의 조직적인 성장과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사상적으로 抗日民族主義思想을 근간으로 하여 反日·反帝國主義를 표방하면서 나타났다. 1930년대 대구사범에 근

87) 대구사범학교 교유 및 생도들의 항일학생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대구사범학생독립운동동지회, 《대구사범학생독립운동》, 신흥인쇄소, 1993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

무하던 金永驥교사의 歷史와 國語강의에 영향을 받아 학생들은 민족적 긍지를 갖게 되었고, 또 玄俊赫 같은 좌경교사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조직활동, 어린이들에 대한 反日教育 같은 것이 비밀리에 실시되었다.⁸⁸⁾

1930년 3월 31일에는 대구사범학교에서 항일비밀결사사건인 「拳(주먹)隊事件」이 드러났다.⁸⁹⁾ 이 사건으로 6명이 검거되고, 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1932년 1월 26일에는 대구사범학교에서 「교유 및 생도의 비밀결사사건」(一名 대구사범 RS)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현준혁 교사가 연구회란 명목으로 학생들을 소집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혁명사상을 주입시킨 데서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37명이 검거 송치되고 日人 1명을 포함한 9명이 기소되고 13명이 불기소되었다.

이와 같은 대구사범의 抗日秘密結社團과 계보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1933년 12월 2일 大邱公立農林學校의 赤色學生突擊隊事件이 있었다.⁹⁰⁾ 이 사건은 만주사변 발발이래 민족주의자의 적극적인 항일투쟁이 소극적으로 나아감에 따라 분개한 학생들이 조직한 비밀결사 사건으로 적극적인 민족주의 운동으로서의 地下秘密結社組織이었다. 이 때 관계자 27명이 구속되었으나 전원이 훈계 방면되었다. 여기에 사회주의적 색채를 띤 사상도 가세를 하였다. 이와 같은 학생운동의 성장과 함께 항일의식이 강한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은 민족적 결속이 굳어져 종래의 비조직적인 상태를 벗어나 조직적인 항일비밀결사단체를 본격적으로 형성하였다.

1938년 대구사범학생들의 소위 倭館事件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당시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落東江 철교의 복선공사에 강제 노력봉사로 동원된 데서 야기되었다. 노력봉사에서 日人教師가 일을 시키면서 日人學生과 朝鮮人 학생을 차별하는 데 분개하여 당시 5학년(7기생)의 朴永燮·金在洙·鄭仁鎔·高昇錫·鄭琪鉉·김중정 등 20여 명이 평소 악질적이던 사꾸마·오카모도 교사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고 백여 명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다가 7명이 퇴학당하고 11명이 무기정학의 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것은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의 항일저항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1939년 8월 16일 여름방학 동안 왜관 낙동강 철교복선공사에 강제 동원된 노력봉사대로서 3학년에 재학중(9기생)인 權快福·裴鶴甫·徐鎮九·崔泰碩·李桂鎬·文德吉·朴祐雋·金聖權·李鍾岳·金孝植·李道赫·李澤彬·文洪義·柳興洙·李東雨·

88) 김일수, <1930년대 경북지역의 조공제건운동과 혁명적 대중운동>《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I. 영남편), 역사문제연구소, 1993, pp. 519~520 참조.

89) 《독립운동사자료집》 13, p. 993과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93, p. 101 참조.

90) 《獨立運動史》 9, p. 687과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93, p. 106 참조.

趙崗濟·崔榮百·高麟玉 등이 밤 12시에 교사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백사장에 모여 비밀결사의 조직을 모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상황속에서 1940년 11월에는 1938년 왜관사건을 일으킨 학생(7기생)들이 중심이 되어 당시 재학중이던 朴孝濬·李泰吉·韓三慶·朴贊雄·文洪義·李東雨·金根培 등이 표면상으로는 학문연구를 위한 모임 같이 보이는 歷史研究班·文學研究班·古蹟踏查班·行動班·連絡班 등의 文藝部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⁹¹⁾ 이 문예부는 민족혼을 환기시켜 조선독립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악질적인 日人 교사에 대한 응징을 목표로 하였다. 한글로 詩·作文 등을 작성, 발표하여 民族文化와 反日意識을 양성하였던 것이다.

한편 문예부의 활동과는 별도로 7기생이 졸업하게 되자 1941년 1월 23일 林宏의 주동으로 李茂榮·李泰吉·張世·金榮宓·崔洛哲·黃德燮 등의 尋常科 8기생들이 모여 조선독립을 위한 실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研究會를 조직했다.⁹²⁾ 이 會의 설립 취지를 보면 “…… 현하 긴박한 국제정세는 가까운 장래에 조선 독립의 실현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제 그 기회가 눈앞에 박두하였은 즉 우리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1941년 2월경부터 3월까지 6회에 걸쳐 비밀회합을 갖고 조선독립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이 연구회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문예에 소질있는 사람들이 문예부를 창설하고, 비밀기관지 《학생》·《반딧불》을 발간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9기생들은 낙동강 백사장에서의 결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보다 행동성이 강한 茶革黨을 1941년 2월 15일 정식 발족시켰다.⁹³⁾ 영웅은 茶色을 좋아한다는 뜻에서 결사단체명을 다혁당이라 정하고 8기생들이 조직한 연구회와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갔다. 다혁당 黨首에는 권쾌복, 副黨首엔 裴鶴甫가 추대되어 조선인으로서의 자각과 독립을 위한 문예활동을 표방해 실력을 양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조직의 특색은 신가임을 인정치 않고 창단 멤버만의 운동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점인데,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비밀을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연구회의 정회원은 16명, 다혁당의 정회원은 18명으로 이들 정회원 외에 새로 규합되는 회원을 준회원으로 하고 그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들 중 열렬한 학생은 연구회와 다혁당에 二重으로 가입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1941년 3월부터 5월까지 권쾌복의 주동으로 伽山芳雄·文洪義 등의 하숙집을 이용,

91) 《獨立運動史》9, pp. 764~772와 《慶尙北道史》中卷, pp. 460~465 참조.

92) 위와 같음.

93) 위와 같음.

몇 차례 비밀회합을 갖고 운동상황에 관해 토론했다. 또 다혁당 회원들은 만주 등지에서 내려온 독립운동가들을 만나 독립군의 활동상황을 듣기도 하고 군자금을 거두어 보내기도 하였다.

대구사범 8회·9회 학생들은 위의 문예부·연구회·다혁당이라는 비밀결사를 졸업한 이후에도 유지하면서 계속 활동하였다. 善山·寧越·通營·論山·威北·羅津 등 전국 각지로 흩어져 교편 생활을 하면서 민족의식을 주입하고 독립정신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1941년 8월초 8회 졸업생인 정현(비회원)이 忠南 洪城에 교사로 부임했다가 우연한 일로 잡지 《반딧불》이 日警의 눈에 띄어 大田警察署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비밀결사의 비밀이 탄로되었다.

일경은 金永驥교사를 비롯해 300여 명의 대구사범 출신들을 검거하였다. 일제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철저히 보도 관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했고, 결사 주동자 35명은 신원이 밝혀져 구속되었고 나머지는 혹독한 고문을 치르고 풀려났다. 그러나 35명은 대부분이 어린 학생이었지만 사상범으로 몰려 형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2년이나 걸린 예심기간 동안 가혹한 고문과 조사를 거쳐 1943년 치안유지법위반으로 2년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하였다. 그 후 8·15해방과 더불어 출옥했으나, 이미 5명이 옥사했고 신병으로 출옥 후 12명이 사망하였다. 이때 검거 기소된 35명 중 16명이 대구사범 출신의 국민학교 훈도였으며 나머지 19명은 재학생이었다.

이처럼 대구사범 항일학생독립운동의 특징은 일제가 중일전쟁에서 제2차 世界大戰으로 치닫고 있던 극단적 시기인 국가총동원시기에 일어 났으며, 사상적 갈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사목적과 노선이 투철한 순수 민족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황국신민을 양성해야 할 엄선된 사범학교의 학생들에 의해 조직되고 졸업 후 교원의 신분으로 비밀결사를 지속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이 학생항일독립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이들에게 적용된 법이 치안유지법과 육해군형법 등 최고의 중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잘 드러난다.⁹⁴⁾

3. 無憂園事件

無憂園은 1940년 12월 조직되어 1943년 5월 23일 조직이 탄로된 비밀결사 단체였다.⁹⁵⁾ 1940

94) 대구사범학교 항일학생독립운동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오세창, <1930년대 일제의 조선통치정책과 반일독립운동—대구사범 항일학생독립운동을 중심으로—>《대구사범학생독립운동》, 대구사범학생독립운동동지회, 1993, pp. 38~39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 본절의 서술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다.

95) 報勳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趙宵影書類와 《慶尙北道史》中卷, pp. 465~466 참조.

년 2월 중순 梁山 通度寺에서 同寺 소속 승려 趙亨吉(일명 宵影)과 대구의 청년 金丙旭·玄泳晩이 항일독립을 위한 抗日秘密結社대를 조직하여 國權回復運動에 신명을 바칠 것을 밀약하고 동지를 규합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4월 大邱師範學校 演習科 1期生으로 입학했다. 수개월 동안 급우들의 성격과 동정을 세밀하게 관찰 한 후 李亨洙·朴讚億·俞性洙를 포섭하였다. 12월에 趙亨吉 등 주동자 3명은 기밀누설을 우려하여 새로 동조한 4명 중 한 사람인 이형수만을 동석시킨 가운데 항일비밀결사조직인 무우원을 결성했다.

무우원의 성격은 조직이 탄로된 뒤 조형길이 옥사하기 직전 법정 최후 진술에서 행한 진술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무우원의 조직은 執行長에 조형길, 總務部長에 현영만, 經濟部長에 김병욱이 선임되었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회원 확대 방안, 內鮮一體의 허위성 폭로, 일제의 전쟁수행에 따른 각종 징발정책의 거부, 독립운동자금 1천만원 모금 등을 계획하였다.

같은 해 12월 25일 조형길은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해외동지의 규합을 위해 僧侶의 이점을 활용하여 東京으로 건너갔다. 그는 三山崎英語學校와 淺草佛教專門學校에 籍을 두고 韓人 東京留學生을 상대로 포섭공작을 벌여 崔壽源(平壤)·姜曾龍(1咸北)·林希景(大邱) 등이 무우원의 뜻에 동조, 새로 가담하였다. 이때 국내에서는 裴煥奎·徐大榮·許炳 등과 승려 출신의 尹錫柱·金讚祚 그리고, 여성동지 李錦仙·양경덕 등이 참여하였다. 이로써 무우원의 회원은 17명에 이르렀고, 운동자금도 상당액이 모금되었다.

1941년 7월경 일제는 한민족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 한국인에 대한 創氏改名 작업을 완료했고, 허울 좋은 志願兵制를 強制徵兵化하는 등 단말마적인 발악현상을 보였다. 더우기 상당수의 한국 지식층이 그들의 회유에 걸려 親日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무우원의 회원들은 창립정신에 따라 ‘民族精神을 사수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文章研究’·‘글공부’란 표제하에 유인물을 동지와 학우들에게 배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1941년 12월 8일 일제는 제 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고 아울러 韓民族에 대한 탄압과 수탈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무우원의 지하활동도 다소 주춤해지고 항일지하운동의 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42년 9월 중순경 동경에서 조형길이 무우원의 조직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니 회원 한 사람이 건너오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왔다. 이에 김병욱이 동경으로 건너가 조형길·최수원·강증룡 등과 자리를 같이 하여 무우원의 東京支會를 정식 발족시켜 支部長에 崔壽源을 선임했다. 국내와 일본과의 연락에 사용할 암호문 작성, 운용자금 1천만원 모금방안, 해외독립단체들과의 접선 등을 의논하였다.

이들은 특히 운동자금이 모이는 대로 소를 구입하여 소없는 農家に 분배하는 등 농촌경제의

부흥에 중점을 두었다. 이들은 실제로 10마리의 소를 구입하여 達城郡 河濱面 등지에 기탁하고 전에 사용하던 유인물을 다시 인쇄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지하운동에 새로운 불을 붙이기 시작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동료들 중 한 사람의 배신으로 무우원의 조직전모가 日警의 수사망에 올랐다.

1943년 6월 29일 金炳晩이 大邱警察署 형사들에 의해 師範學校에서 체포되고, 玄泳晩은 慶山警察署, 朴讚億은 平壤警察署, 裴煥奎는 高靈警察署의 형사대에 의해 피검되었다. 이어 동경주재 趙亨吉·崔壽源 등이 모두 붙들려 모두 대구로 압송되었다. 조형길·김병옥·현영만 등 주동자들은 동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우리 5명 이외의 동지들은 단순한 친목의 모임으로 알고 있을 뿐 그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강변하고, 법정 최후 진술서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도모했다고 시인하였다. 그 결과 김형길·최수원·김병옥·현영만·강중룡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풀려났다. 최수원은 예심기간 중 혹독한 고문으로 순국하였고, 조형길은 징역 5년을 받고 복역 중 45년 6월 그렇게도 갈구하던 解放을 두 달 앞두고 옥중투쟁을 벌이다가 옥사하였다. 김병옥은 징역 3년 6개월, 현영만은 징역 3년, 강중룡은 징역 1년6개월을 받았으나, 상고조차 하지 않는 기백을 보였다.

4. 太極團事件

1940년대에 들어와 日本帝國主義는 韓半島를 中國侵略의 병참기지로 삼고 인력 징발과 군수물자 동원을 위해 점차 본격적인 전시체제를 강화하였다. 1942년 5월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小磯國昭는 조선통치 방침에 대해 언급하기를 朝鮮은 異域이 아니라 九州四國과 같이 皇國의 일부이며, 따라서 불온한 생각을 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단한다는 위협적인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조선인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여 헌병·경찰·행정관서·친일파·밀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동정을 살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언동을 하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검거 학살했으며, 고문·전향강요·예비검속 등 철저한 탄압을 자행했다.

따라서 민족의식을 가진 조선인으로서의 죽음과 같이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日本人 학생과 共學하는 곳에서는 수업에 이르기까지 차별대우가 심하여 조그만 불만과 불평을 겉으로 드러내면 “건방지고 못난 조선놈의 새끼”란 욕설과 구타가 날아왔다. 이에 조선 학생들은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특이한 방법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에 지속적이면서도 철저하게 저항하는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 가운데 太極團事件은

두드러진 예들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⁹⁶⁾

이때 大邱商業學校의 校長으로 부임해 온 오가히사(岡久)는 성적에 操行 점수를 50% 배정하여 한국인 학생들을 극도로 차별 대우하였다. 이 때문에 학과성적이 우수해도 한국학생은 1등을 할 수 없었고, 여기에 불만을 터트리면 낙제나 기타의 처벌을 받는 것이 常例였다. 이때 평소 학교에서 수재로 이름났던 李相虎(당시 17才, 4년)는 일본어 시험에 백지를 내 낙제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동료급우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 이전에 이상호 등 몇몇 학생은 “日軍 입대를 거부하고 일제의 전쟁에 협력하지 말자”는 호소문을 살포하는 등 민족관이 투철한 지각있는 학생들이었다. 드디어 이들은 학교당국의 한국학생에 대한 심한 차별대우와 조선총독부의 폭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직적인 항일투쟁을 펴기로 의견을 모았다.

1942년 5월 이상호를 중심으로 徐尚教(당시 18세, 5학년)·金相吉(당시 18세, 5학년) 3명은 世界弱小民族解放運動과 간디의 無抵抗 反帝國主義運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동지 규합에 나섰다. 이듬해 4월까지 이들은 金正鎮(당시 18세, 5학년)·李浚允(당시 18세, 5학년)·李元鉉(당시 17세, 4학년)·尹三龍(당시 18세, 大邱工業學校)·李兌源(당시 18세, 3학년)·鄭光海(당시 16세, 4학년)·鄭完鎮(당시 16세, 4학년) 등을 동지로 맞아들였다. 뒤이어 崔斗煥·鄭廣淵·黃七岩·안광선·鄭炳準·金井夏·李相鶴·河斗永·二應洛·金鍾宇·盧定烈·朴尚包·朴圭演 등이 새로 동참했다. 이처럼 항일지하운동을 통한 국권회복에 뜻을 두고 모인 학생수가 36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일제의 행동을 綱領에 의거한 공동투쟁공작으로 그 원칙을 세웠다. 1943년 5월 9일 達城郡 비슬산 약수터에 모여 비밀결사조직을 太極團 혹은 T.K.D라 하였는데 韓末부터 사용되어 온 우리 국기 太極旗를 상징한 것이다. 강령으로 “太極團은 朝鮮民族의 이상적인 단결과 능률로서 當面 최대 목적인 朝鮮獨立을 도모하여 투쟁할 것이며, 그 終局의 목적은 전세계 인류의 영원한 平和·自由·平等 등을 찾는 데 있다”고 결정을 하였다. 조직에 있어서는 一般組織과 特殊組織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성원은 모두 10대의 소년이라는 점이 어느 비밀결사에서든 볼 수 없는 것이며, 간부회의는 團의 최고결의기관으로 부장급 이상의 간부로서 구성되며 議長 1명, 副議長 1명, 書記官 2명을 두었다. 健兒隊員은 未來準團員이 되는 자들로서, 민족사상이 강하며 의지·실천력이 강하고 또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자 가운데서 엄선된 자라야 한다고 했다.

또 일반조직의 三局은 官房局·體育局·科學局으로 단원들에게 民族意識의 鼓吹와 民族自

96) 《독립운동사》 9, pp. 781~790과 《大商五十年史》, pp. 238~250 및 《慶尙北道史》 中卷, pp. 466~469 참조.

決理論의 體系化, 특히 정치·경제면의 완전한 자주해방을 위한 연구토론을 하며 전국적으로 광범한 조직을 목표로 하였다. 우선 학교를 단위로 한 동지의糾合과 학술연구·토론·체력향상을 위한諸行事와集會를 통하여 20여 명의 단원과 준단원으로連日 동지간의 교양·학술 및 체력향상을 도모하며 간부회의 결의로 “① 軍事學研究를 보다 더 충실히 하고, ② 財政面에 있어 微弱하나 當面問題로서 각자의 재산을 각출하고 각처의 憂國有志에게 呼訴하여 원조를 얻는다. ③ 憂國先輩의 지도를 존중하며 전국적인 학교 및 지역별 동지 조직이 완성되는 때에는 國內外에 輿論을 환기함과 아울러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조직적인 항쟁을 전개한다. 만약 국내 투쟁이 불가능시에 中國으로 망명하여 中國政府의 후원을 받도록 노력하며 활동하기를 企劃한다.”는 등 3개조를 결의하였다. 그리고 간부진용으로는 團長에 이상호, 官房局長 김상길, 體育局長 서상교, 科學局長 이준윤, 비서장에 김정진 등이 추대되었다.

그러나 어린학생들의 우국충정이 태동한지 1년, 지하조직이 결성한지 2주만에 동지의 배반으로 불행하게도 日警에게 탐지되고 말았다. 1943년 5월 23일 단장 이상호가 대구경찰서 고등계 형사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잔인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團員에 대한 염려와 太極團의 앞날을 위해 비밀을 실토하지 않았다. 이상호에 대한 고문으로는 태극단의 내막을 알 수 없음을 간파한 일경들은 이상호의 집을 뒤진 끝에 천정 한쪽에 숨겨 두었던 관계문서를 발견하고 5월 25일에는 급기야 학교를 급습하여 수업중이던 김상길·서상교·김정진·이준윤·이원현·윤삼룡·정광해·이극원·정완진의 9명이 逮捕되었다. 5월 27일에는 나머지 단원과 준단원이 전원 체포되어 36명이 취조를 받았다.

이 중 26명은 25일간의 불법감금 끝에 풀려났으나 다른 10명은 모진 고문 속에서 계속 수사를 받았다. 체포 3개월만에 이준윤이 급성 늑막염으로 10월 2일 첫번째 희생자로 순국하였고, 10월 중순 정광해는 불기소로 석방되었다. 당시 太極團員 중의 한사람이던 김정진은 “매일 되풀이 되는 고문보다 더 심한 고통인 배고픔속에서도 모든 처벌을 혼자 받으려고 애쓰는 이상호 단장이야말로 유관순과 비견할 수 있는 애국자였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1944년 1월 10일 大邱地方法院 제 3호 법정에서 “大日本帝國의 國是를 叛逆한 國賊”으로 몰아부쳐 구형을 하였고, 同年 1월 19일에는 未成年者에 대한 최고의 형량을 言渡하였다.

大邱刑務所에서 이상호·김정진은 金泉少年刑務所로, 김상길 이하 三人은 仁川少年刑務所로 移送되어 옥중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이원현은 악성늑막염으로 1945년 3월 30일 병보석으로 출옥되었으나 자택에서 음력 5월 5일 애석하게도 순국하니 두번째의 희생이었다. 이상호도

死期에 임박하여 병보석되어 치료중 8·15광복을 맞았으나 同年 12월 9일 별세하니 일경의 악독한 고문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전원은 1945년 8월 15일 光復으로 모두 석방되었다. 이외에 태극단의 준단원으로는 金廣淵(1925년생 大商 5년재)·河炳準(1927년생 2년)·安光瑋(11926년생 3년)·李應治(1927년생 3년)·金英男(11927년생 3년)·廣田定一(1928년생 2년)·金林德井(1926년생 4년)·姜吉楨(1927년생 2년)·井川勇雄(1928년생)·栗木文雄(未詳)·大河義雄(1928년생 2년)·康村武平(未詳)·岡田與來(未詳)·安昌鏞(未詳)·李相鶴(1927년생 ?) 등이 가입되어 있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학생비밀결사는 1930년대 이후 국내 항일독립운동의 실질적인 추진체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비밀결사는 당시 학생항일운동의 전형이었던 셈이다. 그 가운데 대구지역에서 조직되어 활동을 한 학생비밀결사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동시에 다른 지역의 학생비밀결사를 엿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특히 졸업을 한 후에도 지속되었던 점은 일제의 황민화정책이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동시에 가장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大邱 24部隊 學兵義舉

日帝는 1943년 10월 20일 소위 조선인 학도 육군 특별지원병제도를 공포하였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일본 학생들에게 적용하던 징병제도를 조선인 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명목은 지원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제관헌이나 친일인사 등을 동원하여 권유·공갈·협박을 하는 식의 전적인 타의였다. ‘學兵出戰’이라는 미명하에 침략전쟁에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젊은 조선의 지식인들을 전쟁터로 몰아 넣음으로써 저항세력을 말살하려는 술책인 동시에 일제의 침략행위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⁹⁷⁾

1944년 1월 20일 대구 24부대(대구 80연대)에는 주로 경상남북도 출신의 학도병 6백여 명이 강제 입대되었다.⁹⁸⁾ 이들은 10여 일이 지날 무렵에 3대대 3중대에 27명만 남겨 놓고 모두 北支로 보내졌다. 이 부대의 경우는 입대와 더불어 시작된 고된 초년병 훈련시부터 저항운동이 모색되었다. 주동자는 權赫朝(중앙대학)·文漢雨(연희전문)·金而鉉(명치학원) 등이었다. 이들은 우선 일본군 초급지휘관들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여러 형태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는 병영 내외에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고

97) 학도지원병제와 학병거부 운동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9, pp. 828~833 참조.

98) 대구 24부대 학병의거에 대해서는 앞의 책, pp. 850~853 참조. 본절도 이에 의거해서 서술하였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학병과 연락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학병들의 의거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외부의 동지들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반일사상을 고취시키고 징병·징용으로 끌려 갈 동포들을 최대한 도피시켜 줌으로써 민족의 희생을 막는다. 둘째는 탄약고를 폭파하고 무기를 탈취하여 일본 군인을 몰살한다. 세째는 독약을 구하여 음식물에 투입하여 일본 군인을 죽인다. 넷째는 학병이 단합하여 집단 탈출함으로써 패전을 눈 앞에 놓고 단말마적인 발악에 날뛰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몰아 넣고 굳어져 가고 있던 민족정신에 새로운 불을 지른다 등이었다.

이들 계획은 당시 징용되어 대구상업학교에 끌려 온 청·장년들이 현지로 배치되기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다. 즉 권혁조와 문한우는 이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들의 도망을 방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보조근무를 자원하였다. 이들은 보조 근무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 장정 4백~5백명을 탈출시켰던 것이다. 이들이 하던 일은 얼마 뒤에 발각되어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탄약고 폭파와 위병소에 있는 무기를 탈취하여 일본군을 닥치는 대로 총살하려는 계획을 은밀히 진행하였다. 이 계획에는 징병으로 입대한 자 중에서 포섭 가능한 자도 참여시킨다는 것이었다. 문한우·권혁조·김이현 등 27명의 학병 거의 전원이 찬동하여 1944년 6월 8일 오전 2시를 내정했고 예정된 장소인 방공호에 20여 명의 학병이 일단 모였으나 기밀이 누설될 조짐이 보여 결국 그만두고 말았다.

그 다음으로 문한우·권혁조에 의해서 일본군 독살계획이 진행되었다. 문한우는 당시 東山病院에서 약제업무를 담당하는 중학교 2년 선배인 李根秀에게 부탁하여 독약을 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수의 일본군을 독살할 만큼 많은 양의 독약이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이 계획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계획이 뜻과 같이 진행이 되지 않자 이들은 24부대 학병 전원의 탈출계획을 시도하였다. 처음에는 집단 탈출을 하여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일단 대열을 정비한 다음 국외로 탈출하여 독립투쟁에 참가한다는 계획이었다. 거사일을 1944년 8월 7일로 정하고 문한우가 자기 부모로부터 탈출에 필요한 상당액의 자금을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시 8월 8일 오후 9시반 부대의 하수구 앞에 모인 학병은 문한우·김이현·권혁조·權泰鏞·權重赫·金福顯 등이었다.

이들은 양동작전을 펴 담배를 피우면서 서성거리다가 하수구를 빠져 나왔으나 거리가 먼 지리산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지리산으로 간다는 계획을 수정하였다. 이들은 중앙동·역전·신천동을 거쳐 팔공산으로 들어갔다. 불교전문학교를 다닌 권태용이 잘 아는 眞佛庵이었으나 이 절의 주지가 일제의 탄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들을 잘 돌보아 주지 않자 이들은

다음 날부터 탈출을 위한 온갖 고통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탈출로 24부대는 발각 뒤집혔으며,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군병력·경찰·警防檀·면서기 등 사단 병력 이상이 동원되어 대구시내의 각 가정을 뒤지는 한편 팔공산에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다.

김복현·권중혁·권태용·김이현·문한우·권혁조 등 탈출병들은 더 이상 팔공산에서 버틸 수가 없었다. 문한우와 권혁조는 안동에 잠입한 후 서울로 가기 위해 역에 나갔다가 체포되었고, 권태용과 권중혁은 新寧 뒷산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다. 김이현과 김복현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서울에 갔으나 누이 집으로 갔던 김복현이 48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자 김이현은 의정부에 있는 중학교 1년 선배인 權惠允으로 부터 노자를 구하여 만주로 탈출하여 독립운동 비밀기관에서 가명을 사용하면서 항일독립운동을 하다가 8·15 이후 귀국했다.

체포된 권혁조·문한우·권태용·권중혁·등은 함흥·평양부대에서 체포된 학병과 함께 갖은 고문을 받다가 1944년 12월에 권혁조·문한우는 징역 5년, 권중혁·권태용은 징역 4년을 언도받았다. 이들은 大倉형무소에서 패전을 앞둔 일제의 야만적인 학대 속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해방으로 말미암아 조국으로 다시 귀환해 올 수 있었다. 이처럼 전쟁을 확대시킨 일제는 심지어 학병까지도 전쟁에 내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한민족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이다. 더구나 지원병제라는 미명하에 시행된 학병제가 학병들의 탈출의거로 나타나고 있었던 점은 일제가 내건 정책의 허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특히 대구 24부대 학병의거는 함흥·평양과 함께 학병 탈출의거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당시 학병들의 항일운동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의거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第4章 大邱地域의 教育

第1節 日帝의 植民地 教育政策

I. 近代教育의 始作(1876~1894)

1. 開港 以後의 教育活動(1876~1884)

개항 이후 우리나라는 내적으로는 봉건사회가 해체되고 외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맞았다. 이 시기에는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외국의 신문물을 받아들여 우리나라를 근대화하려는 개화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1880년대는 근대문물이 적극 수용되면서 근대사회로 발전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전개된 시기였다.

교육사적 측면에서 볼 때, 1880년대는 종래 經書 중심의 유교적 교육관에서 탈피하여 근대교육으로의 탈바꿈이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개화사상가들이 제일 먼저 수행한 작업은 근대적 제개혁을 수행할 인재의 양성이었다. 실제로 이들은 양반 자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층의 청년을 모집하여 외국에 유학시킴으로써, 외국의 근대 문화와 제도를 배워오게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근대적인 학교교육을 국내에서 자체의 힘으로 실시하기 위한 활동도 주체적으로 전개하였다. 먼저 근대적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農業學校의 설립에 착수하였으나, 교원과 교재의 부족으로 실현시키지 못했다. 또한 서구의 근대적 문물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을 위해, 1883년에 統理交涉通商社務衙門에 通辯學校를 설치 운영하였다. 동년에 기기창 내에 가공기능전습반을 설치하여 전습생들에게 자연 기초과목과 기계학 등을 교육시켰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 기술교육의 첫 걸음이었다.¹⁾

통번학교와 기술전습반이 국가에 의해 주도된 학교였던 데 반해, 이 시기에는 민중들 사이에서도 민족사학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는 1883년 원산에 세워진 元山學舍이다. 이는 元山商會所 회원들을 위시한 지방민들의 요청으로 개화파 관료인 德源府使 鄭顯奭이 설립한 학교이다.²⁾ 이 원산학사는 일본의 침투에 대항하기

1)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 근·현대편, 1993, p. 129.

2) 李基白, 《韓國史新論》, 1993, p. 422.

위해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설립한 근대학교라는 점에서 근대 민족교육의 효시라 할 수 있다. 또한 改良書堂을 확대 개편하여 설립한 학교라는 점에서 자생적 민족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의 근대학교는 개화파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화파의 근대교육활동은 갑신개혁의 실패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개화파들이 자주독립의 토대를 구축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근대학교의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근대화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 교육 활동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 甲申政變 以後의 教育活動(1884~1895)

갑신개화파의 자주적 개혁이 좌절된 후, 우리나라에서의 교육활동은 주로 정부나 선교사들에 의해 전개되었다. 먼저 정부는 일본을 비롯한 서양 제국과의 교섭이 진행되면서 그 실무적 필요성에서 외국어 학습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883년 9월에 同文學을 설립하였다. 이곳에서는 당시 정부가 개화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통역과 稅關 관계의 실무 관리를 양성하였다.³⁾

이 동문학을 계승하여 1886년 정부에서 설립한 학교가 育英公院이었다. 육영공원은 朝美修好條約 체결 이후 報聘使로 미국에 갔던 閔泳翊이 귀국 후, 미국의 발전된 문물을 배우기 위해 고종에게 학교 설립을 건의함으로써 이루어졌다.⁴⁾ 그리하여 정부는 길모어(G. W. Gilmore), 벙커(D. A. Bunker), 헐버트(H. B. Hulbert) 등 3인을 교사로 초빙하여 수학, 외국어, 지리학, 정치, 경제 등을 가르치게 하였다. 육영공원의 재학생들은 양반 자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까지 신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학교를 세워 교육을 통해 근대적 신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육영공원은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의 근대교육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근대교육의 또 다른 움직임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한 학교 설립이었다. 이들의 교육활동은 기독교 포교를 위한 수단으로 전개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료기관 겸 교육기관인 廣濟院은 1885년 4월에 알렌(H. N. Allen)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어 동년 8월에는 아펜젤러(H. G. Appenzeller)에 의해 培材學堂이, 1886년에는 스크랜턴 부인(M. E. Scranton)에 의해 梨花學堂이, 1886년 봄에는 언더우드(M. C. Underwood)에 의해 敎新學校가, 1887년에는

3) 李光麟, 〈育英公院의 設置와 그 변천〉《韓國開化史研究》, 1974, p. 109.

4) 金興洙, 《韓國近代歷史教育研究》, 1990, p. 51.

엘러즈에 의해 貞信學校가 설립되었다. 기타 光成學校(1894), 崇德學校(1894) 등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들 선교사들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교육 내용은 성경을 비롯하여 근대적 학문과 함께 서양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그 교육 대상이 특정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이었다는데 근대교육의 한 특징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종교계 학교는 ① 기독교적 민주주의 ② 평등사상에 의한 자주적 교육활동 ③ 과외활동 ④ 직업에 대한 귀천관념 타파 등을 교육의 이념으로 삼았다. 이에 비해, 국가에서 설립한 학교는 ① 국책적 교육 ② 양반자제에 대한 특혜 ③ 관리양성 등을 설립 이념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이 설립이념은 달랐지만, 이들 양자는 다같이 이민족의 침략에 대항하여 자주독립 사상을 널리 보급시키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⁵⁾

II. 近代教育의 發展(1895~1905)

1. 近代的 教育制度의 確立과 官立學校의 設立

갑오개혁(1894) 이후에는 새로운 교육제도가 마련되고 學務衙門(1895년에는 學部로 바뀜)이 교육을 전담하였다. 즉 1894년 8월에는 신교육에 관한 학무아문의 詔書가, 그 다음 해인 1895년 2월에는 국왕의 教育立國詔書가 차례로 발표되었다. 학무아문 조서에서는 영재교육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소학교에서 대학까지의 체계적인 교육기관 확대를 천명하였다. 이듬해에 발표된 교육입국조서에서는 교육이 국가의 근본임을 밝히고, 종래의 경서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여 세계 정세에 눈 뜨게 하는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⁶⁾ 또한, 德·體·知가 조화된 전인교육을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어 1895년 4월 학부가 발족된 후에는, 漢城師範學校 官制를 비롯한 제반 학교 법규가 제정되었다. 이같은 新學制 개혁에 의해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외국어학교 등 많은 관·공립학교가 설립되었다. 당시 정부에서 설립한 한성사범학교·외국어학교 그리고 4곳의 소학교는 관립학교의 시작이요, 이후 이를 중심으로 官學이 발전되어 갔다. 갑오개혁 과정에서 근대 교육제도가 성립된 것은 우리나라 교육사에 있어서 최대의 개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5)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論》5 근대, 1983, p. 119.

6)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 근·현대편, 1993, p. 136.

2. 私立學校의 設立

1) 民族系 私立學校

당시의 관립학교는 국가의 재정 궁핍으로 학교의 규모나 숫자가 영세하였다. 또한 관리양성에 편중하는 경향이 있어 민족적 욕구에 부응하기 어려웠고, 민족교육에도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면에서 민족적 욕구를 충족시켰던 것은 사립학교였다고 할 수 있다.⁷⁾ 당시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선구적 지식인들이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근대교육은 점차 민족 교육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띠며 발전해 갔다.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1895년 이후에는 민간인에 의한 사립학교가 전국 각지에 설립되었다. 이들 사립학교는 근대국가로의 발전 과정에 필요한 신문화의 수용, 민족정신의 고양 등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갑오개혁 이후부터 1905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설립된 민족계 사립학교는 다음과 같다. 興化學校(서울: 1895), 開城學校(부산 동래: 1896), 南署紅門洞小學校(서울: 1898이전 - 추정), 時務學校(1899), 細泉學校(1899), 洛淵義塾(후의 普光學校, 서울: 1901), 牛山學校(후의 懿法學校, 서울: 1902), 青年學院(서울: 1904), 育修學院(인천: 1904), 漸進學校(평남 강서: 1904), 普昌學校(강화도: 1905), 普成學校(서울: 1905), 養正義塾(서울: 1905).

이상에서 열거한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 많은 사립학교들이 설립되어 있었다. 일부는 전문과정도 있었지만 주로 소학교 수준이었다. 또한 많은 학교가 야간부를 병설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야학으로 출발한 학교도 있었다. 교과 내용은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일어·산술이 주를 이루었으나, 다수의 학교에서 관·공립학교의 교과 내용에 맞추어 교과목이 편성되었다. 또한, 국사교육이 중시되었는데 이는 민족계 사립학교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사립학교들은 새로운 지식의 전달장일 뿐만 아니라 민족운동의 근거지로서도 유명하였다.

2) 基督教系 私立學校

1885년 미국의 기독교 북장로회와 북감리회의 선교사가 들어온 이래, 그들은 ‘의료와 교육’으로 민중 속에 침투해 들어갔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895년 이후 기독교, 특히 신교의 포교는 급속히 진전되었다. 1895년에 신도수가 746명이던 것이 1900년에는 18,08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기독교 전도방식은 자주·자립·자급의 방식을 취해 왔기 때문에, 기독교계 여러 학교도 기본적으로는 교도들의 자력에 의해 건설되고 운영되었다. 이리하여 20세기에 접어들자,

7) 金興洙, 《韓國近代歷史教育研究》, 1990, p. 84.

한국인 신도 자신의 손에 의한 기독교주의 학교가 전국 각지에 서게 되었다.

1902년 당시 브라운(A. J. Brown)의 보고에 의하면, 북장로회의 초등학교만도 63개교, 생도수 993명에 달했는데 그 대부분이 지방 교회에 의한 自給學校였다고 한다. 또 북감리회 계통의 학교는 28개교(여자학교 16개교)로 그 학생 수도 567명이 되었으며, 이 중 2개교를 제외하면 전부 초등학교였다. 이같은 초등학교를 토대로 기독교계 학교는 점차 상급 수준의 학교로 발전되어 갔다.⁸⁾ 특히, 관공립 또는 민족계 사립학교에서의 초등교육 부진을 지방 교회에 의한 기독교계 학교가 보완해 주었다.

1895년 이후부터 1905년까지의 시기에 기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는 대강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一新學校(1895. 서울: 장로교파), 正進學校(1896. 평양: 감리교파), 攻玉學校(1896. 서울: 감리교파), 崇實學校(1897. 평양: 장로교파), 培花女學校(1898. 서울: 감리교파), 明信學校(1898. 제령: 장로교파), 盲啞學校(1898. 평양: 감리교파), 崇義女學校(1903. 평양: 장로교파), 樓氏學校(1903. 원산: 감리교파), 貞明學校(1903. 목포: 장로교파), 好壽敦女塾(1904. 개성: 감리교파), 進誠女學校(1904. 원산: 장로교파).

이들 기독교계 학교는 주로 서울과 그 이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평양·원산 등 포교의 거점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여자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봉건적 남존여비의 구습을 타파하고 여성의 근대적 각성을 촉구하는데, 기독교계 학교가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관공립 학교와 민족계 학교의 초등교육의 부진을 보충하였고, 이들 학교에서 缺落되었던 여자교육 및 맹아교육 등 특수교육의 분야까지 그 교육활동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한국의 초창기 신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3. 大邱에 設立된 學校

이 시기 대구에서 설립된 학교는 다음과 같다.

興化學校 大邱支校(私, 1899), 達城學校(私, 1899), 友弦書樓(私, 1900), 大南男子小學校(私, 1902), 信明女子小學校(私, 1902), 大男基督學校(私, 1902), 達東義塾(私, 1904), 養奎學堂(私, 1904), 大邱公立普通學校(公, 1905). 기타 일본인 전용의 大邱公立尋常小學校(公, 1895).

이 시기에 설립된 학교의 총 수는 10개교로서 사립학교가 8개교, 공립학교가 1개교, 일본인 전용 학교가 1개교이다. 이는 현재 여러 사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학교만을 수록한

8) 慶尙北道教育委員會, 《慶北教育史料》, 1982, p. 235.

것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학교가 설립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의 특징은 민족계 및 종교계 사립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대구의 민족교육과 신교육 보급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대구 최초의 공립보통학교(초등교육기관)인 대구공립보통학교의 설립도 이 시기의 특징적인 일면으로 꼽을 수 있다.

III. 近代教育의 擴大(1905~1910)

1. 統監部의 教育侵略 政策과 學制의 改編

일본인은 이미 갑오개혁 때부터 우리 정부에 顧問聘되어 학부의 교과서 편찬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 때부터 일제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1904년 8월 제1차 韓日協約이 체결됨에 따라 顧問政治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정부 각 부처에 일본인이 배치되면서 그들이 우리의 교육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1907년 韓日新協約이 체결된 후 次官政治가 실시되면서부터는, 일본인이 학부의 차관이 되어 식민지 교육의 준비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⁹⁾

통감부의 교육정책은 한민족의 자주독립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인이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실용교육을 강조하고 보통교육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일제 통감부의 교육침략은 광범위한 學制의 개편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학제 개편은 그들의 침략정책에 맞추어 한국의 교육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그 첫 단계로 각급 관·공립학교에 대한 개편을 단행하고, 이어서 민족사학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강화하였다. 또한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여 반일 애국적인 교과서는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일제는 1906년에 각급 학교의 學校令을 공포하여, 학제는 물론 학교의 설립 운영·교과목 설치 등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조정하였다. 즉, 종래의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칭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단축시키는 동시에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고쳤다. 또한 보통학교 확장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1906년에서 1909년까지 4년간 관립 1, 공립 59 등 총 60개교가 설립되었다. 이는 일본인 주도하에 보통학교를 운영하고 일본어를 주요 과목으로 가르치려는 의도에서였다. 결국, 식민지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일어교육을 강화하고 역사교육을 축소하는 한편, 민족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인문교육을 축소하고

9) 金興洙, 《韓國近代歷史教育研究》, 1990, p. 157.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한국인의 고등정신 육성을 막고 실업 직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손발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교사의 부족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인 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하였다. 처음에는 관·공립학교에만 배치하였는데, 뒤에는 사립학교에까지 강제로 일본인 교사를 배치시켰다. 이같은 현상은 1906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일제는 이들을 통해 학교의 운영권을 장악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족교육을 억압함으로써 식민지 교육의 기틀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했다.

2. 救國教育運動의 展開

乙巳條約 체결 이후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자, 선각적 지식인들은 ‘배우는 것이 힘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대적인 교육 보급운동에 나섰다. 이 시기의 교육운동은 安昌浩·李昇薰 등과 같은 선각자나 각종 學會 그리고 기독교·천도교 등의 종교단체에 의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불과 3, 4년 사이에 전국 각지에 3천여 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교육의 황금시대를 연출하였다. 이들 학교는 시대의 진전에 따라 더욱 증가하여 1909년 경에는 5천여 개의 학교에 이르렀다. 정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7백여 개의 학교까지 감안한다면 무려 6천여 개교에 이른다 하겠다.

이들 학교는 선각자들의 私財나 국민 의연금 또는 종교단체에 의해 건립된 것들이었다. 학교교육의 내용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역사 과목과 교련 및 신학문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교내에서 토론회·웅변회·운동회 등을 개최하여 청년의 의기를 북돋워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사립학교들은 새로운 지식의 전달장일 뿐만 아니라, 민족운동의 근거지로서 그 역사적 사명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학교로서는 서울의 徽文義塾(1905)·中東學校(1906)·峴山學校(1906)·평안도의 五山學校(1907)·大成學校(1907) 등 수많은 학교가 있다. 이같은 사학의 발흥은 일제의 침략에 의해 자극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속히 우리 사회를 근대화함으로써 국권을 회복해야겠다는 진지한 민족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이 외에도 노동자·농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勞動夜學·農民夜學이 각처에 설립되었다. 당시 노동자와 농민의 교육에 대한 열기도 대단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돈을 모아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이미 설립된 학교의 재정을 도와 학교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민중의 자발적 참여는 비록 맹아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피교육자로서의 객체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자아의식을 넓혀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교육 구국운동의 과정에서 여성교육과 실업교육도 중요한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이 특기할만 하다.

이렇게 무수한 사학들이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배일사상을 조장하고 있음을 본 통감부는, 私立學校令(1908. 8), 學會令(1909. 9), 保安法(1910. 9) 등의 굴레를 씌워 사학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모든 사립학교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폐쇄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교과서 검정제도를 실시하여 애국적 교과서의 사용금지와 어용 교과서의 사용을 강제하였다. 이러한 탄압으로 사립학교는 자진 폐교하거나 현실에 순응하는 양자택일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⁰⁾

3. 大邱에 設立된 學校

이 시기에 대구에 설립된 학교는 대략 다음과 같다. 師範學校(私, 1906)·養成學校(私, 1906)·啓星學校(私, 1906)·壽昌學校(私, 1907)·信明女學校(私, 1907)·養成女學校(私, 1907)·聖立學校(私, 1908)·勞働學校(私, 1908)·協成學校(私, 1909)·明信學校(私, 1909)·達明學校(私, 1909)·繼聖小學校(私, 1909)·達南學校(私, 1909)·新明女學校(私, 1909)·日新學校(私, 1909)·仁壽學校(私, 1909)·速成日語學校(私, 1909)·啓聖小學校(私, 1909)·興化小學校(私, 1909)·達西女學校(私, 1909)·桂南學校(私, 1910)·聖主學校(私, 1910) 등 20여 개의 사립학교와 大邱尋常高等小學校(公, 1905)·大邱德山公立尋常學校(公, 1906)·大邱公立農林學校(公, 1910) 등 3개의 공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을사조약(1905) 이후 1910년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은, 국권회복과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서 민족교육운동이 애국지사와 선각적 지식층 사이에 활발히 전개된 시기이다. 그들은 국권을 회복하고 부강한 자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신문명의 지식을 계발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국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 수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대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 대구에 설립된 사립 학교는 사료상 파악이 가능한 것만 20여 개교에 이른다. 이는 대구 지역에서도 ‘自主獨立’, ‘文明開化’, ‘內修外學’ ‘배우는 것이 힘이다’라는 기치 아래, 일제 침략자와 봉건적 유교 교육에 반대하여 신교육의 실시를 강조하는 민족교육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일제는 이같이 충천하는 애국적 교육열을 ‘不良’, ‘不穩’하다고 비방하고, 또 1904

10)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 근·현대편, 1993, pp. 147~149.

년에는 學部參與官을 파견해서 敎育 간섭을 시작하였다.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에는, 일본어敎育과 실업敎育 중심의 이른바 ‘文明的 敎育’이란 미명하에 또는 ‘敎育은 쇄신하고 내용은 충실히 한다’는 구실아래, 정치적·민족적·과학적인 내용의 敎育을 극력 배제하였다. 즉, 學制를 改惡하고 관립학교를 점차 증설해서,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고 일본어 敎育을 강요하였다.¹¹⁾ 이같은 목적을 위해 일제는 대구에 1905년 대구공립보통학교에 이어 곧 대구심상고 등소학교를 개설하고, 1906년에는 대구덕산공립심상소학교를 설립하였던 것이다.

IV. 日帝의 植民地 敎育(1910~1945)

1910년 합방으로 統監府가 總督府로 바뀌면서 일제의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다. 일제는 식민통치 36년간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문화를 파괴함으로써, 한국인을 그들의 노예로 만들려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우리 민족을 착취하여 자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또한 한반도를 대륙 진출의 兵站基地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식민지 통치정책에 의거하여 총독부의 敎育방침이 수립, 실천되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敎育방침은 4차에 걸쳐 공포된 <朝鮮敎育令>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한민족의 동화라는 일제의 커다란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한국 민족敎育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변경한 데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민족 敎育운동의 형태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1. 日帝 初期의 敎育(1910~1921)

1) 제1차 朝鮮敎育令과 植民地 敎育

제1차 조선敎育령은 1911년 8월에 공포된 것으로, 이는 일제 통치 초기 10년간의 敎育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수업 연한의 단축, 敎育 기회의 축소, 고등敎育의 억제와 실업敎育의 실시 등이었다. 즉, ① 한국인을 皇民化하고 ② 時勢와 民度에 맞는 敎育을 한다는 취지하에 ③ 일본어 敎育과 실업敎育에 치중하도록 되어 있다. 그들은 한국인을 동화하여 철저한 일본인을 만드는 데 敎育의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敎育 목표 아래, 일제는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보통敎育에 주력하였다. 중등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에게 직업을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설립하고, 전문학교 및 대학은 현재 한국인의 민도로 보아 불필요하다고

11) 金雲泰,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 1986, pp. 162~163.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수업 연한을 일본인 학교보다 짧게 잡아 교육 수준을 낮추고 대학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원칙적으로 학교간의 연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다. 즉,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학생은 5년제 중학교에 갈 수 없도록 하고, 3·4년제의 실업학교에만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목 중 역사·지리는 제외해 버리고, 오직 충량한 일본 국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민성의 함양과 국어(일본어)의 보급’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일제의 이같은 교육방침에 따라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는 1911년 조선교육령의 실시로 급증하면서, 寺内·長谷 양 총독 재임 기간에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즉, 1910년 말 현재 한국인 교육 보통학교(수업 연한 4년)가 173개교이던 것이 1911년 말에는 306개교로 급증하였으며, 1917년 말에는 공립 435개교·관립 2개교·사립 24개교, 계 461개교로 증가했다.¹²⁾

또한, 일제가 초기에 대학을 설립하지 않은 것은 지적 수준의 향상을 가능한 한 억제하여 조선인의 愚民化를 꾀하고,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교육을 시도하는 데 있었다. 고등교육의 억제는 1915년 일제가 제정한 〈專門學校規則〉에 의해 사립 전문학교의 격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일제는 기존의 전문학교를 폐쇄하려는 의도에서 普成專門學校, 세브란스 專門學校, 崇實專門學校, 梨花專門學校를 各種學校로 격하시켜 전문학교로서 존립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일제는 인문교육보다는 실업교육을 강조함으로써, 한민족의 우민화를 꾀하고 저급한 노동력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조선인을 저급한 기술인으로 양성하여 식민지 지배의 하수인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일제는 관·공립학교를 지배하는 한편, 民族抹殺政策과 植民地奴隸教育을 실시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립학교의 반일민족교육을 탄압하였다. 일제는 통감부시대에 제정된 〈私立學校令〉을 1910년 10월에 改惡하여 〈私立學校規則〉을 공포하였고, 이어 1915년에는 다시 그 내용을 고쳤다. 그 내용은 사립학교는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고, 교과서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것이나 검정을 받은 것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일본어에 능하고 총독부가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심지어는 1922년에 다시 사립학교 규정을 공포하여, 일어를 필수과목으로 하지 않거나 이를 가르치지 않는 사립학교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같은 일제의 탄압에 의해 사립학교 수는 해마다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1910년에 2,080개교였던 것이 1919년에는 742개교, 1922년에는 614

12) 《朝鮮總督府 施政年報》, 1914, pp. 263~265. 1917, p. 265.

개교로 그 수가 대폭 감소하였다.¹³⁾

2) 大邱에 設立된 學校

이 시기 대구에서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흡수·병합 또는 개명된 학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일제의 탄압으로 재정난에 봉착한 私立明信學校가 1911년에 私立達西女學校로 흡수, 병합되었다. 1914년에는 성 유스띠노신학교가 설립되고, 大南男子小學校가 喜瑗學校로, 信明女子小學校가 順道學校로, 私立壽昌學校가 大邱公立壽昌普通學校로 개명되었다. 1915년에는 聖立學校가 海聖學校로 개명되고, 1916년에는 私立協成學校가 大邱高等普通學校로 인계되어 발전적으로 폐교되고 말았다. 그리고 1918년에는 大邱達城公立尋常小學校가, 1921년에는 大邱壽城普通學校·大邱嶠南學校가 설립되었다. 일본인 전용학교로서는 大邱本町公立尋常小學校(1917)·大邱鳳山町公立尋常小學校(1921)·大邱公立高等女學校(1915)·大邱公立中學校(1921)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 대구 교육계의 특징적 현상은 재정난으로 인한 빈번한 운영권의 移管과 그에 따른 학교의 개명, 공립학교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사립학교로서는 대구교남학교 1개교만이 신설되었는데 반하여, 관·공립학교와 일본인 전용학교가 각각 4개 교씩이나 설립되어 이들이 신설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제가 〈私立學校規則〉(1911), 〈改正私立學校規則〉(1915)을 공포하여, 기존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과 탄압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립학교의 설립을 억제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그들은 합병 이래 사립학교를 강제로 폐교시키거나 그 재산을 빼앗아 공립보통학교로 돌리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관공립학교와 일본인 전용 학교를 많이 설립한 것은, 식민지 노예화 교육을 확대하고 일본인 자녀의 교육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2. 日帝 中期의 教育(1922~1937)

1) 제2차 朝鮮教育令과 植民地 教育

1919년 3·1운동이라는 민족독립운동의 발발로 일제는 식민지 통치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종래의 武斷政治에서 보다 유화적인 文化政治로 통치방식을 바꾸었던 것이다. 제2차 조선교육령은 3·1운동의 폭발에 자극되어 1922년 2월에 공포된 것으로, 일종의 융화적인 방법에 의한 식민지 교육정책의 표현이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보통학교로부터 전

13) 손인수 외 3인, 《韓國教育年誌史》, 1971, p. 148.

문학교에 이르기까지의 각 학교의 수업연한, 교육내용을 일본 국내와 같은 정도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둘째, 보통학교의 교과목에 조선어를 정과목으로 교과 과정에 넣었다는 것이다. 셋째, 舊制에 있어서 보통학교,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을 위한 기관밖에 없었던 것을 새로 대학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한국 학생으로 하여금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구한말 이래 끈질기게 전개되어 온 民立大學設立運動에 자극을 받은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학제의 실시로 종래 우리나라의 전 교육 연한이 11~12년이었던 것이 11~16·17년으로 연장된 셈이다.

이로써 볼 때, 일제는 한국인의 교육에 대해 그들과 차별을 두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인의 교육에 대해 무성의하였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였다. 이는 1925년도의 《朝鮮總督府 統計年譜》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즉, 초등학교에 있어서 인구 1만명당 취학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인은 일본인의 6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즉, 전문학교에서는 26분의 1, 大學豫科에 있어서는 실로 109분의 1이었다.¹⁴⁾ 또한 1935년의 상황을 보면, 한국인에 있어서는 학생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7분의 1에 불과한데 비하여 재한 일본인에 있어서는 약 5분의 1이나 되어, 교육의 기회균등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이른바 문화정치의 기만성을 잘 알 수 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교육 방침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 군부는 1931년에 滿洲事變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삼고 한국인을 중국 침략의 앞잡이로 이용하려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도 종전과는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되었다. 즉, 점진적인 同化政策으로부터 급진적인 皇國臣民化政策이 추진되었으니, 모든 한국인이 일제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과 신념을 갖고 일본인과 같은 정신적 자세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었다.¹⁵⁾

그러므로, 한국인이 기대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역시 한국인이 경영하는 사립학교들이었다. 이들 사립학교에서는 민족의식의 고취와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 민족교육운동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사립학교의 이같은 민족교육운동을 억압하기 위하여 이를 적극 탄압하였다. 즉, 1922년 3월 사립학교 규정을 공포하여, 이를 위반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폐쇄의 길을 열어 놓았다. 사립학교의 길이 폐쇄당하자, 공립보통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꺼려한 한국 민중들은

14) 李基白, 《韓國史新論》, 1993, p. 465.

15) 손인수 외, 《韓國敎育年誌史》, 1914, p. 159.

서당의 설립을 통해 은밀하게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일제는 1918년 〈書堂規則〉을 발표하고, 이어 1929년에 〈改定書堂規則〉을 공포하여 이를 탄압하였다. 그 결과, 서당의 수도 역시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같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서당은 각종 講習所나 노동야학·농민야학 등과 더불어 학교 체계의 틀 밖에서 지역에 뿌리를 둔 민간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서당은 식민지 교육정책을 배격하고 민족교육의 실시에 앞장섰던 것이다.

2) 大邱에 設立된 學校

이 당시 초등학교의 상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923년 海聖學校 여자부가 曉星女子普通學校로 분리, 독립되었다. 1926년에는 회원학교와 순도학교가 합병되어 喜道普通學校로 되고, 달서여학교가 大邱復明女子普通學校로 개명되었다. 그리고 1923년에 私立南明學校가, 1935년에 大邱南山町公立普通學校가 새로이 설립되었다. 중등학교로는 慶北道立師範學校(1923)·大邱公立商業學校(1923)·大邱公立工業補習學校(1925)·大邱女子技藝學校(1925)·大邱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1926)·大邱公立商業實修學校(1931)가 설립되었으며, 전문학교로서 公立大邱醫學專門學校(1923)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 대구 지역에는 실업계 공립 중등학교가 많이 설립되었으며, 또한 대구 최초의 전문학교인 공립대구의학전문학교와 경북도립사범학교가 설치되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들 학교는 모두 3·1운동 이후 5, 6년 이내에 설립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일제가 실시한 유화적 문화정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제가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치중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우민화하고 저급한 기능인을 양성하여 그들의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하수인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하겠다.

3. 日帝 末期의 教育(1938~1945)

1) 제3, 4차 朝鮮教育令과 植民地 教育

일제는 제국주의적 야망을 아시아 대륙에 펴기 위해 滿洲事變(1931), 中日戰爭(1937)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그들은 한국을 병참기지화하여 인적, 물적 자원 공급원으로 만들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인에 대한 교육도 대륙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방편이 되게 하였다. 즉, 그들은 國體明徵·內鮮一體·忍苦鍛鍊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교육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학생들을 전적으로 전쟁 물자 생산·국방 시설의 건설·노력 봉사에 동원하였으며, 또한 朝鮮陸軍特別志願兵制度(1938)를 만들어 그들의 전장으로 유도하였다. 이같은 사정에

맞춰, 일제는 〈皇國臣民의 誓詞〉를 제정, 皇國臣民化 教育을 극도로 강화하였다.¹⁶⁾

이상과 같은 시정 방침의 토대 위에서 제3차 〈朝鮮教育令〉이 1938년 3월에 공포되었던 것이다. 이 교육령에서는 한국인 학교명을 일본인의 학교명과 똑같이 하여 普通學校를 尋常小學校로, 高等普通學校를 中學校로, 女子高等普通學校를 高等女學校로 개명하였다. 또한 한국어를 隨意科로 하여 실질적으로 한국어 과목을 폐지해 버렸다. 1940년에는 내선일체라는 미명 아래 創氏改名을 강요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입학과 진학을 허가하지 않았다.

일제의 간악한 동화정책에 국내의 각 학교들은 1941년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최대의 수난을 겪게 되었다. 즉, 태평양 전쟁 하의 한국에 있어서 황민화교육은 한국인 청소년들의 민족의식을 일소할 뿐만 아니라,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과 戰力動員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小磯와 阿部 총독에 의하여 황국신민화교육의 군사 체제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전체주의 국가 이념과 군국주의 체제 하에서 總力戰體制化教育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일제는 1943년 4월에 제 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이 개정 교육령은 〈皇國의 道에 따른 國民鍊成〉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교과 학습보다는 수련과 근로봉사 등을 통한 전력 증강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국민학교·중등학교·고등전문학교 및 사범학교 교육을 체계화하여 軍事教育·勞務動員을 대폭 주입시키고, 수업 연한을 단축해서 학도를 전시 동원할 수 있게 마련하는 것 등이었다.¹⁷⁾

이에 앞서, 1941년에는 〈國民學校令〉이 공포됨에 따라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전문학교와 대학의 수업 연한도 3년에서 2년으로,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전시 인력 공급을 서둘렀다. 1943년에는 〈教育에 관한 戰時非常措置令〉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이공계 전문학교를 확충하고, 문과계 사립전문학교는 이공계통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또한 문과계통의 여자전문학교는 女子輔導員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조치하였다. 1944년 8월에 일제는 학도동원령을 내려, 국민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을 學徒報國隊에 편성하여 노력동원에 끌어냈다. 이어 1945년 5월에는 학도의 임전태세 확립을 위하여 戰時教育令을 내려 학생과 교육기관을 모두 태평양 전쟁 수행에 동원하였다. 따라서, 학교의 실질적인 교과 학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일제 말기에 민족교육 내지 사학은 극도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한국어

1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2, 1981, p. 63.

17) 金雲泰, 앞의 책, p. 501.

교수와 사용이 금지된 반면에 일본어 교수가 강화되었다. 또한, 한국인 교원의 추방과 일본인 교원의 대량 진출로, 사학은 사실상 일본인의 손에 강점당하고 말았다. 이로써 민족교육, 곧 사학은 일제 통치하 36년간에 있어서 가장 흑심한 수난기를 맞게 되었다.

2) 大邱에 設立된 學校

이 시기 대구에 설립된 학교는 다음과 같다. 신설된 초등교육기관으로는 大邱三笠町公立尋常小學校(1938)·大邱七星公立尋常小學校(1939)·大邱東都公立尋常小學校(1940)·大邱南部尋常小學校(1940)·大邱達西國民學校(1943) 등이 있다. 그리고 1937년에 대구여자공립보통학교가 大邱西部普通學校로, 대구수성보통학교가 大邱師範學校附屬普通學校로 개명되었다. 중등학교로는 대구공립공업보습학교가 1937년에 大邱公立職業學校로, 1945년에는 계성학교가 公山中學校로 개명되었다. 그리고 1945년에 大邱女子商業學校가 신설되고, 1939년에 종교계 학교로서 五山佛敎學校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새로이 설립된 학교는 대부분 초등교육기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제가 초등교육시설에 관한 정책을 1920년대에는 3面 1校制 그리고 1930년대 전반기에는 1面 1校制로 하였으며, 1937년부터는 1面 2校制를 추진하여 보통교육을 확대하고자 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일제는 지도적 인물보다도 행정·기술 등 면에서 심부름을 잘 하는 정도의 인물만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그들은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 1937년에 대구공립공업보습학교가 대구공립직업학교로 바뀐 것은, 중일전쟁의 발발로 전시경제체제로 이행되면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第2節 初等教育의 實態

I. 私立 達城學校

사립 달성학교는 1899년 7월에 설립되어 개화기 대구의 준재를 양성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 학교는 동년 4월에 제정, 공포된 〈中學校 官制〉에 따라 경상도 관찰영 내에서 개교되었다. 〈사립 달성학교 교칙〉에 의하면, 그 설립 목적을 국내의 俊材聰明之士를 배양, 성취케 함에 두고 있다(제2조). 또한 심상과와 고등과로 구분하여 수학 연한을 각각 4년으로

하고, 일어 전수학교를 부설한다고 규정하였다(제3, 4조).¹⁸⁾

동교의 개교 발기인은 崔克昌·朴潤祥·尹弼五 등 10명이며, 초대 교장에는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던 金稷鉉, 부교장에는 張圭遠이 취임하였다. 뒤이어 1900년 10월 3일부로 尹弼五가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동교는 개교 이래 1906년까지 정부로부터 매월 10원씩의 보조를 받았으나, 동년 2월 통감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제의 탄압을 받아왔다. 그로 인해, 달성학교의 심상과는 1905년 8월 27일에 새로 설립된 大邱公立普通學校로 그 기구가 인계되었다. 그 후, 달성학교는 고등과만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사립 달성학교 고등과는 1909년 3월 8일자로 구 대구향교 강당(東本町: 현 교동)으로 옮겨져 私立協成學校로 개칭되었다. 이 학교는 3년제 중학과 정으로 평양의 大成學校와 함께 남북의 쌍벽을 이루었다. 그러나, 사립 협성학교는 1916년 5월에 공포된 〈朝鮮總督府 高等普通學校 官制〉에 따라 설립된 大邱高等普通學校에 그 기구가 인계되어 발전적으로 없어지고 말았다.

私立達城學校 (1899)

尋常科 → 大邱公立普通學校(1905)

高等科 → 私立協成學校(1909) → 官立大邱高等普通學校(1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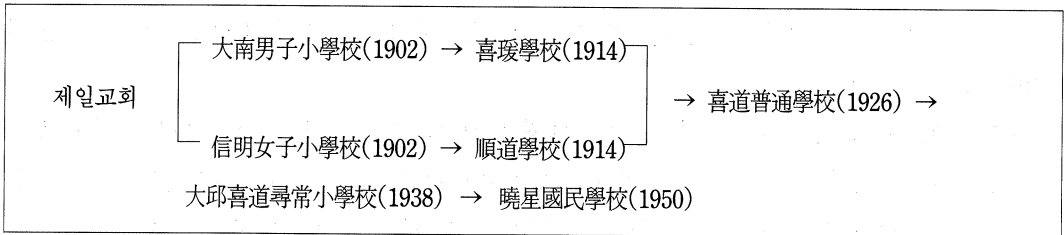
II. 大南男子小學校, 信明女子小學校

1897년 대구에 온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아담스(James E. Adams : 安義窩)는 대구 지방에 신교육을 통하여 기독교를 포교하고자, 1902년 南城路 教會(현, 제일교회) 입구 대문채 집을 교사로 삼아 大南男子小學校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아담스의 부인 마르다 부르엔(Mrs. Marda Bruen : 傅馬太)도 같은 해(1902)에 信明銅山에 信明女子小學校를 설립하였다. 이 두 학교는 舊韓國教會令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선교사가 경영하였으며, 대구에서 신교육 사상에 입각하여 세워진 최초의 카톨릭계 학교였다.

그 후 1914년에 대남남자소학교는 喜瑗學校로, 신명여자소학교는 順道學校로 개명되었지만, 1926년 7월에는 다시 양교를 병합하여 喜道普通學校라 하였다. 이어 1938년 4월에는 大邱喜道尋常小學校로 개칭되었다. 1950년에 동교를 폐교하여 재학생을 曉星國民學校에 수

18) 《慶北中等學校六十年史》, 1976, pp. 78~79.

용하였고, 그 나머지는 鐘路 및 南山國民學校에 각각 분산, 수용하였다.



III. 大邱公立普通學校

대구공립보통학교는 구한말 대구에서 설립된 최초의 공립보통학교로서, 1905년 9월에 설립·인가를 받았다. 동교는 사립달성학교의 심상과를 인수하여 개교하였으므로, 그 연혁은 달성학교의 설립 당시인 1899년까지 소급할 수 있다. 대구공립보통학교는 1907년에 본교사가 낙성되었으며, 1938년 4월 1일에 교명을 심상소학교로 개칭하였다가 1942년 4월 1일 大邱國民學校로 개명하였다.

IV. 大邱德山公立尋常小學校

1906년 9월에 설립 인가를 받아 그 해 12월에 개교하였다. 1907년에 교사를 西千代田町(현, 장관동)에 신축하고 다시 여자부를 병치하였다. 1920년 8월에 현재의 장소에 교사를 신축 이전하고, 동년 11월 學制 개정에 따라 수업 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였다.

V. 私立 壽昌學校

徐興均 등 대구의 유지 6인이 1907년 7월 1일에 사립수창학교를 설립하였다. 당시 교사는 향교의 東·西齋를 이용하였으며, 新·舊學으로 나누어 新學은 15세 이하, 舊學은 15세 이상을 입학시켜 교육하였다. 학교 소재지는 大邱府 八雲町(현, 수창동)이었다. 1910년 5월에 교명이 私立壽昌普通學校로 개칭되었다가, 1914년에 다시 大邱公立壽昌普通學校로 개편되었다. 1923년 4월부터 수업 연한이 6년으로 되었다. 이어 동년 5월에 현 교사로 이전하였다. 1945년

8월 15일까지 졸업생 수는 4,854명이었다.

VI. 私立 協成學校

관찰사 李忠九가 1907년에 설립하였으며, 지방 유지들의 출연으로 운영되었다. 교사는 향교의 樂育齋와와 養士齋를 이용하였다.

VII. 養成女學校

관찰사 李忠九가 1907년 설립하였으며, 후일 大邱女子學校로 개편되었다. 학생은 50여 명이었다.

VIII. 勞働學校

玄擎運이 1908년에 설립하였다. 동교는 야간 학교로서 학생은 7, 80명 정도였다. 교수 과목은 역사·地誌·산술·제조 등이었고 국문으로 강의하였다.

IX. 私立 聖立學校

1886년 韓佛修好條規가 체결됨으로써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 공인되었다. 당년에 처음으로 경상도 지방의 선교를 담당하는 김로베르 신부가 파견되어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일원의 포교를 맡게 되었다. 김신부는 현 계산동 대성당 자리를 교회 부지로 매입하고, 1899년에 그곳에 성당과 사제관을 신축하였다.

그는 교회의 설립과 더불어 교육기관의 설립에도 심혈을 기울여 海聖齋라는 한문서당을 설립하였다. 해성재는 1908년 3월 1일에 聖立學校로 개명됨과 동시에 남녀부 제도를 두었다. 聖立이란 ‘聖教會에서 세웠다’는 뜻으로, 동교는 대구 교육계 초창기의 발전은 물론 신문화의 보급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듬해 9월 6일에 신문화의 선각자이며 교육에 남다른 열성을 가지고 있었던 교장 이요한씨의 노력으로 설립 인가를 받게 되었다.

동교는 김신부의 노력으로 근근히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12년 3월 제2회 졸업생을 배출한 뒤 김신부는 재정난으로 폐교를 선언했다. 이에, 동교 교원 김하정씨가 폐교 선언을 철회시키고

학교 유지를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자 일시에 호응을 받아, 2, 3년간의 학교 유지비를 충당하게 하였다.

그 이듬해 5월에 동교 학감으로 있던 김종구씨가 별세할 때, 근검절약하여 모은 그의 재산으로 성립학교를 경영하라는 유언을 아들에게 남겼다. 아들 金燦洙는 부친의 유언에 따라 거액의 재산을 내어 새 교사를 신축하고, 1915년에는 교명을 그 전신인 해성재의 이름을 따 海聖學校로 바꾸었다. 그 후 1923년에 4년제를 6년제로 개정하고 동시에 여자부를 독립시켜 曉星女學校라 하였으며, 1925년에는 보통학교로 승격시켰다. 그후 김찬수는 신병으로 학교 경영이 어렵게 되자, 1936년에 경영권을 대구교구로 넘기게 되었다.¹⁹⁾ 해성학교는 1949년 11월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교사 및 부지는 효성 여자중고등학교 및 효성여대에까지 커지게 되었다.

X. 私立 明信學校

1909년 8월 26일 순종 황제 南巡時 하사금 200원을 기금으로 동교를 개교하였다. 1911년 6월 14일 동교의 경영권이 천도교 중앙총부로 이관되었다. 천도교는 1905년 이후 새로운 구국민중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신교육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학교를 직접 설립하거나 재정난에 처한 학교를 인수하여 각지에 많은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천도교에서 설립 및 인수, 운영한 학교로서 대표적인 것은 서울의 普成學校, 同德女子義塾, 江界의 中一學校 등이 있다.²⁰⁾ 이같은 신교육 운동의 일환으로서, 천도교는 대구의 明信學校를 인수,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천도교가 교육의 목적을 인격형성·복리증진·국권 회복에 두었음²¹⁾을 비추어 볼 때, 명신학교도 역시 이상과 같은 교육 목표하에서 운영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천도교는 1920년대를 전후하여 일제의 탄압과 자금난으로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6년 8월 16일에 동교는 私立達西女學校로 흡수, 병합되었다.

사립달서여학교는 1917년에 鄭海鵬의 12인에게로, 1922년에는 박기돈에게로, 1924년에는 서희원에게로, 1925년에는 김울산에게로 경영권이 이관되었다. 이후 1926년 4월에는 교명이 大邱復明女子普通學校로 개칭되었고,²²⁾ 그 이듬해 8월에는 남자부를 併置하였다. 그리고 동년

19) 《慶尙北道史》中卷, pp. 231~232 참조.

20) 劉準基, 〈天道教의 新教育運動〉《汕松史學》6, 1992, pp. 90~101.

21) 위의 책, p. 110.

22) 《大邱市史》제2권, 1973, p. 504 참조.

11월 12일에 남산동 현 신축교사를 준공, 이전하였다.

私立明信學校(1909) → 私立達西女學校(1911) → 大邱復明女子普通學校(1926) → 남자부병치(1927)

XI. 大邱達城公立尋常小學校

동교는 1918년 3월 25일 大邱府 八雲町(현, 북성로) 101번지 李一雨 소유인 講義院 교사에서 개교하였고, 1921년 4월 1일에는 원대동 현 교사로 이전하였다. 1945년 광복 때까지의 졸업생 수는 2,567명이었다. 현, 大邱達城國民學校의 전신이다.

XII. 大邱女子公立普通學校

동교는 1919년 6월 1일 대구여자공립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 大邱南旭町公立普通學校라 개칭하고 남녀 공학을 실시하였다. 1937년 8월 12일에 현재의 비산동 교사로 이전하고, 교명을 大邱西部普通學校로 바꾸었다.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졸업생 수는 3,883명이다. 현, 大邱西部國民學校의 전신이다.

XIII. 大邱壽城普通學校

동교는 1921년 10월 6일에 개교하였으며, 1937년 5월 1일에는 大邱師範學校 附屬普通學校로 되었다. 학교 소재지는 상동이며, 1945년 8월 15일까지 1,46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XIV. 曉星女子普通學校

동교의 전신은 1908년에 설립된 聖立學校 여자부이다. 성립학교가 1915년에 海聖學校로 교명이 바뀔에 따라 해성학교의 부속으로 있다가, 1923년 대구 교구의 時務인 문신부가 동교의 여자부를 曉星女學校로 분리, 독립시켰다. 1925년 5월 15일에 안주교를 설립자로 하고 문신부를 교장으로 하여 曉星女子普通學校로 인가받게 되었다. 학교 소재지는 明治町(현, 계산동)이며, 수업 연한은 6년이었다.

XV. 私立 南明學校

설립자 김태원의 특지로 교사가 착공되어 1933년 9월 5일에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동년 12월에 개교하였다. 이후, 동교는 私立南明尋常小學校로 개칭되었다가, 1946년 3월 29일에 대구대성국민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학교의 소재지는 비산동이며, 1945년 현재 67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XVI. 大邱南山町公立普通學校

동교는 1935년 6월 14일에 개교하였다. 동년 6월 25일 현 교사로 신축 이전하고 大邱南山町公立普通學校라 하였다. 학교 소재지는 남산동이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졸업생 수는 1,701명이다. 현, 남산국민학교의 전신이다.

XVII. 大邱三笠町公立尋常小學校

동교는 1938년 3월 12일 大邱三笠町公立普通學校로 설립 개교하였다. 1938년 8월 18일에 본관을 준공하여 현 교사로 이전하였다. 학교 소재지는 삼덕동이며, 1945년 8월 15일까지 5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현, 대구삼덕국민학교의 전신이다.

XVIII. 大邱七星公立尋常小學校

동교는 1939년 4월 20일 大邱壽昌公立尋常小學校 假校舍에서 개교하였다. 1940년 4월 1일에 현 교사로 이전하였으며, 학교의 소재지는 칠성동이다. 1945년 8월 15일까지 26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현, 대구칠성국민학교의 전신이다.

XIX. 大邱東都公立尋常小學校

동교는 1940년 3월 1일 大邱三笠町公立尋常小學校 假校舍에서 개교하였다. 1941년 4월 27일 범어동 현 교사로 이전하였다. 1945년 8월 15일까지 7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현, 대구동도국민학교의 전신이다.

XX. 大邱南部國民學校

동교는 1940년 3월 31일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학교 소재지는 대명동이다. 현, 대구 명덕국민학교의 전신이다.

XXI. 大邱達西國民學校

동교는 1943년 4월 1일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학교 소재지는 원대동이다. 현, 대구인지국민학교의 전신이다. 8·15 해방까지 졸업생은 한 명도 없다.

XXII. 其 他

일제 시대에 설립된 초등교육기관으로서 당시는 大邱府에 속해 있지 않았으나, 현재 대구시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²³⁾

〈表 4-1〉

학 교 명	설 립 연 월 일	현 소 재 지
대구 칠곡국민학교	1912. 4. 1.	대구직할시 북구 읍내동 794
대구 공산국민학교	1922. 11. 18	대구직할시 동구 백안동 560
대구 해안국민학교	1925. 11. 8	대구직할시 동구 부동 643-1
대구 반야월국민학교	1929. 9. 1	대구직할시 동구 서호동 34
대구 월배국민학교	1930. 9. 18	대구직할시 달서구 진천동 57-1
대구 고산국민학교	1931. 9. 12	대구직할시 동구 시지동 161
대구 성서국민학교	1931. 10. 2	대구직할시 달서구 이곡동 727-1
대구 성북국민학교	1934. 12. 18	대구직할시 북구 서변동 861
대구 서촌국민학교	1942. 5. 4	대구직할시 동구 중대동 1082
대구 숙천국민학교	1943. 5. 1	대구직할시 동구 숙천동 85-4

23) 《경북교육연감》, 1979.

XXIII. 簡易學校 및 幼稚園

한국의 전통적인 사설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전국 지방의 촌락 도처에 설립되어 있던 서당은, 민족정신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제로서는 귀찮은 존재였다. 또한, 1930년대 이후 그들이 추진하던 1面 1校 설립운동도 여의치 않게 되자, 서당을 개량하는 명목으로 1934년 이후 간이학교를 마련하였다. 간이학교의 목적은 『朝鮮教育令 第4條 및 普通學校規定에 準하여 특히 國民된 性格을 涵養하고 國語를 習得시키는데 注力하며 地方實情에 가장 適切한 職業陶冶에 重點을 둘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간이학교 설립의 구체적인 목표로서 ① 올바른 일본 국민이 되게 한다. ② 국어(일본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게 한다. ③ 직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간이학교의 조직과 편제는 다음과 같다. ① 수업연한: 2년의 단기완성 ② 학급수: 2개년 1학급의 單級學制 ③ 입학 연령: 10세 표준 ④ 수용 인원: 80명으로 1차년도 40명, 2차년도 40명을 모집 ⑤ 교사: 1校 1인으로 공립보통학교 訓導의 정원을 증가시켜 모집 ⑥ 교수 과목: 修身·국어(일본어)·조선어·산술·직업

조선 총독 우가끼가 한국통치에 있어서 가장 힘쓴 것은 농촌진흥운동이었다. 그는 이 운동을 산간벽지에까지 침투시키기 위해 1934년에 간이학교제도를 창설하였다. 이후 간이학교는 산간벽지에까지 세워져 나중에 한 군당 평균 4개교 정도로 보급되어 농촌진흥운동의 최선봉이 되었다.²⁴⁾ 이를 農村簡易學校라 한다. 1935년 학령 아동의 취학률은 도시에 있어서는 5할 7부, 읍면에 있어서는 2할 3부로 소위 보통학교의 입학난은 도회지일수록 더욱 심하였다.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1935년 都市簡易學校制가 생겨났다. 그러므로 도시 간이학교는 그 조직과 기능에 있어서 농촌 간이학교와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즉, 도시 간이학교는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농업 대신 상공업을 채택하여 단시일 내에 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리하여 1937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몇 년 후 사라지고 말았다.²⁵⁾ 일제시대 대구지역에 설립된 간이학교는 도시간이학교의 성격을 띤 것으로, 모두 공립초등교육기관에 부설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당시 대구지역에 설립되어 있던 간이학교와 유치원은 다음 도표와 같다.

24) 박상만, 《한국교육사》중권, 1957, p. 234

25) 위의 책, p. 242.

〈表 4-2〉 簡易學校 일람표²⁶⁾

학 교 명	개교 년 월	소 재 지
대구 덕산공립심상소학교 부설 봉산정간이학교	1937. 5.	봉산정(현, 봉산동)
대구 수창공립심상소학교 부설 팔운정간이학교	1937. 5.	팔운정(현, 수창동)
대구 서부공립심상소학교 부설 서부간이학교	1938. 4.	비산정(현, 비산동)
대구 남산공립심상소학교 부설 남산정간이학교	1937. 5.	남산정(현, 남산동)

〈表 4-3〉 幼稚園 일람표²⁷⁾

학 교 명	개교 년 월	소 재 지
대구북명유치원	1927. 10.	남산정(현, 남산동)
신정유치원	1928. 9.	신 정(현, 대신동)
효성유치원	1930. 6.	명치정(현, 계산동)
대남유치원	1930. 7.	남산정(현, 남산동)

XXIV. 日本人을 위한 初等教育機關

대구부 내에서 일본인을 위해 설립한 초등교육기관은 大邱公立尋常小學校를 그 모체로 하고 있다. 동교는 1912년 4월 1일의 관제 개혁과 함께 大邱公立尋常高等小學校로 개명되었다. 1918년 4월 1일 大邱本町公立尋常小學校가 개교되자 아동 312명을 분리 轉校시켰고, 1921년 11월 12일 鳳山町公立尋常小學校가 신설됨에 따라 역시 아동 300여 명을 이곳으로 분리·전교시켰다. 1932년 4월 1일에 大邱公立高等小學校가 신설됨에 따라, 동교의 고등과를 제외시켜 대구공립심상소학교로 되었다. 일본인을 위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정리해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²⁸⁾

26) 《大邱府史》第二, 府政編, p. 139 도표 참조.

27) 위의 책, p. 139

28) 위의 책, pp. 134~135.

〈表 4-4〉

日本人 專用 初等學校 및 幼稚園

학 교 명	설립 년 월	소 재 지	비 고
대구공립심상소학교	1895. 10	남옥정(현, 문화동)	현, 중앙국민학교
대구본정공립심상소학교	1917. 5	본 정(현, 종 로)	현, 종로국민학교
대구봉산정공립심상소학교	1921. 4	봉산정(현, 봉산동)	현, 경대사대부속국민학교
대구동운정공립심상소학교	1935. 5	동운정(현, 동인동)	현, 동인국민학교
대구공립유치원	1907. 4	남옥정(현, 문화동)	대구심상소학교 내

第3節 中等教育의 實態

I. 私立興化學校 大邱支校

근대 우리나라 초기의 사학교육은 선교사에 의한 기독교계와 개화인사에 의한 민족계의 것으로 대별된다. 민족계 사학은 일반적으로 私立興化學校를 효시로 하는데, 그 설립 연대는 1895년이다. 즉, 고종 32년(1895) 민영환이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갔다가 외국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돌아오는 길로 세웠다고 한다.²⁹⁾ 초대 교장은 민영환이며 중등 정도의 과정이었다.

이 흥화학교의 취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방에 지교를 설립하였다. 대구에서도 1899년 6월 경에 흥화학교 지교가 설립되었음은 다음의 황성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大邱人 崔處圭씨가 新進開導上에 注意하여 今年 六月頃에 大邱府에 私立興化學校 支校를 設하고 崔氏가 副校長이 되어 葉三千餘兩을 出義하여 前將校廳을 修理하여 校舍로 使用하고 學部에서는 補助金 一百五十二元을 爲先劃給하였는데 教師는 尹台炳氏오 晝夜學徒가 合四十餘人이니 其教科는 英語·算術·地誌·歷史라더라³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립 흥화학교 대구지교는 1899년 6월경 대구인 최처규가 3천여량의 돈을 출연하여 대구부에 설립하였으며, 前將校廳을 수리하여 교사로 사용하였다. 주야로 설립된 이 학교는 개교 당시 학생수가 40여 명이었으며, 교수과목은 영어·산술·지리·역사였

29) 姜在彦은 그의 저서 《韓國의 開化思想》에서 興化學校는 독립협회 운동이 대중적인 시민운동 즉, 만민공동회로 발전한 1898년에 설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0) 《皇城新聞》, 1899년 12월 14일.

다. 부교장은 崔處圭이고 教師로는 尹台炳이 있었다.

종래 대구에서 新制學校의 효시는 1899년 7월에 설립된 私立 達城學校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그보다 한 달 앞서 1899년 6월 경에 설립된 홍화학교 대구지교가 대구에 있어서 신제 학교의 효시라 하겠다. 합병 전 구국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각종 사립 학교들은 합병 후 일제의 식민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었으므로, 조선총독부는 이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민족계 사립학교인 홍화학교는 1911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교당하였다.³¹⁾ 이와 동시에 홍화학교 대구지교도 폐교된 것으로 추정된다.

II. 啓聖學校³²⁾

계성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계성학교는 1906년 10월 15일 미국 기독교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아담스(James E. Adams : 安義窩)에 의해 창설되었다. 그는 대구시 중구 남성로에 있는 그의 사택(현, 제일교회 부지)을 임시 교사로 정하고 27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첫 수업을 시작하였다. 초기의 교직원인 설립자이며 초대 교장인 아담스를 포함하여 4, 5명이었으나, 1910년부터는 교장 아담스·교감 李萬集·교사 白信七·權義胤·鄭禱麟·羅道來(Reiner) 등 6명으로 늘어났다. 교과목은 성경·한문·물리·화학·地誌·상업·어학·수학·역사·생물·博物·경제·지리·교육·동물·圖畫·체조·음악·작문·습자 등 근대적 교육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성경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독교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학교가 지니고 있었던 두 가지 교육 목적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의 전파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었다.

아담스는 銅山(현 校地인 대신동)을 매입하여 건평 100평의 2층 양옥 교사를 신축하여, 1908년 3월 30일에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신교사의 신축과 함께 2동의 기숙사를 지어 지방 학생과 어려운 학생들을 수용하여 학습의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이어 1912년 6월 17일 『私立 啓聖學校』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1914년 9월에는 맥퍼슨의 기부금 1만원으로 맥퍼슨관(현, 과학관)을 준공하였다. 이로써 계성학교는 중등학교로서의 명실상부한 면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동교는 일제의 사립학교 탄압정책에 의해 고등보통학교로서 인가를 받지 못하고 各種學校로 계속 존속되었다. 그 결과, 동교의 학생들은 전문학교 입학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31) 吳天錫, 《韓國新教育史》, 1964. p. 111.

32) 《啓聖八十年史》참조.

없었으므로, 응시 자격이 있는 타학교로 진출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이에 학교측과 선교회, 교우회가 합심단결하여 指定學校로의 승격운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933년 4월 12일에 총독부로부터 지정학교로 인정받아 비로소 고등보통학교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中日戰爭(1937) 이후, 일제는 우리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하여『皇國臣民의 誓詞』 암송과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계성학교의 운영을 담당하던 朝鮮北長老教 宣教會는 이 문제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동선교회는 일제의 탄압에 못이겨 啓聖과 信明 양교의 경영을 중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경북노회가 1938년 7월에 동선교회로부터 양교를 인수, 경영하게 되었다. 태평양 전쟁(1941) 이후 일제의 皇民化 教育은 더욱 강화되었다. 일제는 성경 과목을 폐지하고, 이어 1945년 2월 13일에는 不逞스럽다 하여『啓聖』이란 교명마저 빼앗아 가버렸다. 이후 계성학교는 公山中學校로 교명이 바뀌었다가, 1949년 6월 22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래의 교명을 되찾았다.

동교는 유교적 봉건사상에 젖어있는 영남지방에 신교육과 신문화를 보급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며, 종교·체육·음악·미술·문학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또한 동교의 학생들은 치욕적인 한일합병에 항거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3·1운동시에는 전교생이 꺾기하여 대구고보·신명학교 학생 등과 더불어 이 운동을 영남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III. 信明女學校³³⁾

동교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마르다 부르엔(Mrs. Marda Bruen, 傅馬太) 여사에 의해 1907년 10월 23일에 설립되었다. 그녀는 현 남산동의 銅山에 있는 한 채의 가옥을 임시 교사로 삼아 첫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 학교는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경북 일원에서도 가장 먼저 설립된 여자중학교였다. 또한 계성중학교에 이어 세번째로 설립된 학교로서, 양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자매학교였다. 여하튼, 이 두 학교는 우리 민족의 교육에 선구적 존재임을 자부하고 출발한 학교였음에 틀림없다. 개교 당시의 학생 수는 얼마였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전술한 계성중학교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27명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교과목은 계성중학교와 비슷하였으나, 여학교에서 지도하는 家事·針工·手藝 등이 첨가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학교의 설립 목적상 성경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33) 《信明五十年史》참조.

동교는 개교 이후 순전히 개인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1910년 6월 1일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로 경영이 이관되었다. 개교 당시부터 1912년 4월 제 1회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의 교직원, 교장 마르다 부르엔 여사를 비롯하여 교감 趙景魯(1912년에 李快榮과 교체됨)·교사 姜大馨·禹鳳銀·이내문·아담스 부인·姜夫人(미국인)·林德逸 등 8명이었다. 1912년 5월에 제 2 대 교장으로 하이알 뿔라드 여사가 취임하였고, 다음해 4월에 신축 교사(현, 신명여고 위치)로 이전하였다. 새 교사는 본관과 기숙사로서 붉은 벽돌로 된 2층의 양옥이었다. 1914년 4월 22일 『私立 信明女學校』로 인가를 받았다. 그 후 1927년 11월에 교명을 『대구 신명여학교』로 변경함과 동시에, 수업연한 1년의 保姆科를 병설하였다.

이와 같이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을 거듭하던 신명여학교는, 중일전쟁(1937)을 전후하여 동일 종교계 학교인 계성학교와 함께 일제의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이 시기에 조선어 과목의 폐지와 일본어 사용 강화, 황국신민의 서사 암송, 신사참배 강요 등을 통해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하려 하였다. 이렇듯 신사참배 강요는 종교계 학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으로 가시화되었다.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미션계통의 신명학교와 계성학교였다.

일제의 탄압에 봉착한 북장로교 선교회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양교에 대한 경영 중지와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결의하였다. 이후 신명여학교는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 강요에 따른 교육 목표의 상실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9년에 동교의 운영권이 慶北老會로 이관되고, 이사장에 李文圭 교장에 徐昌均이 취임하였다. 그러나 재단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당국의 폐교 위협을 받고 있던 중, 1944년 金忠學이 유지재단 기금으로 토지 14만평을 회사하여 이사장이 되었고, 동시에 교명도 『大邱南山女子學校』로 바뀌었다.

동교는 대구에 있어서 여성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 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였고, 선교적 공헌과 함께 민족운동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즉, 3·1운동시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민족독립의 쟁취와 여성운동에 앞장섰다. 1939년 현재 교원 11명에 4학급, 학생 수 251명이다.

IV. 大邱公立農林學校

일제는 식민지 초기에 고등교육을 억제하고 실업교육을 중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그들이 부려먹기 좋은 값싼 기술인을 양성하여 조선인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경제적

침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목적 아래, 일제는 1909년 칙령 제 56호로 實業學校令을 공포하였다. 그 결과, 1910년까지 전국에는 大邱農林學校를 비롯하여 仁川實業學校·釜山實業學校·平壤農學校³⁴⁾·全州農林學校·群山實業學校·春川實業學校 등 15개의 실업학교가 公費로 설립되었던 것이다. 일제는 이들 학교에서 지하자원 및 토지의 수탈에 필요한 광산기술, 토지조사 및 측량 등의 보조원 양성을 위한 저급의 기술교육을 실업교육이란 명목으로 실시하였다.

이같은 일제의 실업교육 중시 정책에 따라, 1910년 3월 1일 대구 최초의 공립 중등학교인 大邱公立農林學校가 탄생되었다. 이 학교는 東本町(현, 동인동)에 위치한 대구 향교의 일각을 빌려 개교하였고, 동년 5월 10일에 첫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1911년 6월에는 대봉동(현, 사대부속중고등학교 위치)에 부지 4천평을 구입하여 木造平家 교실 1동, 사무실 1동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원래 교명은 『大邱公立農林學校』였으나, 1911년 11월 1일에는 『大邱公立農業學校』로 개명하였다가 1928년 4월 1일에 원래의 교명으로 환원하였다. 초대 교장은 일본인 三浦直次郎이었다. 입학식에는 觀察使 署理 朴重陽과 일본인 군사령관·대구 理事官·군수 등 관리 약 20명이 내빈으로 참석하고, 한복 차림에 가족이나 짝신을 신은 80명(본과 50명, 속성과 30명)의 신입생 및 교직원이 참석하였다.

진술한 바와 같이, 개교 당시 동교에는 本科와 速成科가 설치되어 있었다. 본과에서는 농업과 임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업 연한은 2년이었다. 속성과는 수업 연한이 1년으로서 土地調査事業의 측량기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었는데, 2회까지 8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다음 廢科되었다. 이어 1918년 3월 7일에는 別科가 신설되었다. 교사는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며 한국인은 약간 명에 불과하였다.

대봉동 假校舍는 농림학교로서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여, 1923년에는 신천동 1093번지(현, 코오롱 공장 및 대구은행 본점, 시교육청 청사 자리)의 신교사로 이전하여 학교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신교사는 1만여 평의 대지에 목조 2층의 본관과 농산가공실·농구실·畜舍·裝蹄庫·정미소·기숙사 및 직원 사택까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비로소 농림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었다. 1920년에는 수업 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교칙의 개정이 있었다. 1924년에는 수업 연한을 5년으로 연장하였고, 학과는 農業科와 林業科로 분리시켰다. 이리하여 實業學校 規程에 의해 農林業에 종사하는 남자에게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34) 김홍수, 《韓國近代歷史教育研究》, 1990, p. 168.

중등학교로 되었던 것이다.³⁵⁾ 교과목은 농업·수신·일어·조선어 및 한문·수학·理科(박물·물리·화학)·圖畫·체조 등이었다. 특히 농업 과목은 채소·과수재배·보통작물·축산학·양잠·토양학·농구학·임업·농업경제·농산제조학·병충해학·측량·실습 등이었다. 그리고 농업 실습은 8시간 이상을 課하도록 하였다. 1939년 현재, 동교는 10학급에 교원 21명, 학생 수 472명(한국인 339명, 일본인 133명)으로 구성되었다.

V. 官立大邱高等普通學校³⁶⁾

1916년 5월 15일 조선총독부의 高等普通學校 官制가 공포됨에 따라, 오늘날 경북고등학교의 전신인 官立大邱高等普通學校가 동년 5월 16일에 탄생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교는 대구 향교 내에 설치되어 있던 私立協成學校의 기구를 그대로 인수하여 그곳에서 개교하였으므로, 실제의 역사는 1899년까지 소급될 수 있다.

동교의 설립 과정과 초창기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 3월부터 대구 고등보통학교의 개교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어 4월에는 58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동시에 舊私立協成學校의 재학생 중 63명을 골라 2학년에 편입시켜 假入學式을 거행하였다. 다음 달 16일에는 관립대구고등보통학교로 정식 개교하였으며, 초대 교장으로 일본인 高橋 亨이 취임하였다. 초창기의 교사는 구 사립협성학교의 부속 건물(구 대구 향교)을 수리하여 가교사로 사용하였다. 개교 당시의 교과서는 한문·영어·일어 등뿐이었고, 그 밖의 과목은 거의 필기로 공부하였다. 교사 진용은 한문 교사인 梁在淇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인이었다. 당시는 일제의 가혹한 무단통치가 행해졌던 시기였으므로, 관립학교 교사들에게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게 하고 허리에는 장검을 차고 다니게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을 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1917년 12월 16일 대봉동 신교사(현, 청운맨션 자리)로 이전하였다. 신축 교사는 목조로 된 2층 교실 1동과 단층의 강당 1동이었다. 당시 대구에서 2층 건물로서는 대구역과 大邱郵便局뿐이었는데, 校舍로서는 동교의 교사가 처음이었다. 1918년에 본관을 신축, 준공하였다. 1921년 4월 1일 官學制의 공포에 따라 師範科와 補習科가 설치되었다. 사범과는 보통학교의 훈도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1925년 3월 31일자로 폐지되고 京城師

35) 《大邱府史》第二, 府政編, p. 128.

36) 《慶北中高等學校六十年史》, 1976 참조.

範學校 大邱分教室로 되었다. 1926년 3월 25일 분교실이 폐지될 때까지 4회에 걸쳐 74명의 졸업생이 초등교육계에 진출하였다. 보습과는 4년제 고등보통학교 출신으로는 일본의 5년제 중학 졸업생처럼 대학에 진학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잠정적 조치로 1년간을 더補習시켰던 것이다. 즉, 일본의 중학 5년제와 동등한 자격이 구비되도록 하자는 데 그 설치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1922년 4월 1일에 개정된 조선교육령에 의해 고등보통학교가 4년제에서 5년제로 바뀔에 따라 동 보습과도 자연 폐지되고 말았다.

1925년 4월 1일 朝鮮總督府 學校官制가 시행됨에 따라, 동교는 경상북도로 이관되어 관립학교에서 교명이 大邱公立高等普通學校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3.1운동 이후 총독부의 1道 1校의 방침에 따라 각 도에 고등보통학교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총독부가 직접 이들 학교 모두를 관리하는 것이 무리였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1938년 4월 1일에 제3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자 교명이 다시 慶北中學校로 바뀌었다.

대륙 침략을 위해 중일전쟁(1937)을 일으킨 일제는 內鮮一體라는 미명 아래 식민지 교육을 보다 강화하였다. 1938년 3월에 공포된 제3차 조선교육령도 이같은 시정 방침의 토대 위에서 정해진 것이었다. 이 교육령에 의해 우리 글이 완전히 폐지되고 일본어 사용이 강요되었다. 또한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 등의 명칭을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명칭과 같이 소학교·중학교 등으로 바꾸어 한국인의 차별 대우를 없애는 것처럼 기만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국인을 보다 철저히 일인화시킨다는 저의가 숨어 있었다. 일제는 이같은 교육 정책에 따라 교명을 大邱公立高等普通學校에서 慶北中學校로 바꾸었던 것이다.

일제는 서울·평양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대구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 그 의도는 무단적 식민통치에 대해 성리학적 봉건사상에 젖어 있는 경상도 양반층의 저항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들을 회유하는 한편 그들의 식민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제의 이같은 의도와는 달리, 동교의 학생들은 항일의식과 민족의식을 키워나갔다.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와 적개심은 3·1독립 만세운동을 계기로 폭발하였다. 1919년 3월 8일 동교의 학생들과 啓聖·信明學校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항일독립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당시, 동교에서는 전교생 239명 중 200명이나 참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교 학생들의 투철한 항일의식을 미루어 알 수 있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양상을 띠고 일제에 항거하는 同盟休學이 연례 행사처럼 나타났던 것도, 동교 학생들의 민족의식·배일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동교는 8.15 해방 당시까지 도합 1,821명의 영재를 배출하였으며,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수많은 지도자와

지식인을 배출하였다. 1939년 4월 현재 40학급에 교원 22명, 학생 수 486명이었다.

VI. 大邱嶠南學校³⁷⁾

嶠南學院의 산실은 1900년에 李東珍에 의해 설립된 友弦書樓였다. 1921년 9월 15일 민족지사인 洪宙一·金永瑞·鄭雲騏 등 3인에 의해 大邱府 八雲町(현, 북성로) 소재 우현서루를 가교사로 하여 私設學術講習所 嶠南學院이 설립된 것이다. 동교는 민족의식의 고취와 애국 인재의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개교 당시 동교는 초등·중등·고등과의 3과로 편제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신교육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을 위해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속성으로 단기간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각 과정의 이수 기간이 초등과 6개월, 중등과 1년, 고등과 3년이었던 데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초창기의 교수 과목은 조선어·한문·지리·역사·수학·물리·화학·박물·영어·일어·체조 등이었다.

1921년 개교 이래 우현서루를 가교사로 했던 嶠南學院時代는 재정난, 교육시설의 미비, 일제의 민족사학 탄압, 우리 국민의 신교육에 대한 냉담한 반응 등으로 학교 발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일제에 의해 학원으로 인가받았기 때문에, 매년 존속 인가 신청을 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學院에서 正規學校로 승격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규학교로의 승격운동을 전개하던 중, 당시 유명무실했던 日語學校의 인가장을 인수할 것에 착안하여, 동교의 설립자인 洪宙一과 金永瑞가 수 차례의 교섭 끝에 1924년 5월 8일 200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그 결과, 동월 21일에 남산동의 신교사로 이전하고 大邱嶠南學校로 개명, 승격시켰다.

1925년 4월 1일에는 고등과에 여자부를 신설하였다. 이는 동교의 설립자들이 민족의 각성을 위해서는 여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과의 여자부는 이듬해 3월에 폐지되어 재학생들을 大邱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제 2학년에 편입시켰다. 설립 이래 초등과·중등과·고등과 3과를 두어 교육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1928년 3월 1일에는 3과를 모두 폐지하고 이후 순전히 고등보통교육만을 담당하였다. 1929년 5월 1일 金燾均이 교장으로 부임하고, 李相和·金相悅·徐東辰·李孝祥 등이 무보수로 후진 교육과 민족 교육에 이바지하였다. 1930년 4월 1일에는 수업 연한 4년의 중등교육을 시행하는 各種學校로 인가받았다. 그러나

37) 《大倫六十年史》，1981，참조.

4년제의 각종학교 출신으로서 전문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없었으므로, 5년제의 중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남산동 신교사로 이전한 후, 동교는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하여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에 동교 교사인 李孝祥이 중심이 되어 운영자금의 모금과 동지 규합에 나섰다. 그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젊은 교사들이 모여들어 학교의 진흥을 위해 합심단결하고 무보수로 민족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 이에, 일제는 동교를 不逞鮮人の 학교로 지목하고 재단이 부실하다는 구실을 붙여 1939년에 폐교를 통고하였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徐丙朝가 많은 사유지를 희사하여 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교사를 신축함으로써, 동교는 재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1942년 4월 9 일에는 徐丙朝를 이사장으로 하는 大峯教育財團과 大倫中學校의 인가를 받게 되고, 동년 11월 14일 교장에 이효상이 취임함으로써 정규 중학교가 되었다. 1943년 현재 총 8학급에 교원 10명, 학생수 380명이다.

VII. 大邱公立商業學校

종래 대구에 설립되어 있던 실업학교는 1910년에 개교한 大邱公立農林學校뿐이었다. 현, 대구상업고등학교의 전신인 동교는 1923년 2월 26일 수업 연한 5년에 10개 학급으로 설립이 인가되었다. 동년 4월 16일에 당시 일본인 학교인 大邱公立中學校 교사의 일부를 빌려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교육도시이며 상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대구에서 상업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경상북도 당국이 道費로써 동교를 설립 운영하였던 것이다. 개교 당시 동교의 교육 목적은 ① 상업의 본질과 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상업에 관한 지식·기능·태도를 습득시켜 상업활동을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개인과 집단적인 인간관계의 융화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업 기능인을 양성하고, 소위 內鮮融和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상업인의 인간상을 배출하는 데 있었다.

1923년 8월 6일에는 대봉동 60번지에 8천여 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煉瓦造 2층의 교사를 신축하고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이 때 강당과 기숙사도 동시에 준공되었다. 1936년 11월 2일에 기숙사 이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운동장 확장 공사도 실현되었다. 1939년 현재 10학급에 교원 18명, 학생 수 498명(한국인 256명, 일본인 242명)이었다.³⁸⁾ 교직원 은 거의 전원이 일본인이었고, 다만 1926년에 부임하여 조선어와 법률을 가르쳐 온 李宗林만이 유일한

38) 《大邱府史》第二, 府政編, 1943, p. 129.

한국인이었다.

VIII. 慶北道立師範學校

3.1운동(1919) 이후 초등교육기관이 수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것은 192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3面 1校의 계획을 세워 초등교육기관의 확충을 도모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3.1운동으로 한국인의 민족의식이 되살아나 새로운 의욕과 면학열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1919년에 전국에 1,320개밖에 없던 학교가 1925년에는 2,045개로 증가하였고, 그곳에 수용되는 학생 수도 131,975명에서 500,71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학교 수에 있어서는 1.5배 이상, 학생 수에 있어서는 약 4배에 가까운 증가율이었다.

교육기관의 비약적인 확충은 사범학교의 정비·확충으로 나타났다. 즉, 일제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황민화 교육을 담당할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사범학교를 설립하였던 것이다. 대구에서는 1921년 4월 1일 官學制의 공포에 따라 大邱公立高等普通學校에 師範科가 설치되었다가, 1925년 4월 1일에 폐지되어 京城師範學校 大邱分校室으로 된 것이 최초의 것이다.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의 사범과 설치에 이어, 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의 전신인 慶北道立師範學校가 1923년 3월에 개교되었다. 동교는 개교 당시 수업 연한이 3년인 特科와 1년인 講習科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어느 것이나 초등교원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29년 4월 18일 조선총독부 학교관계 개정에 따라, 동교는 교명을 官立大邱師範學校로 변경하고 동시에 特科를 尋常科로 개칭하여 수업 연한을 5년으로 하였다. 이어 동년 6월 1일에 연습과 63명, 심상과 98명의 입학식을 거행하고, 舊慶北道立師範學校의 특과 2,3학년 132명을 편입시켜 새로이 출발하였다.

1930년 3월 24일에 제1회 演習科 62명, 特科 6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동년 11월 15일에는 본관과 기숙사를 준공함으로써 사범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38년 6월 18일 조선교육령이 개정됨에 따라 學則이 변경되고, 다음해 3월 3일 學校官制가 개정되어 교사 3명이 증원되었다. 동교는 1930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1938년에 이르기까지, 尋常科 434명·講習科 958명·短期講習科 696명·演習科 62명·特科 132명 합계 2,28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39년 현재 학교의 소재지는 大鳳町(현, 대봉동)이며, 15학급에 교원 30명, 학생 수 691명(한국인 485명, 일본인 20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교의 정통은 심상과라고 알려져 있다. 심상과는 소학교 졸업자나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치열한 입시 경쟁을 치른 후 입학하여, 5년간의 수학 과정을 이수하고 초등학교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재학 중 일체의 학비가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일정 금액의 장학금까지 지급하였으므로, 해마다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응시하여 10 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러나 재학생 중 대부분이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이 빈곤한 경우가 많았다. 동교는 학교 시설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물리·화학·박물·음악·공작실 등 특별 교실을 갖추었고, 대구 시내에 사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도 마련하였다. 심상과에는 1학급당 100명의 정원 안에 10%에 해당하는 10명은 반드시 일본인을 선발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그들이 바라는 황민화교육을 담당할 교원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우수한 두뇌를 가진 한국인 학생들이 순순히 그들의 교육 방침을 따를 리가 없었다.³⁹⁾ 그들은 〈주먹隊〉사건(1930), 〈研究會〉사건(1932), 〈茶革黨〉사건(1941) 등을 일으켜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IX. 大邱公立工業補習學校

동교는 大邱工業高等學校의 전신으로 1925년 4월 1일에 실업계 중등학교로 개교하였다. 수업 연한 2년, 정원 60명(1학급)으로 설립된 동교는, 문자 그대로 기초적 공업기술의 補習教育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교과보다 실습을 중시하였다. 만주사변(1931) 이후 일제의 공업화 정책은 한국인에 대한 실업기술교육의 장려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노동자 양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1937년 中日戰爭이 발생하면서 일제의 자본주의 경제가 準戰時經濟體制에서 戰時經濟體制로 이행함에 따라, 한국은 일본을 위한 각종 戰略工業基地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대구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즉, 대구도 이 때부터 공업기지로써 인식을 받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각종 공장이 생기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중일전쟁 시기를 전후하여 대구·경북지역에 많은 공장이 설립됨에 따라 大邱公立工業補習學校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대신 1937년 4월 30일에 수업 연한 3년의 大邱公立職業學校가 새로이 탄생하였다. 대구공립직업학교는 처음에 본과로 土木·家具科만을 설치하였고, 동년 6월 15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다음해 6월 10일에는 대봉동 가교사에서 현재의 위치인 신암동 신교사로 이전하였고, 1939년 3월 31일에 다시 기계과의 증설을 인가받았다. 이어 1944년 3월 31에는 大邱公立工業學校로 승격하였다. 1944년 현재 수업 연한 5년으로 토목·

39) 대구사범 학생독립운동 동지회, 《대구사범 학생독립운동》, 1993, p. 56, pp. 85~86.

가구·기계·광산·목공과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학생 수는 314명으로 1,228명(2~4년 과정도 포함)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X. 大邱女子技藝學校

1925년 私設學習講習會 規程에 의해 설립된 大邱女子技藝學院이 동교의 전신이다. 동학원은 1929년 1월 25일에 大邱女子技藝學校로 설립·인가를 받아, 동월 31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개교 당시 本科 3학급에 專科 1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동교는 1939년 현재 北龍岡町에 위치하고 있으며, 4학급에 교원 7명, 학생 수 174명(한국인 65명, 일본인 109명)이었다.⁴⁰⁾

XI. 大邱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일본인 여학교인 大邱公立高等女學校는 이미 1915년 11월 18일에 설립되었으나, 한국인을 위한 公立女子中等教育機關이 설립되지 않아 대구·경북 지역민의 불만이 컸다. 그리하여 1925년에는 기성회에서 5만원의 성금을 걷기로 하고 도청에서는 지방비 예산에서 계산하기로 하여 겨우 남산동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慶北女子高等學校의 전신인 동교는 1926년 3월 27일 大邱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라는 이름으로 인가되었다. 동년 4월 15일 초대 교장으로 일본인 白神壽吉이 취임하고, 西千代田町(현, 장관동) 假校舍에서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개교 당시 첫 입학생은 1학년 120명, 2학년 38명이었다. 2학년 38명은 大邱嶠南學校 高等科 女子部가 1926년 3월에 폐지되자, 이 학교의 재학생들을 동교가 인수하여 편입시킨 것이다. 1927년 10월에는 현 교사의 위치인 남산동에 신축교사가 준공되어 이전하게 되었다. 1938년 4월 1일에는 조선교육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명을 慶北公立高等女學校로 개칭하였다. 동교는 순한국인의 人文公立女子中學校라는 점에서 慶北中學校와 더불어 대구·경북 지역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1939년 현재 총 8학급에 교원 17명, 학생 수 4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⁴¹⁾ 한편, 동교는 8·15해방 당시까지 22회의 졸업생 1,000명을 배출하여 이 교장의 여성 지도자와 현모양처를 많이 배출하였다.

40) 《大邱府史》第二, 府政編, 1943, p. 133.

41) 위의 책, p. 133.

XII. 大邱公立商業實修學校

동교는 1931년 9월에 직장을 가진 청소년들의 배움터로 大邱普通學校(현, 대구국민학교)의 교실 2개를 빌려 개설하였다. 교사는 鳳山町(현, 봉산동)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2학급에 학생 수는 58명이었다.⁴²⁾ 32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광복 후에는 大邱公立商業中學校의 야간부에 편입되었다.

XIII. 五山佛教學校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어서의 불교는 일반 민중을 위한 교육사업에 있어서 다른 종교에 비해 부진한 편이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이해하는 승려들이 교육사업의 필요성을 노장 주지에게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 신도들과 소장 승려들의 꾸준한 설득으로, 마침내 경북 5본산 주지 연석회의를 桐華寺 布教堂에서 개최하여 宗立學校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1939년 10월 9일에 종립학교로서 恩惠寺 경내에 五山佛教學校가 설립되었다. 초대 교장에는 金東華가 부임하였고, 이사에는 5본산 주지가 선임되었는데 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尹相範·朴度洙·崔仁澤·深普練·金相裕. 동교는 오늘날의 能仁中高等學校로 발전하였으며, 이것은 대구에서 설립된 유일의 불교계 학교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⁴³⁾

XIV. 大邱女子商業學校

일제 말기에 설립된 유일한 여자실업학교로서 大邱女子商業學校가 있다. 동교는 1945년 3월 31일에 설립되었고, 동년 4월 20일에 개교하였다. 현, 大邱第一女子商業高等學校의 전신이다.

42) 앞의 책, p. 131.

43) 《大邱市史》제2권, 1973, pp. 476~477.

XV. 日本人 專用的 中等教育機關

1. 大邱公立高等女學校⁴⁴⁾

1915년 5월 7일 大邱學校組合은 수업 연한 4년에 4학급, 학생 수 200명의 大邱公立高等女學校의 설립을 결의하고, 동년 11월 18일에 학교 설립을 인가받았다. 동교는 일본인 여자를 위한 중등교육기관으로서 남자중학교보다 먼저 설립되었다. 그 이유는 여학생들을 京城·釜山 기타 다른 지방으로 유학시키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일 것이다. 1916년 4월 10일 제1기 신축교사를 준공하고 개교식을 거행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제 2기 건축공사의 낙성을 보았다. 이후 1921년 제6기까지 건축 공사가 계속되었는데, 그 사이 교사 부지에 인접한 官有地 2,300여 평을 무상 대부받아 기숙사의 신축 등이 있었다. 1932년에 다시 관유지 840평, 府有地 657평을 운동장에 편입시키고, 1938년 9월에 이르러 교실 6실과 강당의 개축을 마쳤다. 1939년 현재, 학교의 소재지는 東雲町(현, 동인동)이며 14학급에 교원 23명, 학생 수 717명이었다.

2. 大邱公立中學校⁴⁵⁾

동교는 1921년 4월 19일 조선총독부에서 개정 반포한 中學校 官制에 따라 일본인 남자를 위한 중학교로 설립되었다. 종래에는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제로서 중학교 입학 지망자는 京城이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유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일본인들은 그들 자제의 타지 유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에 大邱公立中學校를 설립하였던 것이다.

동교는 1921년 4월 25일에 本町公立尋常小學校(현, 종로국민학교)의 교사 일부를 빌려 첫 수업을 시작하였고, 동년 6월 4일에는 대봉정(현, 대봉동) 신교사로 이전하여 동월 12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1925년 4월 1일에 동교는 경상북도로 이관되어 大邱公立中學校라 하였다. 1939년 현재, 학교 소재지는 大鳳町(현, 대봉동)이며, 10학급에 교원 21명, 학생 수 492명(일본인 485명, 한국인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4) 《大邱府史》第二, 府政編, 1943, p. 129, p. 132.

45) 위와 같음.

第4節 專門教育機關

I. 公立大邱醫學專門學校

官立大邱慈惠醫院은 1910년 9월에 대구의 慈惠救療機關으로 東門洞에 설립되었다. 1923년 7월에는 동의원 내에 私設醫學講習所가 부설되었다. 동강습소는 다음해인 1924년부터 경상북도 지방비로 운영됨과 동시에 大邱醫學講習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25년 4월 1일에 공포된 朝鮮道立醫院官制에 따라 본원의 관리권이 경상북도로 이관되자, 그 명칭이 道立大邱醫院으로 개칭되고 대구의학강습소를 그 부설기관으로 삼았다. 이어 1926년부터는 수업 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4월에는 5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동년 5월부터 강습생들이 대구의학강습소를 醫學專門學校로 승격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1926년 3월 13일 동문동 청사가 불의의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그 이듬해에 본원을 현재의 동인동 대학병원 위치로 옮기고 동강습소도 현재의 의과대학으로 옮겼다. 1930년 3월에 비로소 동강습소의 졸업생들에게 의사 면허자격증을 인정하고, 재소생들에게 징집 연기의 특전을 부여하였다. 1933년 3월 4일 勅令 第 20號로 朝鮮公立學校 官制가 개정 공포되자, 전문학교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동년 3월 6일에 인가를 받았다. 그리하여 道立醫學講習所는 발전적으로 폐지되고 새로이 公立大邱醫學專門學校가 개교되었다. 본교 졸업생의 내무성 의사 면허자격증에 관해서는 제1회·제2회 졸업생에 한해서 3개월 이상의 實地補習教育을 수료하게 한 뒤에 면허장을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3회 이후(1935년 10월)의 졸업생에 대해서는 위의 조건 없이 내무성 의사 면허자격증을 발급해 주었다.

본교는 專門學校令에 따라 의사가 되는 데 필요한 학술 교수와 인격 도야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수업 연한은 4년이었다. 학교의 본관은 독립대구의원(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도로 건너 편에 건축하여 1933년 12월에 준공하였다. 당시 본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臨床實驗이었는데, 그것은 독립대구의원의 설비와 환자를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學用患者 專門病室 2개·전속 간호원 양성소·약제국 등이 있었고, 대구의학전문학교 의학회·교수회 및 평의회 등과 같은 기구가 있었다. 본교는 대구·경북 일원뿐만 아니라 전국 의학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1939년 4월 현재, 한국인 학생수 91명, 일본인 학생 수 196명으로 도합 287명이며 졸업생 수는 391명이다.

第5節 民衆教育機關

일제하에서는 민족교육운동의 전개로 교육열은 점차 고조되었으나, 반면에 식민지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정규학교 교육시설은 태부족이었으며, 사립학교 교육 역시 계속 억제당하고 있었다. 학령 아동을 위한 교육시설이 너무나 부족하였기 때문에, 학령 아동 중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절대적이었다. 특히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는 미취학 아동들은 정규 학교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교육기관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이미 취학 연령을 넘긴 성인들에게는 정규 학교 교육을 실시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이나 취학 기회를 놓친 성인 남녀를 위한 민중 교육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되었다.⁴⁶⁾ 그 결과, 당시 날로 고조되어 갔던 민중의 교육열은 書堂·講習所·夜學·學院·義塾 등 수많은 비정규 민족교육기관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정규적인 민중교육활동은 결국 정규학교의 부족현상과 민족의 계몽·개화로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민족의식이 결부되어 고조된 민족운동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민중교육시설은 비록 비정규의 교육활동이기는 하나 우리 민족의 자율적 활동으로 설립되었으며, 광범위하게 전국에 분포되었고 주로 基層社會에 영향을 끼친 바가 컸다. 따라서 민족교육의 차원에서는 정규학교보다 더 중대한 민족사적 의의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민족사적 의의를 지닌 민중교육기관의 설립 주체는 ① 근대적 자각에 앞장섰던 종교단체 ② 애국운동의 추진 세력인 문화교육단체 ③ 새로운 사회 의식을 가지고 결성된 농민·노동단체와 여성단체 ④ 지방의 篤志人士 등이었다.

I. 書 堂

일제의 서당에 대한 정책은 〈書堂規則〉이 개정된 1929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성격을 약간 달리 하고 있다. 즉, 1930년대 이전은 溫存策과 統制策을 병행하였고, 그 이후는 강력한 탄압책을 실시하면서도 일제의 교육방침 수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개편책을 병행시켰다.⁴⁷⁾

1911년의 〈私立學校規則〉제정과 1913년의 〈私設學術講習會에 관한 건〉으로, 일제는 사

46) 盧榮澤, 《日帝下 民衆教育運動史》, 1979, pp. 45~46.

47) 위의 책, p. 81.

립학교와 사설학술강습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사립학교와 사설학술강습회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자, 한국인의 교육열은 서당의 설립으로 나타났고 그 수도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그 실례로 1911년에 전국의 서당 수가 16,540개이던 것이 1913년에는 20,268개로 증가하였고, 1917년에는 24,294개로 증가하였다.⁴⁸⁾ 일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믿었던 서당이 도리어 증설되고, 이를 통해 근대교육의 실시는 물론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경향이 높아져 갔기 때문에, 서당에 대한 탄압을 가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리하여 1918년에는 지금까지의 서당 온존책을 통제책으로 바꾸어 〈書堂規則〉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근대적 민족교육운동의 확대를 억압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구성을 지닌 서당 즉, 재래 서당에 대해서는 온존책을 쓰면서 주로 改良書堂에 대해서 탄압을 가하였다. 이것은 서당의 근대화를 봉쇄하고 공립보통학교에 우리 민족의 교육적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식민지 교육을 강화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또, 일제는 1929년 6월 〈書堂規則〉을 개정하여 서당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즉 서당의 설립을 종래의 届出制에서 도지사 인가제로 바꾸어 그 설립을 어렵게 하고,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색채가 있거나 식민지 지배정책에 방해되는 서당에 대해서만 탄압하였다. 그 외의 서당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의 개선·서당 교사에 대한 강습 등으로 식민지 교육의 이념을 주입시킴은 물론, 지방비를 보조하여 초 등교육기관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의 서당은 결국 일제의 식민지 교육기관화된 셈이다. 한편 일제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서당을 개편하여 簡易學校로 만들어 식민지 교육기관으로 흡수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1930년대에 일제는 민족 교육적 서당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서당에 대한 장려책을 실시하고 또한 일부 서당을 간이학교로 만들어 식민지 교육기관화하였던 것이다.

서당 수에 있어서는 경술국치(1910)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1920년대 초반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른다. 그러나, 그 이후 서당의 수는 점차 감소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제 말기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1920년대 초반까지 서당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립학교의 탄압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3.1운동 이후 민족 교육열의 팽창으로 서당을 많이 설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0년대 초반 이후 서당의 수가 漸減한 이유는, 일제의 서당 탄압책 실시와 공사립보통학교의 설립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감소 현상은 1929년 서당규칙이 개정된 이후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상에서,

48) 앞의 책, p. 99 도표 참조.

일제시대의 서당은 교육 저변의 확대·민족의식의 양양 등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서당은 민중층의 계몽과 민족 실력양성을 위한 민중교육에 크게 공헌하였다.

대구에 있어서 서당 설립의 대표적인 예는 달성군 達西面 竹田洞(현,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죽전동에서는 주민들의 일치단결과 눈물겨운 노력으로 書堂과 勞動夜學을 설립하였다. 당시 죽전동에는 40여 호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농토가 비옥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극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16년 음력 정월 보름날 동민대회를 열어 서당 및 勞動夜學講習所 期成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매호마다 1원씩 出捐하여 이를 기본금으로 利殖하고, 또한 매년 보리 1말과 벼 1말씩 내어 利殖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5년 후인 1921년 1월 15일에 다시 동민대회를 열어 총 자산을 결산하여 본 즉 합계 400여 원이었다.

이에 동민들은 이 돈으로 서당 및 강습소를 건축하기 시작하여 동년 5월에 낙성식을 거행하고 건물명을 松竹齋라 하였다. 그리하여 동리 아동들을 모집하여 1921년 6월 5일에 성대한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특히 야학에서는 생활난이나 연령 초과로 晝學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남녀 청년들을 교육하였다. 극빈한 농촌에서 동민들이 단합하여 서당과 야학을 설립한 것은, 당시 일제의 침략하에서 당국에 의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운동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달성군 죽전동의 예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⁴⁹⁾

대구·경북 지방에 설립된 서당의 수는 1915년에 1,710곳(생도 수 13,107명), 1926년에 925곳(생도수 9,053명)이었다.⁵⁰⁾ 이 중 대구지역에서 설립된 서당의 수는 사료의 부족으로 알 수가 없다.

II. 夜學·講習所

1. 宗教·青年團體 등에 의한 民衆教育活動

3·1운동 이후 일제의 무단통치가 소위 문화정치로 전환되자, 한국의 민족운동도 문화주의적 민족운동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民族實力養成運動이 크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1920년대에 들어서는 민족적 자각이 높아짐에 따라 教育運動·啓蒙運動·女性運動·青年運動 등이 활발하게

49) 《慶尙北道史》中卷, p. 239.

50) 盧榮澤, 《日帝下 民衆教育運動史》, 1979, p. 102 도표 참조.

전개되었다. 이들 운동은 주로 민중교육과 민중계몽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일제의 產米增產計劃의 실시와 노동력 착취에 대항하여 노동운동과 농민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계몽적, 교육적 성격을 띠면서 그들의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같은 시세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각종 靑年團體들이 우후순순처럼 조직되어 각종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대 초에 발흥하기 시작한 대구·경북 지방의 청년운동단체들은 종교계통의 단체를 포함해서 대체로 민족주의에 입각한 계몽적, 교육적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1923~24년 경에 이르러서는 소위 新進靑年들에 의해 점차 좌경화되어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20년대 대구·경북의 24개 府郡에서는 290개의 靑年運動團體들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그 중 대구가 28개로 가장 많았다.⁵¹⁾

〈表 4-5〉 大邱·慶北地方의 靑年運動 團體 數

府郡	대구	영일	김천	상주	안동	예천	경주	영주	군위	경산	달성	영천	고령	영양	청도	문경	의성	칠곡	성주	영덕	선산	봉화	청송	울릉	계
단체수	28	28	26	25	24	22	12	12	12	11	11	10	10	9	7	7	6	6	6	5	5	4	3	1	290

대구·경북지방 청년운동 단체들의 활동상을 보면, 먼저 교육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다. 청년들의 지식 계발을 중요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는 1920년대 대구·경북지방의 청년운동단체들은, 勞働夜學·農民夜學·女性夜學 등 각종 夜學會나 講習所·幼稚園·學院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었다. 경북의 예이기는 하지만, 金陵靑年會의 경우 1923년 1월에 김천유치원을 확장하고 금릉학원의 설립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동년 5월에 女子夜業部를 설치하고 1926년에는 노동야학을 개시하는 등 활발한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밖에 도서관이나 문고를 개설하고, 學校期成會를 조직하여 기존의 정규학교를 후원하거나 새로운 학교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1928년 3월 大邱靑年同盟會에서 일제의 금릉학원 폐쇄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⁵²⁾ 民衆圖書館의 復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⁵³⁾ 또한 동년 6월에는 大邱復明私立普通學校 재단 귀속문제를 조사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 것⁵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각종 야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주로 한국어·한문·일본어·산술 등이었으며, 경우에

51) 《慶尙北道史》中卷, pp. 255~256.

52) 《東亞日報》, 1928년 3월 2일.

53) 위의 자료, 1928년 3월 2일.

54) 위의 자료, 1928년 6월 30일.

따라서는 가정이나 부기 등도 가르쳤다. 특히, 야학에서는 저녁 시간 혹은 농한기·방학 등의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가난하고 배움에 굶주린 그 지방의 청소년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그리하여 새로운 지식을 지방마다 널리 보급시켰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의식을 새롭게 각성시켜 나갔다. 그리고 청년단체들은 각종 講演會나 討論會를 개최하여 지방의 민중을 교화하고 계몽시켜 신문화를 일으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교육문제·가정문제·사회문제·위생문제·여성문제·농촌문제·국가와 민족의 장래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이러한 강연회의 실례를 大邱青年會의 경우를 통해 살펴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⁵⁵⁾

〈表 4-6〉 講演會(大邱青年會의 경우)

主催團體	演 題	演 士	出典(東亞日報)
大邱青年會	階級鬭爭(定期講演會)	鄭 雲 海	1921. 6. 5
	偉大한 光明(定期講演會)	崔 益 俊	1921. 6. 24
	교육과 思想(臨時特別講演會)	金 鴻 基	1921. 7. 3
	新社會와 新家庭(臨時講演會)	朴 容 來	
	우리의 責任이 무엇이나(臨時講演會)	李 德 永	1921. 8. 2
	朋黨史의 考察(臨時講演會)	尹 洪 烈	1921. 11. 4
	勝利의 生活(第10回 定期講演會)	金 昇 哲	
	疑問의 生活(第10回 定期講演會)	金 昇 默	1921. 11. 24
	生命과 法律의 關係(第11回 定期講演會)	梁 大 卿	
	自己改造(第11回 定期講演會)	金 堉 堉	
	自由登壇의 精神(第11回 定期講演會)	徐 相 日	
	自我와 天職(第11回 定期講演會)	朴 錫 潤	1921. 12. 10
	努力에 求하라(第12回 定期講演會)	鄭 雲 海	
	冬에 대한 感想(第12回 定期講演會)	金 夏 鼎	
	生의 意義와 精神界의 危機(第12回 定期講演會)	崔 海 鍾	1921. 12. 24
	우리 民族의 來歷(第16回 定期講演會)	李 相 定	
	最近의 教育思想(第16回 定期講演會)	金 堉 堉	1922. 8. 30
	教育機關 不完備에 대하여(第17回 定期講演會)	張 仁 煥 外 1	1922. 12. 2
	朝鮮農民은 生의 欲求를 가졌는가? (農村問題講演會)	徐 萬 達	
	現在 朝鮮農民의 衛生狀態(農村問題講演會)	金 顯 敬	1926. 5. 27

다음으로 종교계 청년운동단체의 교육활동에 대해 살펴 보자.

大邱天主教會에서는 신자 청년들의 친선을 도모하고 체육을 장려할 목적으로, 1912년에

55) 《慶尙北道史》中卷, p. 437.

海聖青年團을 조직하여 정구·축구·야구 등 3가지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 체육단은 당시 聖立學校 學友會를 해체하고 새로이 조직한 단체로서 체육뿐만 아니라 교육사업에도 힘썼다. 즉, 동체육단에서는 1920년에 문맹퇴치사업으로 海聖女子夜學을 설립하여 여성 교육과 계몽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교육 방면에서도 활동하게 되자, 동체육단은 1920년 12월에 海聖青年會로 개칭하고 조직을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해성청년회는 體育·德育·教育 등 3분야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1924년에 朝鮮南方天主教青年會로 발전되어 傳教·教育·體育·財務의 4개 부문을 두고 활동하였다. 동청년회에서는 전교활동은 물론 야학 사업도 계속하여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였으며, 또한 강연회·토론회 등을 수없이 개최하여 민중계몽에도 앞장섰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장로교회는 1898년 安義窩 목사에 의해 창립된 第一教會였다. 동 교회는 교육사업으로 1921년에 대남유치원을 설립하고, 1926년 1월에는 培聖女子夜學을 설립하여 일제 말까지 계속하였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1898년에는 喜道學校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에 힘썼다.

또한, YMCA의 전신인 大邱嶠南基督青年會가 1921년 12월 2일 제일교회에서 창립되었다. 동청년회는 창립되자마자 첫 사업으로 夜學法律講習所를 개최하였는데, 동강습소는 1921년 12월 15일에 도청에 설립 인가 신청을 내어 이듬해 2월 14일에 인가를 받았다. 강사진은 법원 판사 이우익·변호사 양대경·문석규·박해극 등이었다.

대구에서 佛教青年會가 창립된 것은 1923년 4월 8일이었다. 동청년회는 銀梵教堂에서 조직되었으므로 처음에는 銀梵堂青年會라고 이름지었다. 초대 회장은 백석기이며 회원 수는 30명이었다. 설립 목적은 불교 교리의 연구였지만, 민중의 교도가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포교당 내에 야학을 개설하여 문맹퇴치에도 힘썼다. 그러나 일제 관헌의 감시와 방해 작전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하였다. 1933년에는 유명무실한 조직을 정비 강화하고 당초의 취지를 되살려 그 명칭을 大邱佛教青年會라고 고쳤다. 본회의 청년운동은 표면상으로는 종교적 신앙운동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교육과 계몽을 통한 민족의식의 양양과 항일구국사상의 고취였다.

1920년 4월에 창립된 勞動共濟會는 기관지 《共濟》창간호(1920, 9)에 “교육은 노동자들의 인격·능력·품성의 향상이요”라고 언급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계몽을 큰 과업으로 삼고 야학을 설립하였다.⁵⁶⁾ 勞動共濟會 大邱支會에서도 이같은 취지에 발맞추어 야학의 경영에 적극적

56) 한국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 근·현대편, 1993, p. 226.

이었다. 同支會는 1921년 3월 1일 西城町 大邱青年會館 내에 勞動夜學을 설립하고, 학생 250명을 모아 매일 한글·일본어·수산·산술 등을 가르쳤다.⁵⁷⁾ 그리고 1926년에는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촌지방의 야학을 진흥시키기 위해 구역별로 勞動夜學의 개설에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大邱·玉浦文盲退治會에서는 1928년 1월 12일 제 1회 정기총회를 열어, 각 동리마다 야학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명칭을 農學會로 개칭하였다.⁵⁸⁾

新幹會는 1928년 2월의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6항의 행동강령을 제시하였다. 그 중 교육에 관한 항목으로는 ① 농민교육의 실시 ② 조선인 본위의 교육 확보 등 2항이었다. 이는 일제의 노예교육에 전면 저항한 것으로 민족 본위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며, 또한 일제의 제도교육에서 소외된 농민교육의 실시를 주장한 민중교육운동으로 이해되어진다.

1927년 12월 28일에 개최된 新幹會 大邱支會의 정기총회 토의안건 8항 중에서도, 교육에 관한 것이 4항이나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①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실시 촉구 ② 학생의 과학사상 양양과 자유권 획득 ③ 보통학교의 교수 용어로 조선어 사용 허용 ④ 제국주의 식민지 교육정책 반대였다.⁵⁹⁾ 이로써 볼때, 신간회 대구지회에서도 식민지 교육에 저항하고 민족교육의 실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女性團體에 의한 民衆教育活動

우리나라에서 항일운동으로서의 본격적인 여성운동이 전개된 것은, 3·1운동 이후 즉 1920년대의 민족실력양성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계몽주의적 민족운동이 전개되는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여성운동은 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 해방을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여성운동은 여성 계몽과 교육에 주력하게 되었다. 여성운동은 1920년대 초에는 계몽주의적 경향이 주류를 이루었고, 중기에는 사회주의적 경향이 대두되었으며, 말기에는 통일적 여성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대구·경북지역의 여성운동도 이같은 시대적 배경하에 전개되었으나, 타 지역보다 소극적인 편이었다.

1920년부터 1929년까지 대구·경북지역에 조직된 여성운동단체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⁶⁰⁾

57) 《慶尙北道史》中卷, p. 238.

58) 위의 책, p. 239.

59) 한국일보사, 《再發掘 한국 獨立運動史》, 1989, p. 112.

60) 《慶尙北道史》中卷, p. 260참조.

〈表 4-7〉 대구·경북지역의 여성운동 단체(1920~29)

府·郡	대 구	김 천	영 일	영 천	안 동	청 송	경 산	상 주	군 위
단체수	7	4	2	2	1	1	1	1	1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구·경북지역에는 모두 20개의 여성단체들의 조직되어 있었는데, 그 중 大邱府가 7개로 가장 많다. 이들 여성운동단체들을 성격별로 분류해 보면, 종교단체 8·교육단체 6·權友會 支會 4·기타 2 순으로 되어 있다.

1920년대 종교계 여성단체들은 주로 선교활동을 하면서 여성의 계몽과 자질 향상에도 힘썼다. 따라서 포교에 힘쓰는 한편,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강연회·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혹은 야학·학원 등을 설립하여 민중교육에도 힘썼다. 이 시기 대구지역에 조직된 여성 종교단체로는 嶠南基督女子青年會·大邱基督女子青年會·南山町耶蘇教會女子傳道會·南山町教會女子傳道會 등 4개의 단체가 있다.

먼저 강연회와 토론회에 대해 살펴 보자. 대구여자기독청년회에서는 〈大勢의 變遷과 우리의 覺悟〉 〈女子教育에 대하여〉, 대구야소교회여자전도회에서는 〈人生의 責任〉 〈價値있는 生活〉 등과 같은 연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의 경우 남산정야소교회여전도회나 남산정교회여전도회 등에서 많이 개최하였다. 대체로 강연회나 토론회에서는 인생문제·여성문제·여성교육문제 등을 중심으로, 당시 여성운동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주제들이 다루어진 것 같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민중교육과 민중계몽에도 힘썼다. 즉, 대구여자기독청년회에서는 1924년 4월 1일 命道學院을 설립하여 학령을 초과한 여자와 出嫁婦女들을 교육하였다.⁶¹⁾

대구의 여성 교육단체로는 大邱女子青年會·大邱基督女子青年教育會를 들 수 있다. 이들 교육단체는 지적으로 남성에게 뒤떨어진 여성을 계몽하고 교육시킬 것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이들 두 단체에서 개최한 강연회의 연제를 살펴 보면, 〈참사람〉 〈조선이 구하는 女性〉 〈나(我)〉 〈지혜(智慧)〉 등을 들 수 있다. 토론회의 경우, 대구기독여자청년교육회에서는 〈朝鮮人의 急先務가 教育乎아 實業乎아〉라는 논제로 교육부문과 실업부문의 연사가 등장하여 토론을 벌였다. 또한 강습회의 개설도 활발하였다. 즉, 대구여자청년회에서는 1925년 2월 朝陽會館에서 제 3회 編物講習會를 개최하였고, 1927년 11월에는 3주간 같은 장소에서 편물강습회를 개최하였다.⁶²⁾

대구 카톨릭 여성단체의 효시라 할 수 있는 明治町教會 聖母會는 1921년 8월 9일에

61) 앞의 책, p. 262.

62) 위의 책, p. 263 도표 참조.

창립되었다. 이 성모회는 전도사업은 물론이고 문맹퇴치사업에도 힘썼다. 즉, 성모회에서는 1930년에 빈한한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설립하여 교리와 한글·수신 등을 가르쳤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大邱天主教會에서는 聖立學校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실시하였다.

權友會는 1927년 5월 27일에 창립되었다. 근우회는 이후 지방 지회의 조직에 힘을 기울여 전국 주요 도시에 모두 61개의 지회를 설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들 지방 지회에서는 주로 문맹여성들을 위한 야학의 설립과 한글 교육, 부녀 노동자들과 농촌 부인들을 위한 권익옹호 등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⁶³⁾ 權友會 大邱支會에서도 1928년 9월 16일 조양회관에서 〈母性에 대한 片感〉〈女性으로서 본 現社會〉〈朝鮮女性運動의 當面課題〉 등의 연제로, 여성 문제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夏期討論會라는 명칭으로 1928년 동회관에서 〈家庭不和의 原因은 男子? 女子?〉라는 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구지역의 민중계몽에 앞장섰다. 근우회 지회가 개설한 야학을 보면, 金泉支會에서 1927년 金陵學院에 女子夜學을 개설하여 조선어·산술·작문·일어 등을 교육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일제하 대구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여성운동은 종교적 운동 또는 민족운동, 계몽적 생활개선 운동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 이 여성운동은 항상 여성계몽 즉 여성교육에 주력하였고, 이는 또한 민중교육기관에 의해 실천되었다. 이처럼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여성계몽의 교육활동 전개가 있었기에, 여성운동은 민족교육운동의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 특히, 농촌 여성과 도시의 기혼 부녀자·빈민층 여성들을 위해서는 민중교육기관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었으므로, 한국 여성운동을 통한 민중교육운동의 전개가 이루어졌다.⁶⁴⁾

63) 한국일보사, 《再發掘 한국 獨立運動史》, 1989, p. 112.

64) 盧榮澤, 《日帝下 民衆教育運動史》, 1979, p. 78.

第5章 大邱地域의 文化

第1節 概 觀

지역적으로 보아 대구는 조선후기 경상감영이 설치된 이후로 영남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고 근세에 이를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여 지역적으로 대구는 경북지방의 중심지이고 더 확대하면 영남지방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대구지역의 문화는 경북지방의 문화로, 나아가서 영남지방의 문화로 이해될 수 있다. 또 시대적으로는 문화양상이 급변하는 추세에서 전통문화가 빛을 잃고 開化期 이후 점차 새로운 양상으로 문화가 질적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쇄국정책이 무너지고 문호가 개방되자 한반도에는 일본을 통해 서구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1882년 부터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등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과 조약을 체결하므로써 직접적으로 서구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로부터 시작되는 개화의 물결은 조수처럼 밀려 들어오게 되는데 1884년 갑신정변과 1894년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신문화를 수용하는, 급변하는 시대적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서의 開化는 文明化·西歐化·世界化를 융합한 개념으로서 변혁을 전제로한 것이기 때문에 전근대의 보수 수구적인 斥邪와는 정반대의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있었던 ‘변화 속에서나마 최소한의 전통적 禮俗을 유지’하려는 중간적 입장도 모두 개화의 범주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 세력의 동양침투 이후에 등장하는 신문화에 대하여는 일제강점기와 연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비교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반도로의 진출에 기세를 잡게된 후로 신문화는 거의 일본을 통하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친 개화기와 일제에 병합당하는 경술국치 직전 수년간의 애국계몽운동기에는 외국서적이 많이 수입되어 읽히고 신문화로서 수용되었다. 이후 계몽문학적인 것으로 1906년경 부터는 이인직·이해조에 의해서 新小說이 나타났고 1908년경부터는 최남선·이광수에 의해 新詩가 등장하였다.

이미 일본 제국주의의 노골적인 침략이 시작된 1905년 을사늑약에서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겼고 그 이후로 정치적 침탈과 압박이 시작되는데, 1910년 소위 「합방」이라고 이름한 경술국치 이후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상상하기 힘든 질곡 속의 암흑기였다. 일제는 정치적 압제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산업구조로 바꾸어 수탈경제 체제를 만들고 동양척식회사를 통해 토지를 약탈하여 자영지주를 소작인으로 전락시켰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민족고유의 전통을 말살하고자 일본 동화정책을 수행하여 민족적 교육을 금지시키므로써 역사와 언어를 빼앗아 갔으며 소중한 문화재는 약탈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는 우리민족에 있어서 침탈과 압제에 신음하던 고난의 시기인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에 정면으로 대항한 시기요 또 일제에 저항하면서 독립전쟁을 추진한 시기이다.

1910년 제국주의 침략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한 후로 일본인 이주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책적으로 일본 동화를 강력히 추진하였기 때문에 일본문화가 급속도로 유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화를 위해서 한국인에게는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의 교육정책에 일본화를 위한 일본어와 일본역사 교육에 주력하였다. 일제 36년을 살펴 보면 크게 나누어 세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시기는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로 헌병경찰제에 의한 무단통치기로서 신속한 식민지화의 정책추진기였다. 이 당시의 우리민족은 나라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구한말기에 일어났던 애국계몽적 개화사상으로 신식교육에 임하고 계몽운동을 펴나갔으나 악랄한 무단통치에 견딜 수 없어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전국적 민족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후 일제는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직접적 민족말살정책을 다소 완화하는 듯이 보였으나 그것이 식민지화라는 목표의 방향을 전환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이로부터 만주침략을 개시하는 1931년까지에 해당하는 두번째 시기는 교육에서 일단 조선어와 조선사를 교과목으로 설정한 시기였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창간, 開闢誌나 조선문단 등의 창간도 이 시기에 나타났다. 또 새로운 문학이 들어와 퇴폐주의·낭만주의가 유행병처럼 지나가고 사회주의가 일본을 거쳐 들어와 1925년에는 「조선 플로레타리아 예술가동맹」(KAPF)이 결성되어 정치성이 짙은 문학활동이 일어났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프로문학’이라고 약칭되는 사회주의 문학에 일제의 탄압이 가해져 「카프」 관련 작가들을 검거하기 시작하면서 1935년말 카프는 완전 해체되었다.

세번째 시기는 만주사변 후 일제의 대륙침략이 노골화하는 때로부터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제이차세계대전이 종식되는 1945년 까지로 이 시기는 일제의 최후 발악기에 해당한다. 일본은 식민지 뿐만아니라 본국내에조차 제국주의 침략의 전쟁정책

지상주의를 실현하려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고 사상을 순화하며 모든 것을 전쟁에 동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화활동에 대한 통제방침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되었다. 민족지로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수없이 정간을 당해 오다가 완전히 폐간을 당하게 되는 것도 물론 이 때였다.

이 시기에 문학·예술·종교는 민족적 색채를 바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압박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문학인·예술인·종교인이 어느 시대에도 최고의 지적 수준을 유지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계층이 민족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정책에 방해요인이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要視察人으로 지목이 된 인사가 많고 투옥된 인사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동의 제약이 따르고 위축되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활동의 폭이 좁아진 만큼 인적 배출도 적을 수 밖에 없고 작품활동이나 실적도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에 있어서는 제국주의 동양침투의 흐름을 함께 타고 들어온 서양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을 받지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도 악랄한 일제의 세력 앞에는 한계를 들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일제하에 있어서 지식층의 활동에 영향을 크게 끼친것은 기독교였다. 기독교의 선교사업은 교육사업과 의료봉사 또는 낙후된 악습과 폐풍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사회봉사사업을 벌여 사회발전에 기여하였고 이념에 있어서 자유사상을 고취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갖도록 하는 객관적 사고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이바지하였다. 기독교 이외에도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반제국 반침략의 노선에 가담한 종교는 천도교, 불교, 유교 등이 있었다.

仕宦 보다는 道學을 중시하고 많은 인재를 배출시킨 영남지방은 유서 깊은 유향으로서 추로지향을 자처해 왔다. 이러한 지방의 중심지로서 대구는 조선후기 이후 전통적 문화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해 왔으나 일제 통치하 전통문화의 수난에서는 대구도 예외일 수 없었다. 바꾸어 말하면 대구가 지역의 중심도시였기 때문에 신문화의 수용에 있어서도 또다시 지역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되어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새로운 문화의 유입이 선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第2節 文學의 새로운 傾向

I. 詩

1908년 최남선이 《소년》의 권두시로 발표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시작으로 新詩가 나타나고 《셋별》·《청춘》·《泰西文藝新報》·《창조》 등의 잡지가 나오던 1910년대에 대구문단에도 가느다란 여명의 조짐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동안에 대구에서도 시인동인지가 출간되었는데 이것이 《炬火》라는 이름의 시집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지금은 구할 수가 없고 다만 백기만의 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 동인지는 현진건·이상화·이상백·백기만 등 4인의 프린트판의 알파한 책이었다.¹⁾ 비록 이것이 보잘 것 없는 부피의 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근대문학이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나타났다는 점이나, 이 당시가 새로운 문화의 여명기라 할 신문화의 수용과정이었던 점을 참작한다면 간과할 수 없는 문학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 1919년에 창간된 《창조》에 이어 2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폐허》·《백조》·《靈臺》·《金星》·《장미촌》등의 동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잇달아 출간되면서 대구의 시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동인지를 통하여 작품을 발표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대구지역 시인으로는 시대적인 저항과 고민을 표현한 李相和(호 尙火)를 비롯하여 지성의 고독과 번민을 안은 고고한 시인 李章熙(호 古月), 그리고 白基萬(호 牧牛), 李龍壽(호 雪舟), 그리고 안동의 지사시인 李陸史(본명 活), 영양의 吳熙秉(호 一島) 등 거장들이 있고, 일제시에 문단에 등단한 그 밖의 시인으로는 李孝祥(호 한솔), 李潤守(호 石牛), 朴木月(본명 泳鍾), 趙芝薰(본명 東卓)과 朴裕相(호 薰山)시조시인 李鎬雨(호 豪愚) 등이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작가로서 李相和는 1901년 4월 5일 대구 서문로에서 태어나 1943년 3월 11일 광복을 보지 못한채 대구 계산동에서 타계하였다. 그의 작품은 낭만적이며 민족저항적인 두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낭만적인 것으로서 그의 대표작은 〈나의 침실로〉·〈이별을 하느니〉 등이고 민족저항적인 것으로는 〈가장 비통한 기욕〉·〈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통곡〉·〈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이 있다. 그의 후기 대표작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수사법에 있어서 당시로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빼어난 면모를 지닌 것이다. ‘우리의 대표적 민족저항시로서는 약점이 될 수 밖에 없는 초기의 낭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하는 李起哲 교수의 설명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 대구직할시·영남대학교, 《대구근대문학예술사》 참조.

민족적 울분과 시대적 고민을 성공적으로 시에 담아 놓았다고 일컬어 진다.

대구시단에 최초로 나타난 대표적 시인 거장으로서 이상화는 1919년 서울 중앙고보를 3년 수료하고 3·1운동이 일어나자 대구학생시위운동을 지휘하였다. 1922년부터는 백조동인으로 〈말세의 회탄〉·〈나의 침실로〉·〈이중의 사망〉 등을 발표, 문학활동을 하였으나 3·1운동가담으로 인하여 일본 경찰의 要視察人이 되었다. 이 감시를 피하여 프랑스 유학 준비차 23년 일본으로 건너가 「아테네 프랑세」에서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게 되었으나 關東大震災에 동족이 학살되는 참상을 보고 죽음을 피해 프랑스 유학을 포기하고 24년 다시 귀국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10여년 후,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백씨 李相定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1년만에 돌아왔는데 이 사실이 일경에 피축되어 옥고를 치르고 난 이후로는 교남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 시대에 등장한 다른 인물로는 이장희와 백기만, 이근상이 있다. 1925년경 월간 《조선문단》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李章熙는 〈봄은 고양이로다〉·〈靑天의 유방〉 등을 남겼다. 그는 당시의 감상적이고도 퇴폐적인 풍조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특유한 참신한 감각적 시풍의 작품을 남겨 30년대 한국시의 이미지즘풍의 선구가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 시단에서 찬란한 빛을 발한 이상화·이장희의 시에 대하여 이를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는 이도 있으나 그 시작과정이 일제탄압의 역경 속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이는 이해되어야 할 문제이며 오히려 그 진가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백기만은 《상화와 고월》에서 두 시인을 다음과 같이 대비하였다. “상화가 순박하고 열렬하며 중후하고 심원한 시편들로 시혼을 압도하였을 때 고월은 섬세하고 간결하고 청아하고 정교한 시편들로 고고한 지위를 확보했다. 상화는 정렬적이며 비분강개하는 지사적인 풍모가 있었고, 고월은 환상적이며 介潔察察한 隱士적인 경지가 있었다. 상화는 인생파의 시인이요, 고월은 예술지상주의를 구가하던 시인이다. 상화는 변화한 화단에 붉게 타는 다아리아라면, 고월은 황혼의 울타리 밑에 홀로 핀 코스모스다.”

李章熙는 1900년 대구부호 李柄學의 아들로 태어나 1929년 자살하였는데 보통학교 시절에는 항상 수석으로 급장이었고 서예에는 전교 제일이라는 평을 받았다. 일본 교토평중학(京都中學)을 졸업한 뒤 귀국하여 백기만의 추천으로 金星同人이 되었다. 그는 27세를 일기로 염세 음독자살할 만큼 대인관계 없는 고독한 생활을 좋아하였고 오락 등 세속적인 것은 싫어하였으며 성격은 침울하고 조급하고 신경질적이었으며 오만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교우범위도 매우 편협하여 뜻이 통하는 몇몇 사람에 제한되었다. 그의 교우범위는 백기만·이상화·이상백·양주동·오상순·유엽·손진태·현진건·이경손 등이었다. 그러나 그의 정서는

풍부하였고 의지와 지조는 굳은 데다가 고고하였으며 표현은 단순하고 솔직하였으며 진실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봄은 고양이로다〉·〈봄철의 바다〉·〈동경〉 등이며 그가 타계한 후 백기만의 주선으로 朝陽會館(달성공원 동편: 현재는 망우공원에 이축되어 있음)에서 古月遺稿展覽會가 있었다고 한다.

白基萬은 대구 남산동에서 1901년에 출생하여 1969년 타계하였다. 그의 문학정력을 보면 1917년 대구에서 현진건, 이상화, 이상백과 더불어 문예지 《炬火》를 프린트판으로 발행하였고, 1920년에는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서 학생 문예지 《草笛》의 동인으로 시를 발표하고 1921년에는 《開關》에 기고한 바 있으며 1923년에는 월간 《新知識》이라는 잡지의 문예부를 맡았다. 또 24년에는 양주동과 더불어 《金星》동인이 되어 〈꿈의 예찬〉·〈내살림〉·〈기쁨〉등을 발표하였으며 황석우와 함께 「조선시인회」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그가 대구고보 재학시절 3·1운동에 참가하여 비밀리에 태극기를 제작 배포하는 등 일제에 항거하여 대구학생운동 주모자로 투옥되기도 하였다. 그는 초기에는 반항적 기질이 짙은 〈거화〉·〈蠻人の 도전〉등을 발표하였고 주로 전원을 소재로 시를 썼으며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여명〉을 남기었다. 일제시 북만주에서 농장을 경영하면서 독립운동에 참가한 적도 있으나 그는 끝내 대구시단을 지키면서 가꾸고 시인들의 문학적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시집도 하나 남기지 않은 겸허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1959년에는 《씨뿌린 사람들》을 출간하였다.

李根庠은 1903년 대구시 동성로에서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1934년 요절한 시인이다. 大邱近代文學藝術史(李起哲 집필부분)에 따르면 아직은 대구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근상은 짧은 일생동안 시 10편, 시조 4편, 한시 11편, 희곡 1편과 평론 〈文士와 유당병〉을 남겼다. 이런점으로 보아 그는 전문 문인이라기 보다는 아마추어 문인에 가깝지만 그의 행적으로 보면 李相和와 친교가 두터웠고 특히 백기만의 어려운 문학생활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의 부음을 듣고 오상순(공초)이 弔詩를 남긴 것으로 보아 문인들과의 교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李雪舟(본명 龍壽)는 1908년 4월 12일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고보 3학년 때 부터 詩作활동이 있었으나 일본 니혼(日本)대학 경제과 재학시절인 1932년 일본 잡지 《新日本民謡》에 〈古巢〉를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등단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에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학교를 중퇴하고 30년대는 중국 만주 등지로 방랑생활을 하였다. 15년간의 방랑생활에서 쓰여진 작품은 광복 후 《들국화》·《방랑기》라는 시집으로 발간되었는데 ‘눈물의 항거이자 우리민족의 수난사’라 자평되었다.

李陸史(본명 活)는 1904년 안동군 도산면에서 태어나 대구 교남학교에서 수업하고 북경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였다. 1933년 《新朝鮮》에 시 〈황혼〉을 발표하여 문단에 등단한 후 1937년에는 申石艸·尹崑崗·金光均 등과 동인지 《子午線》을 통해 서정적인 목가풍의 시 〈청포도〉·〈교목〉·〈파초〉 등을 발표하고 독립투쟁에 몸바쳐 전생애를 통해 27회나 투옥되면서 일제하에 신음하는 민족의 비극을 소재로 강렬한 저항의지를 노래했다. 그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祖國」은 그의 행동에서 뿐만아니라 저항시로서 표현되었다.

이밖에 영양출신의 吳熙秉(호 一島)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는 1901년 영양의 천석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 리교(立教)대학에 유학한 시인으로 《조선문단》에 〈漢가람 백사장에서〉를 발표하여 문단에 등단하였다. 그후 사재를 털어 《詩苑》을 발간하고 문학활동에 정열을 쏟았다. 그는 조지훈(본명 동탁)과 동향인으로 지훈의 백씨인 천재시인 趙東振이 21세로 요절한 후 유고를 모아 世林詩集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 대구지역 시인으로는 李孝祥(호 한솔), 李潤守(호 石牛), 朴木月(본명 泳鍾), 趙芝薰(본명 東卓), 朴裕相(호 薰山)과 시조시인 李鎬雨(호 豪愚) 등이 있다.

李孝祥은 1906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대구고보를 거쳐 일본 도오쿄(東京)대학을 졸업하고 1936년 《카톨릭청년》에 〈奇蹟〉·〈생활〉 등을 발표 문단에 등단하였다. 일제치하에 전원생활로 청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시작활동을 하였으나 그 작품은 광복이후 시집 《산》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바다》·《인생》·《사랑》·《안경》·《나의 강산아》 등의 시집을 발간했다.

李潤守는 1914년 대구에서 태어나 일본유학 후 지금까지 대구에서 문학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1937년 일본의 시 동인지 《일본시단》에 시 〈清彦의 노래〉 〈크리스마스의 아침〉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여 이 무렵 저항정신을 담은 시를 일본어로 발표했다고 한다.

朴木月은 1916년 경주 건천에서 성장하여 대구 계성학교를 졸업하고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1933년 《어린이》·《신가정》 등에 동시를 발표하였고 1939년 《문장》에 〈길처럼〉·〈그것은 年輪이다〉·〈가을 으스름〉·〈年輪〉등이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趙芝薰은 1920년 영양출생으로 해화전문을 나왔다. 1939년 《문장》에 〈古風衣裳〉·〈僧舞〉 등이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이해에 동인지 《白紙》를 발간하고 〈計算表〉·〈鬼哭誌〉 등의 고전적 소재와 전아한 시풍의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일제말 우리문화 말살정책의 강화에 항거하는 뜻이었다.

朴裕相은 1919년 청도에서 태어나 일본에 유학하고 38년을 전후하여 《文園》이라는 동인지를 3집까지 발간했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시단에 등단한 것은 광복후 부산에서였다.

李鎬雨는 1912년 청도출생으로 경성제일고보를 나와 1938년 《문장》에 〈달밤〉이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하고 이후 대구에 거주, 신문사에 근무하면서 지방문화 창달에 힘썼다.

II. 小 說

대구문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소설분야에서는 한국 사실문학의 개척자라고 일컬어지는 玄鎮健(호 憑墟)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나 한때 대구에 인연이 있는 작가는 경산의 白信愛, 상주의 鄭國鎮, 자인의 張德祚, 경주의 金東里 등이 있다.

玄鎮健은 1900년 8월 대구에서 구한국 대구우체국장이던 현경운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가계를 보면 백부 현영운은 대한제국 군령부 총장, 숙부 현보운은 육군 정위였으며 만형 현홍건은 러시아 사관학교 출신으로 대사관 통역이었고 둘째형 현석건은 명치대출신으로 대구에서 변호사를, 셋째형 현정건은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옥사하였다. 이러한 관인 가계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시절을 대구에서 서당교육을 받고 서울에서 중학교육을 받다가 일본 東京 成城中學校를 거쳐 중국 상해 滬江大學 전문부 독일어과를 중퇴했다.

1920년 그의 종숙인 현희운(필명 玄哲)의 소개로 문학 동인지 《개벽》에 〈희생화〉를 발표하고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듬해에는 〈빈치〉를 발표함으로써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그후 그는 朴鍾和·洪思容·李相和·朴英熙·羅彬·李光洙 등과 함께 《白潮》동인으로서는 활동을 시작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의 작품은 그 성격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초기에 발표된 작품은 사실주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중기의 작품은 민족적 비극을 일제에 대한 강렬한 저항의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후기의 작품은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으며 주제를 애정소설로 위장하고 있다.

그의 초기 작품에 해당되는 것은 치밀한 묘사로 자전적 내용을 소재로 한 〈貧妻〉 외에 〈술권하는 사회〉·〈타락자〉·〈유린〉·〈피아노〉 등이 있고 1923년에는 〈지새는 안개〉·〈할머니의 죽음〉, 1924년에는 〈까막잡기〉·〈운수 좋은 날〉 등이 있다.

중기 작품으로는 1925년에 발표한 〈불〉·〈B사감과 러브레터〉·〈새빨간 웃음〉이 있고 그 다음해에 〈사립 정신병원장〉과 단편집 《조선의 얼굴》을 간행했는데 여기에 수록된 11편 가운데 〈고향〉은 그의 대표작으로 항일 민족의식을 고조하는 작품이었다.

1920년 조선일보사, 1922년 동명사, 1923년 시대일보사 기자를 거쳐 1926년 부터 동아일보사에 근무하였는데 1935년 동아일보 사회부장으로서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장면을 게재하면서 일장기를 지워버린 소위 日章旗抹消事件으로 구속되어 1년간 복역하고

신문사를 물러났다. 이후 그는 다시 창작에 몰두하여 장편소설을 발표하였는데 1939년의 <적도>·<무영탑>은 모두 애정소설로 위장한 항일 민족주의 고취하려는 소설로 특히 유명하다. 이밖에 동아일보에 연재하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52회로 게재 중지되었던 <흑치상지>도 같은 것이었다. 그후 양계업으로 소일하였으나 이것도 실패하고 43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쳤는데 그는 廉想涉과 함께 소설에 있어서 사실주의를 개척했으며 金東仁과 더불어 우리나라 근대 단편소설의 개척자가 되었다.

白信愛는 1908년 영천에서 미곡상을 경영하여 재산을 모은 백내유의 외딸로 태어났다. 어릴때부터 영리하였으나 몸이 약하여 영천공립보통학교에 1년여 재적한 바 있으나 그후로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였다. 그러나 영리한 두뇌와 향학의 정열로 독학으로 공부하여 1924년 대구의 도립사범학교 1년제 단기 강습과를 졸업하였고 졸업후는 영천보통학교의 훈도를 거쳐 이듬해 경산군 자인공립보통학교로 전임되었다. 이때 그의 집은 대구로 이사하여 거상으로 성장했는데 그는 대구와 자인을 왕래하며 교사로서의 소임에 그치지 않고 식민지 치하의 빈민의 생활상과 여성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반일 여성계몽운동에 뜻을 두게 되었다.

그가 반일 여성운동에 뜻을 두게된 데는 3년간 일본의 유학길에서 돌아온 오빠 백기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백기호는 1923년 關東大震災의 조선사람에 대한 일본의 잔학상을 목도하고 반일의식이 고조된 데다가 사회주의에 매료되어 계몽주의적 신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동생 백신애에게 영향을 주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신애는 1926년 영천에서 여성동우회를 조직하고 교직을 떠났다. 그리고 서울로 옮겨 「조선여성동우회」 「경성여자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사회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는 일제에 대항하여 조국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백년 내려온 남성중심 사회의 잘못된 관습에 희생되어 온 여성들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 당시는 사회주의가 풍미하여 1925년에는 이른바 「카프」(조선 플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 결성되었는데 이것은 일제에 의해 수탈당한 빈곤층이 확장되므로써 빈부간의 계급투쟁이나 민족적 저항이 주제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후 사회주의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에의 관심이 커져 블라디보스톡에 2년여 여행하고 돌아와 장편소설 <나의 어머니>로 192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문단에 등단하였지만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日本大學 예술과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1933년 부모의 권유로 결혼하여 경산 송정동에 가정을 꾸린 1934년부터 본격적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때 발표한 작품은 <꺼레이>·<적빈>·<채색교>·<호도>·<낙오>·<정현수>·<악부자>·<광인수기>·<정조원>·<꼬마각시> 등 이다.

백신애의 작품의 골격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가난하고 무지한 여성의 비극적 삶을 그린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그는 친일 거상인 부모를 배반하여 부모의 희망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은 불효한 인생을 살았으나 사회적으로 볼때 그는 여교사로서, 여성운동가로서, 여류작가로서 선구자요 선각자였다.

鄭國鎮(호 昔南)은 1905년 상주군 외서면 우산리에서 태어나 대구고보를 졸업하고 봉화군 물야에서 교편을 잡았다. 1927년 「문예사」 현상모집에서 단편소설 〈박명〉으로 문단에 등단하고 〈춘심〉·〈고독〉 등의 작품을 남겼다.

金東里(본명 昌貴)는 1913년 경주에서 태어나 계남학교를 졸업하고 대구 계성중학교에 입학하여 2년여를 수업하고 서울 경신중학으로 전학했다가 중단하였다. 1935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화랑의 후예〉가 당선되고 이듬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山火〉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고 이어 〈무녀도〉를 비롯하여 〈산제〉·〈황토기〉·〈술거〉 등의 향토색 짙은 작품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제 말기인 40년대에는 민족말살정책이 강화된 시기여서 우리말과 우리역사 교육이 금지되고 민족 언론지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폐간되었으며 문학지도 사라진 가운데 김동리는 친일어용 문화단체에의 가입을 거부하여 세속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으므로 작품발표가 중지되었으나 그후 10여년 동안 多率寺에 들어가 있으면서 많은 작품을 쓰게 되었다.

張德祚는 1914년 경산군 자인면 천석군의 부농집안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소학교를 마치고 32년 배화여자고보를 거쳐 이화여전 영문과에 진학하였으나 재학중 결혼으로 중퇴하고 곧 개벽사 여기자로 입사하여 1932년 《제일선》에 단편 〈低徊〉를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등단하였다. 이어 34년에 매일신보에 발표한 장편 〈은하수〉를 비롯하여 계속적으로 〈어떤 여자〉·〈부부도〉·〈아내〉·〈인간문제〉·〈어미와 딸〉·〈자장가〉 등을 발표하면서 대중작가로서의 지위를 굳혀나갔다.

사실 장덕조는 이때 몇몇 작품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치열한 현실의식 보다 역사에서 소재를 택한 야담류의 소설을 쓰거나 흥미 본위로 엮어가는 애정소설을 많이 썼다. 이 무렵의 작품은 여성의 삶을 즐겨 다루되 여자의 적극적인 에로티시즘의 실상을 보여주어 거의 성적욕구와 그것으로 인한 파멸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金鎮泰는 1917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지만 대구에서 성장하여 대구고보를 졸업하고 계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가 처음 문단에 등단한 것은 滿鮮日報 신춘문예에 〈移民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당선된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그후로는 아동문학에 전념하였다.

III. 兒童文學

우리나라의 아동문학은 1908년 11월 1일자로 창간된 잡지 崔南善 발행의 《少年》을 효시로 하여 1923년 方定煥(호 小波)의 《어린이》가 발행되므로써 이를 기점으로 한다. 《소년》은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소년을 대상 독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이고 1923년 3월 1일에는 본격적 아동문학으로 볼 수 있는 아동잡지 《어린이》가 창간된 것은 일제치하에서 민족혼을 잃지 않으려는 문화운동, 사회운동인 동시에 민족운동이었다. 방정환의 출현은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본격적 탄생이었다. 이로부터 1940년까지는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발흥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나타난 잡지는 《어린이》외에 《신소년》·《새벗》·《아이생활》 등 10여종 이상이 쏟아져 나왔다.

이 무렵 대구는 동요의 요람이라 할 만큼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대구 아동문학계의 선구자는 尹福鎭이었다. 그는 1907년 대구에서 태어나 일본 法政大學 영문학부를 졸업하였고 1925년 《어린이》에 〈조각 빛〉, 26년에 〈바닷가에서〉가 추천되어 본격적 아동문학활동을 시작하였다. 그후 30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네 의원〉, 조선일보에 〈스무하룻밤〉이 당선되고 순수 아동문학에 몰두하였다. 金水卿 또는 金貴環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그의 주요작품으로는 〈물새발자국〉·〈씨하나 묻고〉·〈남남 범벅금〉·〈고향하늘〉·〈기차가 달려오네〉·〈아기참새〉·〈종달새 종종종〉·〈읍내가는 마차〉·〈진달래〉·〈산길〉·〈파아란 세상〉·〈피꼬리〉 등이 있다. 아동문학에 대한 그의 집념은 대단하였던 것으로 “석중과 목월과 나는 제각기 우리네 동요 문학상에 이정표를 하나씩 세웠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자부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전통적 정형물을 기조로 서정적인 자연 친화의 경향을 띠면서 아동문학사상 초기 동시단의 순수동시를 지향한 선구적 공이 크다.

徐德出은 1906년 울산에서 태어나 1940년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절름발에 곱추인 신체불구자였으며 독학으로 동시를 쓴 울산토박이다. 그러나 대구와는 문인들간의 내왕이 있고 그의 동시가 대구의 작곡가에 의해 작곡되어 애창되므로써 대구 아동문학에 땀 수 없는 인연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1925년 《어린이》에 〈봄편지〉가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하였고 윤복진과 윤석중 등 시인들이 울산을 찾아갔을 때 〈슬픈 밤〉을 지어 계성학교의 박태준이 곡을 붙여 대구를 중심으로 많이 불렀던 것으로 전해진다.

朴泳鍾은 1916년 경주 건천에서 자라나 대구 계성중학교를 졸업하고 1933년 《어린이》에 〈통딱딱 통딱딱〉이 특선되고 같은 해 6월에 《신가정》에 〈제비맞이〉가 당선된 이래로 많은

동시를 썼는데 〈옛날과 가랑비〉·〈여우비〉·〈토끼길〉·〈옛날 옛날〉 등이 있다.

李應昌(호 滄洲)은 1906년 대구 봉산동에서 출생하여 대구고보를 졸업하고 경성사범 강습과를 거쳐 교편을 잡으면서 아동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9년 12월 프린트판으로 동요집 《석양 잠자리》를 발간한후 34년 《푸른 제비》, 35년 《별의 왕자》, 37년 《푸른 하늘》 등을 출간하였다. 《석양 잠자리》는 1926년부터 시작된 교단생활에서 동요를 쓰기 시작하여 3년간 《아이 생활》·《별나라》 등의 잡지와 조선일보, 중외일보, 조선민보, 대구일보, 순화회보 등 韓·日신문에 발표한 작품들을 모아 우리말로 쓴 것과 일본말로 쓴 것을 함께 묶어 85편으로 발간하였다. 그후 출간한 《푸른 제비》·《별의 왕자》·《푸른 하늘》 등도 모두 이와같이 우리말과 일본말로 쓴 것이며 여러 곳에 발표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각각 58편, 40편, 37편을 수록하였다.

발표된 작품 가운데는 일본말로 쓴 것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 가정환경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독립운동가 李始榮(호 又齋)의 외아들로 태어나 14살에 아버지를 잃고 어렵게 자라서 光復團의 동지였던 독립운동가 徐相日의 사위가 된 항일 혈맥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교육과 아동문학에만 전념하였지만 교단생활 14년만인 1940년, 일제의 탄압이 혹심해 교단을 지킬 수 없게 되자 그는 교직을 그만두고 농촌에 들어가 전원생활을 시작하였고 이로부터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아동문학에만 전념하여 23편의 동시를 창작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이응창의 작품경향은 20년대와 30년대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년대에는 대체로 전통적 7·5조 중심의 기본률조에 어둡고 애처롭고 가냘픈 감상을 담은 동요였고 30년대 이후는 어둡고 애처로운 면을 벗어나 건실한 동심의 세계를 그리려 하였다. 이러한 그의 작품경향은 형식면에서 자유동시로 전환을 시도하던 당시의 동시인들과 다른점이며, 내용면에서도 현실을 떠나 낙천적으로 소재를 택하던 다른 작가들과의 차이는 특징이었다.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감상주의적 경향도 당시에 풍미하던 막연한 맹목적 감상주의와는 다른 것으로 그의 가정환경에 기인한 것이었던 것 같다. 이로써 이응창은 일제기의 대구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존재로 평가된다.

金聖道는 1914년 경산 하양에서 태어나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자라 계성학교를 거쳐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15세 소년시절인 1929년부터 《별나라》·《새벗》·《소년》·《아이 생활》 등 잡지에 동요를 투고하여 발표함으로써 재질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32년 《東光》지에 학생작품모집 시부에 입선하고 이듬해 《新家庭》지에 동요 〈강아지래요〉가 당선되었다. 그는 다재다능한 문사로 동시, 동화, 작곡 등 다방면에 재능을 나타냈으나 일제기에

해당하는 그의 젊은 시절에는 동요창작과 작곡에 전념했다. 그가 16세 때인 1930년 동요 〈꼬꼬닭아 우지마라〉를 작사하고 계속하여〈어린 음악대〉·〈아기별〉등을 작곡하였으며 안텔센 동화와 그림동화를 번역하기도 하였다.

IV. 漢文學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이 밀려오던 19세기 후반, 개화세력에 반대한 수구세력은 衛正斥邪를 주장하면서 목숨을 건 의병항쟁을 통하여 외세를 배격하고 있었다. 이러한 反開化 세력은 儒學을 벗어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였고 대체로 이들은 한문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긍지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되면 한학자들도 개화의 물결을 외면할 수 없었으며 대구는 영남지방의 지역 중심도시였기 때문에 이 지역인사들은 대체로 개화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경향이였다. 이 시기의 대구출신 한문학자로는 崔鉉達(호 一和), 徐丙五(호 石齋), 金 蘭, 鄭海植, 李宗勉 등이 있다.

崔鉉達은 1867년 대구 남산리에서 태어나 28세 때인 1894년 주사로 벼슬길을 시작하여 칠곡군수, 청도군수를 지내고 1910년 나라를 잃어 관직에서 물러났다. 관직에 있는 동안은 목민관으로서 흥학·진흥·예속 등에 선정을 베풀어 상하로 칭송이 끊이지 않았고 관직에서 물러나서는 망국지한에 단식을 결행하였으나 충성은 효도를 근거로 한다는 모당의 만류로 중단하였다. 최현달은 경술국치로 자진 순국한 李晚燾의 輓詩를 비롯하여 자연풍경이나 사회상, 개화문물 등을 소재로 하여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漢詩가 1394首, 문장이 120편이다.²⁾

徐丙五是 1862년 대구 남일동에서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나 시·서·화 뿐만아니라 가야금이나 바둑 장기에 이르기까지 특출한 재능을 보여, 13세 때에는 당시 거유 許薰(호 舫山)의 문하와 郭鍾錫(호 면宇)의 문하를 출입하였다. 재능이 뛰어난 데다가 거부의 아들답게 20세 미만에 대원군을 만나 문재를 자랑하고 石齋라는 아호를 얻었다 하며 중국을 두차례나 주유한 바 있다하니 그 재력과 재능을 짐작할 만하다. 1922년 회갑을 맞으면서 조선미술전람회 서도부 심사위원을 거치고 이듬해에는 교남시서화연구회를 조직하여 향토 시서화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그는 한시를 335수 남겼다.³⁾

2) 앞의 책, pp. 204~239.

3) 위의 책, p. 245.

그 밖에 낭만과 시인에 속한다는 金 蘭, 鄭海植 등이 있고, 일제시 실업금융인으로 활약한 李宗勉은 385수나 되는 한시를 남겼다 한다.⁴⁾

V. 評 論

대구문학계의 평론으로는 대체로 문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비전문 평론과 작품으로서의 평론이 나타났는데 전문 평론 보다는 비전문 평론이 일반적이었다. 李根庠은 앞서 詩人으로 소개된 바와 같이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문인으로서의 활동이 그리 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스스로 시와 시조, 한시 등 작품을 쓰고 이상화 백기만 등과 교분을 가진 부유한 문인이었음에도 당시 유행하던 데카당을 경멸하는 평론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인생관과 문학관이 매우 순수하고 고고하였음을 보여준다. 그의 시는 매우 교훈적 성격이 강하고 그의 유일한 평론인 〈文士와 遊蕩病〉은 그러한 그의 문학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평론의 중요한 내용은 문사는 도덕적 관점에서 자기를 확립하고 그 위에 작품을 실천해 나가야하며 퇴폐, 탐미, 유행에 빠지는 것을 질책하는 내용이다.

소설가 玄鎮健은 1925년 2월부터 8월까지 조선문단 합평회에 참석하고 10월에는 《朝鮮文壇》을 통해서 新春文壇小說評을 집필하였으며 다음 해 1월에는 《개벽》을 통하여 〈朝鮮魂과 現代精神의 把握〉, 〈新春小說漫評〉 등을 발표했다. 그는 당시의 역사소설 비판론에 대하여 역사소설을 옹호했다. 끝까지 시류에 휩쓸리지 않아 그 당시의 경향과 문학에는 비판적이었으며 민족정기를 일깨우는 항일문학의 방향을 잃지 않았다.

李相和는 1925~26년 사이에 7편의 평론을 남기고 있는데 그는 평론을 창작으로 보고 ‘독후감 따위가 아니라 독특한 경지를 가지고 있는 비평가의 관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작품관으로 평론을 썼다. 白基萬은 1925년 《개벽》지에 〈생각나는 대로〉, 1926년 시대일보에 〈춘원 이광수의 「중용과 철저」를 읽고〉를 써서 논쟁에 뛰어든 적이 있다. 또 李甲基가 1938년경 평론가로서 활약한 적이 있다.

대구출신 전문평론가로는 金文輯(호 花豚)이 있다. 그는 1909년생으로 직업평론가로서 한국문학 비판에 끼친 공적과 영향이 컸다. 일본에서 早稻田中學과 松山高를 거쳐 도오쿄대학(東京帝大)을 다녔고 당시는 소설공부를 하였으나 1935년 귀국과 동시에 동아일보사에 들어간 후로 평론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중형무진으로 평필을 휘둘러 불과 5~6년 동안에

4) 앞의 책, pp. 256~261.

문학평론으로는 주목할 만한 공적을 남겼다. 1936년 동아일보에 〈전통과 기교문제〉를 연재하고 〈조선문단의 현대적 재인식〉 〈문단 투자론〉 등을 발표하였다. 재기발랄하고 신랄하였던 그의 평필은 당시에 많은 물의를 자아냈다. 주관이 유달리 특이한 그는 천재적 성격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당시의 무기력한 사회를 여지없이 뒤흔들어 놓아 문단의 트리블 메이커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에게 많은 비난의 화살이 던져진 것은 그의 이러한 개성으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문단의 치부를 파헤쳐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평론이 한국문학의 후진성을 지적, 통박했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청신한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그는 일곱가지 비판각서를 제시하면서 문학작품을 시험지 답안 채점하듯 점수로 표시한 것은 우리나라 비판문학사상 전무후무한 사실일 것이다. 李箱의 작품을 놓고 崔載瑞와 논쟁을 벌였는데 최재서가 온건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김문집은 과격한 비판으로 한때 화제가 되었다. 재간이 많았던 그는 그뒤 일본으로 건너가 버렸다.

경북 출신 평론가로는 1930년대 전기에 활약한 안동의 李源朝와 후반기에 배출된 금릉의 呂世基, 고령의 郭鍾元(호 春波)과 경주의 金東里, 하양의 朴琦俊을 들 수 있다. 曠宗원은 1915년 고령태생으로 니혼대학 문과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서 10여년간 교편을 잡으면서 평론을 썼다. 김동리는 1936년 《문장》지에 〈純粹異議〉라는 평론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유진오의 문학정신론에 대한 반박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박기준은 도오교외대를 나와 민족일보 논설위원을 지내면서 정치 인문평론을 많이 썼다.

第3節 西洋藝術의 流入

I. 音 樂

서양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기독교의 선교사에 의한 찬송가의 보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므로 주로 종교음악을 중심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고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학교음악 활동이 부수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초기의 양악은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관악대가 구성되면서 바람을 일으켰는데 대구지역에 있어서 관악활동의 시초는 천주교회 소속의 聖立學校 악대였고 이에 뒤따라 啓聖學校에 악대가 편성되어 좀더 넓은 활동이 나타났다. 이와같이 종교음악의 영향으로 서양음악이 유입되어 1904년경 부터 음악이 학

교교육으로 다루어졌으므로 음악의 역사는 일제침략기와 겹쳐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1784년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1899년에는 프랑스 신부 로베르(Achille Pall Robert)가 대구의 초대 본당주임으로 정착하자 십자성당(현재의 계산성당)을 신축하고 교회내에서 종교교육을 위하여 海星齋를 설립하였다. 이 해성재를 바탕으로 1908년 4월에 聖立學校를 세웠는데 이것이 선교를 위한 사립학교로서는 대구에서 처음이며 이 학교에서는 학생활동의 하나로 악대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초대 본당신부이며 교장인 로베르가 1912년 프랑스에서 악기를 갖고와 창설한 것이다. 이 때 편성된 악대의 규모는 트럼펫을 비롯하여 신호나팔이 포함된 9인조였다.⁵⁾ 그러나 궁핍한 재정난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1915년 金燦洙가 성립학교를 인수하여 해성학교라 개칭하였으며 1925년에는 해성보통학교로 승격되었다.

성립악대는 성립학우회·명도회(남방천주교청년회)·해성청년회로 악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발전하였고 광복 후에는 대건고등학교로 이관되었다. 일제시 해성청년회는 후에 天主教樂園으로 변경되었으며, 악기는 1920년경 성유스디노신학교로, 1930년에는 서울천주교로, 1942년에는 다시 대구교구로 이관되었다. 1924년에는 지방 유지들의 찬조로 클라리넷, 트럼본, 코오넷 등도 추가하여 관악대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

천주교 계통 이외에도 개신교의 계성학교 악대가 성립하였으나 이들 모두 선교적 기능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대구에서의 기독교 선교는 1883년 미국 북감리교회 마그레 선교사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작된 이래 뒤이어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裴위량(William M Baird) 목사가 1893년 4월 부산에서 올라와 대구 종로에서 복음전도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그의 처남인 安義窩(James E. Adams) 선교사 부부가 1902년 남문안교회(현재 제일교회) 입구에 大男小學校를 세웠고 4년후인 1906년에는 계성학교를 세웠으며 그 이듬해에는 여선교사 傅馬太(Mrs. Martha Scott Bruen)가 신명여자소학교를 설립하였다.

계성학교에서는 톰스(Toms)가 풍금 한대로 음악교육을 시작한 후 점차 서양악기를 수입해와 악대를 조직하였고 이로부터 대구에 기독교적 서양음악교육이 시작되었다. 계성학교는 개교기념행사로서 1936년 10월 공회당에서 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음악회에서는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계성학교 출신 朴泰俊이 중심이 되었다. 신명학교에서는 설립자인 초대교장 傅馬太가 피아노를 가져와 음악교육을 시작하였고 계성학교와 협연을 하기도 하였다.

5) 천주교 대구대교구 편찬위원회, 《대구 본당 백년사》 1986, p.229에는 이당시 악대가 30인조로 되어 있다. 이 당시 사정으로 보아 매우 이해되기 힘들고 사진에 나타나는 바와 차이가 있어 그대로 9인조로 서술한다.

1921년 교남학원으로 시작된 교남학교는 개교 5주년 운동회에서 처음으로 교남악대가 등장하여 교가와 응원가를 연주함으로써 악대활동이 시작되었고 1941년 東京上野音樂學校 출신의 음악 교사 김호룡이 부임하여 10인조의 악대를 편성하고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하여 음악교육에 이바지 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음악이 보급되어 음악가가 배출되고 음악회가 개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20년대 부터는 계성학교와 일본인 학교에도 피아노가 들어오게 되어 대구가 낳은 朴泰元, 朴泰俊, 玄濟明, 金文輔 등 음악가들이 피아노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박태원은 1897년 6월 27일 대구에서 포목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대학교육을 받을만한 경제적 여유를 갖지 못하여 대구에서 대남학교와 계성학교의 초중등 과정을 마치고 고학으로 연희전문 문과를 거쳐 일본 와세다대학 영문과 재학중 1921년 폐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는 학생신분으로 음악의 보급에 공헌하였는데 방학을 이용하여 새로운 가곡을 향토에 전하고, 때로는 「켄터키 옛집」 등 외국곡을 번역도 하고 작곡도 하면서 대구 최초의 남녀 혼성 성가대를 지금의 제일교회에서 지휘하였다고 한다. 그는 세살 아래인 동생 박태준을 비롯하여 현재명, 김문보 등 대구출신 음악가에게 영향을 주어 대음악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朴泰俊은 1900년 대구출생으로 계성학교와 숭실전문을 거쳐 미국 웨스트민스터음악학교를 나왔다. 그는 1925년부터 1931년까지 모교인 계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동요를 작곡하여 서울의 洪蘭坡, 간도의 尹克榮과 함께 당시 우리나라의 3대 동요 작곡가로 손꼽혔다. 그의 작품은 19세에 작곡하였다는 崔順愛 작사의 〈뜸복새〉를 비롯하여 〈물새발자국〉·〈思友〉 등 150여편이나 되었다.

玄濟明은 1902년 대구출생으로 계성학교와 숭실전문을 거쳐 전주 신흥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28년에 미국 시카고음악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연희전문학교 음악교수로 1942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1932년 조선음악가협회를 창설한 바 있고 광복전 金生麗, 李仁範, 金天愛, 李有聖 등 문학생들과 함께 京城厚生室內樂團을 통한 음악활동을 하였다. 광복후에는 경성음악학교를 세워 서울대학으로 통합, 초대 음대학장으로 활약하였다. 그의 작품은 〈춘향전〉·〈왕자호동〉 등 오페라와 〈니나〉·〈나물캐는 처녀〉·〈고향생각〉·〈그 집앞〉·〈희망의 나라로〉·〈산들바람〉 등 가곡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독창회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은 서울에서 있던 1926년 9월의 일이었다고 하는데 두번째의 독창회는 안동 출신인 權泰浩가 1928년 5월 중앙청년회관(현 서울 YMCA)에서 발표한 것이었다. 그후 권태호는 1931년 대구공회당에서 박태준의 피아노 반주로 대구

최초의 독창회를 개최하였다. 대구출신 성악가로는 바리톤에 金文輔, 金相容, 李相昊, 베이스에 權永和 등이 있고 기악에는 바이얼린에 張萬鎬가 있다.

그리고 일반 관악대 활동으로는 1940년경부터 활동한 소년악대인 구세군악대가 있고 광복을 맞이하기 전해인 1944년 시민들의 정서순화를 목적으로 무용단과 함께 10여명으로 구성된 도청관악대가 창단되어 활동하였다. 그밖에 대구에서 개최된 연주회로는 1942년 京城厚生室内樂團(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단의 모체)이 전국 순회 일정으로 대구 공회당에서 연주회를 가졌는데 이 때 대구에서 최초의 관악독주가 있는 후로 이에 영향을 받아 김만복, 서유태, 우종무 등 관악 개인독주회가 매년 계속되었다.

이 시기의 대구지방 관현악활동은 대구사범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인 교사들의 힘으로 관현악단이 만들어져 1937년 사범학교 강당(삼덕네거리 사대부중 강당)에서 창단연주를 하였는데 금관악기 이외에는 대구의학전문 소속 일본인과 그 가족들이 참가하고 있어서 이름은 대구사범관현악단이지만 일종의 동호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수시로 동호인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음악가의 배출과 그 활동은 대구 음악이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해 볼 때 매우 수준 높은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 밖에 해방전에 인기 있던 대중가요 가수로는 대구의 蔡奎燁과 성주의 白年雪이 있고 판소리의 명창으로는 金楚香이 있었다.

II. 美 術

우리나라의 서양미술의 수용에 있어서는 그 시기나 경로가 어떤 것인지 확실치 않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배출과 외국인 화가의 국내활동 등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미국인 화가 휴버트 보스(Hubert Vos)가 1899년 고종황제의 초상화와 서울풍경을 그린 것이 최초의 유화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는 1909년 일본 동경미술학교에 유학한 高義東이며 그가 귀국한 1915년을 서양화의 원년으로 하고있다고 한다. 그리고 1918년에는 한국인만의 순수 미술단체인 書畫協會가 창설되어 해마다 협회전과 회보를 발행하여 우리나라 근대 미술의 발전에 자극을 주었다.

서화협회의 협회전이 계속되면서 이에 자극을 받고, 또 3·1운동이후는 표면상으로 강압적인 무단통치를 전환하여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하게 됨에 따라 조선미술전람회를 1922년 6월에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매년 선전이 개최됨으로써 양화의 회화 기법과 수준의 향상은 이루게 되었으며 교육을 통한 서양미술의 영역은 보편화 되어갔고 협회전은 일제의 강제에 의하여 1939년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李相定(호 汕隱)이 1921년경 일본 國學院大學을 졸업하고 귀국하면서 서양화 화구 일체를 들여와 시작한 셈이다. 대구 최초의 서양화가인 이상정은 계성 신명 등 여러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23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상화(시인), 상백(서울대 사회학교수, 초대 올림픽위원)의 형이며 중국 국부군 중장으로 해방을 맞은 상정은 전문 화가는 아니었으나 대구미술전의 출품 사실로 볼때 아마추어의 경지는 넘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대구 미술은 우리나라의 서양화 도입 보다는 5~6년 뒤져 있으나 서울과는 관련 없이 자생적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갖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대구 미술은 그후 쟁쟁한 미술가를 배출하고 지역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과 그 성과가 나타났다. 최초의 전시회는 1923년 11월 대구노동공제회관에서 개최된 『大邱美術展覽會』였다. 이 대구미전은 서양화부에 이여성의 17점, 이상정의 18점, 박명조의 5점 등 40여점과 동양화부에 40여점이 출품되었는데 참가인원은 서병오 등 10여명이었다. 이 때에 이러한 지방미전이 성대히 열릴 수 있었다는 것은 조선미술전람회(鮮展)가 1922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것이다. 이듬해 1924년과 27년에는 일본인 미술동호회가 서양화전을 개최하여 박명조·서동진 등 1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일본인 동호회가 생겨 서양화전을 개최하자 1927년에는 이를 싫어하는 향토화가들이 모여 零科會를 조직하고 29년까지 3회에 걸쳐 전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조양회관에서 개최된 2회 전람회는 동요와 시를 포함한 시화전이었던 것 같다. 1930년대에는 일제의 皇道主義에 반발하여 郷土會를 조직하고 제1회 전람회를 시작하여 2차대전 말기까지 7~8회 개최하면서 향토 화단을 지키는 데에 공헌하였다. 이 때 향토회의 주요회원은 서동진, 박명조, 서병기, 서진달, 최화수, 이인성, 이현택, 김성암, 김용조, 배명학 등이었다. 이밖에 1937년 7월 조선민보사 주최로 경북상공장려관에서 제1회 남조선미술전람회가 열린 바 있다. 이렇게 특성 있는 전시회가 개최되는 것과 함께 개인전도 열렸는데 대구 최초의 양화개인전은 1926년의 박명조 개인전이고 다음으로는 그 이듬해 1927년의 서동진 개인전이다.

화가들의 개인적 역량으로 볼 때 대구 최초의 본격적 화가로는 朴命祚를 꼽을 수 있다. 그는 1906년 대구 덕산동에서 태어나 덕산학교를 거쳐 대구고보 재학중인 17세에 대구미전에 출품한 것을 시작으로 1926년 5회 선전에서 〈초춘〉으로 입선하고 그해 개인전을 최초로

가져 대구 미술계에 선도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徐東辰도 대구 미술계에 큰 공적을 남긴 중요한 인물로 파악되어야 한다. 1900년 대구 수동에서 태어난 그는 계성학교와 휘문고보를 걸쳐 졸업하고 일본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1925년부터 교남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1927년에는 大邱美術社를 설립 운영하였다. 대구미술사는 인쇄소를 겸해 상업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이인성, 김용조 등 많은 미술인을 배출해 내었던, 대구 사람끼리 결속되어 일제에 대항한 민족적 조직이었다.

李仁星을 대구 미술의 제일인자로 지목할 때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그의 천재성 때문일 것이다. 그는 1912년 대구 수창동에서 태어나 수창학교를 나와 대구미술사에서 고학하였다. 17세 때인 1929년 선전에서 〈그늘〉로 입선한 것을 시작으로 2회 입선에, 11회 부터 14회 까지 4회 연속 특선, 그것도 14회는 최고상인 창덕궁상이었다 하며, 그 다음은 추천작가로, 또 그 다음은 심사위원 까지 지냈다. 이것은 이인성의 천재성에 서동진의 뒷바라지가 함께 어우러진 대구 미술계의 결작이었다 할 수 있다. 또 金龍祚는 1916년 대구 내당동의 빈 농가에서 태어나 달성학교를 졸업하고 서동진의 대구미술사에서 미술공부를 하여 16세에

〈表 5-1〉 대구 화단의 선전 입선 일람

대 회	연 도	특·입 선 자
4		경주 손일봉(입선)
5	1926	박명조(입선) 손일봉(특선)
6	1927	김호룡(입선) 손일봉(특선)
7	1928	박명조·서동진(입선) 손일봉(특선)
8	1929	서동진·이인성·배명학(입선)
9	1930	이인성(입선)
10	1931	서동진·박명조·배명학·서진달(입선)
11	1932	이인성(특선)·서동진·박명조·배명학·서진달·김용조 등 19명(입선)
12	1933	이인성(특선)·박명조·서진달(입선)
13	1934	이인성(특선)·박명조·서진달·금경연·김용조(입선)
14	1935	이인성·김용조(특선)·금경연·김용조(입선)
15	1936	김용조(입선)
16	1937	이인성(추천)·서진달·김용조(입선)
17	1938	이인성(추천)·금경연·김용조(입선)
18	1939	이인성(추천)·금경연(특선)·김용조(입선)
19	1940	이인성(추천)·서진달·금경연(입선)
21	1942	이인성(추천)·서진달(입선)
22	1943	이인성(추천)·김용조(입선)
23	1944	이인성(추천)·김용조(특선)

선전에 입선한 것을 시작으로 여덟번 입선에, 두번 특선한 천재적 재능을 보여주었으나 마지막 특선을 하던 1944년, 광복을 보지 못하고 28세에 요절하였다.

서양미술을 수용한 후로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향토 대구의 서양화는 팔목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였는데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한 작품활동을 통하여 대구 화단의 수준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위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위의 표를 보면 1930년대 전반기는 극성기로서 특선이 없는 해가 없고 특히 11회 때에는 19명이라는 엄청난 입선자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서양화의 대구 화단은 매우 활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미술에는 김홍도, 신윤복, 장승업 등과 같은 전문화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화와 이에 못지 않게 비전문화가인 문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인화가 있다. 문인화는 대체로 취미를 통한 선비들의 작품활동이었기 때문에 어느 지방에나 산재해 있고 보편성을 갖는 데다가 예술적 가치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약하지 않다. 그런데 전통 미술인 書, 畵를 아끼고 다듬던 부류는 대체로 투철한 애국심으로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서양화에 큰 자질을 보여준 부류는 그와는 좀 다른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서양화를 일본인으로 부터 배우고 작품의 심사기준 조차 총독부가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예술의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서양미술이 수용되는 과정과 시대적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한계점을 만들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문인화의 대가로 손꼽히는 徐丙五(호 石齋)는 이미 앞서 문학편 한시부에서 살펴 본 바 있으나 그가 八能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다재 다능하였고 특히 문인화에 있어서 대구 사회에 큰 흔적을 남겨 놓았다. 그는 재능이 뛰어난 데다가 거부의 아들답게 20세 미만에 대원군을 만나 문재를 자랑하고 石齋라는 아호를 얻고 중국을 두차례나 주유한 바 있다하니 그 재능 뿐만아니라 재력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짐작할 만하다. 글씨는 행서에 능하였으나 안진경·소동파·왕희지·동기창 등 중국서법과 추사체까지도 잘 썼고 그림은 송·죽·매·국 등 사군자에 탁월하였다. 그가 활동한 1920년대는 회갑을 지난 연대였으나 嶠南書畵研究會를 만들고 朝鮮美術展覽會 書道部の 초대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업적이 많았다.

교남서화연구회는 대구 최초의 미술단체로 서병오를 중심으로 활동이 나타났는데 이를 계기로 서병오의 문하에는 경향 각지에서 서화인이 모여들었다. 이 당시 출입한 문인들을 보면 金鎭萬(호 肯石), 徐丙柱(호 兌堂), 裴孝源(호 雲岡), 韓維東(호 葵塘), 徐昌圭(호 眉山), 徐東均(호 竹農), 안동의 李源一, 경주의 李命龍, 전남 구례의 林承稷·林承嵩, 예안의 李容準,

광주의 趙光萬 등이 있다.

김진만은 1876년 대구 남산동에서 태어나 어릴때 재질을 인정받고 대구부자 서우순의 사위가 되었다. 강직한 애국지사요 행서와 묵화에 능한 서도가로 서병오와 중국 주유에 동행하는 등 그의 주위에서 작품을 남기고 있으며 국권회복단에서 운동자금을 마련하려고 처남과 함께 장인의 재산을 강도한 일화도 있다.

서동균은 1902년 대구 향촌동에서 태어나 가학으로 한학과 서예를 배웠으나 18세 때부터 서병오의 문하에서 서화에 정진하였다. 20세가 되던 1922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을 시작으로 연 8회에 걸쳐 입특선하였고 1925년부터 전국적으로 순회 전시도 하였다. 1930년에는 일본인 중심의 경북미술협회에 대항하여 나타난 鄉土會에도 동참하였다. 그는 서예가로서 예술적 경지를 사군자에서 이루었다고 하며 그의 죽음이 근대 한국 문인화의 종언이라고 까지 평가되기도 하는 서동균은 대구가 낳은 대예술가로서 서병오의 후계자로 인정 받으며 광복후에는 한국 전통미술을 미술대전의 영역으로 확보하는 데까지 큰 공헌을 하게된다.

III. 演 劇

우리나라의 전통연극은 산대도감놀이, 양주별산대놀이, 봉산탈춤, 오광대, 사당패, 꼭두각시 놀음 등을 들 수 있으나 조선시대가 끝나면서 거의 소멸되어 갔고, 개화기 이후 신문화가 도입되면서 신연극이 시작되었다. 신연극이 시작된 것은 1908년 圓覺社 설립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신연극의 형식이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동안에 먼저 新派라 지칭된 대중연극이 1910년대에 나타나게 되고, 1923년 토월회의 창설과 1931년에 발족한 극예술협회를 중심으로 신연극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940년대의 군국주의 일본의 가혹한 문화탄압으로 연극은 개성을 잃고 어용화하게 되었으며 연극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되는 것은 광복 이후의 일이다.

무대예술인 연극의 발달은 극장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극장의 시초를 먼저 더듬어 보면 최초의 극장 시설은 1902년 황실에서 마련한 協律社였다. 협률사는 재인, 기생 등을 등장시켜 황실예식을 경하하는 등의 행사용 국립극장이었던 셈인데 일반 오락 기관으로 개방되어 영업극장 행세를 하게된 것은 1906년 부터였으며, 1908년에는 당시 대한신문 사장이던 李人植이 궁내부의 인가를 얻어 협률사의 자리에 원각사를 개설하였다.

이 때에 서울에는 기생·광대·재인들의 활동무대로서 단성사·장안사·연흥사(조선극장)등

여러 극장이 생겨 연흥사에서는 임성구의 〈육혈포 강도〉가 공연되는 등 신파극의 활동 무대가 되었다. 1910년 경에는 일본 거류민을 위한 극장 남성사·경성좌 등이 남대문 밖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1920년을 전후하여 서울에 영화 상영극장으로 경성극장·황금관·우미관 등 12개소가 생기고 지방에도 대구에 大邱座를 비롯하여 부산의 국제관·마산극장·대전좌·평양의 계락관·원산극장 등 15개소가 생겨났다. 그후 1935년에는 동양극장이 생겨 해방될 때까지 연극 전문극장 구실을 하였고 부민관·명치좌 등도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劇團으로는 1911년 林聖九·金陶山이 조직한 革新團, 1913년 尹白南·趙重恒 등이 조직한 文秀星과 李基世가 조직한 唯一團을 꼽을 수 있는데 1915년에는 이기세가 다시 文藝團을 조직하여 대구좌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대구에 신파극을 소개하였다. 그후 金陶山이 대구에서 新劇座라는 극단을 창립하여 1920년을 전후한 4~5년간 대구좌를 중심으로 전국 순회공연을 하였다. 대구출신의 연출가인 洪海星을 중심으로 馬海松·黃錫禹·洪蘭坡 등이 극예술협회를 조직하여 전국순회를 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홍해성(본명 在遠)은 日本大學 예술과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신극 활동을 하다가 1930년 이후 新興劇團을 조직하였고 동양극장 연출부를 담당하였다.

대구에서 창립된 극단으로는 新劇座 이후 두번째로 大邱街頭劇場이라는 향토색이 강한 극단이 탄생하였다. 우리나라 지방극단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대구가두극장은 1930년 11월에 李相春·李甲基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는데 그 구성원은 朴薰·李一·金華·朱正煥·金永昊·李元式·金英子·李英春·金聲滿·張甲龍 등이었다. 그러나 대구가두극장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오래 가지 못하였다.

IV. 映 畫

우리나라 영화의 시작은 1919년 金陶山 新劇座의 연쇄극이었으나 최초의 극영화는 1921년에 윤백남 감독의 〈月下의 盟誓〉였다. 그 후 매년 한 두편씩 증가하여 1927-8년에는 각 13편이 제작되는 성황을 이루었다. 초창기의 작품은 〈춘향전〉·〈심청전〉 등과 같이 재래의 소설을 소재로 한 것도 있었으나 대구의 張炳元과 평양기생 康明花의 정사사건을 다룬 〈비련의 곡〉이나 식민지 지배하에 신음하는 한민족의 비분을 그린 羅雲奎의 〈아리랑〉 등 작품이 있었다. 20년대에 제작된 영화가 대구에서 흥행되는 것 뿐만아니라 대구영화계에는 연출가

金幽影과 李圭煥이 향토 영화계를 대표하고 있었다.

김유영은 1907년 선산에서 출생하여 대구고보를 거쳐 19세에 보성고보를 졸업하였다. 졸업하던 해에 소설 〈꽃다운 청춘〉을 발표하는 재질을 보이면서 1928년(22세)때에는 〈流浪〉과 〈婚街〉를 연출하고, 31년에는 〈火輪〉을 그의 원작 연출로 제작하였다. 1935년 李元植·朴民天·金海生 등이 창립한 「대구 코레아 영화제작소」에서 김유영을 총지휘자로 하여 朴民天작 〈黃昏〉(동아일보 시나리오 당선작)을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촬영중 일제의 탄압으로 무산되었다. 38년에는 〈愛戀頌〉, 39년에는 〈수선화〉를 감독하고 33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이규환은 1904년 대구출생으로 28년 일본 新興키네마 감독부를 거쳐 32년 영화감독이 되어 〈임자없는 나룻배〉를 감독하고 35년 〈바다여 말하라〉·〈무지개〉등과, 37년에는 일본과의 공동으로 〈여로〉를 제작하였다. 그 후 계속해서 〈새출발〉·〈나그네〉·〈창공〉 등 수준높은 작품을 내어놓아 나운규의 영화정신을 계승발전 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그 밖에 梁哲은 1931년 「대구 녹성 키네마」제작의 〈바다와 싸우는 사람들〉, 33년에 「대구영화사」 제작으로 〈종로〉를 남겼다.

V. 寫 眞

우리나라에 사진이 처음 들어온 것은 1884년 池運永이 일본에서 사진술을 배워 麻洞에 사진관을 차린 것이지만 갑신역모자 암살과 관련되어 귀양 감으로써 단절되었고 그후 다시 사진업을 개척한 사람은 고종의 시종이며 영친왕의 서예지도자였던 金圭鎮(호 海嶺)이었다. 그는 1894년 관비로 일본에 건너가 野野宮사진관에서 1년간 사진기술을 배운뒤 95년 부터 궁중의 사진촬영을 맡는 동시에 소공동에 天然堂寫眞館을 개점하였다.

그후 일본세력이 침투해 오면서 일본 영업사진관이 속속 생겨나고 여기에서 배운 한국인들이 독립해서 사진관을 차리기 시작해서 1926년에는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京城寫眞師協會가 만들어지고 황성기독청년회에서 사진과를 개설하여 교육을 시작하였다. 1929년에 이르러 鄭海昌이 서울 광화문 빌딩에서 한국 최초로 사진개인전을 열고 평양에서는 徐淳三이 개인전을 열었다. 서순삼은 영업사진사로 조선일보 보도사진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정해창은 예술가로 알려진 아마추어 작가였다.

우리나라 일제시 까지의 사진은 1930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을 ‘사진의 도입 및 정착기’, 그 이후를 ‘아마추어 사진의 성장기’로 볼 수 있다. 30년대에 아마추어 사진구락부와

백양사우회가 생기고 34년 「대구 아마추어사우회」를 비롯한 각 지방에도 사우회가 조직되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등용문인 경성일보와 전조선사진연맹 공동주최 「사진살롱」을 통하여 배출된 향토 작가는 崔季福·徐丙直·張炳眞·朴三植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정운상·趙祥奎·홍사영·具王三·朴三植·安月山·金思燁 등이 향토 사단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崔季福은 조선일보사 주최 1935년 제2회 納涼寫眞公募展에서 〈초하의 교외〉로 1등을 차지한데 이어 3년간 1등과 최우수 수상하였고, 37년 「전일본 오리엔탈전」에서 은상, 일본 후지필름 주최 전일본 사진전에 1등 입상하는 등 업적을 남겨 당시 大邱寫壇의 수준을 높여 주었다. 그러나 1940년대에는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인 중심의 사진문화단체를 해체 시키고 전쟁 말기에는 사진재료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방첩 구실의 촬영제한으로 작품활동은 중지 되었다.

VI. 近代建築

우리나라 근대 건축은 1876년 문호개방 이후 서울과 개항장으로 부터 시작되었지만 대구는 내륙의 지방도시여서 1900년을 전후하여 첫 선을 보였다. 근대 건축물은 선교사들에 의한 종교시설이거나 일제 침략에 따른 관청 등 공공건물이었고 이러한 근대적 풍물에 따라 한국인에 의한 건축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86년 韓佛修好通商條約 체결후, 박해 속에 있던 천주교가 공식적 선교활동을 펴게 되자 1899년 팔작기와 지붕의 목조 성당을 지었다가 이듬해 화재로 소실하고 1902년 영남 최초의 고딕양식의 성당(현 계산성당)을 건축하였다. 그 후 1911년 4월에 교구청이 설치되자 1913년에는 남산동에 조지안양식의 주교관(1958년 화재로 소실)을 짓고 이를 거점으로 계속적으로 건축하였다.

연도순으로 보면 聖유스티노新學校 및 성당(1914년), 샬트르 성바오로수녀원 코미넛관과 보육원(1915년), 효성여학교(1924년 계산성당수녀원), 샬트르 성바오로수녀원 수련원(1926)과 성당 및 성모당(1927), 계산성당 사제관(1934), 샬트르 성바오로수녀원 진료소(1935), 성요셉성당(1937) 등이다.⁶⁾

기독교는 1898년에 교회(일제시에는 南城町教會라 하였고 현재는 제일교회)를 세워 한옥기와집을 사용하다가 1908년 한식과 양식을 절충한 단층 건물을 준공하였다. 1933년

6) 대구직할시·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대구지역 근대건축물 조사보고서》, 1988. p. 24.

붉은 벽돌조 2층 건물로 개축하였고 1936년에는 종각부를 증축하는 등 변화하였다. 그 후 교세가 확장되어 감으로써 침산교회(1909), 범어교회·신정교회(지금의 서문교회)·효목교회(1912년)·남산교회(1915), 산격교회·칠성교회(1921), 동인교회(1923), 중앙교회(1924) 등이 제일교회에서 분리되어 갔다.

교육사업에 있어서 처음의 양옥 건물로는 계성중학교 아담스관(1908년), 맥퍼슨관(1913, 현 계성학교교회), 헨더슨관(1931년 계성고 본관) 지금은 철거되고 없는 신명여학교의 본관(1913)과 기숙사(1916), 가사실습실(1933) 등이 건축되었다. 그 밖에 현재의 동산의료원과 신명여교 사이에 선교사들의 주택이 1910년대에 건축되었다. 이들 주택들은 미국식 주거로 1901년에 지었던 아담스선교사 주택은 대구최초의 서양식 주택으로 추정하고 있는데⁷⁾ 이 집을 짓기 위하여 중국인 벽돌공과 조적공 및 일본인 목수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왔고, 문·철물·설비류 등을 미국에서 직접 수입해 왔다.

대구에는 1893년 부터 일본상인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하였고 1901년 경부선 철도공사가 착공되면서 일본인 수가 늘어나 1904년에는 대구 일본인거류민회가 조직되었다. 이어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목조 2층건물로 대구경찰서(1908년)와 대구이사청(1909년 뒤에 대구부청)을 건축하고 합병후에는 대구역(1912)·대구우편국(1912)·경상북도(1914) 등을 건축하였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1920년대에는 대구복심법원(1921년 현 대구백화점별관)·대구전매국(1923)·부림도서관(1924)·도립 대구병원(1926년 현 경북의대 병원) 등과 대구공립보통학교(1921년 현 대구국교 본관)·대구농림학교 및 대구상업학교(1923)·대구여자고보(1929) 등이 붉은 벽돌조로 건축되었다. 그 후에는 1929년에 대구경찰서를 철근콘크리트조로 개축하고 대구공회당(1929)·대구축후소(1936)·대구세무감독국(1938)이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되었다.

VII. 體育·舞踊

우리나라에 근대적 체육이 들어온 것은 갑오경장 이후 선교사들에 의해서다. 대구에서는 계성학교가 설립된 1906년 부터 축구·야구 등 구기와 육상경기가 학교체육을 통하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대구 스포츠의 시초는 선교사에 의해 보급된 야구였지만 일제기에 있어서는 체육도 역시 일본의 영향하에서 일본식 체육이 주종을 이루었다. 학교체육과 더불어 보급된

7) 앞의 책, p. 26.

일본 운동은 유도가 처음이었다. 1907년 일본 순사들의 수련운동으로서 우리나라에 유도가 처음 소개되었는데 대구에는 劉權守가 금호강변 무태의 모래사장에서 처음 보급하였다고 한다.

1911년에는 달성공원에서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참가한 운동회가 개최되어 대구부민들의 잔치가 되었는데, 이 대회는 尹洪烈의 주도로 簡易會라는 민족주의 단체가 주최한 것으로 육상경기대회였다.⁸⁾ 그 이듬해에는 교사와 학생들 간에 야구경기를 하고, 대구 청년단과 유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경기를 함으로써 야구는 공식적으로 경기가 시작된 셈이다. 이러한 운동회가 사람들을 끌어 모으게 됨으로써 일제 침략세력은 이를 경계하여 억압하게 되었으므로 활동에 제약을 받아 오다가 3·1운동 이후 소위 문화정책에 따라 다시 활기를 찾았다.

1919년 가을, 청년들에 의해 민족적 색채를 띤 단체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어나 이듬해인 1920년 1월 恩賜館에서 大邱青年會를 창립하고 문학부와 운동부를 두었다. 이 때 운동부에서 활약하여 대구체육계에 공헌한 인사들은 金宗鉉·朴肯鎭·孫萬洙·丁鶴俊·李昌達·馬達出·李敬珍·金東學·崔學得·張萬鎬·鄭元祚·金永奎·李鍾範·金仁出 등이다. 이 해는 朝鮮體育會가 창립되어 11월 4일 全朝鮮體育大會를 개최하였던 바 이에 영향을 받아 1921년에는 大邱運動協會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의 경북체육회의 전신이다.

대구운동협회는 창립 후 체계적인 각종 경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첫 공식행사는 동인동의 운동장에서 소년야구대회였다. 이 야구대회가 개최된 후로 1923년 서울 배재고보에서 열린 제4회 전조선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제5회 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일본식 정구(연식정구)도 보급되어 있었으므로 동아일보 대구지국의 후원을 얻어 전조선 정구대회를 매년 개최하였다. 조양회관 정구코트에서 개최된 1925년 제4회 대회에서는 대구팀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1925년은 동인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수영장이 만들어졌고 영선못에서 스케이트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기독교청년회에 의하여 농구가 보급되었다. 20년대 말엽에는 직장야구팀도 생겨나고 학교마다 야구팀이 성황을 이루었다. 대구상업학교 야구부는 대구 소년야구대회에서 우승하고 일본 원정에서도 우승한 바 있으며, 일본 甲子園大會의 조선 예선에 우승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년팀이 되었다.

簡易會와 大邱青年會 등 우리 민간단체 중심이 되었던 대구부민체육대회는 1924년부터는 일본인 신문인 조선민보사가 주최하고 일본인 참가가 많아지면서 이와는 별도로 대구춘계 대운동회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동아일보·조선일보·중외일보 등 3대

8) 《慶尙北道史》下, 1983, p. 1151.

민족지의 후원과 상인들의 기부금으로 치루어져 순수한 우리민족 잔치로서 민족정신을 다지기도 하고 향토 체육발전에 기여하였다. 이 대회는 트랙경기와 필드경기의 육상경기를 주로하고 자전거경주와 기계체조도 선을 보였다. 그후 대구춘계대운동회는 1930년대 초기까지 성황을 이루었으나 우리 민족의 색채가 짙어 일본의 방해로 중단하였다.

이 무렵 대구체육계에는 대구운동협회의 활동이 침체하여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하였는데, 계성학교 축구팀과 대구청년회가 협력하여 조직한 大邱蹴球協會를 흡수하여 1935년 嶺南體育會를 발족시켰다. 초대 회장에는 尹相泰, 이사장 尹龍基, 이사는 金永濟·徐炳彦·裨日佑·全極珉·宋箕贊·李能植·車性鎬·徐炳直·崔榮浩, 감사에 千甲辰·徐文圭 등이었다. 영남체육회는 그 첫 사업으로 전조선씨름대회를 개최하였고 그후 계속적으로 단오에 남조선씨름대회와 추석에 전조선씨름대회를 개최하였다. 대구축구협회의 사업을 이어받아 전조선축구대회를 창립 후 7년간 계속하였고 손기정선수 세계제패기념 마라톤대회를 비롯하여 탁구·빙상·마라톤 등 경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달성공원에서 조기보건체조회도 유지하였다.

1938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민족말살정책을 또다시 실천하고자 영남체육회를 강압적으로 해산시켜 일본인 중심의 大邱體育會에 흡수하였다.

무용에 있어서는 1935년 대구 공회당에서 최승희의 무용공연이 있었고 그 이듬해 조택원의 무대공연이 있었던 것이 고작이다.

第4節 言論 및 出版

영남지방은 삼국시대부터 정치·사회·문화의 중심지였던 점은 중지의 사실이지만 그러한 문화의 전통은 삼십육년간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어서 항일의 중추세력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조선왕조의 유교사회는 영남지방이 사상적으로 국가 사회를 움직인 원동력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상적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제 침략에 항거하여 의병활동이 가장 강하게 일어났고 나라를 빼앗긴 후 광복운동 또한 끊임 없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갖고 있으나 대구는 지역 중심지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언론활동이나 출판문화가 활발하지는 못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 민족언론은 1919년 3·1운동 이후 1910년대의 무단통치를 유보하고 이른바 문화정치라고 하는 정책변화의 결과로 빛을 보게되었다. 이런 상황에 따라 《朝鮮日報》가

1920년 3월 5일 창간되었고, 같은 해 4월에 《東亞日報》가 창간되었으며 1924년 3월에 《時代日報》가 창간되었다. 이러한 신문들이 여러가지 애로를 겪으면서 변화를 거듭하다가 일제가 최후 발악을 하는 1940년 8월 10일 모든 신문이 폐간되기까지 활동한 상황을 중심으로 대구 언론을 파악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일보도 처음에는 「新文明 進歩의 主義」를 표방하고 친일 경제단체인 大正實業親睦會를 배경으로 설립된 것이어서 그 성격 또한 명백한 것이지만, 1924년에 이르러 李商在가 사장에 취임한 후 신문의 내용을 일신하였다. 그후 1931년에 사장에 曹晩植, 편집진용에 趙炳玉·朱요한이 참여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고 1933년 方應謨의 인수로 재정적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뒤 일제에 의하여 정간처분을 당한 것은 4회에 걸쳐 240일간이었고, 기사압수처분을 당한 것은 414건, 신문압수처분을 당한 것은 95만 6천백여 부이었다.

그 다음으로 동아일보는 金性洙를 중심으로 朴泳孝·張德秀·梁起鐸·李相協·宋鎮禹·李承薰·李光洙·金俊淵·薛義植 등이 운영에 참여하면서 발전하였으나 항일의 필화사건으로 일제에 의하여 정간처분을 당한 것은 4회에 걸쳐 569일간이었고, 기사압수처분을 당한 것은 393건, 신문압수처분을 당한 것은 88만 6천9백여 부이었다.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사건은 그 대표적 항일의식의 표현이었다.

또 시대일보는 崔南善이 민족적 단결을 호소하면서 1924년 3월 31일자로 창간하였다. 2년여의 경영으로 재정난에 봉착하자 李相協이 인수하여 《中外日報》로 개제하였다. 그러나 이 신문도 1926년 11월부터 발행을 시작하여 1931년 9월에 중간호를 내게 되었고 이 판권은 다시 《中央日報》로 넘어갔고 또다시 여운형에게로 넘어가 《朝鮮中央日報》로 개제되었고 1937년 11월에는 중간호를 내었다.

대구에서의 근대적 언론이나 방송은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朝鮮日報》《東亞日報》《中外日報》등 우리말 신문은 대구와 경북 각지에 지사나 지국을 두고 있었을 뿐, 대구에 본사를 두고 발행된 신문은 일본인을 위한 일본말 신문인 《大邱日報》와 《朝鮮民報》 두 가지가 있었고 우리말을 병용한 《南鮮經濟日報》가 있었으며 우리말 週刊紙로 《慶北公論》《關門과 慶北》이 있었다. 이 밖에 일본에서 발행되는 《朝日新聞》·《每日新聞》 등과 서울에서 발행되는 총독부 기관지인 《京城日報》 등의 지국과 우리말로 된 총독부 기관지 《每日申報》의 지국이 있었다.

발행된 순서에 따라 일본어 신문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인 거류민들은 총독부 정책을

돕고 동시에 저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신문 발행에 착수하였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것은 1905년 6월 일본인 승려 釋尾라는 자의 《朝鮮》이라는 제호의 旬間紙였다.⁹⁾ 이듬해 3월에는 일본인 목사 周라는 자가 격일간으로 발행한 《大邱實業新報》가 있었는데 이 신문은 1907년에 《大邱日日新聞》으로 개제하였고 다음해에는 다시 《大邱新聞》으로, 1912년 3월에는 또다시 《朝鮮民報》로 개제했다.¹⁰⁾

이와같이 朝鮮民報는 1906년에 창간되어 한국의 식민통치를 돕는 지방지였고 大邱日報는 일본인 河谷靜夫가 1928년 8월에 인가를 받아 처음부터 8면으로 발행한 신문인데, 이 두 신문은 1940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 후 언론통제 때 《大邱日日新聞》으로 개칭되었다.

南鮮經濟日報는 1924년 《大邱商報》라는 제호로 발간되어 개칭한 신문으로, 4분지 3의 일본어에 4분지 1의 우리말을 병용하였고 발행인은 韓翼東이었다. 이 신문은 대구경제의 주축인 곡물가격 정보와 대구 큰장(서문시장)의 물가동향 등을 보도하는 타블로이드판의 경제지로 일본인이 주간하고 한국인 취재기자를 2명 두고 있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 주간신문 형태로 韓應烈이 발행한 《慶北公論》과 尹炳殷이 발행한 《關門과 慶北》이 우리말로 된 것이었으나 외형만 우리말일 뿐, 내용면에서 일본인들의 것보다 오히려 저질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 대구의 언론은 서울에서 발행된 삼대 민족지의 지국을 중심으로 하여 기자들의 활동을 통해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20년 이후 서울에서 발행된 민족지들이 수없이 停刊을 당하면서 민족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한 것은 사장이하 영업국 사원에 이르기 까지 민족의 광복을 위하여 투사정신을 발휘하였기 때문이지만, 이들 뿐만 아니라 지국의 지국장이나 특파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신문들이 지국을 설치한 것은 단순히 신문의 판매만을 위주로 하지 않았고 ‘민중의 혈맥이 상통하는 일대 민족적 조직’으로 하려는 의도로 지방의 애국적 유력인사들을 지국장으로 임명하였다.

東亞日報社史에 따르면 “지국장은 지방의 민족운동의 중심적 인물이었고 또 지국이나 분국의 기자들도 상당수는 그 지방의 민족운동의 전위분자였던 것이다. 동아일보의 지방 조직은 일개 신문사의 지방조직이라기 보다는 민족운동의 지방조직 같은 인상이 더 강했다.…그 예로서 부산지국장 安熙濟, 평양지국장 李德煥, 대구지국장 徐相日 등을 들 수 있다.”라 하고 있는데 이로써 당시 신문사의 지방조직이 단순한 영업적 보급망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9) 金鎭和, 《일제하 대구의 언론연구》, 禾多出版社, 대구, 1978.

10) 위의 책, pp. 63~64.

이 당시 대구의 언론계는 동아일보 대구지국장 徐相日, 조선일보 대구지국장 張仁煥, 중앙일보 대구지국장 姜鎔-柳廷洛-金成國 등이 특파원 자격을 갖고 있었고 기자는 宋箕贊(동아)·李善長(조선)·李能植(대구일일)·韓應烈(남선경제)·尹炳殷(관문과 경북)·李春得(매일신보)·石輔(조선민보)·金潤坤(중앙)·孫基彩(경북공론)·李活(조선)·李東雨(조선)·李相祚(조선민보)·吳在東(조선) 등이 활동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칠조회 구성원들이었다. 대구에서의 기자단체의 명칭으로 同友俱樂部와 七鳥會가 있었는데 1933년경에 조직된 칠조회는 대구주재 기자들의 상호 친목과 협조 및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발족한 모임이었다.

대구 언론의 대표격이었던 서상일은 보성전문을 졸업하고 1909년 安熙濟, 金東三 등과 大東青年黨을 조직하여 만주에서 활약하다가 1915년 대구에서 尹相泰를 통령으로 하는 비밀결사 朝鮮國權恢復團中央總部를 조직하고 외교부장에 선출되었다. 이 비밀결사에는 朴相鎭·李始榮·安廓·曹兢燮 등이 가담하고 있었는데 표면으로는 詩會를 가장하여 빈번히 회합을 갖고 또 상업시찰의 명목으로 만주와 노령의 독립운동가들과 연락하였다. 개인적으로도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독립운동가의 가족을 돌보는 등 대구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한 중심인물이었다.

동아일보 대구지국은 朝陽會館¹¹⁾에 있었는데 조양회관은 시·서·화 등 문예전시회가 개최되기도 하고 밤에는 영화상영을 하기도 했다. 이 때 영화는 토오키가 없는 무성영화여서 변사가 대화와 해설을 맡아야 했는데 동아일보 기자가 변사를 맡기도 하였다. 이런 영화의 상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항일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인환은 조선일보 특파원 자격의 지국장으로, 일본 경찰의 인권유린 사건을 보도해서 필화를 당한 일이 있다.¹²⁾ 그는 新幹會에 깊이 간여하여 경북지부의 핵심적 역할을 했는데 신간회 활동을 통하여 李善長을 기자로 채용하였으며 李活(陸史)을 기자로 채용한 것도 그의 애국적 사상에 기맥이 상통했기 때문이다. 장인환은 신간회 대구지부의 대표 자격으로 일본헌병대(중앙공원 앞 지금의 병무청자리)에 가서 조선인의 인권유린 사실을 항의하여 不逞鮮人이라는 낙인을 받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1938년부터 도청소재지 지국을 支社로 승격하고 영남판을 발행하였다. 기자들은 위에 열거한 인사들 외에 呂圭鎭·李範朝·崔昌燮·李東雨·嚴相燮 등이 기자로 근무한적 이

11) 조양회관은 서상일이 문화관 기능으로 중국인 기술자를 동원하여 붉은 벽돌로 지은 이층건물로 달성공원 앞 대신동 5번지에 있었다. 6·25이후 원화여자중·고교가 되었다가 지금은 망우공원에 이축되어 있다.

12) 김진화, 《일제하 대구의 언론연구》 1978, pp. 109~113.

있으며 지사 설치후 본사 특파원으로 卞龍甲·申敬淳·崔國鉉 등이 활동하였다. 중앙일보 지국에 근무한 기자로는 朴相熙(朴正熙 대통령의 형)·孫基彩·金潤坤 등이었다.

동아일보 대구지국의 경우, 평시에는 1,000부 정도 보급되었고 다른 신문이 정간 당할 때에는 1,400부 정도로 늘어나기도 했는데 이 당시 대구의 인구는 20만이었다. 1930년대 경북도내의 반포부수는 동아일보가 최고 3천5백여부로 가장 많고 조선일보는 3천 2백여부로 그 다음이었으며 중외일보가 1천4백여부로 세력이 좀 뒤진 편이었다. 이 수치는 각 신문이 가장 세력이 컸을 때의 것으로 신문이 정간을 당하고 나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까지 떨어지는 등 기복이 심하였다. 每日申報는 총독부가 조선인을 상대로 발행한 기관지로, 행정 각 기관에 강제 배포하였으므로 5천부에서 최고 8천부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일제시대에 경북도내에서 발간한 간행물을 보면 1927년 4월 5일 향토 체육계 인사 徐相喆에 의하여 《體育界》라는 잡지가 발행되었다. 이 잡지의 표지와 컷을 徐東辰이 그렸고 7월 26일자 2호 발행으로 그쳤지만 출판계나 체육계에 기록되어야 할 일이다. 이 밖에 대구에서 서상일이 발행한 《農村》, 군위에서 徐成烈이 발행한 《園藝》(1923년), 영천에서 李雨栢이 발행한 문예지 《步》·《갯나무》(1924년), 선산에서 金昇默이 발행한 《黎明》이 있었다. 대체로 이 당시에는 지금은 구경할 수도 없는 출판에 원지(原紙)를 얹어 첩필로 글씨를 굵어 인쇄하는 간이 프린트로 문예집을 출판하는 실정이었다.

방송에 있어서는 세계 최초로 1920년 미국에서 시작된 이래 1927년 2월 16일 京城放送局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방송이란 시설과 기술이 없이는 전혀 손댈 수 없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일제에 의하여 추진될 수 밖에 없었다. 사단법인으로 시작된 경성방송국이 출발할 당시는 출력 1KW였으나 1932년 4월 7일 朝鮮放送協會로 개편되면서 10 KW로 증강시켰다. 이 라디오 방송은 처음부터 우리말과 일본말의 혼합방송이었으며 1929년 2월부터 시간대 별로 한국어 방송을 독립시켜 9시 40분부터 11시까지를 우리말 방송시간으로 하였다. 1933년 4월 26일부터는 제1방송은 일본어로, 제2방송은 우리말 방송으로 하는 이중방송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1935년 제1기 방송망 확충계획과 1939년 제2기 방송망 확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대구는 1939년 4월 조선방송협회 대구출장소로 발족하여 41년 2월 16일에 원대동 1169번지에 준공하고 출력 50 W로 2중방송을 시작하였다. 주파수 630 KC, 호출부호 JBGK로 스튜디오 2실과 송신기 1대를 갖추고 있었으며 직원은 방송과에 7명, 업무과에 16명의 규모였다. 대구출장소는 경북일원을 방송 영역으로 하고 중앙의 방송을 중계하는 것이 주업무였으나

자국의 프로는 지방소식과 음악을 방송하는 정도였다. 1941년 12월 8일 일제는 진주만을 기습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후 방송은 전쟁동원 능력을 제고하는 내용과 민족말살정책 추진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第5節 日帝의 彈壓과 宗教의 變質

I. 佛 教

조선시대의 불교는 왕조 초기부터 시행된 억불정책으로 천년 이상 군림해온 왕성했던 세력을 점차 잃어가게 되었고 세종과 세조대, 그리고 중종대의 일시적 호불 시기를 제외하고는 음성적인 구복신앙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왕조 개창 이후 억불책으로 도첩제를 강화하여 出家離俗을 제한하고 五教와 九禪을 통폐합하였으며 사찰도 36本山으로 제한하였다. 조선왕조 개창 이전까지는 국가 권력과 불교세력이 밀접하게 연계되거나 왕권이 불교에 의지함으로써 호국불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조선시대에는 개인 구복적 민간신앙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이다.

갑오경장 이후로는 일본세력이 밀려들어 오면서 일본승려들이 거류민 포교차 들어와 조선의 승려가 천대받는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 때 日蓮宗의 佐野라는 승려가 조선정부에 건의하여 1895년 4월 부터는 인조 이후 3백년 이상 금지되어 오던 승려의 城内 출입이 허락되었다. 광무 3년(1899)에는 전국의 사원을 통일하자는 논의가 일어 동대문 밖에 元興寺를 지어 전국 불교의 총본산으로 하고 13도에 首寺를 두어 행정구역 단위로 사찰을 관리하도록 하였다.¹³⁾ 3년후인 광무 6년 4월에 다시 궁내부에 寺社管理署를 두고 전문 36개조 된 <寺刹令>을 공포하여 사찰을 정부 관리 아래 두었다. 사찰령은 각 사찰의 목적·포교·승려의 법계·각도 본산인 수찰과 조직 및 사찰의 관리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다.

불교는 서울 전동에 조선불교중앙포교소인 覺皇寺를 짓고 왕도에서 범종을 울릴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불교가 사회의 그늘에서 벗어나 승직이 합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어떤 의미에서 권력의 보호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이것은 일본 침략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를 타락시켜 우리민족의 사상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지주를 잃어버리게 하는 조건을

13) 金得愷, 《韓國宗教史》 白岩社, 1978, p. 265.

제공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일제는 나라를 합병한 이듬해인 1911년 조선총독부 사찰령을 공포하여 사찰의 재산과 포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본산 중심의 僧規 法式을 총독부에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31본산(처음은 30본산)으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찰은 총독의 장악하에 놓이게 되었다.

조선총독의 산하에 놓이게 된 1911년의 사찰령 준칙에도 비구승에 한하여 住持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모든 사찰의 본존 앞에 일본천황 聖壽萬歲의 패를 세우게 하는 한편 1926년 10월에는 帶妻制를 합법화 하고 승려의 肉食을 허용하는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불교는 파계타락하게 되었고 조선총독이 31본산의 주지를 임명함으로써 불교계에는 종권과 재산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났다. 실은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일본인 거류민이 들어오게 됨에 거류민을 교화할 목적으로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1906년경 대구에도 本派本願寺라는 일본 사찰이 들어섰다.

그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소위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고 월정사 승려 15명을 지원병 명목으로 전쟁에 동원하고 전국 사찰 소유의 범종 등 금속제품을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공출하도록 독려하는 등 불교를 전쟁의 도구화 하였다. 이와같이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는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불교를 변질시켜 악용함으로써 불교는 탄압보다 더 혹심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31본산의 경상북도 소재 사찰은 桐華寺·銀海寺·孤雲寺·金龍寺·祇林寺 등 5개 사찰이었는데 이 중 대구의 동화사는 신라 소지왕 15년(493)에 극달화상이 창건하여 瑜伽寺라 부르다가 흥덕왕 7년에 心地王師가 동화사라 개칭하였다고 한다.¹⁴⁾ 일제시 대구 불교는 31본산의 하나인 동화사를 중심으로 달성군·칠곡군·성주군·청도군·의성군·군위군·금릉군·경산군 등 8개군에 걸쳐 40여 말사를 거느린 조직상의 권역으로 하고 있었다. 이 많은 사찰 가운데 대구 근교에 위치한 桐華寺·把溪寺·安逸寺·隱蹟寺 등은 대구시민의 생활과 깊은 인연을 가진 사찰들이다.

일제의 간섭과 그에 따른 불교의 변질에 대한 반작용으로, 동화사를 중심으로 한 對民 敎化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1907년에는 덕산동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광범위한 포교활동이 시작되었다. 포교당 설치의 白石基의 공로로 이루어졌는데 그는 앞장서 일반 시민들에게 포교당 설립취지를 설명하고 자기 소유의 대지를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초대 포교사는 동화사의

14) 《삼국유사》의 心地에 관한 기록으로는 동화사를 창건한 것은 극달화상이 아니라 심지왕사가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덕 金月齊였다. 덕산동 포교당은 해방후 普賢寺라 개칭하였다. 그러나 동화사와 말사의 권한을 일제가 간섭한 이후로는 사찰재산의 농지로부터 추수하는 재산이 종교적 목적과 부합하는 데에 사용되지 못하였다.

대구 포교당에서는 1911년 부터 日曜法會를 통하여 설교하고, 往生契·七星契 등 종교조직을 통한 포교활동으로 불교의 사회공인화에 기여하였다. 대구포교당의 사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23년에는 佛教青年會가, 1937년에는 女子清信會와 日曜學校가 시작되었으며 救貧事業과 재해구호사업도 펼쳤다. 대구포교당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때 樓鳳寺(대봉동)·白蓮庵(남산동)·定慧寺(남산동)·法輪寺(신천동)·正覺寺(대명동)·法相寺(비산동) 등 사설사원이 생겨 났다.

경북도내 각 본산에 설치되었던 地方學林(전국 각 본산에 설치되었던 불교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3·1만세시위 소식을 듣고 비밀리에 동화사 포교당에 모여 대구고보, 계성학교 등과 연계하여 쫓기하였다. 쫓기 당일인 3월 8일에 연행된 학생이 76명에 달하였는데 이 때 주동자는 金文玉·河允實·權在學·鄭寅祚·尹東度·車應俊·咸文正·金洪周·李成根 등이었다.

불교청년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1923년 사월초파일을 기하여 白石基를 회장으로 조직되어 포교 사업으로 야학을 경영하기도 하였으나 일제의 간섭으로 활동이 약화되었다가 1933년 대구불교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재정비하여 표면적으로 종교운동을 표방하고 내면적으로는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이 때 활동한 인사들은 孔元相·鄭周錫·李順祚·金致奎·趙命祚·方恭文·金德山·方東植·白學祚·裴龍水 등이었다.

II. 天主教

조선후기 박해 속에 있던 천주교는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이 있는 후로는 명목상이나마 전교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천주교가 대구에 들어온 것은 1837년이였다. 이때 최초의 신도 가정은 성내의 김씨가문(金燦洙씨 증조)과 날피의 순교자 이씨가문(崔正福씨 진외가)의 두 가정이 있었다. 그 후 오랜 세월을 두고 교인이 증가하여 대구성을 중심으로 새방골(와룡산 밑 상리동), 날피(비산동 들북판), 신나무골(지천역과 신동 사이 연화동), 한티(칠곡 동명면 득명동) 등지에 교우들이 모여 살았다.¹⁵⁾

《대구본당 백년사》에 의하면 1886년부터 1900년까지의 15년간 신도수는 14,039명에서

15)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100회사》, 1977, p. 40

42,441명으로 3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세의 확장에 따라 1911년 4월에는 경상도와 전라도는 朝鮮大牧區로 부터 대구대목구로 분리되고 1913·4년 주교관과 성유스티노신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와 천주교 대구대목구의 성립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 이 시기의 문화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앞서 살펴 본 예술분야에 있어서, 특히 음악·체육·건축에 있어서는 천주교의 흔적을 통하여 설명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여기서는 교세 정도만 살펴보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대구교구가 독립된 후로 대구교구가 성립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토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徐相燾의 공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서상돈은 천주교 박해를 피하여 경상도에 살게된 사람으로 당대 거부로서 국채보상운동을 처음 제창하기도 하였는데 남산동 일대의 천주교 부지의 기본이 된 토지를 제공하였다. 여기에 교회가 안착하여 교세가 확장되고 교육기관이 생겼으며 영남과 호남을 통괄하는 중심적 기능을 발휘하였다.

1912년에는 명도회(평신도 전교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져 명도회관이 완성되고 15년에는 수녀회가 수녀원으로 승격되었으며 19년에는 주교좌성당이 축성되었다. 대구성당(계산본당)이 주교좌 성당이 되므로써 대구는 명실공히 영호남지방의 중심이 되었다. 이 당시 대구대목구는 신자 24,694명과 본당 18개처, 그리고 공소 390개처를 관할하고 있었다.¹⁶⁾ 1910년 한일합병 당시 우리나라 천주교세는 외국인 신부 46명, 한국인 신부 15명, 수녀 59명, 신학생 41명, 성당 69개처, 신자 73,500여명이었던 것으로 볼 때 대구대목구는 우리나라 천주교의 약 3분의 1 정도의 세력을 가졌던 셈이다.

그리고 천주교회가 전개한 각종 지역적인 사업 가운데에는 서양음악의 보급과 계몽야학, 사회사업, 그리고 근대적인 운동경기의 보급 등을 들 수 있다. 명도회의 취주악단 활동에 관하여서는 이미 앞서 음악향에서 언급하였으나 관악기를 도입하여 지역의 각종 행사에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 1915년 8월에는 해성체육단을 결성하여 정구·축구·야구 등 근대 운동경기를 이 지역에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일제시대 초창기에 단체활동을 민족 각성 운동으로 까지 승화시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교육의 보급으로는 1908년 3월부터 海星齋를 聖立學校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남여 부제도를 두게 되었는데 교회학교의 운영이 어렵게 되어 8년만인 1916년 金燦洙가 해성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그후 1923년에는 6년제 보통학교로 승격되면서 여자부는 이듬해 효성

16) 《대구본당 백년사》 p. 143.

여학교로 분리 독립되었고 곧 효성여자보통학교로 승격되었다. 계몽교육으로는 1920년 9월 대성당 구내에 있는 해성재에서 해성체육단의 단원들이 취학하지 못한 부녀자들의 문맹퇴치를 위하여 해성여자학원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초청강연회도 개최하였다. 또 교회내의 홍보활동으로서 1912년 초 교회주보를 창간하여 간행물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일제에 항거한 1919년 3·1운동 이후 무단통치 노선이 소위 문화정책으로 변경되어 한국에 대한 일방적 탄압이 유보되었다. 이때는 우리말 교육이 학교에 등장하고 우리말 신문이 발행 되어 외형상이나마 언론 집회의 자유가 용인되었다. 이것은 종교에 대한 간섭을 완화시키므로써 이를 전환점으로 크리스티교 신도수가 증가하고 교세가 발전하였다. 크리스티교가 인권을 중시하고 선진적인 서구의 관념을 갖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선도적 위치에 있었던 만큼 민족적 억압 속에 있던 한국인으로서 크리스티교인의 증가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후 1920년대에는 천주교가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18세기 기해·병오년간 박해시의 순교자 諡福式이 로마 교황청에서 거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성교구에서 원산교구(1925) 평양교구(1927)가 분리 독립하고 원산교구에서 다시 함흥교구로 분리되는 등 교세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 교회의 발전은 일본의 제국주의에 방해 요소였기 때문에 자주 충돌이 일어났고 음성적으로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여 교회의 신설은 물론 사제의 근무지 이동도 허가제나 신고제로 바꾸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발전하여 1911년 대구교구가 독립한 후 1936년까지 25주년을 비교할때 13개 교회가 50개 교회로, 15명의 신부가 80명으로, 15명의 신학생이 104명으로 증가하고 수녀가 28명, 신도수는 2만5천에서 4만4천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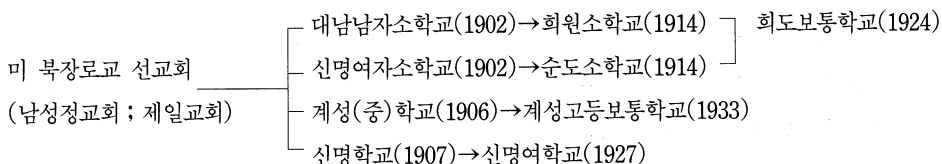
III. 改新敎(基督教)

대구지방에 가장 먼저 전래된 개신교는 장로교였고 최초로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는 1893년 4월 22일의 베어드(W.M.Baird 한국명 裴偉良)이었다. 그는 종로에 숙소를 정하고 선교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평양으로 옮겨가고 그 뒤를 이어 아담스(James.E. Adams 한국명 安義窩)가 내구하여 대구의 개신교의 개척자가 되었다. 안의와 목사가 배위량 목사의 뒤를 이어 내구한 것은 1897년 봄으로 부산에 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에서 대구에 선교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초가 5동과 와가 1동을 435원 50전에 구입하여 의사인 선교사 존슨(Johnson 한국명 장인차) 등 7명의 식구로 교회를 창설하였다. 이것이 남성정교회로 지금의 제일

교회이다.

이후 1899년에는 부해리(傅海利) 선교사와 뒤이어 史利秋 선교사가 오고 교인도 조금 늘어나 대구를 중심으로 하여 경북지방으로 확산되었다. 《경북노회사》를 통하여 이때 경북지방의 교회 설립상황을 보면 1901년에 청도·김천·선산·성주·영일 등 6개 교회, 1902년에 군위·고령·경산 등 4개 교회, 1903년 칠곡 등 4개 교회, 1904년에 선산 등 5개 교회, 1905년 의성·달성·영천 등 20개 교회, 1906년 영천·청도 등 16개 교회, 1907년 영일·청송 등 11개 교회, 1908년 포항·의성 등 11개 교회, 1909년 대구·달성 등 11개 교회, 1910년 상주·울릉 등 7개 교회, 1911년 김천·선산 등 8개 교회, 1912년 3개 교회, 1913년 2개 교회가 설립되어 합병 당시까지 100여개의 교회가 있었다.

이 중에는 대구 남성정교회(제일교회)에서 분립한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구의 장로교 교회분립 상황을 보면 1909년 침산교회·신당교회, 1910년 범어교회, 1912년 신정교회(서문교회), 1915년 남산교회·효목교회와 그후 산격·칠성·동인·중앙·봉산·아현·중동·신천·대신교회 등 16개 교회가 있었다. 이러한 교회의 세력확장을 통한 전도사업 이외에 학교를 세워 신교육을 통한 전도를 추진하였다. 안의와 선교사를 중심으로 미북장로교 선교회가 제일교회를 바탕으로 설립한 학교를 보면 아래와 같다.



회도보통학교는 해방후 공립화하였고 계성고등보통학교는 계성중학교가 되었으며 신명여학교는 신명여자중학교가 되었다가 신명과 남산으로 중·고등이 분리되었다.

1897년에 대구에 온 존슨 선교사는 교회 안에서 濟衆院이란 이름으로 구료사업을 시작하여 1904년에는 동산병원으로 개칭하고 1941년 종합병원으로 발전시켰다. 동산병원은 별도로 1913년 플레처(A.G.Flecher)가 나병환자 구료사업으로 대구나병원을 설립하여 의료 봉사를 통하여 전도사업을 벌였다.

이상과 같은 종교의 성장은 일제의 민족적 탄압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일제는 이를 묵과하지 않았다. 기독교의 인권사상이나 평등사상은 민족운동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었고 일제 침략주의가 가장 배제하고 싶었던 서구세력과의 연결이었기 때문이었다. 대

구에서 일어난 3·1운동은 1919년 3월 8일과 10일에 개신교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 제일교회의 李萬集 목사가 주동이 되어 있었고 대구고보 학생 200여명이 가담하였다고 하나¹⁷⁾ 만세시위에 연루되어 투옥된 인사 가운데 6개월 이상 징역을 받은 사람의 거의 90%가 제성·신명 등 기독교 계통의 학생이거나 출신자들이었고 10%정도는 대구고보 출신들이었다. 그리고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은 주모자급은 전원이 개신교 교인들이었다.

이와같이 기독교 교회의 맥을 따라 경북지방의 방방곡곡으로 만세운동이 퍼져 나갔다. 교회 내부에서는 미국선교사의 독선과 방만에 반발하여 1923년 3월 18일 남성정교회의 李萬集 목사와 남산정교회의 朴永祚 목사가 주동이 되어 「대구 예수교회 자치선언」을 주창하고 선교사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이러한 자치선언이 고소를 통한 법정시비를 거쳐 실패로 끝났으나 여기에서 대구 기독교인의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경향과 역할을 살필 수 있다.

일제는 개신교를 말살할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만주사변 이후 탄압정책을 통하여 협조세력으로 변화시키려 하였다. 기독교의 유일신사상과 일제의 천황주의는 융화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기독교를 신사참배에 동참시켜 협조세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 후반기 신사참배가 강요되고 있을 때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려 일제에 협조하는 목사, 장로들에 의하여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는 변명으로 논리를 합리화 함으로써 대구의 기독교 세력도 일제에 협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에 반발하여 노선을 이탈하는 선교사측 계열과 교파가 분열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려파 장로교의 분파) 이러한 신사참배에의 협조는 천주교와 감리교도 같은 처지에 있었다.

대구지방에 두번째로 들어온 개신교는 救世軍(Salvation Army)이다. 구세군은 감리교 목사였던 부드(William Booth)에 의해 1865년 「그리스트교 전도회」로 발족되어 1878년 最惡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罪惡과 전쟁한다는 뜻으로 군대조직으로 편성한 교단이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908년 호가드(Robert Hoggard)에 의하여 비롯 되었으며 대구에서의 선교활동은 그 이듬해인 1909년 8월 2일 영국인 선교사 해롤드 까우(Harold Gow)가 來邱함으로 부터이다. 10년 4월에는 호가드 부인이 요일별로 대구와 칠곡을 오가며 예배와 성경을 지도하기도 하고 그해 세계선교자금으로 克己獻金을 대구지방에서 13환 19전을 모았다고 한다.

1911년에 대구출신 황종률이 한국인 최초의 사관이 되고 1929년 남산동에 地方營을, 1930

17) 《경북노회 100회사》 pp.65~76. 및 《대구시사》 제2권, 대구시, 1973, pp.486~488. 참조

년에 종로2가의 회관을 지을 만큼 교세도 확장되었다. 구세군은 군복차림으로 복치고 나팔을 부는 방법의 가두 전도활동을 펴 보수적인 대구 사회에 이질감을 느끼게도 하였으나¹⁸⁾ 이때부터 시작된 매년 세모의 「자선남비」는 대구에서도 명물로 등장하였다. 이것은 추위에 떨고 있는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하는 박애정신의 발로로서 구세군이 표방하고 있는 사회구제의 일부이며 대구의 개신교 전도사에 선구적 활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18) 《교회복음신문》, 1991년 8월 16일자 〈한국기독교사〉 참조.

